장편소설

세월에 지지 말아

안 동 춘

문학예술출판사
주체100(2011)

제 1 장

1

그 녀자에게는 특별한 매력이 있었다.

수배령장을 들고 찾아든 경찰들도 그 녀자의 광채어린 눈길과 마주치고는 얼이 빠져 굳어져버렸었다. …

《언제쯤이면 돌아올수 있을가요?》

《극상해서 한달이면 될거요.》

《한달?…》

그 녀자—순정은 추운듯 몸을 옹송그렸다.

《그때면 이 나무가 백발이 되겠군요. 하얀 눈을 소복이 쓰고 흰 수염을 날리며…》

《너무 걱정마오.》

《걱정이야… 저의 랑군님이 어떤분이라고.》

《암, 이제야 정상으로 되누만.》

성민은 호기를 보였으나 순정은 그를 외면하였다.

(어깨를 떨었던가, 아니,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그랬어.)

성민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차창밖의 부잇한 길과 조락의 황금빛 들판을 바라보았다.

멀리로는 고색의 도시가 어렴풋이 안겨왔다.

(다 왔구나.)

성민은 15년전에도 이 길을 밟았었다. 해방년의 가을, 그때 17살 청년이였던 성민은 중국의 려순, 목단강, 장춘, 광주를 거쳐 이 서울까지 왔었다, 그립고그리운 형님을 찾아.

(어떻게 맞아줄가, 첫말은 어떻게 떼며?)

성민은 이번에도 형을 찾아오고있었다.

남조선군 2성장성이며 《5.16군사혁명위원회》 위원인 형, 15년전에는 기쁜 상봉의 즐거움만이 앞섰다면 지금은 불안과 막연한 희망뿐이였다.

칙— 합승뻐스가 멎는 순간 정류소 표말옆에 세운 커다란 그림판을 보게 되였다.

—주의! 곁에 있는 빨갱이는 보통사람처럼 보인다—

주홍색얼굴에 괴상한 뿔이 돋친 사람이 비수를 들고 서있는 그림판이였다. 그 그림판옆에 서있던 사람들이 우줄우줄 뻐스에 올랐다.

대부분이 재건복들이였다.

진갈색 골덴잠바에 밑이 깡뚱하게 좁은 바지, 누가 퍼뜨렸는지 모를 이 재건복은 올해(1961년) 5.16군사정변후에 생겨난것으로서 국가재건에 성실함을 보여주는 의상으로 되여있다.

《아저씨!》

커다란 목판이 무릎에 부딪쳤다. 바께쯔모자라고 불리우는 미군작업모를 눈두덩까지 내리쓴 열한두살되는 소년이 애처로운 정상으로 그를 보고있었다.

《좀… 사주세요.》

트고 갈라진 손에 들린 목판에는 얄팍하게 구운 빵과 양담배갑들이 놓여있었다.

성민은 망설이다말고 목판채로 다 살수 있는 지폐를 꺼내들었다. 그가 《말보로》 한갑만을 집어들자 소년은 가늘게 한숨을 내쉬였다.

《좀더… 사주세요.》

《됐다. 거스름돈은 필요없으니 그냥 써라.》

차안의 시선들이 그들에게 모여졌다가 흩어졌다. 호부자들한테서 간혹 보게 되는 턱없는 인심으로 생각했을것이다.

《고마워요.》

소년은 머밋머밋 뻐스뒤켠으로 물러나고 성민이 다시 창밖으로 눈길을 주었을 때 낯익은 건물이 마주왔다.

국도극장, 그가 처음으로 서울에 왔을 때인 1946년 봄 형님과 형수로 된 옥영과 함께 와봤던 극장이였다.

성민은 세종로어방에서 내릴 계획이였으나 여기서 내렸다.

먼저 극장담벽의 소개판부터 보았다.

1946년에 왔을 때의 극장 담벽에는 —춘사 라운규의 고향 북관 회령의 쏘프라노가수 김은향독창회— 라는 간판이 걸려있었는데 지금에는 베일을 쓴 반라체의 녀인이 털부숭이사내의 가슴팍에 안겨있는 미국영화간판이 걸려있었다.

《아저씨, 이걸 받으세요.》

귀익은 목소리에 돌아보니 뻐스안에서 만난 소년이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

소년의 손바닥에는 신분증사진보다 조금 더 큰 사진이 있었다.

《그건 뭔데?》

《녀대생이예요. 병이 없구요… 진짜예요. 주소는 거기 적혀있어요.》

《아니 이건…》

《진짜라니까요. 병있는 녀자들도 있지만 난 아저씨껜 거짓말하지 않아요. … 인물도 뛰여나구요.》

극장 출입문쪽에 서있던 경관이 이쪽을 보는것을 알자 소년은 다람쥐처럼 사라져버렸다.

산발한 머리칼이 어깨를 가리우고있는 사진속의 처녀는 고작해야 스물한두살, 사진을 주고간 뜻을 음미한 성민은 허구픈 웃음을 웃었다. 하지만 소년의 미쁜 마음을 헤아려보게 되니 모든 일이 잘될듯 한 조짐처럼 느껴져 속이 너우룩해졌다.

그는 소년이 사라진쪽을 찾아보다가 간이매대식으로 오똑하게 솟은 공중전화소를 향해 걸어갔다. 전화소옆에는 색날은 중절모를 쓴 60대의 로인이 구두닦이궤짝을 깔고앉아 신문을 보고있었다. 방금 전화를 마치고 나오던 녀인이 그 로인에게 깍듯이 인사를 했다.

성민이 전화소에 들어가 전화번호안내를 찾으니 찍찍—하는 잡음만 울릴뿐 교환이 나오지 않았다. 신문을 보는가싶던 로인이 문을 두드렸다.

《왜 그러십니까?》

《예가 처음이시우?》

《네.》

성민의 말에 로인은 아무런 내색없이 가슴팍에서 얄팍한 책귀를 조금 내보였다.

《교환한테 묻기보담 이 전화번호책을 보는게 낫습지요. 100원만 내시우.》

《…》

《저기 경관한테 보이지 않게 하슈. 이것도 통제품장사와 같아서…》

모서리가 닳아진 얄팍한 전화번호책을 받아쥔 성민은 륙군본부교환번호를 인츰 찾아낼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송수화기를 다시 들었다.

목청고운 처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성민은 뚝뚝한 어조로 말을 걸었다.

《아가씨, 수골 하십니다. 나 지태민장군 집전화번호를 문의하고저 합니다.》

《지태민장군?!》

《네, ×지구사령관을 하는—》

《아, 알고있어요. 헌데 누구시죠?》

《명색은 친척인데 군수품조달관계차로 만나게 되여서—》

《군수품조달예요. 몹시 반갑네요. 잠간 기다려주세요.》

처녀는 1분도 안되여 전화번호를 알려주고는 군수품조달에 더 열심을 기울여달라는 부탁의 말까지 해왔다.

《고맙습니다. 일후 아가씨를 알게 되면 아가씨에게도 선사를 하지요.》

마음이 떴다. 다시 각전을 찾아 돈구멍에 밀어넣을 때 손이 후들거렸다. 천천히 번호판을 돌렸다.

(누가 받을가? 어떻게 나오고?…)

태민형은 부대병영에 가있을것이니 옥영이나 옥영의 어머니가 받을것이라고 넘짚었다. 그런데 찰칵 하고 돈떨어지는 소리에 이어 《네, 전화받습니다.》하고 울려나오는 목소리는 소중학교학생정도의 애티난 목소리였다. 처녀애였다. 흠칫하는 가슴떨림이 왔다. 첫째일가, 둘째일가. 형님과 옥영이의 결혼식이 46년 7월에 있었으니 47년도든가 48년도에 태여난 딸일것이다.

《거기 지태민장군의 댁이 맞느냐?》

《네, 그래요. 어데신가요?》
상냥하면서도 오돌찬 물음이다. 성민은 뒤덜미를 쓸어만지며 웃었다.
《난 마산에서 사는 지장군의 친척인데.》
《친척?!… 처음 듣는 소린데요.》
《처음이라?!… 건 그렇지. 어머니를 바꾸거라.》
《어머니는 안계세요.》
《그럼 현숙할머님은…》
《아이, 할머님도 여긴 안계세요.》
《허, 난사로구나. 그럼 너의 집주소나 알려주렴.》
《호호, 저의 할머니까지 아시는분이 우리 집 주소도 모르세요?…》
《그렇게 됐다, 덜퉁한 친척이니까.》
《덜퉁한 친척?! 아이참, 멋진 말씀이네.》
처녀애는 호들갑스럽게 웃고는 집주소는 물론 찾아올 길까지 자상히 대주었다. 깜찍스럽게 생겼을 조카애. 전화소를 나서며 그 애한테 뭔가 사들고 가야 하지 않을가 생각다가 그냥 걸었다.
배낭속에 송이버섯이 있으니 인사불성은 아닐것이였다. 예까지 오면서 그 송이버섯이 물크러질가봐 무척 신경을 썼다.
송이버섯이라면 태민형도 옥영형수도 사족을 못썼다. 그러니 송이버섯구경을 못했을 조카애는 더욱 그럴것이고…
시가중심은 전쟁전이나 전쟁시기와 크게 달라진것이 없었다. 다만 예전의 양옥들과 기와집들사이에 이른바 현대문명의 산아인 비닐로 된 집들이 닥지닥지 들어앉은것이 새로왔다. 세종로울타리 뒤골목으로 들어서 찾고찾던 번지문패를 확인한 성민은 한동안 가쁜숨을 몰아쉬며 못박힌듯 서있었다.
집은 1946년도에 찾아왔을 때와 같은 2층양옥의 벽돌집이였다. 현관문 좌우에는 자그마한 원형창문이 있고 그우 2층방 창문들엔 밤색 창가림이 처져있었다.
(어떻게 소개말을 한다?!…)
뒤설레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가볍게 현관문을 두드렸다.
계단을 울리는 발구름소리, 문이 삐써 열렸다.
머루알같이 까만 눈동자가 내다보는가싶더니 인차 사라졌다.

《그 사람같애요.》

나직한 목소리에 이어 거쿨진 체격의 사내가 문을 열어제꼈다. 보위색군복, 다부진 어깨팍에는 상사의 계급장이 붙어있었다. 경계감어린 눈길이 성민의 아래우를 훑었다.

《누구를 찾으시는지요?》

체격과 거동에 비해 말씨는 숙부드러웠다.

《지태민씨를 찾아왔습니다.》

《마산에서 오신다는…》

《네, 그렇습니다.》

머루알같은 눈이 전모를 드러냈다. 쎄라복, 고등녀학교 학생복차림이였다.

《좀전에 전화를 건 사람인데 이 댁과는 친척되는 사이입니다.》

《그런가요.》

상사는 그닥 미덥지 않아하는 기색이였다. 처녀애 역시 말똥히 보기만 할뿐 전화할 때 그려본것과는 판달리 랭랭한 인상이였다.

노여움이 치밀어올랐다.

《이거 허행에 불청객이군.》

이 말이 은을 냈다. 상사는 당황한 기색으로 처녀애를 얼핏 보고는 서둘러 입을 열었다.

《잘 모르고 오신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에 안계십니다. 지장군도 부인도 다들 부대본부에 나가있습지요.》

《그럼 현숙어머님은 어데 계십니까?》

《장모님도 아십니까?》

《친척이 친척을 모르면 되겠소. 넌 수신과목을 잘못 배웠구나.》

처녀애에게 눈총을 쏘았다.

《이 앨 탓할 일은 못됩니다. 이 집은 제가 보다나니… 장모님을 만나겠습니까?》

《거야 더 말할것 있소.》

《가시자요.》

처녀애가 냉큼 튀여나왔다. 중발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성민을 보는척도 않고 총총걸음을 놓았다. 수신과목을 잘못 배웠다는 소리가 되게 속을 긁어놓은것 같았다.

《너 이름이 뭐지?》

성민이의 물음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토라진 소리를 총알처럼 내뱉았다.

《친척이 친척이름을 몰라서야 되겠나요?》

성민은 웃음을 터뜨렸다.

《네 말이 옳다. 하지만 친척을 친척답게 대해주지 않는것은 뭐라고 하지?》

처녀애가 오똑 걸음을 멈추었다. 돌아보는 눈에 웃음이 바글바글 끓었다.

《비기자요. 제 이름은 경자라고 해요.》

놀랍게도 불쑥 손을 내미는것이였다.

《경자?! 경은 고을 경이냐?》

《그래요.》

《음, 좋은 이름이구나.》

경성의 경도 고을 경이다. 분명 그곳에서 생긴 딸이라는것으로 이름을 경자라고 지은것 같았다.

보폭을 넓게 하며 한가락 엮었다.

《이름자는 생겨난 곳을 땄고 위엄은 아버지를, 생김은 어머니를 닮았구나.》

《아이, 멋져라. 풍월까지 하시네.》

《한데 눈만은 아버지, 어머니 반반이다.》

성민의 웃음진 말에 경자는 손벽까지 찰싹 치며 까르르 웃음을 터쳤다.

《신통해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어리광치듯 하며 성민의 팔굽까지 껴잡았다. 어릴 때의 옥영이 그대로였다. 눈만이 조금 다를뿐이였다. 옥영이의 눈은 약간 가느스름한것으로 이전시기 흔히 보게 되던 조선미인화의 전형적인 눈이였다면 경자의 눈은 휘동그란 쌍까풀눈이였다.

《아저씨.》

《왜 그러니?》

《아저씬 정말 멋져요.》

《멋지다?》

《그래요. 아저씨가 저의 친척만 아니라면 내가 홀딱 반하고말았겠어요.》

《어이구 맙시사.》

《정말이예요.》

《거짓부리. 아깐… 장님 코끼리보듯 하던데.》

《건 미안했어요. 저두 대뜸 친척이란건 알아봤지만 유전학을 따져보느라 인사가 늦었어요.》

《유전학이라니－》

《멘델의 유전법칙을 모르세요? 아저씨와 우리 아빠의 생김새가 비슷한걸로 몇촌, 몇대의 친척일가 연구해본것이지요.》

《그래 몇촌쯤 될것 같니?》

《그건 아직 답을 얻지 못했어요.》

수집게 지켜보는 눈길에 가슴이 찔렸다.

(내가 너의 삼촌이란다.)

그를 꾹 껴안아주고싶었다. 하지만 아직은 이른것이였다.

《그럼 그건 너의 연구숙제로 남기려무나. 정 풀지 못하겠으면 외할머님한테 묻던가.》

《꽤나 비싸군요.》

경자는 가볍게 눈을 흘기고 키높은 담장을 두른 양철집앞의 대문앞에 가섰다.

《다 왔어요.》 구리장식못이 드문드문 박힌 대문을 살며시 열고난 경자는 문꼭대기의 딸랑종을 꼭 잡아쥐며 방긋 웃어보였다.

《왜 문을 잠가놓고있지 않니?》

《낮에만 안 걸어요. 할머니한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으니까요.》

유리미닫이문 안쪽의 널마루에 굽높은 구두며 흰코고무신들이 여러개 놓여있었다.

《얘, 조용히 찾거라.》

《뭣때메요?》

《깜짝 놀라게 하자는거다. 그저 손님이 왔다고 하면서…》

《아이, 의뭉한 아저씨네.》

경자는 말과는 달리 미닫이문마저 소리없이 열어놓고 쥐잡는 고양이걸음으로 마루에 올라섰다.

(어떻게 맞아줄가?)
목단강의 녀걸, 가게방 점주로서 일본인잡상들도 혀를 두를 정도로 물품을 사고팔고 하는데서 요령과 수단을 펼쳐보였던 형수의 어머니는 돈벌이에 그악스러운 대신 풍성스러운 인심과 대틀로 소문이 나있었다.
문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쥐색공단치마저고리에 호박색양털등거리를 걸친 녀인이 미닫이문앞에 이르렀다가 굳어졌다.
《어머니, 그새 안녕하셨습니까?》
성민의 인사에 목단강녀걸의 얼굴은 납빛으로 변했다. 옥색반지를 낀 손에서 화투장이 떨어져내렸다.
《절 모르겠습니까?》
《으음.》
녀걸의 입에서는 신음같은 소리가 새여나왔다.
《얘, 내 좀 있다 들어간다고 해라. 너도 거기 가있고.》 경자에게 한마디 이르고난 녀걸은 버선발로 내려섰다.
《그러지 마십시오.》
녀걸의 손을 황급히 잡으니 얼음같이 차거운 손이 신장대 떨듯 화들화들 떨었다.
《임잔 어데서 오나? 여기서 사는것은 아닐테지.》
《네, 그래서 이처럼 늦게야 찾아뵙게 되였습니다.》
《에구, 간덩이도 크지. 절루 가세.》
들어간 곳은 너렁청한 부엌이였다.
《그래 집안 제절 다 무고하신가?》
녀걸은 이때야 인사를 차렸다. 성민이 집안소식을 대충 말하자 목단강녀걸은 꺼지게 한숨을 내쉬였다.
《큰일일세.》
《큰일이라니요?》
《자넨 지금 여기가 어떤지 통 모르는것 같구만. 엊그제까지 활개치던 장관이요, 뭐요 하던 사람들도 쩍하면 잡혀들어가는 판에… 임잔 빨갱일테지.》
《글쎄 여기선 빨갱이라고 한다더군요. 하지만 저때문에 페가 될 일은 없을겁니다.》

《그랬음 오죽 좋겠냐마는… 한데 여긴 어떻게 왔나?》

성민은 짤막히 말했다. 형님을 만나고 인차 돌아가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목단강녀걸의 얼굴이 밝아졌다.

《내가 망녕이로군. 점심은 자셨나?》

《네.》

《자네 내가 푸대접한다고 원망이 클테지?》

《원망까지야… 하긴 부엌대접을 받으니 좀 별나긴 합니다.》

《내 다 생각이 있어 그런거네. 임자 도청기라는걸 아나?》

《압니다.》

《옥영이네 집에도 그렇지만 우리 집에도 그런게 매달려있다고 하네. 그래서… 이렇게 인사불성이야. 임자 아버지랑 어머니랑 알면 얼마나 섭섭해하랴마는.》

목단강녀걸의 눈굽이 불깃하게 달아올랐다.

성민이도 가슴굽이 찡해들었다. 인정은 예나 다름없건만 세월이 인정에 포승을 지워놓은것이다.

《그러니 이 집도 감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경자 애비가 늘 하는 당부가 그거네. 사람 대면도 봐가며 하구 일체 옛날일을 말하지 말라는 신칙도 있네. 정치는 더 말할것도 없구… 경자 애비같은 사람들은 일언일행이 첫날색시 한가지지.》

《제 알기엔 형님이 여간만 신임을 받지 않는다던데요.》

《그렇게 될려니 오죽했겠는가. 이런 말은 후날 하기루 하고 내가 찾을 때까지 자네네 5촌벌이던가 지응석이 그 사람 집에 가있으라구.》

《아니, 그 아주바이도 여기서 삽니까?》

《그렇네. 여기서 15분가량 가면 되네. 철물점을 차려놓고있는데 임자 형님덕을 크게 보았지. 게 가있으면 등탈 없을걸세. 여긴 눈이 번자자해서.》

그리고는 손목에 찬 구식은테시계를 내려다보았다. 빨리 떠나라는 신호같았다.

《그럼 다시 뵙겠습니다.》

《성민이, 날 나쁜 로친네라구 탓하지 말라구.》

《시국이 시국이니 어쩌겠습니까.》

성민은 추연히 웃으며 한마디 덧붙였다.

《만약 래일까지 기별이 없으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민은 누구의 바래움도 없이 대문밖을 나섰다. 경자라도 다시 보았으면 했으나 그 역시 얼굴도 나타내지 않았다.

성민이가 찾아가게 된 응석이라는 사람은 집안족보책의 이름자에 네모꼴먹테가 둘러쳐진 사람이였다.

네모꼴먹테란 흔히 죽은 사람에 대한 표식이지만 족보책의 네모꼴먹테는 나라의 역신이거나 패륜아로 지탄받는 경우 가문에서 제명한다는 표식이였다.

지응석의 이름자에 네모꼴먹테를 친것은 성민이 할아버지였는데 그리유란 지응석이 도박과 싸움질에만 미쳐난 건달군이라는데서였다.

실지 그는 어른싸움이건 동리싸움이건 삐치지 않는데가 없었고 도박이라 하면 수백리까지 다 쫓아가는 사람이였다.

이로 하여 동네방네 뒤말이 심했고 집안살림도 엉망이였다.

그런데 그에게는 딱 한가지 장기가 있었으니 조상묘찾기와 제사때마다 발휘하군 하는 지극한 효도였다.

물론 가문의 어른들로서는 부정한 그의 행실과 추문때문에 더없이 숭엄한 좌석인 선산찾기와 제사에 그가 오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았고 또 찾을념도 하지 않았지만 수백리밖의 타곳에 갔다가도 그런 날이면 잊지 않고 오군 했다. 다들 이마살을 찌프리게 하는 일이였으나 찾아온 사람을 굳이 쫓아보낼수는 없었다. 그대신 반렬에 세워놓고 술잔붓기도 맨 마지막에 하게 했다. 그때가 가관이였다.

제상이나 묘석앞에까지 무릎걸음으로 기여가서는 잔을 치기 바쁘게 꺼이꺼이 통곡을 하며 일장설화를 늘어놓는데 그간의 잘못된 일들이 자상히 렬거되였고 불효막심한 자기를 부디 용서해주십사하는 말들이 물쏟아지듯 흘러나왔다. 그 일은 되박이마를 묘돌이나 바닥에 마구 짓쫏는것으로 끝나군 했다. 그럴 때면 마음 여린 녀인들은 물론 사당방(위패를 모시는 곳)신장같던 어른들의 눈에도 물기가 그렁하니 고여오르군 했다. …

닥지닥지 들어앉은 판자집들속에서 지응석의 집은 울짱까지 쳐있었고 양철판을 덧대인 대문엔 《고철, 파지, 페품 다 받습니다.》라는 흰 뼁끼글이 이채로왔다.

성민이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지응석은 비행기철판을 짓조기고있었다. 몇번의 망치질에 넙죽하던 철판이 둥그런 쇠덩이로 뭉쳐졌다.

《무얼 가져왔수?》

성민을 의아히 보며 한쪽알이 깨진 안경알을 치켜올리던 그의 손에서 망치가 떨어졌다.

《아니, 이게 누군가?》

우루루 몸을 떨고난 그는 제잡담 성민을 그러안았다. 눈굽이 질척해졌다. 꺽꺽 막히는 소리로 어데서 왔느냐, 어떻게 왔고 하며 중언부언 묻고난 그는 기쁨을 금치 못하겠다는 자세로 탄성을 질렀다.

《내 입대껏 너를 보러 산것 같구나.》

옥영의 어머니와는 판 달랐다. 그때 공교롭게도 련탄장수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들었다.

《지상! 있수!》

대문을 삐써 열며 들어서는 그를 보자 그때까지 날고뛸듯 기뻐하던 지응석의 얼굴이 쇠꼬치로 변했다. 의례히 있을상싶은 인사대답은 커녕 대바람에 역증을 냈다.

《넌 또 왜 와서 까치행세냐. 그만큼 말해줬으면 됐지. 그래 불쪽을 뽑아야 떠나갈테냐?》

《아, 무슨 말씀 그리 험하시우. 내돈 달라는거지 생돈 먹자는거요?》

《저런 종개입 봤나. 덜도 보태지도 않고 딱 맞춰줬는데 계속 생주정이냐. 정 그러면 어디 들어와 보거라. 여기 구청 감독관어른두 오셨는데 회계를 해보자, 회계를. 그저 틀리는 날에는 네 집 재산까지 란탕칠줄 알아라.》

성민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자기를 번히 세워둔채 돈싸움을 벌리는 것도 놀랍지만 자기를 구청 감독관어른으로 둔갑시켜놓는것이 아연실색할 일이였다.

이미전부터 성민의 기골찬 모습을 흘끔흘끔 살피던 족제비상의 련탄장수는 구청 감독관이라는 말에 기가 눌렸는지 손을 홰홰 내저었다.

《그만하시우. 원, 이웃간에 제가 밑지겠수다. 하지만 너무 젠체 하지는 마시우.》

《그래, 일찍 그래야지. 잘 가라구.》

지응석은 비죽이 웃으며 널대문을 닫고는 성민에게 한눈을 찡긋해 보였다.

《저런 역귀(여우)새끼들한테는 우격다짐이 약일세.》

널대문에 빗장을 지르고난 지응석은 손바닥만 한 널쪽을 밀어제친 다음 바깥문걸개에 왕자물쇠까지 채우고 돌아섰다. 성민의 눈길이 도로 맞춰놓는 널쪽에 닿은것을 보고 못내 장한 웃음을 지었다.

《이젠 누가 와도 집엔 사람이 없는걸로 알걸세.》

《신통하군요.》

《신통하다마다. 도박군 수삼년에 얻어진 경험이지. 방에 들어가자구.》

십수년만에 처음 만나는 사람같지 않게 흔연한 태도였다.

성민은 련탄장수가 사라진쪽을 은근히 눈춰살폈다.

《걱정할것 없어, 돈밖에 모르는 녀석이니까.》

《한데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다 같이 어렵게 사는 처지에—》

《어렵게 산다구?!… 그 녀석은 이 꽁다리동네의 1등가는 그랑데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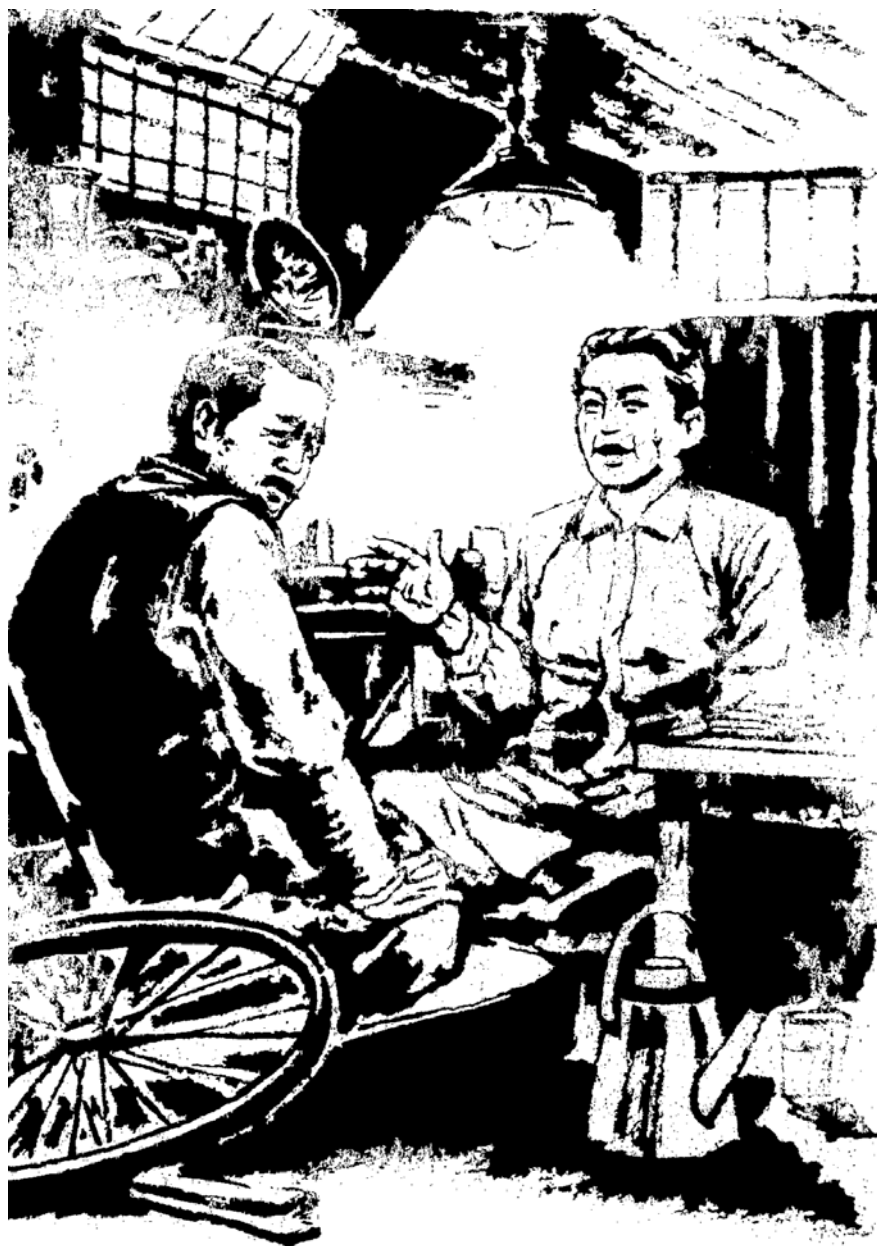
《허, 아주바인 그동안 소설공부까지 하셨군요.》

《어쩌겠나. 자본주의에서 살자니 자본주의를 연구한거지. 여기선 돈 한푼 받는것부터 지키는것까지 제갈량이 되지 않구선 못사네. 자넨 38따라지란 소릴 들었나?》

바깥대문의 왕자물쇠 못지 않게 커다란 쇠가 잠긴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내와 뭐라 표현할수 없는 잡스러운 냄새가 물씬 풍겼다. 머리더수기에 와닿을듯이 길게 뻗쳐내린 전구꼭지를 잡아비틀자 방이 환해졌다. 고품수매창고 같았다. 마사진 자동차기관으로부터 미군의 잠주머니에 이르기까지 별의별 잡동사니들이 가득 널려있었다.

《여기가 내 비품창고이구 성민이랑 생각날 때면 실컷 눈물을 쥐여짜는 곳일세.》

노랗게 말라비틀어진 몽당수염을 내리쓰는 지응석의 눈에는 방금전까지의 왈패스럽던 빛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처량한 빛만이 차넘쳐있었다. 바싹 메마른 볼엔 얼기설기 주름이 무늬를 이루었는데 되박이마의 반들반들하던 흉터까지 쪼글쪼글 오그라들어있었다.

《게 앉으라구. 여긴 청결검사를 하는 경관들두 걸만 보구 돌아서

는 방일세.》

지응석은 앉은뱅이책상곁에 놓인 승용차용의 헌 가죽방석을 밀어놓으며 미군잠주머니에 털썩 물앉았다.

《그래 여긴 어떻게 왔나?》

《한데 다들 어데 갔습니까?》

《에미는 콩나물장사를 하구, 예 와서 번 막냉이녀석은 중학교엘 들어가겠다구 제딴의 벌이를 나갔어.》

《저… 다른 애들은?》

《없네. 여기 온 첫해에 그놈의 코레란지 뭔지에 걸려 다들 승천했지.》

《그랬댔군요.》

《뭐 그저 다 팔자지. 생각하믄 이 애비를 잘못 만난탓이긴 하지만…》

《정말 안됐습니다.》

《이젠 일없어. 하루 삼식도 번지지 않구. 자네의 태민형의 덕이 컸지. 이 집두, 철물점두 다 그가 아니믄사 될탁 있나. 이 동리에선 지금 내가 왕땅일세. 처음엔 38따라지라구 업신여기던 터세박이들도 태민이가 내 친척이란걸 안 다음부턴 절절 기지. 군사정권이 선 다음부터는 동장이구 경관이구 죄다 내앞에선 료리점기생년들처럼 꼬리를 치구. 그래 태민일 만나러 왔겠지, 여기 와 살자는건 아닐테고.》

《네, 형님도 만나구 또 아주바이랑 다들 만나뵙자구 왔습니다.》

《허허 나까지… 자네 보기가 미안하구만.》

《헌데 태민형은 언제 찾았습니까?》

성민은 쓰린 마음을 누르며 물었다.

《그건 내가 쓰레기장사를 시작할 때니 54년도 봄일게다. 청결통을 뒤지다가 봤던지 파지묶음안에서 태민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보게 되였던거야. 령관 별을 네쪽이나 붙였지만 태민의 모색이야 어데 가겠니. 글을 볼라니 태민이가 보통인물이 아니더라. 〈미국최고훈장수훈자, 그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제목밑에 죽 내리썼는데 과시 우리 혈통에 어긋남이 없더라.

왜 그러니?》

《우리 혈통이라는게 무슨 소립니까?》

《허허, 그렇지. 너야 지금두 로동당원일테지. 대학엘 다니다가 군대에 나갔다는것까지는 알고있다. 한데 내 말을 오해 말어라. 난 너의 형님이 인민군대와 싸운때문에가 아니라 〈용인과감〉하구 〈지략이 출중〉했다는 글에 혹했던거다. 그건 우리 조상대대의 래력에서 나온게 아니겠나.》

지응석은 또 한번 몽당수염을 비틀어쓸고는 자기 역시 용인과감한 사람이라는듯 얄팍한 어깨를 뒤로 젖혔다.

《사실 난 일찍부터 태민이가 큰일을 할 사람이란걸 알았다, 너두 그렇구. 참, 생각나니? 내가 널 도박판에 데리고다닌걸?》

《기억됩니다.》

《큰일을 하자면 그런것두 다 알아야 했기때문이다. 하긴 그때문에 너의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 회초리찜질은 당했다만.》

《태민형은 어떤 공로루 미국놈들의 훈장까지 받게 되였답니까?》

《응, 그걸루 말하면 인민군대를 친 일은 아니다. 쌈이 끝나는 해인 53년 5월에 있은 일인데 중국군대를 무섭게 짓조졌더구나. 책에는 너의 태민이만 아니면 전략적요충인 그 고지를 뺏길번 했다는게다.》

《책은 또 무슨 책입니까?》

《아 그렇지, 잠간 기다려라.》

지응석은 예순고개에 오른 사람같지 않게 벌떡 일어나 나가더니 목침같이 두꺼운 책을 들고 다시 나타났다.

《이런건 못 봤을테지. 여기에 태민이의 전공이 밝혀져있다.》

노란 금지로 테를 친 웅근 반페지 넘는 대목을 펼쳐보이는 지응석의 눈에는 살가운 웃음이 떠돌았다.

《그건 치우십시오.》

《한국전쟁사》였다.

《허, 네 기분은 알만 하다만 어쩌겠니. 내가 이 책의 덕을 크게 보았다. 38따라지라구 업신여기는 잡것들이 세금이요, 뭐요 하고 들이닥칠 때면 이걸 내보이군 했지.》

《아주바이한텐 저희를 반대해 대공을 세운것이 그렇게 장해보입니까?》

《얘, 그런 말은 삼가거라. 새두 제가 난 고향을 못 잊는다는데 내가 왜 너희를 반대하는 편에 서겠니. 여기서는 태민이두 마찬가지다.》

《그건 무슨 소립니까?》

《꼭 들어야만 되겠니?》

《들어야겠습니다.》

《그럼 말하자. 나두 그렇구 태민이도 그렇구 진짜마음은 너희한테, 이북에 쏠려있다.》

《아주바이, 그게 사실입니까?》

《글쎄, 거야 앞으로 좀더 두고볼 일이지만 큰걸 노리는 사람들한텐 십분 있을수 있는 일이 아니겠니. 여느 평백성이라 해도 그렇지. 배군들을 봐라, 바람통세에 따라 외로 갈 때도 있지만 제가 노린 곳을 기어이 가고마는걸. 나로 말해도 빌어먹을, 자칫 실수로 이곳에 왔다만 옛날 농조운동때부터 혁명자로 나섰던 내가 그래 여기 이남편에 붙어있을상싶으냐.》

《한데 아주바인 어떻게 돼서 여길 왔습니까?》

《그걸 다 말하자면 길다. 후퇴때 그만 머리가 돌았댔지. 너두 알겠지만 내가 소비조합창고일을 볼 때 얼마나 받들리웠니. 남들이 구해오지 못하는것도 죄다 물어들이구. 한데 그놈의 물건짝에 환장이 됐지. 다들 바삐 후퇴하는통에 창고안의 물건들은 고스란히 남았구나. 면에서는 태워버리라고 했다만 그걸 태운다는게 말이 되니. 그래서 집에 가져다가 장쳐놓았다. 후퇴가 끝나 다들 되돌아오면 자, 되박이마지응석이 나라물건을 이렇게 지켰수다 하고 뽐내보려구. 한데 될턱 있니. 〈치안대〉라는 잡것들이 쓸어들더구나. 노나먹자는거지. 개중에는 도박판에서 사귄 친구들도 있었지만 다들 공짜라면 쇠붙이도 삼킬 녀석들이라 인정사정 없었지. 물건짝을 내놓지 않으면 총알을 박아넣겠다는거야. 어쩌겠니. 이놈, 저놈 안겨주고… 술상을 채리고… 제길, 인민군대가 재진공할 때도 그 모양이였구나. 몇가지 물건짝을 지키자구 술상을 차리고 곤드레만드레 있는데 친구란것들이 밀려들더구나. 지하실에 감춘 물건짝까지 다 들추며 이남으로 나가야 한다는거야, 가지 않으면 저들 손에 깜장콩알을 먹든가 미국사람들의 원자탄에 재가루가 된다고 하면서. 그 말에 그만… 머리가 돌았구나. 〈치안대〉라는것들과 섭쓸린것두 죄가 될건 분명한거구.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당장은 목숨부터 살려야겠다 하고 남은 물건짝을 꿍져가지고 배에 올랐던게다. 마침 우리 고장에 와있던 국군중대장이라는 량반이 왜정때 도박친구여서 그의 도움을 받았다.》

《그 물건짝으로 잘살았겠군요.》

성민은 터지는 울화를 참을수 없었다. 지응석은 무안한 기색이였다. 입을 쩝 다시고는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나두 떠날 땐 그렇게 생각했다. 한데 그놈의 국군중대장과 헤여진 다음엔 오라질 경찰이요, 군대요, 뭐요 하는 잡것들이 달려들어서 이불짐 하나 내놓고 죄다 털리웠구나. 그뒤 고생을 말로 다하자면 장밤 열이라도 다 못할것이다. 참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다들 잘있니? 내가 제 말만 제 말이라구 인사가 늦었구나.》

《안계십니다.》

《안계시다니?》

지응석의 눈이 사발만 해졌다. 성민은 침통하게 그를 보다가 말을 뗴였다.

《어머님은 전쟁때 폭격에 잘못되셨구 아버님은 바로 형이랑 아주바이와 같은이들때문에 심화를 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때문에?》

《그렇습니다.》

《에구, 여기서 하는 말이 옳은 소리였구나.》

지응석은 풀썩 잦아드는 형용이였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뭘 에돌것 있나. 월남한 사람의 가족, 친척들을 죄다 촌으로 쫓아보낸다면서, 너야 군대까지 나갔다왔으니 면죄를 당했을거구.》

《아버지는 도인민위원회 대의원으로 력사박물관 부관장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뇌암으로 치료를 받다가… 아버지는 떠나가시는 순간에도 형님이랑 아주바이랑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문의, 나라의 수치라고.》

성민은 목이 꺽 메였다.

고개를 짓숙이고있는 지응석의 측은한 모습이 마음을 다잡게 했다.

《지금 고향에서는 아주바이의 도박판 친구들까지 다수확모범농민으로, 로력혁신자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습니다. 한데 아

주바인 도대체 뭡니까.》
《그래, 나도 그런 소문은 좀 들었다. 다들 행복히 맘편히 산다는 말도 들었구.》
《정말 분합니다. 난 그래도 아주바이한테 나라위한 마음만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성삐라사건때 왜놈들과의 대들이판싸움에서 아주바이가 순사 두놈을 메꼰지는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바이가 싸움을 좋아해서 그런다지만 전 애국심이라고 보았습니다. 태민형님의 결혼식때도 그랬지요. 모든 사람들이 잘사는 세상이 왔다고 춤까지 추지 않았습니까. 그래 우리 공화국이 아주바이한테 섭섭하게 한것이 뭣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도박을 못하게 한것이지요. 하지만 그 덕에 호부자살림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면목이 없다. 난두 그때를 생각하면 장밤 눈물로 새운다.》
지응석은 축축히 젖은 눈을 팔소매로 훔쳐 닦았다.
《이젠 가슴아픈 꾸중은 그만하거라. 그래 아버님의 묘는 어데다 썼니?》
《고향 선산에 모셨습니다.》
《아니, 그게 그냥 남아있단 말이냐?》
《남아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그게 정말이냐? 예서 하는 말로는 지주집안 조상묘들은 뿌리채 헐어버린다던데-》
《아주바이는 그것도 말이라고 듣습니까. 그건 악선전입니다.》
《악선전?… 하긴 채 믿어지지 않았다만. 어휴, 내가 미쳤어, 미쳤지. 형-님!》
지응석은 갑자기 목깃을 틀어잡더니 황소영각같은 울음을 터쳤다. 성민을 등지며 북쪽으로 돌아앉고는 두손을 합장하며 머리를 방바닥에 짓쪼았다.
《이 못난 놈을 용서해주시우. 평생의 은혜를 언제 한번 꼭 갚자구 예 와서두 푼전을 모았는데 먼저 가시다니요.》
사설이 길었다.
《제상을 차려야겠지.》
눈굽을 뻑 훔치며 고개를 든 지응석은 옛날 선산묘석에 꿇어앉을 때와 같이 엄숙하면서도 애절한 표정이였다.

성민은 한숨이 나왔다.

《그만두십시오.》

《하긴 지금은 낮이니까 로친네랑 온 다음 하자. 집에 로친네두 늘 네 아버님 소리였다. 늬 아버님만 아니면 우리는 몇십년전에 상거지가 되여 어느 다리밑에서 썩어졌을게다.》

그것은 사실이였다. 지응석의 도박빚은 거의나 아버지가 물어주었고 거덜난 살림보탬도 아버지가 해주었다.

《이보게, 잠간 역사를 합세.》

지응석은 느닷없이 일어서더니 반짇고리에서 한장의 종이와 만년필을 꺼내들었다.

《그건 뭡니까?》

《별거 아닐세. 여기에 몇자 적고 지장을 찍으라는거야.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나. 북에서 온 사람들은 죄다 빨갱이간첩으로 몰아치우는 판에 가짜긴 하지만 자수서를 미리 써놓자는거야. 그래야 어떤 놈팽이든지 냄새를 맡고 찾아들더라도 자, 난 이제 찾아갈려던 참이올시다 하면 만사 오케이거던.》

성민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아주바이, 차라리 나를 고발하는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집에 〈빨갱이〉가 와있다고.》

《아— 아니, 이 무슨 소릴…》

지응석의 낯이 까맣게 죽어들었다. 성민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나꾸챘다.

갈가리 찢겨진 종이쪼각들을 멍하니 보던 지응석은 불시에 성민의 손을 와락 그러잡았다.

《이 사람아, 난 임자넬, 자네 아버님을 봐서 더욱 그런거야. 아버님이 가셨는데 자네까지 잘못되면 내가 자네 선친과 조상들을 무슨 낯으로 보겠나.》

성민은 숨이 막혔다.

눈물코물을 훔치며 종이쪼각을 줏고있는 지응석의 가긍한 정상에 분기를 눌렀다.

《태민형이 군대에 끌려간건 언제랍니까?》

《엉, 그거… 국군이 락동강너머까지 밀려갔을 때라구 해. 한데 그

에 대해선 말하길 싫어하니 더이상 듣지 못했어.》
50년 9월?!… 약간한 안도감에 큰숨을 내쉬였다. 그땐 남조선에서 로약자와 소년들한테까지 강제로 총을 메울 때였다.
(그래, 강제징집령으로 어쩔수없이 끌려들었을것이다.)
《아주바이, 게 좀 앉으십시오.》
《자넨 날 원쑤취급하자는건 아니겠지.》
《허허, 저를 어찌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긴 괜히 해보는 소리지. 임자야 소시적부터 마음이 착하기가 비단결이였어.》
《아주바이, 제 처사는 마음씨라기보다 공화국정책이 이렇기때문입니다.》
《그래, 공화국정책이야 정말 좋았지. 이건 나처럼 머저리짓을 해서 온 사람들 거개가 하는 소리야.》
《형님은 어떻습니까?》
성민의 눈빛이 반짝이는것을 본 응석은 안심어린 기색으로 머리를 끄덕였다.
《그도 같다고 봐야지. 그런 얘긴 못해봤네만 내 눈이야 못 속이지. 아까두 말한것처럼 그 사람 마음은 자네들한테 가있어. 혹시 자넨 그 사람과 회계를 보자고 온것은 아니겠지. 국군 장성이니 공화국에서야 첫째가는 원쑤로 볼것 아닌가.》
《그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럼 자넨 그와 진짜 해보자고 왔다는것인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성민의 말에 응석은 펄쩍 뛰는 시늉을 했다.
《그럼 못쓰네, 못써. 자네야 어릴적부터 형을 끔찍이 따르지 않았나. 태민이도 자네라면 오금을 못썼고…》
《아주바이.》
성민은 가슴이 찌르르해졌다.
《사실 제가 온것도 바로 그 정때문입니다. 영영 남남이 될것 같고 원쑤지간처럼 될가봐 온것입니다.》
《암, 그래야지. 성민이가 누구라고—》
지응석의 얼굴에 함박웃음이 피여올랐다.

성민은 태민을 만나지 못할수도 있다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며 말을 이었다.

《아주바이가 우리 가문래력을 말씀하시니 하는 소리입니다만 전 그전처럼 친척간의 정분을 살리자고 온것입니다.》

《그럼 해방직후처럼 그 사람을 북에 가게 하자는건가?》

《허허, 북남이 갈라진 속에서 어찌 그리로 가며 제가 가자고 한들 형님이 들을상싶습니까.

제가 바라는건 형님이 더이상 미국놈의 총대잡이가 되지 말고 인간된 도리를 지켜달라는것입니다. 그리고 적으나마 통일을 위해서 힘써주고… 그 통일이란 우선 우리 친척들부터 정을 살려 마음과 손을 맞잡는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아주바이도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지응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심한 눈길로 성민을 보다가 입을 열었다.

《난 일찍부터 자네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 될줄 알았네. 훌륭한 말이야. 암, 훌륭하구 말구. 통일을 하려면 정을 살리구 마음을 합쳐야 한다. 옳지, 옳구말구. 가까운 친척들부터 온 나라 사람모두가 그렇게 되면 통일은 될거야. 나야 이젠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페물이지만 태민이야 다르지. 큰일을 칠수 있어. 사람두 돼먹었구, 인정있구 의젓하고… 하긴 거야 우리 가문모두가 그렇지. 하나같이 어질구 의좋구 화목하구—》

지응석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한무릎 더 가까이 친절히 마주앉았다.

2

하나같이 의좋구 화목하구… 그랬다.

언제부터였던가. 멀리로는 《한일합방》 직후부터, 가까이로는 1930년대초부터 가문의 조락과 붕괴가 시작되였고 제 뿔뿔이의 흩어짐이 생겼다.

누구는 생활고때문에, 누구는 사상때문에…

이렇게 볼 때 지응석은 어느쪽이라고 해야 할것인가.

지응석 역시 성민이네와 같은 량반지체의 족벌이였으나 일제의 《토지조사령》(토지수탈정책)때 대폭 땅을 떼운것으로 일찌기 빈농가로 굴러떨어지고말았다. 지응석이 도박쟁이로 된것도 실은 그때문에 생겨난 울화라고 해야 할것이다. 결국 그의 한생에서 가장 행복스러운 시절은 공화국품속에서의 5년간이였다. 그러나 그는 그 품을 떠났다. 이에 대해 지응석은 《치안대》요, 물건짝이요, 원자탄바람이라고 하지만 실지로는 그의 인간됨의 부족때문일것이였다.

그렇다면 태민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세종대왕의 충신이였다는 중시조 할아버지의 직계후손인 성민이네 집안은 지씨가문중에서도 제일 지체가 높고 잘사는 집안이였다. 일제의 《토지조사령》때 성민이네도 적잖은 땅을 잃었으나 오랜 량반가문의 재력이 있어 경성땅에서는 여전히 손꼽히는 갑부집안이였다. 왜놈들한테 빼앗긴 땅마지기대신 경성과 청진일대의 령세선주들한테서 배들을 사 큰 어업주가 되였다.

그런데 아버지대부터 성민이네 집안은 이상한 집안이라는 평을 얻게 되였다. 동시에 경찰의 요시찰대상으로까지 되였다.

이상한 집안이라는 평은 아버지로 하여 얻게 된 호칭이였다. 로씨야의 대귀족이며 작가인 레브 똘스또이의 숭배자, 수제자로 알려진 아버지는 대대로 지켜지는 지주, 어업주로서의 법도를 어겼던것이다. 배군들과 농군들한테서 받게 될 돈과 소작료는 주면 받고 안 주면 쓱싹해 넘겨치웠으며 끼식이 떨어진 집에는 제집 쌀까지 퍼주군 했다. 이로 하여 아버지는 린근지주들의 미움과 배척을 받게 되였으니 이역시 요시찰대상이 된 원인이라 할수 있었다. 하지만 요시찰대상으로 된 근본원인은 아버지가 독립운동에 나선 사람이라면 상대가 누구든 무작정 도와주었기때문이였다.

태민형도 마찬가지였다.

보천보전투소식이 전해져 온 경성땅이 물끓듯 술렁일 때 태민형은 학교까지 뚜꺼먹고 보천보를 다녀와서는 당장 백두산무장부대로 가 독립운동을 한다고 호기를 부렸다.

그러나 그는 정 반대되는 길을 걸었다.
언제부터였던가.
경성에서 살던 성민이네가 중국 목단강으로 와서 산지 2년째 되는 어느날이였다.
그날 성민이네 집에서는 성민이의 목단강1중입학을 축하하여 다들 한자리에 모였었다.
신경(현재의 장춘)1중맞잡이의 목단강1중은 일본인들과 《만주국》 관리자제들만을 대상하는 학교로서 조선사람인 경우에는 수재거나 뒤받침이 단단한 집안자식들만이 선볼수 있었다.
그런데 성민은 100점 만점의 기준에서 단연 1등인 99점의 최우수 성적으로 입학했던것이다.
《네가 일본애들을 이긴것이 제일 기쁘다.》
태민형은 이런 말로 성민이를 춰주던 끝에 뜻밖에도 언젠가 말을 떼였다가 아버지로부터 퉁을 먹은 만주군관학교 입학문제를 또다시 끄집어냈다. 이때문에 축하연의 기분이 깨여졌다.
성민이 자리를 피하려 하자 아버지가 제지시켰다.
《너도 들어야겠다, 생각도 말하고… 이건 후날 네가 우리들의 처사를 놓고 이러쿵저러쿵하지 않기를 바래서다.》
이 말을 하고난 아버지는 엄한 눈길로 태민을 보았다.
《그럼 그동안 연구도 많이 했을테니 말해보거라, 성민이도 잘 알아듣게. 무엇때문에 그놈의 학교엘 꼭 가야 하는가. 다른데도 아닌 왜놈졸병이 될 학교엘 말이다.》
얼굴이 뻘겋게 짓물려진 태민은 성민을 슬쩍 훔쳐보고는 찍어박듯 말했다.
《돈때문입니다.》
《돈타령은 그만해라.》
《아니, 말해야겠습니다. 그래 제가 그 학교 말고 어느 다른 대학엘 간다면 그 엄청난 학비를 대줄수 있습니까. 집안살림도 파죽이 된 판에… 하지만 그 학교엔 돈이 없어도 다닐수 있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헛기침을 깇었고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성민은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가 돈타령을 그만하라고 한것은 어머니의 속을 허비지 않기 위해서일것이였다.

목단강에 이사를 왔던 초기만 해도 성민이네 집안엔 퍼그나 많은 돈이 있었다. 하지만 그 많던 돈이 2년 채 안되는 사이에 거의 다 없어졌고 수만평 전답도 줄어들었다. 그것은 려순감옥에 잡혀간 외삼촌때문이였다. 근 1년되게 끈 외삼촌의 재판놀음과 외삼촌과 련루된 사람들의 옥살이를 막기 위한 지출에 집안뿌리까지 흔들릴 지경이였다.

이때문에 어머니는 돈소리가 나올 때마다 늘 죄지은 상으로 기가 죽군 하였다.

태민형의 앞에서는 더욱 그랬다. 장질부사로 사망한 전처의 후실로 들어온 어머니에게서 태민은 배다른 아들인것으로 그를 무척 어려워했고 어려워하니만치 그에 대한 관심은 각별하였다. 태민이가 바라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다 들어주었고 금이야 옥이야 태민이를 귀히 여겼다. 이때문인지 우뚝벨이 심한 태민이도 어머니한테만은 더없이 곰살스러웠다. 아버지한테는 가끔 엇서는 태도를 보이다가도 어머니가 몇마디 타이르면 군말없이 숙어들군 했다.

《그러니 네 결심은 박힌 말뚝이라는거냐?》

아버지가 이쯤한 비유를 쓸 때면 노성이 터져나올 때다. 하건만 태민은 꿋꿋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럼 이렇게 하자. 이 집을 팔아서라도 학비를 댈테니 어느 대학이건 다른델 가거라.》

태민의 눈빛이 번쩍했다.

《안됩니다. 전 우리 집안이 가난뱅이로 되는건 싫습니다.》

《가난뱅인 싫다?!… 그래 가난뱅인 싫구 네 외삼촌까지 잡아간 왜놈의 졸병이 되는건 좋단 말이냐?》

《아버지, 너무 그렇게 숙보지 마십시오. 제가 그 학교엘 간다 해서 꼭 왜놈의 총대잡이가 된다는 법이야 없지 않습니까.

그전에 외삼촌도 말했지요. 로씨야의 붉은군대장교들속엔 짜리군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적지 않다고… 저도 그렇게 해보자는겁니다.》

《허— 우리 집안에서 룡이 나오는구나. 한데 넌 언제부터 붉은편이 됐니. 사회주의라면 아예 대갈받기질이더니.》

《전 사회주의가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아버님이 하

던 말씀을 따르자는것이지요. 독립을 하자면 공산당이든 독립군이든 나라를 찾는 사람들을 따르고 도와줘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님, 저도 어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것도 알구요.》

아버지는 억이 막혀 한숨을 지었다.

《얘, 거 말같잖은 소린 그만 해라. 그래 네가 그놈의 야마도 다마시학교에 가서 뭘 배운다는거냐. 그래 〈도쯔께끼〉, 〈찔럿〉, 〈쐇〉 하는 사람잡는 재주겠는데… 아서라, 똥통에 빠지면 구린내밖에 피우지 못한다.》

《아버지, 왜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알아야 한다고 왜놈을 이기려면 싸움법도 알아야 하잖겠습니까.

아버님이 걱정하는것도 그렇지요. 사람이 제 뜻과 결심만 굳건하면야 그깐 똥통인들 뭬랍니까.》

《허허. 여보, 임자 좀 말해보라구. 임자가 떠받드는 맏이란게 어떤 시라소닌가－》

아버지가 피발선 눈으로 어머니를 쏘아보자 어머니는 화들화들 떠는 손으로 태민의 바지가랭이를 잡아당겼다.

《태민아… 난 네가… 총을 잡는것두 무섭지만 그 총때문에 죽을가봐 겁이 나는구나.》

태민은 벙긋 웃었다.

《어머니, 그건 념려마십시오. 죽을 고빈 절대 피할테니까.》

그리고는 더없이 공경스러운 태도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님, 전 잘만 되면 만주군관학교를 마치고 항일무장부대로 가자는겁니다. 조선의용군이든 항일유격대든…》

《네가?!－ 그게 진정이냐?》

《제가 한입 가지고 두말 하겠습니까. 독립군의 리청천 같은이를 봐도 일본륙사까지 마치고 총부리를 돌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자는것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한 말을 어기고 다른 길을 걷는다면 제 입을, 제 손목을 잘라주십시오.》

그때로부터 4년후 서울에 갔던 태민이 경성에 있는 집으로 왔을 때 그 손목을 자르겠다는 말이 화제에 올라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태민형과 술잔을 나눠 얼굴이 벌깃해진 아버지가 태민의 손목을 자른다고

식칼을 찾는 통에 벌어진 일이였다. 그때 고지식한 어머니는 그 칼을 감추느라 허겁지겁했고 그 모양이 우스워 아버지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껄껄 웃었다.

아, 그때는 얼마나 기뻤던가.

하지만 순간에 모든것이 돌변하였다. 태민은 집에 온지 반년도 안되여 다시 남으로 떠나가버리고말았던것이다.

그리고 오늘에 와서는… 성민이 태민형의 소식을 알게 된것은 추석을 며칠 앞둔 올해 가을이였다.

지방취재를 마치고 돌아와 그 기간 밀려쌓인 정세통신자료들을 보던중에 알게 되였다. 남조선군사쿠데타가 조작한 《5.16군사혁명위원회》성원속에 형의 이름이 있었던것이다.

—지태민, 륙군소장 ×지구사령관, 42살… 출생지 함경북도 경성군…

그날 밤, 성민은 아버지의 유품을 마주하고 꼬바기 밤을 새웠다.

아버지의 유품이란 가문의 장손들에게만 넘겨지던 자개박이함이였다. 1951년 8월 경성시가에 대한 적의 대폭격이 있을 때 간신히 보존된 그 함에는 한때 영종왕의 어지며 함경도 병마절도사의 감사문까지 있었다는데 아버지의 대에는 금옥패물들과 토지문서들만이 있었다고 한다. 그나마 성민이가 이 함을 넘겨받았을 때는 그러루한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토지문서와 빚문서는 《똘스또이의 수제자》로 불리운 아버지가 해방전에 불태워버렸고 금옥패물과 돈들은 독립운동과 가업을 살리기 위한데서 죄다 없어지고말았다.

성민이가 이 함을 열어보기는 3년전에 돌아간 아버지로부터 선조들의 유품이니 잘 건사하라는 당부를 받았을 때가 처음이고 이번이 두번째였다.

《아들 지성민과 그 후손들에게, 1951년 8월 19일》

여러겹으로 접은 모조지를 꺼내 펼치자 가문의 시조로부터 성민이네 대의 항렬, 형제, 조카들의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 직업과 직종까지 자상히 적혀있었다. 대대로 내려오던 족보책이 폭격통에 불타버린것을 아버지가 하루밤, 하루낮 기억을 더듬어 재현해놓은것이다.

그 족보란의 두사람 이름밑에는 검은색네모꼴테두리와 함께 푸른색밑줄이 진하게 쳐있었다.

두사람, 아버지는 태민형과 지응석으로 하여 떠나가는 시각까지 가슴아픈 소리를 많이 하였다.

그러면서도 행여나 하는 희망과 기대를 잃지 않았다.

가문에서 삭제한다는 검은색네모꼴표식밑에 친 푸른색밑선은 그 희망을 의미하는것일것이다. 서예와 그림에 밝았던 아버지는 색갈의 의미를 놓고 제나름의 지론을 가지고계셨는데 푸른색은 희망이라고 했다.

성민이 부엌에 들어가 함을 통채로 들어쏟자 퇴색한 사진들과 함께 불에 그슬린 노트 두권이 떨어졌다. 성민이 군교육부시절에 쓰던 《당사》와 《맑스－레닌주의기본》이였다. 재더미로 변한 집터에서 아버지가 이 노트와 사진들을 찾아모을 때 성민은 린제계선에서 련대군중문화지도원으로 있었다.

안해의 고르로운 숨소리를 다시 확인한 다음 침착한 태도로 탄불구멍을 뚫러놓고 사진들을 한장한장 골라 두군데로 갈라놓았다.

그다음 크게 숨을 들이쉬고 그 한무지의 사진들을 갈기갈기 찢어 탄불우에 집어던졌다.

파르스름한 연기를 뿜으며 타드는 사진들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형에 대한 심판, 형과의 최종결별이고 절연이라고 자기를 합리화하였다.

잠시후에 한무지의 사진을 거의 다 찢고 불에 타는 모상들을 지켜보던 그는 제풀에 맥이 풀려 손을 내리뜨렸다.

《성민아, 사진이나 태워버린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니, 너 역시 나를 못 잊을것이고－》

쪼그라들며 타는 사진속의 태민은 셈평좋게 웃고있었다.

(그래, 어리석은 일이다, 어리석은. 무서운 허위, 무서운 자기기만, 설사 이 모든것을 망각속에 지워버린다 해도 그라는 존재는 그대로 남아있을것이 아닌가.)

가까운 혈육의 시신을 묻으려다 그대로 붙안고 시진한 사람마냥 한동안 얼없이 굳어져있다가 찢으려다만 사진들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사진들을 따로 골라내였다.

태민이때문에 부모님들한테까지 죄스러운 일을 할번 했다는것으로 이마에 진땀이 내배였다.

－목단강1중입학을 기념하여－ 라고 쓴 제명의 사진을 보자 눈물이 울컥 치솟았다.

부모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속에서 태민은 어머니의 어깨를 그러안고있었다.

어머니는 1951년때의 폭격에 돌아가셨다.

(태민형이 이 사실을 안다면…)

묵묵히 사진을 굽어보던 그는 함의 밑바닥에 붙어있는 옛날 종이에 시선이 미쳤다. 그전에도 이 함을 열어보았지만 그때에는 그저 바닥깔판종이라고 생각했다. 누렇게 색이 변하고 좀이 먹은 종이장 한모서리가 약간 들려있어 집어들었다.

숨이 꺽 막혀들었다.

한문으로 쓴 정자체의 글.

—수진제가 치국 평천하—

제몸을 바로 한 다음 집을 일떠세우고 나라를 위해야 한다는 뜻의 이 글은 그가 일곱살때 썼던것이였다. 그때 이 글을 놓고 향촌의 한다하는 어른들은 저마끔 성민을 칭찬했다.

모름지기 아버지가 이 글을 그냥 보관한것도 그 자랑때문일것이다.

태민형도 그랬다.

자기 방 웃담벽에 이 글을 걸어놓은 태민은 찾아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턱없이 신동이자랑을 하군 했다.

마음이 구슬퍼졌다. 잠시동안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마분지 접이안에 있는 아버지의 상장들을 꺼내보았다.

…

우 동무는 민주사상이 확고하고 후대교육사업에 모범이므로 이 상장을 수여함.

함경북도인민위원회
1954년 8월 31일

이런 상장은 여러개가 있었다. 내각에서 받은 표창장도 있었고 전쟁시기 시조국보위후원회 명의로 된 상장도 있었다.

한시절 지주였고 큰 어업주이기도 했던 아버지는 바로 이 상장들로써 성민이와 후손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려고

했을것이다.
상장들을 정히 간종그려 함에 넣고난 성민은 아버지가 만든 족보책을 다시 펼쳐보았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시신을 묻은 날 밤에 이 족보책을 되살려놓는 일을 했다고 했다.
(무엇때문에?)
태민의 이름자밑에 덧줄로 푸른선을 친것을 보니 가슴이 미여지는듯 아파들었다.
1946년 서울에서 집으로 돌아와 얼마후에 있은 태민이와 옥영이의 결혼식에는 지응석이며 집안친척들 거의다가 모여들었다. 굉장한 잔치판이였다. 지응석이 과방을 보고 성민이 손님맞이를 했다. 온 얼굴이 달덩이처럼 된 어머니는 부엌과 신방을 부지런히 오고갔고.
그런데 결혼식이 끝난 이튿날 아침, 낯모를 사람들이 나타나 태민을 데려갔다. 그들이 하는 말로는 몇가지 알아볼 일이 있어 데려간다고 했으나 태민은 열흘이 넘도록 돌아오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그동안 움쩍말고 기다려보자던 아버지가 태민이 도보안서로 옮겨간 사실을 알고 청진으로 떠났다.
성민은 물론 어머니까지 따라가려 하자 아버지는 엄하게 눌러 막았다.
《일본군 똥별을 달았던 녀석이 뭣이 그리 중해서 그래.》
하지만 떠날 때의 아버지는 근심가득한 얼굴이였고 역에서 헤여질때는 서글픈 얼굴이였다.
그런데 그 이틀만에 다시 나타난 아버지는 범잡은 포수마냥 기세충천한 모습이였다, 아버지의 뒤로는 얼굴이 헐끔해진 태민이 비주룩이 웃으며 따랐고.
아버지는 항일빨찌산 간부를 만났고 태민은 그로 하여 풀려나오게 되였던것이다.
그런데 그 항일빨찌산 간부로부터 지난일은 생각지 말고 새 조선건국에 힘써달라는 부탁과 고무의 말까지 들었다는 태민의 반응은 너무나도 랭담했다.
《그 사람 말로는 좋은 세상이 올것 같다만… 세월이란게 뜻대로 되니?》
이러루한 말을 심드렁하게 내뱉은 뒤부터 태민은 바깥출입도 하지

않고 진종일 집에 꾹 박혀있었다. 그대신 늘 어머니옆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고기밸도 함께 따고 남새다듬도 같이하며 어머니를 기쁘게 하려 애썼다.

그런 어느날 새벽, 성민이 잠을 깨고보니 어머니가 울고있었고 아버지는 담배만 뻑뻑 빨고있었다.

구겨진 종이장이 방바닥에 나딩굴고있었다.

《태민이와 옥영인… 우릴 버렸다.》

아버지의 음침한 목소리를 들으며 그 종이장을 집어보았다.

—아버님, 아무리 생각해봐야 전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니 어쩔수없이 이 길을 택하게 됩니다.

어느곳에 가든 아버님께 죄될 일을 하지 않을테니 떠나가는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아버님도 대세를 봐가며 근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민이를 군민청에서 쓰자고 한다는데 잘 봐가며 조처해주십시오.… 마음착한 어머님이 저때문에 상심하실 일이 제일 괴롭습니다. 성민이한테도 미안하고…

못다한 자식구실, 천만근 짐을 안고 떠납니다.

부디 귀체 무강하시기를 빕니다.—

긴세월… 태민의 비탈진 운명은 이미 그때 결정된셈이다.

(나? 나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았는가?)

성민은 태민이 떠나가게 된 심리적바탕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막지 못했다. 마음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를 납득시켜 막을 힘도 수완도 론리도 부족했기때문이였다.

《뭘 하고계셔요.》

나지막한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순정이 문지방에 서있었다. 오래도록 성민을 지켜본듯싶었다.

《왜 벌써 일어났소?》

《오늘은 일찍 나가려고 해요. 한데 이건 무슨 애들 장난이예요.》

순정은 바닥에 널려진 사진들과 타버린 사진쪼각들을 놀랍게 보았다.

《당신말대로 애들 장난이지.》

《어휴, 언제면 어른이 되실가.》

순정은 바닥에 널린 사진들을 하나하나 주어모으다가 반쯤 찢겨진 사진 한장을 들어보이며 방긋 웃어보였다.

《이 처녀가 려아라고 했지요?》

《그렇소.》

성민은 그의 눈길을 외면하였다. 저녁늦게까지 태민의 문제로 함께 놀라고 상심하며 이야기를 나누던중에 려아에 대해서도 말이 있었다.

《이젠 들어가 좀 쉬세요.》

사진들을 함에 넣고난 순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흔연한 태도로 성민의 손을 잡아끌었다.

《당신 거기 좀 앉소.》

성민이 어떻게 말했는지 순정이의 낯빛이 달라지며 불안한 눈길로 되였다.

성민은 길게 숨을 들이긋고 입을 열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형님한테 가봐야 할것 같소.》

《간다는건요?》

성민은 그의 커다란 눈이 엄하게 변하는것을 보며 웃음을 지어보였다.

《가서 결판을 내자는거요.》

《총을 가지고 가야겠군요.》

순정은 비웃듯 말했다. 먼 옛날 성민이를 질책할 때와 같은 표정이였다.

《총이야 무슨 필요가 있겠소. 이렇게 손을 잡자는거요, 그전날 당신이 이 보잘것 없는 나를 받아들였듯이.》

목구멍이 꺽— 막히였다. 순정은 고개를 돌렸다.

《그런 실없는 얘긴 그만두자요. 어서 쉬세요.》

《아니, 내 정신은 맑소.》

성민은 순정의 손을 더 힘껏 틀어잡았다.

그리고 헐떡거리며 말했다.

《그래, 우리가 지금처럼 살면 행복할것 같소? 늘 그때문에 고민을 하고 밤잠을 못 자고… 아이들한텐 또 그 잘난 형님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오.

비록 늦긴 했지만 난… 그를 단념할순 없소. 엉, 안 그렇소?》

《진정해요.》 순정의 따스한 손길이 그의 어깨에 닿았다. 나직이 숨을 내뿜으며 올차게 말했다.

《제가 당신의 심정을 몰라서 하는 소리는 아니예요. 하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생각해봤어요?》

…

잘못인가, 옳은것인가.

성민은 지응석앞에서도 안해와 나눈 말들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되였다.

오해와 편견을 가시고 화목과 통일을! 이것이 성민의 목표자 걸음길이였다.

《아주바이!》

성민은 거뭇한 얼굴의 지응석에게 밝은 얼굴로 말을 떼였다.

3

지장군의 부관은 행운아
지장군의 부인님은 행운녀
행복해 행복해 차차차

지태민사령관의 신임부관인 정창호는 윌 스라우의 《차차차》에 맞추어 손벽도 치고 뛰기도 하며 노래를 불렀다. 주단우를 대여섯바퀴 돌고나자 몸이 훈훈해졌다. 잠시후 쏘파우에 주저앉은 그는 녀성타자수에게서 압수한 《포르노》잡지(색정잡지)를 뒤적이다가 을씨년한 눈길로 방안을 둘러보았다.

담벽우의 《결사반공》, 《근검긴장》이라고 쓴 왕붓글씨가 잡지의 벌거벗은 녀자며 자기의 광태스러운 뜀박질을 질책하는듯 했다. 후－하는 한숨이 절로 나왔다. 방안의 랭기가 다시 느껴졌다.

령관급장교들도 사바사바 뒤돈을 받아 공기조화기며 석유난로 같은것을 장만해놓고 불쪽이 척 늘어지게 지내는데 한다하는 지장군만은 뒤돈은커녕 공기조화기마저 마다했으니 그놈의 《군인의 기

강》이요, 《긴축절약》이요 하는 바람에 매일매시가 석가모니의 고행 한가지이다.

하지만 참을수밖에 없다.

지장군은 다 좋지만 안락과 사치와는 담을 쌓고 지내니만치 그에 맞게 처신하라던 동료들의 말도 그렇고 큰사람이 되려면 웃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던 부모님들의 신칙을 생각해도 참을《인》을 명심하는 길밖에 없다.

일찍부터 샬로크 홈스를 흠앙하여 오제도(남조선지하혁명조직과 애국적인사들을 적발색출하는데서 악명을 떨친자)와 같은 인물이 될것을 꿈꾸고있는 그에게서 부관이라는 자리가 훌륭한 도약대로 될것임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소장파의 쟁쟁한 실력자이고 군화랑정신의 귀감인 지장군이야말로 자기의 영상에 후광을 입히게 되리라는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군부내의 모모한 인물들과 자주 만나게 되는것 역시 출세의 튼튼한 방편으로 될것이니 지금의 고생을 달게 받아들여야 하는것이다.

그렇지! 그렇지! 옳다! 옳아!

다 돌아간 축음기판이 같은 소리로 떨그덕거리는것을 들으며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전축을 끄고 레코드판을 제자리에 넣은 다음 손이 간 흔적이 없는가를 세심히 살폈다. 지난해 웬 미국인이 주고갔다는 전축과 레코드판들은 이 방의 유일한 사치품이자 누구도 손대지 않고 있는 금단의 골동품이기도 했다.

그로서는 부임 첫날부터 고양이 기름종지 노리듯이 축음기판들에 눈독을 들였으나 오늘에야 처음 손을 대보게 되였다. 지장군이 박정희의 초청을 받고 간것만큼 일찍 돌아오지 않으리라는것과 주요하게는 이 금단의 골동품을 꼭 뒤져봐야 할 필요가 있었기때문이였다. 륙군본부 인사과에서 부관임명을 받은 날 밤, 방첩계의 장교로부터 지장군의 일거일동을 주의깊이 살피고 조그마한 이상스러운 점도 즉시 보고할 임무를 목숨과 비밀로 담보했던 정창호였다. 물론 오제도같은 큰 인물이 될 그로서는 화류계의 논다니들까지 하게 되는 좀스러운 끄나불노릇은 하지 않겠지만 일정한 성과와 재간만은 보여야 했던것이다.

혹시 예상밖의 공로를 세울지도 모른다. 최근에 들춰낸 《장도영일파반혁명사건》을 봐도 그렇다. 쟁쟁한 3성장군이요 륙군참모총장이던 장도영, 박정희가 그처럼 총애하며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직까지 맡겼던 장도영은 물론 그 수하 일파도 죄다 북에서 온 서북출신이다. 지장군도 함경도출신의 북에서 온 사람이라는데서 다 같고같은 동아리다.

방첩계의 장교도 바로 이 점을 강조했다.

서북! 해서 관북을 다 포함한다는 의미에서는 함경도도 례외가 되지 않는다. 한때 군에서는 물론 《한국》사회전체가 서북출신이라 하면 벌벌 기였다. 반공의 열기도 높은데다가 수완과 손탁들이 이만저만 쎄지 않기때문이다. 허나 오늘에 와서 볼 때 이 나라 기둥과 받침돌은 령남이다. 령남, 박정희도 령남이요, 자기도 령남출신이다. 하니만치 지장군과는 혈통상으로도 거리가 멀고 습관도 취미도 다르다. 혈통과 습관, 취미와 기호는 생활상 일면만 아니라 사상과 정견상 차이까지 빚어낸다는것이 력사와 현실이 보여주는 엄연한 진리다.

빵 빵!

갑자기 울리는 승용차의 경적소리에 정창호는 와들짝 놀라며 창문쪽으로 뛰여갔다. 밤늦어 올것으로 생각한 지태민이 차에서 내리고있었다.

부한 몸집임에도 날렵하게 보이는 지태민은 뒤짐을 진채 본부청사를 휘둘러보는데 여느때없이 환한 얼굴이였다. 철모를 쓰고 달려나간 당직장교의 어깨까지 두드려주며 웃는것 역시 전례없던 일이였다. 지태민과 함께 떠났던 옥영사모님만은 보이지 않았다.

황급히 철갑모를 눌러쓴 정창호는 거울앞에 가 옷차림을 살핀 후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문을 열었다. 복도를 꽉 채우며(정창호에게는 늘 그렇게 보였다.) 뚜벅뚜벅 걸어오는 지태민의 희스름한 뺨에 붉은 반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무척 많이 마셨구나.)

되들이술 두세병쯤엔 낯색 하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지태민의 얼굴에 홍조가 핀것을 보고 인사말을 골랐다. 초대처럼 기척을 하고 《오늘 참 좋으셨습니다.》라는 말을 하려다가 고쳐 생각했다. 발라맞추는 언행에 질색이라던 이전 부관의 말이 떠올랐던것이다.

《생각보다 일찍 오셨습니다.》 가방을 받아들며 하는 말에 지태민은 빙그레 웃었다.

《독수공방 외로울가봐 일찍 왔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지태민의 부드러운 얼굴빛과 그의 입에서 풍겨나오는 고급위스끼의 향긋한 냄새가 몸까지는 띄우지 않았으나 마음은 한자높이로 띄워올렸다. 눌러버렸던 인사말이 튀여나왔다.

《오늘 참 좋으셨습니다.》

《그래, 그래서 안됐다는거야. 함께 가야 되는걸.》

정창호는 코언저리가 시큰해졌다.

《원, 무슨 말씀을… 한데 사모님은…》

《음, 그 사람 시내집에 들렸다가 오게 됐다. 그래 별다른건 없겠지?》

《네, 없습니다.》

정창호는 또 한번 놀랐다. 여느때면 《이상없는가? 웃집에서는…》라는 질문이 인사말처럼 되여있었고 그때면 엄엄한 눈이 가슴속까지 꿰지를듯이 날카로와지군 했다. 웃집이란 분리선에 대처한 인민군부대들을 통칭하는 말이지만 지장군에게는 서울 북쪽방향에 전개된 《국군》부대들에 대한 별칭으로 되여있다. 알파, 베타, 델타로 불리우는 그 부대들은 《5.16군사혁명》이후부터 경계감시대상으로 되여 반쿠데타행동을 취할 경우 지장군이 그들을 반타 제압하게 되여있었다.

《이건 뭐야?》

산하 부대들의 일보철을 받아들던 지태민은 정창호의 손에 쥐여진 《포르노》잡지를 보자 세모눈섭이 곤두섰다.

정창호는 정중한 자세로 차렷을 했다.

《새로 들어온 녀성타자수에게서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잡지뚜껑의 함지박만 한 젖통을 힐끔 보고난 지태민의 눈에 의아한 빛이 맴돌았다.

《전 군인의 도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군인의 도?!… 계집도 군인인가.》

《저… 그렇지만 사령관님께서 사소한 부패요소라도 보고하라고—》

탕! 책상이 드르릉 울렸다.
《난… 저따위걸 보고하라는건 아니야. 그래 군은 입이 없었던가.》
《필요한 훈계는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지. 그래 특무대장이 되고싶은가.》
또다시 터져나오는 노성에 정창호는 겨울나이참대가 되고말았다.
호랑이눈의 사령관이 방금전까지의 자기의 속심과 도적행위까지 죄다 알아챈듯싶었다.
《죄송합니다, 저로서는 잘한다는것이 그만.》
《됐다. 군으로서는 오늘 처음이니만치 용서한다.》
지태민은 일보철묶음을 대강 뒤적여보고는 한결 온화한 태도로 입을 열었다.
《기분이 어때?》
《괜찮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 더 배우라. 오늘로써 이 땅의 무정부주의적민주주의는 완전히 종말을 고했다.》
《저…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척결, 정화, 새 기강의 확립… 희망의 출범은 오늘로써 정식 돛을 올리고 축포를 쏜셈이다.》
《그럼 의장각하께서 대통령으로.》
《그 비슷하다. 국회도 우리 의장각하께 나라를 부탁했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는 대통령중심제로 된다.》
《그럼 사령관님께서도 무슨 장관쯤?》
《난 오늘도 앞으로도 호국의 견마일따름이야.》
지태민은 근엄한 표정을 지어보였으나 피여나는 웃음을 가무리지 못했다. 시계를 언뜻 보고난 그는 한결 더 밝은 안색으로 입을 열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도 간단한 파티를 하자는거다.》
정창호는 넘쳐나는 기쁨을 무슨 말로 표현할지 몰랐다.
《그 준비는 제가 맡겠습니다.》
《그건 집사람이 준비해.》
《그럼 본집 따님과 장모님도 오시게 해야겠지요.》
《아니, 그들과는 따로 할것이고… 오늘은 파티이자 군사계엄령 해제와 관련된 토론도 하게 된다. 래일부턴 나도 시내집에서 출퇴영을

할것이고.》
집에서 다니게 된다고! 정창호는 얼씨구 춤을 추고싶었다.
부관실에 나와 먼저 보급계부터 찾았다. 그다음 시내식당과 상점들에 연줄이 있는 그러루한 날치군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군비상계엄》이라 그동안 얼어붙었던 배집들이 와들쩍 놀라게 차리자면 단단히 잡도리를 해야 할것이였다.
그가 한바탕 전화를 마치고 휘파람이라도 부를가 하며 들썩이는 마음을 주무르는데 문이 삐써 열리며 옥영부인이 들어섰다.
정창호는 지장군에게 그러했듯이 화닥닥 자리를 차며 일어섰다.
그런데 정창호만 보면 살가운 웃음부터 지으며 반기던 옥영부인은 혼들린 사람처럼 아는듯 모르는듯 곧추 지장군의 방으로 들어갔다. 혼들린 사람치고는 별스럽게 문을 꼭 닫는다.
(혹시 집에 도적이 든게 아니야?)
치받치는 호기심에 귀가 말박만 해있는데 뭔가 응글진 소리가 터져나왔다. 신음같기도 하고 감탄같기도 한 소리였다.
(뭣때문일가.)
샬로크 홈스다운 추리를 해보았으나 신통하게 짚어지는것이 없어 바재이는데 문이 열리며 옥영부인이 나왔다. 옥영은 이때야 정창호를 알아본듯 가볍게 목례를 하는데 눈굽에는 알릴듯말듯 물기가 어려있고 낯색은 분필처럼 하얬다.
그때문에 정창호는 어떤 인사말을 할지 몰라 복도쪽 문을 열어주는것으로 례절을 차렸다.
그가 계단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고개를 기웃하며 문을 닫는데 헌병감이 승냥이한테 놀란 말처럼 덴겁하여 달려왔다.
《무슨 일인가?》
제 먼저 묻고난 그는 정창호 역시 얼친 물고기눈이 된것을 보자 설레설레 머리를 저으며 지장군의 방문을 열었다.
정창호는 그가 문을 어떻게 닫는가 보다가 다행히 손등만 한 두께로 짬이 생긴것을 보고 히죽이 웃었다.
《이봐!》
불퉁그러진 소리가 울려나왔다. 정창호는 온몸이 귀가 되였다. 뒤이어 흘러나오는 목소리도 매한가지였다.

《북에서 내 동생이 왔다.》
《동생이라니요? 저… 전쟁전에 대학생이였다던—》
《그렇다.》
《그럼 영 왔습니까?》
헌병감의 반지빠른 물음에 《그럴 애가 아니다.》 퉁명스럽게 내뱉는 말에 이어 한숨이 새여나오는듯싶더니 또박또박 찍어박는 말소리가 울려나왔다.
《그 앤 분명히 나를 되돌려세우려고, 적화공작때문에 온것 같은데… 이렇든저렇든… 그 앤 내 동생이고 그곳 가문과 조상선영을 지킬 기둥이니 죽여서는 안될 몸이고 나로서도 죽게 할순 없다. 헌병감!》
갑자기 높아지는 소리는 《옛.》하는 소리에 눌리웠다.
《그래 그 앨 살릴수 있는가?…》
《…》
《그 앨 살릴수 없다면 난 군복을 벗는것이고 또 그 애의 행처도 대줄수 없다. 이상이다. 할 말이 있는가?》
《사령관님!》
헌병감의 목소리가 청청하늘의 종다리소리다.
《얼마든지 살릴수 있습니다. 그가 여기 와서 뭔가 반국가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사령관님의 위망과—》
《위망따위로 되는가.》
《사령관님, 문제 없습니다. 반공법에 공소보류항목이 있잖습니까?》
《공소보류?!…》
《그렇습니다. 본인당자의 회개여부와 협력열의를 봐서 보류시킬수 있는…》
《협력?!…》
《그까짓 회개나 협력은… 사령관님의 동생인이상 약간한 형식으로만 끝날것입니다.》
《…》
《그렇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정창호는 속이 한줌만 해서 하회를 기다렸다.
내가 그의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할가. 무엇보다 가슴을 죄이는것은 오늘 저녁 연회가 가망이 없다는 아쉬움이였다.

제 2 장

1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지성민은 휘연히 밝아오는 창문쪽을 보며 아직도 꿈이 아닌가싶었다. 옆에 선 두 사병도, 손목에 채워진 쇠수정도 한마당 꿈의 세부로 느껴질뿐이다.

지난밤 늦게야 잠자리에 들었던 그는 날이 샐녘에야 깜빡 잠이 들었는데 내내 어지러운 꿈에 시달렸다. 어떤것은 꿈인가 하면 낮에 하던 생각의 연장이기도 했다. 태민을 마지막으로 봤던 날의 일은 사실 그대로 재현되였다.

그때문에 와지끈하고 문이 열리며 검은 그림자 셋이 덮쳐들 때도 사실인지 꿈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옴짝 말앗!》하는 소리와 함께 총구가 이마를 찔렀고 손목에 쇠수정이 채워졌다. 이렇다할 반항도 못했고 또 그럴 여유도 없었다.

드센 손탁에 이끌려 밖에 나서고보니 알몸뚱이로 뛰쳐나온 지응석이 웬 장교의 손을 부여잡고 애원 절반, 울음 절반의 벙어리소리를 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성민을 띄여본 장교가 거수경례를 붙였다. 대문밖에는 2대의 스리쿼타가 서있었는데 거기서 서성이던 2명의 장교도 경례를 붙였다. 대위 아무개, 중위 아무개라는 식으로 자기 소개까지 하였다.

이것 역시 꿈인듯싶었다.

차가 떠날 때 솜옷을 중쳐든 지응석이 뛰쳐나오는것을 보고서야 자기가 어떤 처지에 빠져들었는가를 깨달았다.

지응석은 장밤 술을 마시다가 곤드라졌고 5촌숙모는 시키지도 않는 망보기로 집밖을 에돌았었다.

그렇다면… 한데 놈들은 왜 경례까지 붙이며 나를 대감모시듯 했는

가. 헌병사령부라고 하는 이곳에 와서 죄인들의 구류장이 아니라 일반 격술훈련실에 모셔졌고 지켜선 사병들도 신랑둘러리같이 곰살궂으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방금 들은 말이 뇌리를 쳤다.
《쉿, 저기 있네. 그전 우리 부사령관님의 상관으로 있던 지장군의 동생일세.》
그럼 태민형이?!
숨이 꺽 막혀들며 눈앞에서 자름자름한 불꽃같은것이 서물거렸다. 무슨 소리를 했는지 곁에 선 두 사병이 놀란듯 돌아보았다.
(아니, 아니다! 형은 총으로 쏘면 쏘았지 밀고할 성미는 아니다. 하지만…)
분명 동생이라고 했다, 동생이라고…
(경자?… 그 앤 모른다. 상사?… 그도 알수 없는것이다. 그럼 형님의 장모가?)
후들후들 떨던 목단강녀걸의 겁먹은 모습이 애처롭게 비껴든다.
(아니, 그도 그럴순 없어.)
갈피없는 혼탁된 생각속에서 지난밤 꿈에 보았던 형이, 형을 마지막으로 봤던 그날의 일이 방불히 살아올랐다.
성민이 군교육부 일군에게 불려갔다와 이틀째되는 일요일이였다.
그동안 집에만 꾹 박혀있던 태민이 바람 쐬이러 가자고 하는통에 집삼바다가로 갔다. 옥영이도 함께 갔다. 옥영이는 해당화를 꺾었고 태민은 가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며 어린시절 놀던 때를 두루 말했다.
그런데 점심밥을 먹고난 뒤 팔베개를 하고 누워있던 태민이 뚱딴지같은 질문을 했다.
《성민아, 넌 우리 집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니?》
거야 명백하지 않은가. 우리 집이 부자소리를 듣던것은 옛날일이구, 아버지랑 집안안에서 독립운동자들을 도와준것은 이 고장 사람들 거의가 다 아는 일이구… 더구나 외삼촌은 려순감옥에서 반일애국자로 옥사하지 않았는가. 그때문에 형님도 놓여나온것이구…
《허, 내가 놓여나온건 그 빨찌산어른이 나를 봐준거야. 이곳 계급투쟁바람을 보면 나같은건 타도대상이거던…》
《아니, 빨찌산들이 그랬다면 그게 다 **김일성**장군님의 뜻에 따

른것이 아닙니까. 나도 그동안 좀 알아봤는데 쏘련에서 나온 사람들의 계급투쟁과 빨찌산들이 내놓은 투쟁에서는 차이가 있으니 념려될것 없어요.》

성민이 료량껏 하는 말에 태민은 너털웃음을 웃었다.

《넌 생각이 단순하니 좋구나. 그런데 한가지만은 명심해라. 계급투쟁에는 사정이 없다는것이다. 지금 내가 빨찌산덕에 놓여나왔다만 이제 국가의 기틀이 서고 계급투쟁원칙이 조목조목 법률로 제정될 때면 아버님도 그렇고 너도 견뎌배기기가 헐찮을게다. 그래 로동자, 농민의 세상에서 자산계급출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무사할상싶으냐. 누가 봐준다고 해도 우리 집안래력을 아는 무산자들이 가만두려고 하지 않을거다. 너두 봤지. 해방후 중국에서 지주와 친일파들을 타도하던걸.

로씨야를 봐도 그렇다. 한때 그네들은 네쁘정책(신경제정책)을 실시하면서 자본가와 부농을 잔뜩 키우다가 죄다 청산해치우지 않았니.》

성민은 그때 말문이 막혔다. 그것은 사실이였기때문이였다. …

《형님, 나는 그때 하지 못한 대답까지 하려고 왔습니다.》

태민을 만날 일을 두고 얼마나 엄청난 공상을 달렸던가. 그런데… 쇠수정에 채워진 손목이 벌겋게 부어오른것을 보며 쓰겁게 웃었다.

(명백한것은 끝장이라는것뿐이다. 끝장?!… 그러니 이젠 인간을 지키는, 그 인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최후만이 남은셈이구나.)

안해와 아이들의 얼굴이 희미한 쪼각달처럼 흔들린다. 헤여질 때 가슴에 안겨 입술을 감빨던 아들애의 귀여운 얼굴… 고개를 들었다. 창밖의 앙상한 나무가지사이로 비쳐드는 희푸른 하늘이 또 한번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타고난 비겁쟁이는 없어. 이 계선에서 지키는가 못지키는가, 여기에 따르는거야.)

밖을 보는것이 두려웠다. 열려진 하늘은 자유에 대한 그리움과 잇닿아있기에 이 방에 들어설 때의 결심을 되살려보았다.

1951년 봄 성민이의 서투른 영어때문인지 아무 대답도 없이 눈만 희번득거리던 흑인포로는 옆의 호송병도 어쩔새없이 모난 바위에 머

리를 짓쪼았다. 다행히도 죽지는 않았다. 후에 들은데 의하면 그 포로는 미국인인 경우 사지를 찢어죽인다는 악선전에 속아 자살을 결심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 흑인병사는 뛰쳐일어날 때까지는 강한 용기가 있었겠지만 바위와 부딪치는 순간 겁을 먹었든가 생에 대한 본능적애착이 그 용기에 제동을 걸었을것이다. 그와 같은 약자는 되지 말아야 할것이다.

(꼭 죽어야 한단 말인가?)

(그렇다, 그 길밖에 없다. 돌아갈 길도 살아 싸울 길도 끊기지 않았는가.)

세면 벽을 둘러보았다. 각이한 조법의 격술동작들이 그려져있었다. 주먹들어곧추치기, 에돌아치기, 공중날며머리받기…

벽을 받으면 순간에 끝날것이다.

(콩크리트벽이여야 하는데.)

벽과의 거리를 가늠하며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단행할수 없었다. 순정의 모습이 가까이 다가왔다.

《꼭 살아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신 상대를 안하겠어요.》

다시는 상대를 안한다?! 얼마나 모순된 말인가. 그러나 그때는 느끼지 못했지. 그도 그랬을거야.

지금쯤은 뭘하고있을가. 헤여질 때처럼 미색조선치마저고리를 입고있을가. 끝까지 웃음을 지어보이려 애썼지. 그동안의 가슴아픈 말들은 다 아녀자의 넉두리로 들어달라고 하며 웃음어린 롱담도 했지.

《저야말로 참으로 행복하고 현명한 똑똑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랑군님을 잘 골랐거던요.》

그 말을 하며 웃을 때 눈에는…

(아, 아, 아직은 이르다.)

성민은 자기 몸에 식은땀이 질퍽하게 내배인것을 알았다. 이때 문이 열렸다. 네댓명의 장교가 들어섬과 함께 그를 지켜섰던 2명의 사병이 화닥닥 일어섰다.

《갑시다. 우리 부사령관님께서 찾으십니다.》

무슨 계장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중령이 성민을 일으켜세웠다.

긴 복도, 원형식계단… 2명의 사병이 뒤따르는 속에 이 헌병사령부에서 숱한 애국자들이 고문학살되였다는것을 상기했다.

(그래, 아직은 죽지 말아야 한다. 뭔가 할수 있는껏, 싸울수 있는껏 다 해야 할것이다. 그렇다, 아직은 이르다.)

2층복도의 끝방까지 가는 길이 수십리맞잡이로 여겨졌다.

키다리보초의 군화발이 요란스럽게 부딪침과 함께 문이 열렸다. 누런 인조가죽 방음장치를 한 또 다른 한개의 문이 열리자 장탁너머에서 다부진 몸매의 사나이가 일어섰다.

《아.》

보라빛색안경을 낀 그 사나이는 짧은 탄성을 내지르고는 재빠른 걸음으로 그를 마주왔다.

《기다렸소. 반갑구만, 반가와.》

불쑥 손까지 내밀던 그의 눈길이 중령에게 가 멎었다.

《이건 뭔가.》

《제가 그만—》

중령은 무척 바빠난 상을 하며 성민의 손목에서 쇠수정을 벗겼다. 연극갈지는 않았다. 성민의 부어오른 손목을 본 보라색안경은 혀까지 찼다.

《몹시 심화를 했을테지. 앉으라구, 앉소.》

그와 눈길이 마주친 순간 성민은 흠칫하며 굳어졌다.

이게 누군가.

1945년 10월의 봉천(지금의 심양).

접이걸상에 앉아 다리를 흔들어대던 사시눈.

《무슨 돈냥이 될만 한게 없어?》

단추가 터져나갈듯 팽팽한 배와 굵진 목만 아니라면 첫눈에 알아봤을것이였다.

택규?!… 틀림없는 택규였다.

《식사는 시켰는가?》

택규는 성민의 시선을 피하였다.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니까, 죄수취급을 했을테지.》

택규는 눈섭을 쭝깃하며 설레설레 머리를 젓고는 성민의 어깨를 툭 쳤다.

《너무 걱정말라구.》

분노와 수치감에 성민은 몸을 떨었다. 머리속이 불단지 같았다. 그런데 왜 이자는 자기를 밝히지 않는가. 뭐가뭔지 가늠할수 없는 속에 이름하기 어려운 야릇한 감정이, 반가움까지는 아니라고 하여도 적의와 절망과는 거리가 먼 감정이 치밀어올랐다.

《형님을 만나러 왔다지.》

택규는 지나가는 소리처럼 묻고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피줄이 피줄을 찾는거야 응당하지.》

그리고는 자못 근엄한 태도로 말을 이었다.

《지난밤 내 군의 형님한테서 부탁을 받았고 또 편지까지 받았소, 방금전에도 전화를 받았고.》

성민은 눈앞이 아찔해졌다.

《달리 생각마오. 군에 대한 지장군의 정은 각별하오.》

성민의 표정변화를 유심히 살피던 택규는 한장의 종이를 꺼내 내밀었다.

《이건 지장군이 나한테 보내온 편지요. 보오.》

노란 줄칸들이 쳐진 종이장우에서 엇가로 쓴 글자들이 뗍박질했다. 태민의 편지가 옳았다. 게발 그리듯 한 글씨, 글체는 인격의 표현이니만치 한자를 써도 올곧게 써야 한다는 훈시를 늘 입에 담고있던 태민이였건만 제가 쓰는 글은 소학교 1학년생도 흉을 볼 악필이였다.

…택규군, 정말 미안하오. 전화로도 마음놓이지 않아 편지까지 쓰게 되오. 생각 같아서는 그 어리석은 녀석을 가차없이 쏴버리고싶지만 나를 믿고 찾아온것이니 이처럼 안절부절이요. 군도 일찍부터 잘 알고있지만 그 녀석은 나의 유일한 동생이자 가문의 대를 이을 하나밖에 없는 둘째손이요. 사람됨으로 보면 고정하고 학문밖에 모르던 백면서생이고… 나는 이 형님을 보고싶어 왔다는 그 애 말을 믿소. 해방직후에도 나때문에 수륙만리길을 에돌아오지 않았댔소. 이번에도 나를 데려갈 생각이 있을수 있다고 보오. 하지만 이거야 나와 둘사이의 일이고 내가 어떠하리라는건 불보듯 명백한 일이니 그저 웃고말 일이 아니겠소. 이건 그 애와 어릴적부터 한이불속에서 딩굴며 살아온 이 지태민이 국가와 법앞에서도 단연코 보증할수 있는 문제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부질없는 망상이고 그 애의 목적이 반국가범죄기도이라면 나로서도 할말이 없소. 그땐 이 지태민이도 법과 군률앞에서 응당한

심판을 받을것이고 어디 산골에 가서 밭이나 뚜지고 낚시질이나 하게 될것이요.

이에 대해선 각하께도 말씀드렸는데 각하께서도 나와 마찬가지의 견해였소, 근본이야 어데 가겠느냐고… 그럼 오늘은 이만하겠소. 우리집 독재관인 옥영이도 문안을 전하오. …

성민은 혼자 있고싶었다. 무서운 허탈감속에 격파치던 분노도, 배신감에 대한 통절함도 죄다 사그라져버렸다. 애수 비슷한 아픔이 가슴굽을 훑었다. 《어릴적부터 한이불속》이라는 구절이 비수처럼 파고들었다.

(놀랄것도 새삼스러울것도 없다.)

새벽부터 지금까지의 온갖 《친절》과 《선의》가 이때문이였다는것으로 허구픈 생각이 들었다.

《이젠 알만 하오?》 택규는 기고만장한 기색이였다. 《지장군과 나와는 막역한 사이요.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된데도 그분의 각근한 천거가 있었고…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분밑에서 참모장도 했소. 그러니 나로서는 성민군과 전혀 남남이라고는 할수 없지.》

택규는 무엇이 그리 좋은지 제풀에 너털웃음을 웃더니 제자리에 가 앉았다. 성민의 손에서 되받아든 편지장을 훑어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정말 군의 형님이야말로 훌륭한분이요, 인정이 깊고 의리가 있고… 군에 대해선 나도 형님과 같은 생각이요. 그런데―》 택규는 얼핏 중령을 스쳐보고는 계속했다. 《우리 사람들은 상대가 누구든 북에서만 왔다면 눈에 쌍심지를 켜오. 성민군과 같은 경우가 있다는걸 모르니 당연하다고밖에. 성민군으로 말하면 계급투쟁의 대상이였고… 그통에 아버님도 어머님도 죄다 잃었으니 우리한테 올수밖에 없지 않소.》

《그건 무슨 소리요?》

《아 아, 뭐 콩이야 팥이야 꼭 따져야겠소. 본질이 그렇다, 이거지.》

택규는 게면쩍어하는 기색이였다. 성민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좀 조용히 말할수 없겠습니까?》

《건 무슨 소리요?》

《둘러리들이 많으니 말이 자유롭지 못하군요.》

《음, 그런가. 거야 좋지.》
태규의 턱짓 한번에 2명의 사병은 물론 중령까지 황급히 밖으로 사라졌다.
《나와 조용히 말하자는건 뭔가.》
색안경속의 눈에서 은은한 웃음이 감돌았다.
성민은 묵묵히 마주보다가 말을 떼였다.
《먼저 당신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하는겁니다. 옛날처럼 태규형이라고 해야겠는지 아니면 소장각하라고 해야겠는지.》
태규는 무슨 소린가 하는 태도였다.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성민은 쓴웃음을 머금었다.
《그래 당신은 중국에서 우리가 만났던 일을 다 잊었습니까? 수만리길을 함께 걸은것을… 하긴 17년세월이 흘렀으니 잊을수도 있겠지요. 나도 처음엔 기연가미연가 하다가 형님이 쓴 저 편지를 보고 옳다는것을 알았습니다.》
《허, 알아봤구만.》
태규는 시무룩 웃고는 조금도 무안해하는 기색이 없이 말했다.
《내가 군을 모르쇠한건 직분도 직분이지만 군을 생각해서 그런걸세. 그럼 하자는 얘기란 무엇인가. 나에 대한 호칭때문인것은 아닐거구—》
《물론 그렇습니다. 또 옛날일을 추억하자는것도 아니고… 내가 말하자는건 형님과 관계된겁니다.》
《거야 후날 그와 만나서 말하면 될것 아닌가.》
알량한 거짓말. 내가 속을줄 아는가. 성민은 찍어박듯 말했다.
《이건 당신과도 관계되는 말입니다.》
《나와?!…》
《그렇습니다. 우선 말하고싶은것은 우리의 민족분렬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것입니다. 다들 직급이 높으니만치 그에 대한 일가견이 있겠는데—》
《허허, 자넨 지금 여기가 어데고 자네 처지가 어떤지 모르는게 아닌가?》
《압니다. 그때문에 더욱 묻게 되는겁니다.》
태규는 랭소를 지었다.

《임잔 여전히 철부지학생님이구만. 그따위 어리석은 소린 더 듣지도 않겠어.》

《유감인데요. 민족분렬과 조국통일문제가 어리석은 소리로 되니. 한때 당신도 통일된 조국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지금이 같은가.》

《아니, 통일도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것입니까. 그땐 하고 지금은 그만둔다는…》

《자넨 나와 말싸움을 벌리자는건가.》

택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성민은 웃었다. 모처럼 얻어진 기회를 잃고싶지 않았다. 적으나마 자기의 뜻이 태민에게 가닿을수 있지 않겠는가.

《택규형, 난 형과 다툴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은 전쟁판도 아니고… 나로 말하면 비록 잡힌 몸이지만 형님과 친지들을 만나려고 온 사람인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되여 통일문제에 대한 물음을 말싸움으로 생각합니까. 형님도 같을가요?》

택규의 얼굴빛이 흐려졌다.

《자넨 여전히 고지식하구만. 이런 말은 더 하지 말자구. 자넨 지금까지 한 말만으로도 총살감이야.》

《어떤 죄명으로요?》

《적화통일선전이니까. 자네로선 엄청난 소리겠지. …》

《슬프군요. 그럼 택규형한테는 더 대답을 듣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형님한텐 꼭 전해주십시오. 지금 집안친척들속에서 원성이 크다고, 집을 뛰쳐났으니 집안에서는 배반자이고 큰 별을 달고있으면서 미국에 붙어있으니 나라에도 배신자라고— 우리 어머니는… 형님을 그처럼 자랑하고 귀히 여겼던 어머니는… 늘 형님소리를 하며 앓다가 미국놈들한테, 미국놈들의 폭격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단가.》

택규의 손이 책상밑으로 내려갔다. 성민은 자신을 다잡았다. 분명 그 책상아래턱엔 초인종이 붙어있을것이고 그걸 누르면 사병들이 뛰여들것이다.

《택규형, 한가지만 더 말합시다. 형님에게 꼭 전해줬으면 하는 말입니다.》

《뭔데?—》
택규는 이마살을 찌프렸다.
성민은 지난밤의 꿈을 그려보며 웃음어린 어조로 말했다.
《형님과 나와는 채 매듭을 짓지 못한 얘기가 있습니다. 형님이 이곳으로 되돌아올 때 그는… 우리 집안이 어려움을 겪게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택규는 제법 흥미진진한 기색이였다. 고개까지 끄덕여보였다.
《그때의 형님은 계급투쟁에 대한 문제로 나를 곤경에 빠뜨렸댔습니다.》
《그럴테지.》
택규는 두손을 맞잡아쥐였다.
《그런데 형님의 생각은 죄다 잘못이였다는것입니다.》
《으—음.》
택규의 두눈이 가느스름해졌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편견이였지요. 잘사는 집안출신은 죄다 한몽둥이로 친다는 외국식의 리론에 분별과 리성을 잃었던것입니다. 그것은 상대가 패덕한이 아닌 이상》 성민은 이 말에 력점을 찍으며 계속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 가림없이 품어안고 손잡자는것이 우리 공화국의 정치고 주장이라는것을 전해달라는겁니다.》
성민은 택규의 얼굴이 퍼렇게 질리는것을 보며 길게 숨을 내그었다.
(그래, 이만하면… 기본적으로 한셈이다.)
《성민군.》
택규는 뜻밖에도 웃음을 지으며 살갑게 말했다.
《난 군의 말을 잊어버리겠어. 군도 그렇게 해야 할거구—》 그리고는 일어섰다.
《후에 다시 만나자구. 이제 우리 사람들과 몇가지 문답만 있으면 죄 끝날거요. 그러니 그때 지장군이랑 옥영사모님이랑 함께 다들 모여앉자구.》
그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언제 들어왔는지 두 사병과 중령이 성민

을 일으켜세웠다.
택규는 성민이의 손을 잡아주는것으로 마지막인사를 표했다.
《난 군이 우리한테 영 온것으로 믿겠소.》

2

한시간후 성민은 음침한 랭기가 풍기는 지하실로 들어섰다.
그동안 성민은 수사과장이라는자의 방에서 초벌심사를 당했다. 주소성명으로부터 여기 온 목적에 대한 심사였다. 수사과장은 쓰기만 하고 아무런 타발도, 꽥 소리도 없었다. 형을 만나러 왔다는데 대해서는 고개까지 끄덕여보였다. …
삐그덕— 철문이 열리자 퀴퀴한 곰팡내와 시체타는 냄새 비슷한 역한 공기가 몸을 으쓸하게 했다. 칼칼한 얼굴에 메밀눈을 한 소령이 그를 안내했다. 물기가 축축히 배인 바닥은 우둘투둘한 콩크리트바닥이였다. 철그물에 감긴 뿌윳한 전등알의 불빛에 희스름한 벽과 그 벽에 휘발려진 검붉은 얼룩점들과 푸릿한 곰팽이자국들이 드러났다. 뭔가 수선거리는 소음속에 아츠러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성민의 눈길이 그리로 쏠리자 메밀눈의 소령이 곤청색뼁끼칠을 한 문을 열어제꼈다.
뜨거운 김발이 풍겨나오는 그 방의 천정에는 벌거벗기운 사내의 몸이 푸대자루처럼 매달려있고 그아래에는 두억시니같은 샤쯔차림들이 벌겋게 단 부저가락을 쥔채 웬일인가 하는듯 눈을 껍석이고있었다. 한 놈팽이의 가슴팍에는 벌건 피방울들이 뿌려져있었다.
《조용히들 해.》
꽥 소리를 지르고난 소령은 미안쩍은 눈길로 성민을 힐끗 보고는 칼칼한 생김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굼뜬 동작으로 천천히 문을 닫았다.
희디흰 벽에 여러개의 고촉전등이 자동차전조등처럼 붙어있는 자그마한 방에 들어갔다.
책상 하나를 사이 두고 2개의 걸상이 마주 놓여있는 그 방에는 방금전의 고문실에서 본것과 같은 2명의 두억시니가 서있었다.

《저 방 소제 했어?》

소령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간벽문을 가리키자 억대우같은 녀석 하나가 기다렸던듯 《네.》하며 그 문을 열어제꼈다.

놀랄만치 아담하고 깨끗한 방이 나타났다. 노란 장판을 입힌 방의 한쪽 벽가에는 일여덟장의 미군모포가 차곡차곡 쌓여있었고 살창을 댄 창문가에는 옻칠이 반들거리는 앉은뱅이책상이 놓여있었는데 그 책상우에는 두단짜리 책꽂이대가 있었다. 하나같이 두툼한 책들은 일문판으로 된 세계문학전집들과 우리 글로 된 《한국문학전집》들이였다.

《어데서 쓰겠습니까. 여기든 저기든 마음 내키는대로 택하십시오.》

《쓴다는건… 뭡니까?》

《아, 거야.》

소령은 그것도 모르겠느냐 하는 미소를 그리며 책상우에 쌓인 쉰나문장의 백지장과 원주필에 눈길을 멈추었다.

《선생이야 대학까지 다녔으니 어렵지 않을것이지요. 참, 려순공대의 수석이셨지요.》

《수석이라기보다 일본애들을 앞섰을따름입니다.》

《참 훌륭한 말씀이군요. 사실 저도 일정때 려순공대를 지망했댔는데 그놈의 반도인이라는걸로 미끄러졌지요. 붙었으면 선생의 후배로 각근한 사이가 될수 있었겠는데… 이제 와서 군복쟁이로 선생과 알게 되였군요. 참, 운명이란 묘한것이지요? 전 숙명론자는 아니지만 운명에 거역할수 없다는건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 끌려온것이 운명이라는거요?》

《하, 그렇게까지야… 사실 전 여기서 여러 사람들을 알게 돼는데… 석두가 아닌 사람들은 죄다 개과천선을 해서 돌아들 갔지요. 이따금 만나게 되면 여간 반갑지 않더라구요. 또 그분들 덕도 보고… 참, 개과천선이라는 말은 선생한테 어울리지 않는것이지요. 이제 나가시면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허허, 난 당신들한테 죄인이 아니요?》

《원, 천부당만부당한 말씀. 저두 웃어른들한테서 들었습니다.》

《그래 쓰라는건 뭡니까?》

《뭐 별치 않은겁니다. 북에서도 여러번 써봤을텐데… 뭐라고 할가, 게서 쓰는 간부리력서 비슷한것이지요. 집안래력으로부터 살아온 경력… 장소와 날자로부터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일수록 더 좋습니다. 제일 중요하게는 여기 오게 된 동기와 목적을 정확히 밝히는건데… 우리에 대한 립장과 견해, 거기 말로 하면 사상관점인데 그걸 잘 밝히는거고… 그런데는 그전때의 사상도 사상이지만 지금의 바로 이 시각의 생각과 감정을 잘 써야 하겠습니다. 뭐… 저흰 다 알고있습니다만 그래도 선생의 자필진술이 중요한것이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종이는 더 갖다드리겠습니다.

참, 이건 제 개인적인 조언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선생은 론설원으로서 북의 신문사 계장을 하셨다지요. …》

《계장이 아니라 부장이요.》

《아, 그렇지요. 그럼 부장을 하시면서 아시게 된 북의 경제실태와 전망을 품목과 수자로 자상히 적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 국가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는것으로서 선생이나 지장군 그분께도 커다란 기쁨으로 될겁니다. 상금과… 앞으로의 출세에도 큰 도움이 될거구요.》

《나더러 간첩질을 하라는것이요?》

《어이쿠, 무슨 별난 말씀을—》

소령은 펄쩍 뛰는 시늉을 했다. 메밀눈은 간단치 않다고 했는데 그 눈에까지 겁기가 흘렀다.

《그렇다면 쓰겠소.》

《그럼, 그래야지요.》

소령은 너무 기뻐 두손을 썩썩 비볐다.

《얘, 저 불을 꺼.》

소령은 이때야 고촉전등이 그대로 켜진것을 알아챈듯 사병에게 소리쳤다. 천정의 전등 하나만이 남게 되자 소령은 전보다 더 살가운 태도로 입을 열었다.

《여기보다 저 안방에서 쓰는것이 나을겁니다. 사실 여긴 대질심문을 할 때 쓰는 방이거던요. 얘, 커피랑 준비됐니?》

《예.》

《얼른 가져와.》

소령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머금으며 안방쪽을 가리켜보였다.

《저긴 온돌방이여서… 감기 들 념려도 없을것입니다. 이제 좀 쉬다가 식사를 한 다음 글을 만들어도 됩니다, 잘 떠오르지 않을 때면 소설도 보시고. 저기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싸르트르의 소설도 있습니다. 싸르트르는 제가 매우 좋아하는 작가랍니다. 사람들은 그의 글을 난해하다고 하지만 파고들어보면 오묘한 진리가 있거던요. 난 그 사람 글에서 제일 감복되는것이 선택에 대한 철학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그가 딛고 선 땅과 상황이라는 구속에선 벗어날수 없다, 그런데서 선택에선 부자유가 있다, 하지만 최종선택에서는 인간의 의지가 작용된다. …

이런걸로 요약할수 있다고 보는데 최종! 최종의 선택이라는것이 얼마나 의미깊습니까. 작게는 어떤 애인을 택하는가, 어떤 술을 마실것인가 이러루한것이지만 크게 보면 죽겠는가 살겠는가 이런 문제에 귀결되는것이 아닙니까.》

《그럴듯하오.》

《쓰는건 래일까지면 되겠지요. 우에선 3일간이라고 찍었지만… 이름과 지명은 될수록 한문으로 써주십시오.》

소령은 갔다. 성민은 커피를 가지고온 키다리사병의 안내를 받으며 그 안방으로 들어갔다. 소령의 말대로 온돌방이였다.

《좀 누워도 될가?》

사병의 속중을 떠보았다. 사병은 반색했다.

《아, 거야 자유입지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자유세계니께요.》

《그런가. 한데 하필이면 왜 이따위 커피심부름을 하오?》

《어망께, 제야 선입하사인지로.》

《왜, 자유세계인데 입자들도 좀 눕지.》

선입하사의 눈자위가 희뜩 돌아갔다.

《건 규정위반입니다.》

《안됐군.》

손에 잡히는대로 책 한권을 뽑아든 성민은 그것을 목침삼아 자리에 누웠다. 온몸이 대번에 천길나락속으로 떨어지는듯 하며 거의 만족에 흡사한 피로가 온몸을 솜뭉치처럼 만들었다.

(마지막순간도 이럴가?!… 마지막… 하긴 이것이 마지막안식일수 있어.)
어린시절 바다물에 흠씬 젖은 몸을 따끈따끈한 모래불에 묻고 반쯤 감은 눈으로 하늘을 쳐다볼 때와 같은 기분이였다.
《모포를 덮어드리까?》
메주먹은 사병이 친절을 보였다.
(기가 막힌 일이구나.)
무겁게 처져내리는 눈까풀사이로 사병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았다. 목단강1중학교시절에 가본 아편굴이 떠올랐다.
때절은 집들이 몰켜선 속에 붉은 주렴을 차일처럼 드리운 집이 아편굴이였다. 벽도 천정도 아편연기에 절어 꺼멓게 보이는 그 집안에서는 열댓명의 사람들이 세상이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고 아편대통을 빨고있었다. 거기에는 흰 바지저고리차림으로 유표한 조선사람도 있었다. 뻥하니 구멍이 뚫린 그의 버선코에서 뱀대가리같은 엄지발가락이 꿈지럭거렸다.
《법무청 어른들은 뭣때문에 아편금지령을 내렸는지 모르겠어. 대브리텐 어른들이 현명했지. 아편으로 녹이면 야마도족의 피도 적게 흘릴것 아닌가. 우리도 때를 봐서 상주문같은것을 올리자구. 히틀러는 아리아족외의 벌레들은 다 없애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대동아 신질서에도 바로 그런 척결이 필수적이지. 그건 총과 대포와 함께 바로 저같은 아편장려로 정신과 육체를 소멸해야 돼.》
《그럼 로동력은… 일을 시킬 사람들이 없잖은가.》
《아니, 아편을 빤 다음엔 머저리가 되지만 기운은 장사처럼 되니 달구지도 끌고 밭을 뚜지는데서는 황소맞잡이지.》
성민이와 함께 갔던 동급생—일본애들이 신이 나 주절대며 아편굴을 떠날 때 성민은 바깥전주대밑에 홀로 가 서서 분함과 수치감에 몸을 떨었다. 한시간 넘게 기다려 바지저고리가 나타나자 그 불만과 수치감은 눈물과 노성으로 터져나왔다.
망국민이 된것만 해도 분한데 어떻게 되여 아편쟁이가 되는가, 피우지 말라, 망국된 처지는 그렇다 해도 가족, 처자라도 생각하라. 무슨 말인들 안했겠는가. 하지만 그 바지저고리는 코웃음을 쳤다.
《도련님이구만. 학생도 한번 피워보라구. 한모금 빨면 팔다리가 매시시, 세상은 오락가락, 두세모금 마시면 구름우에 오르지.》

그다음 《석탄 백탄 타는데》를 부르며 사라졌다. …
(아편?!… 그래, 지금 둬모금 빤셈이다. 친절을 받아들인것으로 되였으니까.)
택규에게도 소령에게도 그리고 이앞의 사병에게도 례의를 보였다.
(무엇때문에? 웃는 낯에 침뱉지 못한다는것으로?…)
그렇다면 택규의 능갈친 말에는 왜 면박을 못 주었던가.
《난 성민군이 우리한테 영 온것으로 믿겠소.》
살리겠다는 유혹, 살수 있다는 희망때문에?…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런즉 나에게는 오직 두 길, 변절인가 죽음인가 이뿐이다.)
마음에는 다시 안정이 찾아드는듯싶었으나 눈앞은 더욱 캄캄해졌다. 닥치는대로 또 하나의 책을 뽑아들었다. 장편소설 《사랑》, 어데서 봤더라. 작가의 이름이 리광수임을 알아보고 기억해냈다.
려아한테서 얻어본 소설이였다. 그때의 책에는 흰 모시바지저고리를 입은 저자의 초상이 있었다.
(무슨 안빈이라는 박사의 피에 대한 철학이 있었지.) 기억이 대목대목을 되살려냈다. 변형되는 피에 대한 장광설이 있었다.
(변형?!)
성민은 움찔하며 일어나앉았다.
반쯤 조는듯 한 자세로 앉아있던 사병이 카빙총을 끄당겨 집는것을 보며 성민은 뜨지도 빠르지도 않은 동작으로 대질심문실의 책상에 가마주앉았다.
펜을 잡은 손에 힘을 주고 첫 글구를 썼다.
이것이 자기가 할수 있는 마지막일감이고 투쟁이라고 생각했다.

3

수많은 사람들과 다시 만나는 려행이였다.
이 길에서 고향사람들과도 다시 만났고 벗과 원쑤들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게 되였다.

죽음과의 대화는 이미 끝났고 이젠 마지막결산, 한 인간의 마지막 표말을 바로 세우는것만이 남았다는, 이 하나의 집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애썼다.

이때문인지 마음은 비교적 평온했다. 이렇다하게 방해되는것도 없었다.

2명의 사병은 말뚝에 벙어리였고 고문장에서 드문히 들려오는 아츠러운 비명과 복도바닥을 울리는 군화소리도 태연히 스쳐들을수 있었다. 괴로운것은 그리운 사람들과 다시 만날수 없다는 그리고 자기의 무덤가엔 따뜻한 눈물 한방울도, 꽃송이 하나도 놓일수 없다는 아픔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뿐이였다. 그럴 때마다 앞벽에 설치된 고촉전등을 지긋게 쏴보았다.

피심자의 신경을 자극하기 위해 설치한 그 전등에서 강렬한 불줄기가 쏟아져나오는듯 한감을 느끼려 했었다. 1952년 854.1고지공격전투때 그는 비발치는 적의 기관총사격을 맞받아 보병총 하나를 들고 돌진했다.

글의 방향과 요점을 잡는데서는 메밀눈의 소령이 식자자랑으로 씨벌인 (본인으로서는 정략적인 심리전이였겠지만) 운명과 선택이라는 말이 도움으로 되였다.

이 글은 소령이나 택규만 아니라 태민이며 옥영이로부터 경자또래의 모든 사람들이 읽기를 바랐다. 운명과 선택, 그가 운명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듣게 된것은 여섯살때인가 아버지를 따라 어느 한 집에 갔을 때였다.

그 집주인은 아버지의 옛 선생으로 경성지방에서도 손꼽히는 독립운동자였는데 10년간의 옥고를 마치고 돌아온 뒤 늘 병석에 누워있는 몸이라고 했다. 베감투를 쓴 어른들과 양복에 검은 완장을 팔에 낀 사람들이 붐비는 속에서 그 집주인의 아들이 아버지를 맞았다.

《어찌된 일인가.》

허겁지겁 대문턱을 넘어서며 창황히 묻는 아버지의 물음에 그 집 아들은 주먹같은 눈물을 떨구며 《지난밤에 운명하셨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운명이란 죽었다는 말이구나 하는것은 그때 깨달은거고 그뒤 옥편

을 뒤지며 그 말의 뜻이 여러가지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행운》, 《액운》, 《죽음》 등등으로 그가 찾아 써놓은 글을 본 할아버지는 집안신동의 재주에 탄복을 금치 못하며 한다발의 칭찬을 안겨주었는데 가문대대의 행운과 성민의 복운을 말하며 이 모든것은 조상덕이고 운수 팔자라고 하였다.

그에 대해서는 마을어른들한테서도 자주 들었고 그 고장의 한다하는 관상쟁이자 의원인 아낙도사(녀도사)도 그렇게 말했다.

성민이 일곱살때인 어느 가을날에 있은 일이였다. 그전까지만 해도 성민은 아낙도사라고 하면 머리를 저었다. 대대로 유학자이고 마을의 으뜸가는 존위들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때문이였다.

할아버지는 무당의 관상술을 놓고 잡술이라고 했고 아버지는 미신이라고 했다. 여기에 태민은 한수 더 떠서 아낙도사를 가리켜 무당보살이고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그런데 마을사람들속에서는 그 반대되는 말도 있었다. 침도 잘 놓고 얽힌 마음도 잘 풀어준다고 했다.

그날 지응석의 집에 놀러갔다가 그가 권하는 감주 한사발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그 집앞을 지나게 되였다. 그런데 그 집 울안에서 흘러나오는 장고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옛다! 떴다!》하는 청아한 목소리에 이어 발구름소리가 일었다.

무슨 일인가 하여 울널쪽으로 가 옹이 빠진 판자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칠보단장에 옥색띠로 머리를 동인 녀인이 너울너울 춤을 추고있었다.

둥당둥당 새장고를 칠 때마다 열두폭 람색치마가 우산처럼 퍼지며 핑그르 도는가 하면 건공중으로 한길씩 뛰여오르기도 했다. 몸이 공중으로 솟구칠 때마다 손에 쥐인 쇠구슬북채에서 잘랑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렸다.

《우여― 최영장군 강림이시다.》

부드러우면서 랑랑한 목소리와 함께 북채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녀인의 눈에서는 정기로운 빛이 뿜겨나왔다. 황홀할 지경이였다.

《누구요?》

녀인이 문득 뛰기를 멈추고 엄하게 소리쳤다.

(과연 도사구나.)

도망치려고 했으나 발이 땅에 붙었는지 움직여지지를 않았다.
《아유, 작은도유사님이 어떻게 여길 다.》
대문밖으로 나온 녀인은 여느 동리사람들과 다름없이 《도유사님》이라고 그를 괴여올리며 반색해했다.
《어서 들어가자구, 어서.》
녀인이 손목까지 덥석 쥐는 바람에 뿌리칠수 없었다.
울안으로 들어서니 마루우에 한 처녀애가 앉아있었다. 성민을 본 처녀애는 부끄러워하는 기색이였다.
《이 앤 내 친척인데 그 잘난 무당춤을 보자고 해서 한바탕 뛰던중이다.》
《그러니 아잰(아주머니라는 뜻) 진짜무당이였수꾸마.》
《한시절 미친년노릇을 했다. 왜 마음에 안 드냐?》
《저… 무당은 남을 속인다던데.》
《옳다, 바루 맞혔다. 하긴 이 세월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니. 내 그럼 관상을 봐줄가?》
《아이, 싫수꾸마. 관상술두 거짓부리라고 했어요.》
집에서 알면 욕을 먹는다는 소리까지 나오는것을 참았다.
아낙도사는 웃었다.
《그 말도 옳다. 하지만 조선속담에 겉볼 안이라고 진짜관상은 과히 틀리지 않는단다.》
《그럼 봐주십시오.》
그를 섭섭하게 하고싶지 않았다.
《그럼 봐주마.》
마루에 앉으라고 했다.
《어떤 상일가? 귀인 귀골에 귀상인데ㅡ》
마음이 끌렸다.
《귀상이란건 귀하게 생겼다 그 말이겠지요.》
《응, 네가 신동이라더니 문자풀이로 아는구나.》
아낙도사는 자못 재미난다는듯 머리를 좌우로 저으며 보다가 무릎을 쳤다.
《옳지, 대성대길에 으뜸가는 복팔자로구나. 밖으로는 궁성룡마요, 안으로는 꽃사슴이고… 오호라ㅡ 전란에는 10만장수의 대장군이니라.》

성민의 가슴은 턱장없이 부풀어올랐다.

대성대길(크게 잘된다는 뜻), 궁성룡마의 말뜻을 재빨리 헤아려 보고난 그는 한가지 리해되지 않는것이 있어 따져물었다.

《우리 나라엔 왕도 없고 궁궐도 빼앗겼다는데… 궁성룡마라고 하면 거짓부리가 되지 않습니까.》

《옳다, 역시 신동이로구나. 그렇지만 조만간 우리 나라도 다시 독립을 하고 왕도 궁궐도 다 생긴다.

넌 백두산장수얘기를 못 들었느냐.》

《들었습니다.》

《그렇지. 이제 그 신령스러운 장수님께서 나라를 찾으시고 옥좌에 오르시여 국정을 돌보시게 된단다.》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이야기에 귀가 말박만 해졌다.

《그런데 한가지 명심할것이 있다. 너희 집안으로 말하면 다 선량하고 맘씨고운분들이다. 그런즉 너도 흥부처럼 착한 마음을 가지고 돈없는 사람, 못사는 사람 잘 돌봐줘야 복많은 사람이 된다. 한데 오늘 예서 한 말은 어데서든지 하면 안된다. 자칫 이 말이 퍼지면 그 역시 액화로 된다.》

성민은 고향사람들을 그려볼 때마다 그 녀인을 애틋하게 추억했다.

해방후 고향을 찾아왔을 때 그 녀인은 없었다.

왜놈들에게 맞아죽었던것이다. 죽지 않을수도 있었다. 조금만 빌붙든가 수그러졌으면 인차 놓여나올수 있었다. 하지만 이 범상치 않은 녀인은 잡힌 몸으로도 왜도적들에 대한 질욕을 퍼부었고 백두산장수의 신령스러움을 긍지에 넘쳐 도고히 자랑스럽게 말했던것이다.

그에 악이 받친 놈들이 무리매를 안길 때도 녀인은 소리높이 웨쳤다고 한다.

《쳐라, 쳐. 나는 너희들이 망할 날을 환히 보고있다. 백두산장수께서 너희들을 도륙낼것이다. 씨종자까지 죄다 말려버릴것이다.》

놈들은 녀인의 시신을 누구도 모르게 없애버렸다. 저들의 죄행이 두려웠던것이다.

그 녀인을 놓고 한동안 백두산에서 내려온 공작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런것은 아니였다.

그 역시 보통녀인이였고 고향사람들 거의가 그랬듯이 백두산장수를 우러르는 마음이 지극했을뿐이였다.

성민은 자기가 쓰는 글에 그 녀인에 대해서도 썼다. 비록 촌스러운 침술과 관상술로 살아가는 녀인이였지만 그 역시 조선사람의 넋을 지니고 애국에 자기를 바쳤기때문이였다.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썼다. 할아버지 역시 왜놈들을 미워했고 인간된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애썼기때문이였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버지와 외삼촌에 대해서는 끝까지 리해하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성민이가 철이 들무렵부터 조상묘가 있는 선산으로 자주 함께 오르군 했다.

그 산봉우리에서 주변의 들과 마을들을 둘러볼 때면 늘 수심낀 탄식을 했다.

《내가 어릴적만도 저런 게딱지같은 집들은 적었다, 비렁뱅이도 별로 없고.》

《한데 왜 저렇게 되였습니까?》

《거야 나라를 뺏겼으니 어쩔수 없는 일이지.

우리두 그 왜놈들 등쌀에 숱한 땅을 떼웠다. 그래서 난두 한땐 의병으로 가려구까지 했다.》

《아버님도 독립군으로 가려고 하는걸 할아버님께서 막으셨다지요.》

《그랬다. 어쩌겠니, 장대기로 대포를 이긴다더냐. 그러니 넌두 물덤벙술덤벙해서는 안된다. 지금 볼라니 네 어머니 오래비란게 독립인지 뭔지 들뛰는것 같은데 그걸 본받아서는 안된다. 네 애비가 하는 선심쓰기도 본받아선 안되구.》

《할아버진 이웃끼리 화목하고 돕기를 잘해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지. 하지만 돕는데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정 가난한 집엔 쌀말 같은것은 줄수 있다만 네 애비처럼 그냥 공짜로 퍼주고 소작료 받는것도 주면 받고 안 줘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공짜로 주는거야 물어줄 힘이 없어 하는것이고 소작료를 못 무는거야 바칠 곡식이 없어 그러질 않습니까.》

《허허, 넌두 네 애비와 외삼촌의 물을 흠뻑 먹는구나. 지금 그때

문에 네 애비가 말밥에 오르는걸 모르니. 타처의 땅임자들도 원성이 크다, 농군들의 버릇을 잘못 키운다고. 그래서 네 애비까지 사회주의자라는 말이 나돈다.》

《외삼촌은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가 사회주의라고 했어요. 그러니 건 좋은것이 아닙니까.》

《그 빌어먹을 녀석이 너한테까지 사회주의를 가르쳤단 말이냐?》

이럴 때의 할아버지는 무서웠다.

《아, 아니꾸마. 손님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엿듣고…》

이렇게 말해도 할아버지의 분기는 풀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애당초 듣지조차 말아라. 넌두 네 애비가 어렸을적에 당한 일을 모르지 않을테지. 3.1만세를 했다가 콩밥을 먹은건 그렇다 하드래두 그때문에 우리 집안까지 망할번 하지 않았니.

사회주의란것두 그렇지. 세상사람들을 모두 잘살게 하는거라면 좋긴 하다만 지금 사회주의를 한다면 덮어놓고 잡아가지 않느냐.》

《건 사회주의가 왜놈들을 망하게 하기때문에 그런답니다. 그러니 좋은것이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도 말씀하셨지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허허, 네 학문이 말이 아니구나. 치국평천하(나라를 바로잡는다는 뜻)도 다 하늘이 준 운수에 따를 때만 되는 일이니 지금세월에 네 애비나 외삼촌따위들로는 어림없다. 그러니 넌 수신제가만을 명심해라. 제 몸을 바로하고 제집을 잘 돌보는것! 평백성으로는 이 하나면 족하다. 참, 맹자를 다 읽었으니 중용지도두 알겠다.》

《네, 읽었습니다.》

《그럼 똑바로 알아두거라. 우리 집안의 법도는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행실을 바로하며 집안을 잘 꾸리는것이고 살아가는 방법은 중용지도다.

인생살이에서 중용지도란 평온과 자중이 근본인즉 란시에는 몸을 사리는것이고 나라안싸움이건 동리싸움이건 일체 참견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거다. 알겠느냐?》

이런 말이 오고간 날 저녁 할아버지는 성민의 천자문교사까지 불러들인 자리에서 이미 산에서 신칙한 말들을 다시 한 끝에 태민이의 방뒤짐을 했다. 태민과 성민의 교육에 해를 줄 책을 찾기 위한것이였다.

성민은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방뒤짐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았다.

서슬푸른 기상으로 태민의 책가방은 물론 서가의 책까지 모조리 허물어내리던 할아버지는 일본글로 된 책들은 덮어놓고 집어던졌다. 아버지가 들어와서 그건 교과서고 뭐고 하며 말씀드려서야 게면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대신 야구장갑과 방망이를 보자 갑절로 분기를 내였다.

《왜놈들의 지랄을 배우다니, 당장 불태우거라.》

결국 야구장갑과 방망이가 아궁속으로 들어가는것으로 이날의 방뒤짐이 무사히 마무리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후 외삼촌이 경찰에 잡혔다가 탈출하는 사건이 생겼다. 그 여파로 성민이네 집에까지 경찰들이 우르르 쓸어들어 외삼촌을 어데 숨겼나, 어데로 빼돌렸나 따졌고 아버지의 방은 물론 할아버지의 방까지 빈대찾듯 훑어 뒤졌다. 놈들이 떠나가자 할아버지는 가슴을 치며 아버지를 칭원했다.

《불효자식이다, 불효자식! 고르고골랐다는 후처라는게 액운을 몰아왔구나.》

할아버지의 말이 맞는듯싶었다. 쩍하면 경찰들이 달려들어 외삼촌이 오지 않았느냐, 그지간 소식은 모르느냐 하며 아버지를 죄인처럼 다과댔고 집안의 여기저기를 기웃거렸다.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노기를 터뜨렸고 그앞에서 어머니는 숨도 변변히 쉬지 못했다. 온 집안이 외삼촌의 일로 심화를 쓸 때 그 이듬해에는 성민이까지 경찰서 구류장신세를 지게 되였다. 성민에게는 이것이 지어진 운명에서 벗어난 첫걸음이였고 할아버지의 유지에 거슬린 첫 선택이라고 할수 있었다.

그는 자기가 쓰는 글에 이 사실에 대해서도 밝혔다.

4

《네 이름자 뜻이 뭐라고?—》

책상우의 종이장을 내려다보던 고즈나끼순사부장의 얼굴에 능글웃음이 피였다.

성민은 자기가 쓴 이름자의 《별 성》을 바꾼것이 문제시되였음을 알았다.

천연스럽게 말했다.

《제 이름은 참한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백성이라?! 백성이라는데는 머슴도 있고 종도 있다. 그래, 넌 그 머슴노릇, 종노릇도 좋단 말이냐?》

《네, 사람은 사람에게 서로가 종이 될 마음을 가지는것이 좋다고 봤습니다.》

고즈나끼의 얼굴이 벌레씹은 상으로 되였다.

《네 나이가 지금 몇살이냐?》

《열한살입니다.》

《에익, 발칙한 녀석!》

고즈나끼의 눈알이 튀여나올듯 했다.

개밥바라기(순사별에 대한 비칭) 하나를 단 망둥어가 한걸음 나섰다. 1주일이 멀다하게 성민이네 집을 찾아와서는 대두병소주 한두병씩은 꼭꼭 비우고가는 순사다.

《부장님, 이녀석은 좀 별난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건대 이름자를 그렇게 쓴것은 천황페하의 으뜸가는 적자가 되겠다는것으로 쓴건데, 헤헤… 죄를 짓다보니 그런 말만은 감히 못하는것 같습니다. 이녀석! 아가릴 똑바로 놀리지 못해!》 망둥어의 손이 성민이의 뺨을 철썩 울렸다.

고즈나끼는 싱그레 웃으며 성민에게 다시 물었다.

《집안에서 넌 누굴 제일 따르느냐?》

《전 집안어르신님들을 다 따릅니다.》

《너의 그 외삼촌이라는 불온선인도 좋단 말이냐?…》

《네, 저의 외삼촌은 저를 한번도 때린적이 없구 큰소리로 욕한적두 없습니다.》

《그놈이 대일본제국을 반대하여 너의 집안을 결딴나게 하는데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음, 네녀석두 가막소콩밥을 먹어봐야겠다. 아니, 목을 매달아야겠다. 너 개새낄 목매다는걸 봤느냐?》

《…》

성민은 겁이 더럭 났다. 하지만 류치장에 갇혀 열흘이 다되도록 목매다는 일은 없었고 몇번의 문초와 가벼운 매찜질을 당한 뒤 열흘만에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였다. 나오게 된 날 고즈나끼가 또 그를 찾았다. 그전처럼 험상궂은 인상이 아니라 사탕, 과자까지 들라고 하며 싹싹히 대했다.

《그래, 넌 광명단이 뭔지 모른단 말이지.》

《네, 그렇수꾸마. 궁끼놀이를 재미나게 하기때문에…》

동무들과 약속된 말을 되풀이하자 고즈나끼는 더 들을 생각이 없다는듯 손을 젓고는 자기 하던 말을 계속했다.

《광명단이란건 아주 나쁘다. 그건 너희같이 잘사는 집안을 죄다 없애버리자는거다. 그래,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땅도 재산도 다 잃고 가난뱅이들한테 맞아죽는것이 좋겠냐. 속히우지 말어라. 대일본제국은 사실 너희와 너의 집안사람들을 위해 여러모로 분투하는거다. 그러니 이제 집에 돌아가면 공부를 착실히 하며 네가 말했다는대로 대일본제국의 착실한 신민이 되기 위해 노력해라. 그리구 이제 더는 나쁜 애들과 섭쓸리지 말아라.》

고즈나끼가 말한 《나쁜애》들 전부와 함께 주재소밖을 나서니 마을사람들 거의가 와있었다.

그들모두앞에서 고즈나끼가 일장의 연설을 하였다.

《에, 이번 면안의 광명단사건은 매우 엄중하다. 하지만 다들 어린이들로서 공산당패거리들의 꾀임에 속은것으로 관대히 용서하기로 했다. 에, 또 이번의 용서가 마지막이란걸 알아야 한다. 그런고로 이제 또 나쁜짓을 하면 대일본제국의 법에 따라 아이새끼들은 물론 여기 모인 당신들까지 엄정처분하겠다.》

고즈나끼는 잔뜩 눈알을 부릅떠보이고는 빈 마차옆에 서있는 성민의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지상, 잠간 들렸다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일후에 한번 들려보지요.》

아버지는 침울한 눈길로 어른들과 아이들을 둘러보다가 성민을 손짓해 찾았다.

《꽤 걸을만 하냐.》

《전 죄꼼도 일없수꾸마.》

《그럼 됐다.》
아버지는 두루마기자락에서 10원짜리 지전 한장을 꺼내 성민에게 주었다.
《다들 걸을수 있을것 같으니 가며 매식들을 해라. 난 마을어른들과 함께 갈테다.》
아버지가 마을안의 늙은이들과 마차에 오를 때 성민은 10원짜리 지전과 《매식》(음식을 사먹는것)이라는 말에 환성을 올리는 아이들과 함께 직판 바다가로 달려갔다.
점방에서 밥과줄, 깨엿, 말눈깔사탕을 한아름씩 사들었다. 다들 개선장군의 기분이였다.
순사놈들을 속이고 광명단의 비밀을 지킨것이 모두의 자랑이고 기쁨으로 되였다.
성민이 이들과 한동아리로 된것은 아버지의 돈심부름때문이였다고 할수 있었다.
외삼촌이 관계한 공산당사건으로 여러 사람들이 잡혀간 뒤 아버지는 그런 집들과 체포를 면하고 숨어버린 사람들의 집들에 돈을 보내주군 하였는데 그 심부름을 성민이가 맡아했다.
외삼촌과 함께 탈출한 안수길이라는 사람네 집에 그중 많이 다녔다.
어느날 그 집으로 갔을 때 이상스러운 노래를 듣게 되였다. 순사들이 들으면 당장 잡아갈 불온창가였다.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인기척을 내고 문을 여니 방에는 수길의 동생인 영길이와 함께 여러 아이들이 모여있었다. 다들 잡혀갔거나 숨어버린 사람들 집의 아이들이였다.
성민이를 보자 무척 반기면서도 당황해하는 기색이였다.
수길의 동생인 영길이가 집뒤 굴뚝모퉁이로 그를 데려갔다.
《너 이자 우리가 부른 창가를 들었니?》
《들었어.》
성민에게는 그가 4살 우의 실장정맞잡이였으나 이 고장의 습관대로 너나들이를 했다. 영길은 언짢게 물었다.
《어떤 창가 같으니?》
《혁명군의 노래지.》

성민은 방금 들었던 노래를 그대로 외웠다.

혁명군은 왔고나
우리 마을에 왔고나
붉은기 휘날리며 왔고나
…

《그만해라.》
영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너 그런 노래 불렀다간 어떻게 되는지 알지.》
《순사놈들한테 일러바칠가봐 그러니.》
《아니야, 넌 그런 아이가 아니니까.》
영길은 굴뚝밑에 흩날린 벼짚오리들을 발로 헤집다가 뜻밖의 물음을 건넸다.
《너 우리하고 놀지 않을래?》
《어떤 놀음인데.》
《놀음이 아니라 **김일성**장군님의 부하가 되기 위한 련습이다.》
성민은 깜짝 놀랐다. 가슴이 후두둑거렸다. 하지만 두말없이 찬성했다.
《놀겠어.》
그 말에 영길은 다소 안심하는 기색이였다.
《우리 형님은… 너희 집 사람들은 다 좋다고 했어. 넌두 **김일성**장군님을 따르지?》
《그렇지 않는 애들도 있니.》
이렇게 되여 성민은 광명단에 들게 되였다.
광명단은 외삼촌이나 영길의 형같은 어른들의 심부름을 해주는것과 불온창가를 배우는것이 기본으로 되여있었다.
그렇게 노래를 배우거나 할 때면 아버지한테도 궁끼놀이(군기놀이)를 하러 간다고 했다. 그것은 광명단의 규률이였기때문이였다.
성민은 이 《광명단》에서 제일 나이가 어렸지만 인차 두각을 나타냈다.
외삼촌의 책에서 본 글귀들과 외삼촌을 찾아왔던 손님들이 주고받

던 이야기들속에서 귀가 번쩍 틔였던 말들을 고스란히 옮길 때면 이 광명단의 책임자인 영길이까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태민형의 소학교 1년 후배였던 영길은 자습으로 중학교강의록을 뗐고 수길형의 영향을 받으며 사회주의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어 아는것이 많았다.

이번에 그들이 무사히 놓여나오게 된데도 영길이의 공이 컸다.

그를 지도하는 어른들의 귀띔도 있었겠지만 영길은 모든데서 비밀을 잘 지키는것이 첫째라고 했고 잡히는 경우에는 군사놀이를 했다는것으로 뻗치라고 했다.

하여 외삼촌과 관계한 어느 심지 약한 어른이 불어댄 광명단사건은 고즈나끼가 말한대로 어른들의 꾀임에 넘어간 철부지들의 소행으로 치부되고말았던것이다.

바다는 좋았다.

첨벙, 첨벙 물에 뛰여들 때 너무나도 좋아 고함들을 질렀다. 성민이도 뒤질세라 소리를 내질렀고 물장구를 치며 곱등어흉내도 냈다.

뻗쳤고, 살았고, 사탕과자까지 배불리 먹었으니 얼마나 좋은가.

하지만 모래불에 나왔을 때 성민은 쑥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느꼈다. 아니, 죄스러운 감정이였다.

다른 애들의 어깨와 잔등에는 검붉은 채찍자리들이 무수했으나 자기 몸엔 굴뱀자리 하나 없었다. 살갗이 유난히 흰것까지 마음에 걸렸다.

고즈나끼가 아버지한테만 인사를 차린것까지 죄스럽게 돌이켜졌다.

잘사는 집안, 도유사집 아들, 그때문에 너는 매를 안 맞았지? 모든 애들이 이렇게 보는듯싶었다. 더 참기 어려워 영길을 찾았다.

《왜?》

의아히 보는 영길이의 눈에도 그런 비난기가 담겨져있는것 같았다.

성민은 서름서름한 기색으로 이 고장 애들로서는 누구도 생념을 못하는 누런 가죽띠를 뽑아들었다.

《이걸로 날 때려줘, 순사들이 때리던것처럼.》

《뭐라구?》

모래불에 누웠던 아이들이 일어났다.

《난 고문이 어떤건지… 알고싶고… 또 늬들과 같아지고싶어.》
《엉…》
《야, 붓기 쓰지 마.》
《넌 한대면 까무라쳐.》
다들 반대했다. 고마왔다. 하지만 그때문에 더 우기게 되였다.
《정말이야, 맞고파.》
《꽤 견딜만 하니?》
영길의 낯빛은 매우 진중했다. 성민이의 말없는 고개짓에 영길이 역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죽띠를 받아쥐였다.
《정말 때리려고 그러니.》
누군가 아부재기를 치였으나 영길은 돌아보지조차 않았다.
《엎더라, 눈을 꾹 감구… 그리구 이발은 꽉 악물고―》 휙 하는 바람소리가 울렸다. 순간 잔등살이 터갈라지는듯 하며 발끝까지 저릿했다.
《살살 쳐라…》
《아프면 소릴 질러, 소릴!…》
《크게 소리쳐라. 그러면 덜 아프다.》
휙휙 하는 바람소리가 잦아졌다. 눈에서 별찌가 튕겼다.
《저런!》
《영길아, 너 진짜루 치는구나.》
《아― 피가 난다, 피가.》
그때에야 매질이 멈춰졌다. 한동안 모두가 조용한 속에 영길이의 헐떡거리는 숨결만이 높았다.
《너무했어.》
누군가 말할 때 성민이의 몸이 정중 들렸다.
말없이 그를 안아든 영길은 바다물속으로 들어갔다.
《정말 용쿠나. …》
젖어든 소리였다. 그의 손에서 몸을 빼치고 물속에 몸을 담그었다. 잔등이 몹시 쓰렸지만 처음 바다물에 뛰여들 때보다 더한 쾌감에 눈이 감겨졌다.
모래불에 나와 눕자 모두가 달라붙어 그의 잔등에 모래를 뿌려주었다.

《이게 독빼는데 제일이야.》

《작은도유사님이 대단해. 신음소리 하나 안 냈거던.》

《도유사님이라고 하지 마. 이 앤 영웅이야. 〈셋뿌꾸〉(칼로 배를 가르는것)하는 사무라이들보다 더 쎄.》

성민은 행복했다.

그만 떠나자고 하여 다들 옷을 주어입을 때 영길이가 그의 잔등에 남아있는 모래를 마저 씻어주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이였다.

병석에 누워계시는 할아버지방에 들렸다가(할아버지는 주무시고 있었다.) 아버지방에 이르니 손님이 와있었다. 미닫이문짬에서 새여나오는 말소리를 듣고 망둥어가 왔음을 알았다. 그 말하는 내용이 자기와 관련된것으로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녀석이 똑똑하기때문에 더욱 그렇지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종이 된다!〉 이건 사회주의자들이 떠드는 소리와 같다는 거지요.》

《이보게, 그건 공맹지도(공자, 맹자의 유교철학)에도 있는걸세.》

《원, 일본어른들이야 그렇게 봅니까. 고즈나끼순사부장은 이 집안전체를 의심합니다, 백두산공비들과 내통하지 않는가 하고…》

《그러니 내가 자네나 고즈나끼순사부장한테 준 돈도 맥을 못쓴다는거구만.》

《아, 그렇지야 않습지요. 성민이랑 이곳 애녀석들이 무사히 놓여나온것두 그리구 거 있잖습니까. 성민이 외삼촌이 이 집에 들렸다가 간도로 간것두 제가 덮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조심하면 아무 탈 없을겁니다.

성민이를 잘 신칙해야겠습니다. 태민이야 공부와 체육밖에 모르는 학도니… 하긴 태민이에 대해서도 말들이 있는데 동척(일본의 동척주식회사)어업의 젊은이들을 두드려패는데 그도 가담했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물론 협기놀음의 막싸움이긴 했지만… 그러나 너무 근심하진 마십시오. 툭 불거져나오는 일이 없는 이상 쓱싹해치울테니까요. 이번에 새로 내려오는 고등계형사도 제가 있으니 소경에 귀머거리로 될것입

니다.》
《하여간 고맙네. 자, 이젠 그만하고 들자구.》
성민은 무거운 마음으로 태민의 방에 갔다.
그런데 태민의 방에도 손님이 있었다. 서울의 경성1중에 가있는 어업조합장의 아들이였다.
성민이 꾸뻑 절을 하자 경성1중은 환한 웃음을 머금고 태민을 돌아보았다.
《난 이 애한테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군은 형님이라고 해도 절을 해야 돼. 사회주의운동자가 아닌가.》
《객적은 소린 그만하라구.》
태민은 잔뜩 눈살을 찌프리고 성민을 보다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왜 이렇게 늦었니?》
《멱을 감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꼴 좋다. 아직도 혼이 덜 난게로구나. 그래, 매는 더 맞지 않았니?》
그동안 태민은 경찰서로 올 때마다 늘 성민에게 묻는것이 매를 맞지 않았는가 하는것이였다.
《안 맞았수꾸마.》
《바지를 걷어라.》
걷었다.
《음, 그럼 웃동을 벗어라.》
《네?!…》
《벗으라니까.》
태민의 말에 경성1중까지 고개를 끄덕이는 바람에 마지못해 벗었다.
《저런.》
경성1중의 웨침에 이어 태민의 목소리가 방을 쩌렁 울렸다.
《어느놈이, 어느놈이 때리던?》
눈에서 불이 펄펄 이는것 같았다.
성민은 선뜻 입을 떼지 못했다.
류치장에 있을 때 표독스럽게 놀던 순사 몇놈을 상기했으나 이름을 알지 못했다. 설사 이름을 안다 해도 거짓말을 할수 없었다.
《사실은—》 성민이 몇마디 채 떼기 전에 태민은 벌떡 일어섰다.

《영길이가, 그 새끼가 널 때렸단 말이냐!》
성민은 무서웠다. 성미가 유순한듯 하면서도 일단 성이 나면 누구도 건잡지 못하는 태민인것이다.
《아니, 그가 위정 때린것이 아니라 내가 위정 맞겠다고 해서.》
성민은 황급히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영길이가 자기를 안아들고 목욕시켜준것까지 말해서야 태민의 분기가 어느 정도 풀렸다.
《원, 보다보다…》 태민은 드륵 하고 책상서랍을 열더니 옥도정기와 약솜을 꺼냈다.
학교의 기마대대장이고 유도와 축구에서 단연 1인자로 꼽히는 태민은 쩍하면 팔다리에 상처를 내가지고와서는 그 약을 바르군 한다.
《돌아서.》
옥도정기를 묻힌 약솜이 피터진 자국에 닿을 때마다 몹시 쓰렸으나 그때마다 후후 하고 불어주는 입바람에 아픔이 사그라졌다.
《과시 대장군이로군.》
방안을 꽉 차고도는 옥도정기냄새때문인지 뙤창을 열어제낀 경성1중은 주섬주섬 옷을 걷어입는 성민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다가 거들진 자세로 가위다리를 하였다.
《너 흰까마귀가 뭔지 아니?》
《못 봤습니다.》
《흠, 네가 흰까마귀가 되는중이다.》
잔뜩 교만기가 어린 말에 성민은 기분이 뒤틀려졌다.
《그건 무슨 뜻으로 하는 놀림입니까?》
《흰까마귀란 변절한 새를 두고 하는 말이다.》
《변절이요. 제가 무슨 변절을 했습니까?》
성민은 물론 태민이까지 어리뻥한 눈길로 보자 경성1중은 자못 득의양양한 태도로 계속했다.
《그러니 너의 광명단에선 그걸 배워주지 않은게구나. 하긴 너희들로서는 알수 없지. 흰까마귀란 쏘베트로씨야에서 생겨난 말이야. 건 자기 계급을, 자기를 낳아주고 품어준 계급을 반대해싸우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로씨야에선 꼴론따이라는 녀자를 첫째로 꼽는다.
그 녀자는 대단한 귀족출신이였지만 짜리와 자기 계급을 반대해싸

웠거던. 태민군, 꼴론따이의 〈붉은 사랑〉을 봤나?》
《그따위 련애소리는 하지도 말게.》
《아니, 그건 련애소설이 아니야. 임자는 그렇다치고 성민이가 꼭 봐야 할 책이지. 흰까마귀가 되려면 철저히 알고 변신해야거던.》
《여, 까마귀타령은 그만하라.》
《왜, 나도 지금 흰까마귀가 되느냐, 마느냐 연구중인데 하긴 내 처지로 보면 원래부터 까마귀지만…》
이날 밤 성민은 그 흰까마귀의 뜻을 해명하느라 잠까지 설쳤다. 외삼촌한테서 들은 지식과 광명단에서 얻어듣게 된 밑천으로는 도저히 풀이해낼수 없었다.
외삼촌으로 말하면 아버지도 놀랄 정도로 유식한 사람이였으나 그 비슷한 소리마저 언제한번 한적이 없었다.
외삼촌이 성민에게 진정으로 속을 터놓는다고 할 때도 그런 말은 없었다.
보천보소식으로 온 집안이 술렁거릴 때 외삼촌은 **김일성**장군님에 대해 알고싶어하는 성민을 데리고 바다가로 나갔다. 그날 외삼촌은 진짜배기인간이 되자면 어떻게 돼야 하는가를 말하며 독립된 조선의 밝은 미래까지 황홀하게 그려보였다.
《진짜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사는 세상이 올수 있습니까.》
성민의 말에 외삼촌은 못내 흡족한 기색이였다.
《온다, 오구말구.》
《조선이 독립되기도 어렵다구들 하잖았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다.》
외삼촌은 무연히 트인 바다를 보다가 모래무지들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크고작은 봉우리들이 주런이 늘어섰다.
《이게 뭔지 알겠니?》
외삼촌은 제일 높은 모래무지우에 해당화 한송이를 꺾어놓고는 진중한 기색으로 성민을 보았다.
《전 그런 애들 놀음은 몰라요.》
《으—음, 그럼 여기 높은걸 백두산이라구 생각해봐라. 그다음 이 봉우리는 저기 관모산이구. 비슷하지 않니. 이건 손으로 허물수 있다만—》 외삼촌은 모래무지 하나를 허물며 계속했다. 《진짜산은 없애

지 못한다. 또 산 하나를 없앤다 해도 백두산에서 뻗어내린 지맥과 산줄기를 없앨수 없는거구. 지맥이라는게 뭔지 아느냐?》

《알아요.》

《그럼 더 들어봐라. 이 백두산에서 뻗어내린 지맥이 관모산을 이루고 저 남으로 뻗쳐 한나산까지 이루었듯이 우리 조선사람들이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하나의 산줄기를 이루면 왜놈들을 삽시간에 쫓아낼수 있구 만사람이 다 잘살 새 조선이 서게 된단다.》

《그러니 외삼촌두 나두 **김일성**장군님을 따라야 한다는거지요.》

《암, 그야 더 말할것 있니.》

경성1중이 왔다간 얼마후 낯선 손님 하나가 집에 찾아들었다. 그 손님과 사당방에서 진종일 이야기를 나누고 나온 아버지의 얼굴은 그믐밤처럼 흐려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모모한 대가집사람들이 나타나더니 대대로 물려온 가구들을 들어내가기 시작했다. 뒤미처 집과 전답까지 팔리웠다.

울안의 앵두나무잎들이 서리맞아 떨어지는 어느날 조상묘들에 올라 인사를 하고난 성민이네는 소달구지 한대분의 짐짝을 역소화물취급소에 맡기고 중국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다.

《언제 돌아오겠는지—》

기차에 오른 어머니가 눈물을 쥐여짤 때 창밖만 내다보던 태민이 어머니를 나무람했다.

《너무 상심말아요. 저두 있구 성민이도 있는데… 집과 땅은 꼭 되찾고말것입니다.》

성민은 그때 태민이도 자기와 같은 생각, 조국해방의 래일을 그려본다고 믿었다.

집에서 고향을 떠날 때는 어업일이 잘 안되여 조양천이나 룡정쪽으로 간다고 하였지만 성민이네가 닿은 곳은 목단강이였고 이곳에서 정미업을 하던 외삼촌이 왜놈경찰들에 잡혀간것을 알게 되였다.

이렇게 볼 때 고향을 떠나게 된것은 여러가지 연유가 있겠지만 이 외삼촌의 뒤바라지와 그가 운영하던 정미소와 가산을 넘겨받기 위해서였다.

성민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밤마다 수군거리는 말을 듣고 외삼촌이

무슨 군량미절취건과 횡령죄에 걸려들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런데 이런 《죄》는 경제건으로 되겠건만 외삼촌은 아버지의 극성스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일본제국》을 반대한 사상범으로 되여 20년형을 선고받고 려순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게 되였다.

5

《어, 대단하십니다, 글은 명필이고.》

메밀눈의 소령은 입이 떡 벌어졌다. 이틀 채 안되는 사이에 스무나문장 넘게 글을 썼으니 그럴만도 할것이였다.

《뭐 붓글은 좀 쓰지만 펜글은 신통치 못합니다.》

《웬걸요, 명필이라구요. 선생의 기품까지 느껴지는 글입니다. 획이 곧으니 성정이 굳세고 바른것이고 옆으로 누워 내달리는 기세이니 진취감과 씩씩함이 느껴지는군요.

아, 광명단이라… 저도 소학교 5학년땐가 소년탐험대라는 조직에 들었댔지요. 뭐 어린시절에야 무슨 일인들 없었겠습니까. 참, 섬세한 기억에 솔직한 분석이군요. 〈왜놈들의 압제와 빈부의 차이를 없앤다는 민중본연의 의식을 따랐다고 하지만 당시의 나로서는 똑똑한 애들의 흐름에 섭쓸리고싶은 천진한 마음에서—〉 이런 식 분석과 그때의 생활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쓴다면 훌륭한 논픽숀으로 될겁니다. 게서는 오체르크라고 하던가요. … 지금 여기선 논픽숀바람이 셉니다. 급높은 잡지에 실린 논픽숀들엔 거액의 돈이 지불되고… 선생의 일후 생활은 이런 글만으로도 희한번쩍할겁니다.

여기 18에 2라는건 1등없는 2등이라는거겠습니다.》

《네, 거기도 썼지만 목단강1중에서 려순공대에 추천받은 학생은 18명이였는데 추천서의 학력순서에 2등으로 썼더군요.》

성민은 례입을 썼다. 이자의 기분을 거슬려 그간 쓴 글들이 휴지장처분을 받는다면 이틀간의 공력이 수포로 돌아가는건 둘째로 치고 모처럼 세운 계획이 파탄될것이였다. 이 글은 태민형만이 아니라 5.16쿠데타를 주도한 박정희까지, 좋기는 알건모르건 이 땅의 모

든 사람들이 본다면 더이상 원이 없을것이였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지요. 선생이야 분명 1등이였겠지만 조선사람이라는것으로 2등을 매겼겠지요. 원체 쪽발이들이란 그런 놈들이지요.
하여튼 재미있습니다. 무슨 소설을 보는것 같군요.》
소령은 련속 종이장을 번져나갔다. 휴식을 모르는 입에서 줄당게 튀여나오는 감탄도 끊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끊어졌다.
《잘 보이지 않는걸.》
혼자소리처럼 말하고는 고촉전등의 스위치를 눌렀다.
소이폭탄의 폭발때보다 더 강렬한 불빛이 망막을 찔렀다. 대뜸 쓰린 눈물이 내배였다. 하지만 눈을 감지도 또 눈물을 닦을념도 하지 않고 소령을 쏴보았다. 희디흰 은빛공간속에서 소령의 모습은 거뭇한 물체로만 비껴들었다.
이때부터 소령은 말이 없었고 종이장 번지는 소리만이 규칙맞게 들렸다.
《야, 이거.》
소령의 놀란 목소리와 함께 불이 꺼졌다.
《내가 시력이 좋지 않다보니.》
소령은 이런 말로 전등을 켠데 대하여 량해를 구하며 성민의 눈물진 얼굴을 얼핏 스쳐보고는 종이장에 시선을 떨구었다. 마지막페지까지 다 읽었음을 알수 있었다.
《참, 글을 잘 쓰시는군요.
그런데 다시 썼으면 합니다.》
《다시 쓴다는건…》
《뭐… 전부 다 다시 쓰라는건 아닙니다.》
소령은 나직이 한숨을 짓고 지금까지 없던 신중한 태도로 입을 열었다.
《선생도 모르지야 않겠지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의도하는지… 솔직히 말씀드려 이 글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선생의 운명이… 사실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그냥 내보내고싶지만 어디 그렇게 됩니까.》
《리해됩니다.》

《암, 그럴테지요. 그렇구말구요.》

소령은 희색이 만면해 종이장을 되번져갔다.

《여깁니다, 여기! 선생은 바로 이때부터 북한제도의 모순을, 그 사회의 악페를 체감하게 되는것이고 그로 인한 희생자로 된셈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때의 실상과 느낌을 깊이 파헤쳐 써야 할것입니다.》

《허허, 뭔가 착각을 한것이 아닙니까. 거기엔 제도와 사회의 모순이 아니라—》

《잠간.》

소령은 문가에 지켜선 2명의 사병을 돌아보며 《너흰 나가봐.》하고 꽥 소리치고는 스위치가 붙어있는 벽에 다가갔다. 그의 손이 언듯하자 벽 한면이 부르르 떠는듯 한 속에 광폭스러운 굉음이 터져나왔다.

껄껄껄, 하하하 하는 남녀의 웃음과 유리창을 쇠못으로 긁는 소리, 자동차의 경적소리, 세상의 온갖 거치른 소음들을 죄다 모은듯 한 불협화음이였다.

《리해해주십시오.》

우울한 얼굴로 자리에 와앉은 소령은 성민의 분기찬 눈길과 부딪치자 머쓱한 태도로 웃었다.

《어쩌겠습니까. 저도 이 히스테리음악엔 질색이지만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난 선생에게 불리한 말이 남들에게 알려질가봐 이렇게 하는겁니다. 여기엔 별의별 장치가 다 있거던요. 물론 저 음악은 우리가 심문할 때 상대방의 심리와 신경을 자극하기 위한것입니다만.》

성민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 얼마나 유치하고 졸렬한 연극인가.

《제가 바라는건…》

소령은 계속했다.

《선생이 한시빨리 자유의 몸으로 되는것입니다. 다시 쓰는건 바로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지장군의 탈출과 그뒤 군교육부 지도원을 하면서 느끼게 된 공산사회의 모순과 악페를…》

《여보시오, 이건 무슨 아이들 장난을 하자는것이요?》

《장난이라구요?》

소령의 메밀눈에 반디불같은것이 팡끗거렸다. 하지만 순간뿐이였다.

《선생, 이러지 맙시다. 선생은 지금 우리들의 관용을 놓고 무슨 얼뜨기들의 연극같은것으로 보는것 같은데… 건 심한 오해입니다.》

성민은 새삼스러운 긴장이 왔다.

그렇다, 이자나 택규는 결코 얼뜨기도 연극배우도 아니다.

지금까지 졸렬하게 본 《연극》에 어떤 타산과 심리적계산이 깔려있는가가 직감되였다. 무장해제를 위한 놀음!… 흔히 사람들은 상대가 경박스럽고 졸렬하다고 보면 긴장감을 잃게 된다.

《내 말이 틀립니까?》

《옳소.》

《역시 선생은 솔직한분이군요. 참, 바다가태생이지요?》

《그렇소.》

순순히 대답하는 자기자신에 화가 났다.

《음악》이 바뀌졌다. 스위치밑의 글자판을 돌리고 와앉은 소령은 두눈이 맞붙어 달콤한 웃음을 지었다.

절벽을 휘때리는 파도의 명동소리에 이어 께륵께륵하는 갈매기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거센 바람소리에 섞여 울렸다.

《이 소리는 듣기 좋지요.》

《괜찮습니다.》

《그렇겠지요. 저도 좋아합니다. 프랑스의 어느 학자가 스트레스해소제로 만들었다는 음악인데 저 소리를 듣게 되면 마음에 안정이 오고 인생살이라는것이 좀 어려운 때도 있지만 날바다의 새들보다는 한결 낫다는 위안이 들지요.

참, 형님되는 지장군님 부관이 어저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님의?!—》

《네, 사실은 만나면 안되는것이지요. 하지만 풋면목도 있는데다가 지장군한테서 왔다는것으로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말에 의하면 지장군께서는 지금 식음을 전폐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일안으로… 끝낼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그렇게까지야.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제가 바라는건 큰것이 아닙니다. 좋기는 처음 만났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북의 실상과 선생이 알고있는 한에서의 당, 국가, 군사비밀까지 밝혀놓는다면 큰 공로를 세우는것으로 되지만 지조와 의리를 귀중히 여기실 선생으로서야 그런 일을 할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그건 불문에 붙이고 여기 1947년도 당시부터 체험하게 된 제도상모순을… 바로 그러그러하기때문에 일약 우리한테 왔다는것만 있으면 충분할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이 쓴 글은… 정 반대거던요, 완전히 이북찬양의 선전물로 되였고.》

《나는 진실그대로를 썼을뿐입니다.》

《선생, 수신교과서야 어릴 때나 참고하는것이지요. 난 선생의 글을 보면서 우리가 바란 론거와 실례가 충분히 묻혀있다고 봤습니다.》

《어떤데서 그런걸 봤습니까?》

《여기, 여기에도 있지요.》

소령은 마지막장의 한 대목을 짚었다.

《제가 읽지요. 〈…이렇듯 나의 친지들과 벗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조국과 고향을 등지고 남으로 떠나온데는 나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 …〉 옳지요? 여기서 〈나〉가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그들을 쫓아보냈다는것으로 하면 간단히 해결될것입니다.

계속하여 〈하여 나는 그들모두를 만나 지난 기간의 오해와 편견과 현재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마음과 뜻을 같이하게 하기 위해〉라고 썼는데 이런건 깨끗이 지워버리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쓰지 않으면?—》

성민의 날카로운 눈빛에 소령은 락담한 표정으로 말을 얼버무렸다.

《그건 제가 결론을 내릴것이 못됩니다. 명백한것은… 사회와 영원히 격페되고 인생과도 작별할수밖에 없다는 그뿐입니다.》

《각오하고있소.》

《그러니 이 글은 유서겠습니다.》

《정확히 맞혔소. 다만 한가지 부탁할것은… 이 글을 당신네 부사령관과 법관들 그리고 나의 형과 이 글에 있는 월남한 나의 옛동무들 모두가 보게 했으면 하는것이요.》

소령은 침묵을 지켰다.

파도의 명동도 소연한 바다의 울부짖음도 가늘어졌다.

《노력해보지요.》

소령은 례절맞게 대답하며 일어섰다.

《야!—》

그의 꽥소리에 메뚜기처럼 뛰여든 두 사나이가 먹이를 본 들개마냥 성민이에게 다가왔다.

《가만있어.》

소령은 또 한번 성민을 스쳐보고는 《음악》스위치를 눌러 껐다.

《다시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있습니다.》

소령은 이 말을 남기고 문밖으로 사라졌다.

성민은 온몸이 땅속으로 잦아드는감을 느꼈다.

귀가에는 소령의 말이 아니라 파도의 명동과 갈매기들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그냥 들려왔다.

그 소리는 이상스럽게도 험상궂은 바다가 아니라 조용한 바다, 유유히 날아예는 갈매기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잠시후 소령이 밀어놓은 종이장을 간추려모았다. 군데군데 밑선과 점이 찍혀진것이 알렸다. 려아와 명례의 이름밑에도 점이 찍혀있었다.

6

려아를 처음으로 알게 된것은 중국 목단강에서의 집들이때였다.

집들이판을 크게 벌렸다. 이 고장의 법도이기도 했다.

목단강에 있는 조선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한때 화승대를 멨거나 두세 나라 국경을 넘나다니며 독립과 사회주의를 웨치던 사람들로서 식견도 높았고 인심도 후했다.

성민이네 짐을 풀기 시작한 날에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할것없

이 찾아들어 일손을 도와주었고 집들이때는 청첩을 받은 사람들은 물론 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인사겸 구경군격으로 찾아들었다.

하나같이 조국을 빼앗겨 떠나온 사람들이라 조선에서 건너왔다면 무작정 친척처럼 여겼다.

성민이네는 오기 바쁘게 땅마지기도 얼마간 사고 외삼촌이 남기고간 정미소를 추켜세우는것으로 소문을 요란스럽게 낸탓에 잘사는 집안으로 알려졌다. 그때문에 찾아드는 사람들도 거개가 잘사는 집 사람들이였다.

려아네도 잘사는 집이였다. 아버지는 없었으나 목단강교회의 권사로 있는 어머니가 거부의 며느리였던지라 많은 돈을 가지고있었던것이다.

려아와 한학급동창이였던 옥영이도 이 집들이때 알게 되였다. 한때 상해림시정부에 가있은 옥영의 아버지는 목단강녀중학교 영어교원이였고 어머니는 큰 장사판을 펼쳐 유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날 성민이네 어린축들은 뒤울안 찔광이나무밑에 자리를 잡았다. 방이란 방들은 죄다 어른들이 차지했기때문이였다.

성민이네 어린축이라고 해야 무산에서 살다가 왔다는 같은 나이또래의 동무 셋에다가 어머니가 끌어다앉힌 려아와 옥영이가 전부였다.

려아와 옥영은 첫눈에부터 고향처녀애들과 달랐다. 노란 달린옷에 맵시난 흰 구두를 받쳐신은것으로부터 깍듯이 머리를 수그려 인사를 하는것까지 고향에서는 볼수 없는것이였다. 겉으로는 무척 새침하고 얌전한 티를 보였으나 고향땅의 처녀애들보다 더한 활량들임을 알게 되였다. 물음도 먼저 건네였고 통성도 먼저 청했다. 어느 학교를 다녔는가, 무얼 희망하는가, 무슨 과목을 좋아하는가. 옥영은 연거퍼, 려아는 간간이 물었는데 성민이 미처 대답을 못할 때면 옥영은 바보스럽다는듯이 혀를 차며 웃었고 려아 역시 어디서 온 촌아이인가 하는 눈길로 빤드름히 마주보았다.

성민이 처녀들의 이런 싸개에 들어 쩔쩔맬 때 다행히도 태민이 그 자리에 끼여들었다. 성민이한테는 형님이라지만 아직 어른대접을 받을수 없어 이 방 저 방 인사를 마치고온 태민은 현란한 차림의 처

녀애들을 보자 이건 어디서 날아든 메새들이냐 하는 눈찌였으나 자못 기세넘친 태도로 자리에 앉았다.

옥영은 태민형도 례외로 보지 않았다. 보다 얌전해진 대신 간사스러워졌다. 성민의 간단한 소개가 끝나기 바쁘게 태민이 어느 학교엘 적을 붙이느냐고 물었다. 성민이에게는 《붙였니?》 했다면 태민에게는 《붙이려고 하셔요?》라는 애교어린 말을 썼다. 돼지발쪽을 집어든 태민은 감사나울 정도는 아니지만 저으기 무뚝뚝한 눈길로 그를 스쳐보았다.

《너들 알바가 못돼.》

《아이, 큰어른이시네.》

너무나 예상치 않던 대답이여서인지 돼지발쪽의 한쪽귀를 짓씹던 태민은 눈이 둥그래 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어른이다. 학교는 사범을 택했구.》

《사범학교?!… 그럼… 진짜였군요.》

《건 무슨 소리야?》

《이 집에서 사회주의를 한다고…》

《뭐?》

《사범은 사회주의자들을 키워내는 학교이지요. 정말 그것도 모르세요. …》

태민은 소리없이 돼지발쪽을 내려놓았다.

《사회주의란게 도대체 어떤 물건이냐?》

《아이, 사회주의도 모르세요. 사회주의야 사회주의지요.》

《너 매맞아본적 있니?》

《아니, 그럼 절 때리겠다는거예요?》

《그럴수도 있지.》

태민은 큰숨을 내쉬며 눈을 부릅떴다. 옥영은 그것이 더 재미난다는듯 생글생글 웃었다.

《태민오빠 동생과는— 판 다르군요.》

《뭐이 다르단 말이냐?》

《첫째로 무섭고 둘째로 막돌이예요. 셋째로는… 꿀꿀!》

옥영이가 입술을 빼주름히 내밀며 돼지흉내를 내자 태민은 턱을 쳐들고 웃음을 터쳤다.

《넌 알락까치로구나.》

《알락까치란게 뭐예요?》

《곱다는… 그 말이다.》

《아이, 절을 올리리까.》

《허허, 주의자타령이나 그만둬라. 우린 그런건 몰라.》

《걱정말아요. 조선사람치고 개가 되는것은 없어요.》

《허허, 네가 대단하구나.》

《대단하지 않구요. 그러니 남존녀비는 말고 우리한테서도 많이 배우라요.》

《그럼 어떤걸 배워주겠니?》

《우선 학교를 달리 정하라요.》

《건 왜?》

태민은 바싹 끌리는 기색이였다. 성민은 아직까지 그가 처녀애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것을 처음으로 보았다. 옥영은 호기심과 정이 찰찰 넘치는 눈길로 태민을 보다가 방그레 웃었다.

《제 생각으로는 태민오빠가 미술을 하면 좋겠다고 봐요.》

《미술을?!…》

《그래요. 태민오빤 벌써 대상을 정확히 보는 안목을 갖추고있거던요. 이 옥영이가 곱다는걸 알았다는건 아름다움을 볼줄 안다는것이고 질긴 돼지발쪽을 이악스레 씹는것은 근면과 집중력이 있다는것이지요.》

《어랍쇼.》

《그리고 제가 미술을 좋아하기때문이지요.》

《흠, 그건 중요한걸.》

《그럼 됐어요. 이곳 상업전문에는 유명한 미술교사가 있는데 그 학교에선 미술교육을 첫째로 꼽고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교계통이거던요.》

《건 예수님의 턱밑을 핥으란건데 게 뭐 좋나.》

《아이, 정말 막돌이시네. 이 목단강에서 제일 점잖고 착실한 학생들은 다 거기 학생들이예요. 게 가면 태민오빠처럼 우락부락하고 무서운 성미도 고쳐질거구요.

려아, 그렇지 않니. 이 앤 진짜배기 예수님의 딸이예요.》

옥영이가 옆구리를 찌르는 바람에 그때까지 락화생을 오물오물 씹던 려아는 단번에 얼굴이 빨개졌다.

《난 잘 몰라.》

태민은 부끄럽타는 려아와 녀걸역을 하는 옥영이를 보다가 빈정거리는 어조로 옥영에게 말했다.

《얘, 넌두 이 처녀처럼 얌전할수 없니?》

《호호, 지금 이 앤 태민오빠 동생과 한책상에 나란히 앉는 색시꿈을 꾸느라고 이래요.》

《얜!》

려아의 얼굴은 더 빨개졌다. 태민이가 화제를 돌렸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 한반에 다니게 되니?》

《그렇잖구요. 저와 려아는 이미 1국민학교의 한반인것이고 저 동생님도 우리 반에 오게 되지요. 그리고 려아와 동생님이 한책상에 앉게 하는건 제가 책임지지요.》

《너야말로 1등명물이구나.》

《1등똑똑이구요.》

옥영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상면이 있은 날 후부터 옥영은 한주일이 멀다하게 성민이네 집에 놀러 왔다. 물론 올 때마다 려아와 함께 오군 했다. 그가 말한대로 자기네와 한학급이 된 성민이를 보러 온다고 했지만 실은 태민을 만나보기 위해서였다. 태민이도 그만 나타나면 급한 공부마저다 뒤밀어버리군 했다. 자기를 찾지 않을 때도 성민의 방에서 그들의 말소리가 울리면 이런저런 구실로 찾아들어 옥영이와의 말씨름에 열을 올렸다. 그 회수가 잦아지자 성민이와 려아는 아예 밀어젖히고 단둘이 만나는데만 급급해했다. 그렇게 되니 자연히 성민이와 려아도 단둘이 있게 될 때가 많았다. 려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여서 그런지 말도 조용조용 했고 웃을 때도 소리없이 웃었다. 수집음을 잘 탔다.

성민이가 려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것은 그가 중국말을 잘했기때문이였다. 려아의 중국말은 한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는 중국녀자한테서 배운것이라고 했다.

성민은 목단강에 올 때부터 한가지 계획을 품고있었으니 그것은 항

일빨찌산들의 싸움터를 찾아가보자는것이였다. 이곳에서 듣게 된 이야기들때문에 더욱 그랬다.

오늘은 어디를 쳤다, 래일은 어느 《토벌》대를 요정냈다, 지명과 때려눕힌 왜놈수자까지 상세히 렬거되군 했다. 그런데 이 물계에서는 성민의 선생급이라고 볼수 있는 무산동무들도 싸움터까지 찾아갈 엄두는 못냈다.

왜놈순사와 군대한테 잡혀 죽는다는것이 첫째 리유고 중국말을 모르는데 어찌 갈수 있느냐 하는것이였다.

집에서도 말렸다. 감옥에 잡혀간 외삼촌의 친척이라서 오자부터 왜놈경찰들이 들싸대는데 그러다가 자칫 걸리면 화를 당한다는것이였다. 그리하여 한동안은 싸움터들에 대한 지명연구와 전투이야기들에 대한 수집만을 하며 케를 보았다.

그런중에 국민학교 6학년 여름방학때 있은 려아의 독창회가 계기로 되였다.

시에서 주최한 이 독창회에서 려아는 모짜르트의 《자장가》와 《오쏠로미요》, 《사우》(동무생각)를 불렀는데 어떻게나 잘 불렀는지 《묘령의 쏘프라노가수》로 《만선일보》에까지 소개되였다.

그날 성민은 려아로부터 받은 《초대석》입장권을 가지고 공연을 보았다. 학생으로서는 오직 성민이만이 받은것이였다.

이것이야말로 성민에 대한 려아의 남다른 관심과 신뢰가 아니겠는가.

가자! 려아는 대바람에 찬성하였다. 어찌 보면 성민이보다 더 극성이였다. 사춘기에 들어서는 소녀의 랑만이 더욱 그렇게 한것 같았다.

성민은 그에게 《묘령의 쏘프라노가수》로 소개한 신문까지 지참하게 하였다. 왜놈군대나 순사들과 맞다들면 그것이 은을 내리라고 믿었기때문이였다.

뭣때문에 싸다니느냐 물으면 동식물채집이라고 하기로 약속했다. 집에도 그렇게 말했고 동행으로는 무산동무 셋을 택했다.

새벽일찍 기차를 타고 목단강 다음역에서 내렸다. 역앞에서 손님들을 기다리고있는 말파리들중에 마음어지게 생긴 늙수그레한 중국인마부의 말파리에 올랐다.

아, 얼마나 가슴들뛰던 길이던가.

절렁절렁 울리는 워낭소리, 경쾌하게 달리는 말발굽소리, 마부도 좋아했다. 흰 크레브달린옷차림의 려아를 볼 때면 벙싯벙싯 웃기도 했다. 그런데 시가지밖을 돌아보겠다던 성민이네가 이시하라 《토벌》대가 몰살당한 싸움터까지 가보겠다고 하자 마부의 눈이 휘둥그래졌다.

그곳엔 사람도 살지 않고 집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수집은 새침데기로 알았던 려아가 얼마나 재치있게 구슬렸는지 마부는 《호, 호.》(좋다)를 련발하며 신이 나서 채찍을 휘둘렀다. 자기도 뻔질나게 다니는 곳이라고 했다. 왜 다니는가고 하니 그 가까이 있는 절간에 친척이 있기때문이라고 했다.

2시간가량 가니 산기슭밑에 타버린 집들이 보였다.

마부는 왜놈《토벌》대가 불태운 집들이라고 했다. 그 마을을 조금 지나자 2채의 커다란 토벽건물이 나타났다. 일본군대들이 쓰던 군용마구간 비슷한것이였는데 왜놈《토벌》대가 있던 건물이였다. 《토벌》대는 거의 전부가 그 건물안에서 녹아났다고 했다. 건물의 토벽은 도처에 구멍투성이였다.

토벽들이 통채로 허물어져내린 곳도 있었다.

《…쿵! 쾅.》 려아에게 손세까지 써가며 하는 마부의 말을 통해 그 싸움이 얼마나 멋있었는가를 알수 있었다.

건물안에 들어서니 고양이만 한 쥐들이 무리지어 달아났다. 어떤 놈들은 도망칠념도 하지 않고 웬 불청객이냐 하는듯 지켜보았다. 그통에 려아는 까무라치듯 놀라 뛰쳐나갔고 그때부터 내내 겁질린 얼굴이 되였다.

성민이와 무산동무 둘이 몇개의 총알을 얻어쥐고 범잡은 기상으로 나왔을 때 친절스러운 마부는 친척이 있다는 절간까지 가보자고 하였다. 재미나는 사람을 볼수 있다고 했다. 그 말을 옮겨놓을 때 려아는 무척 쑥스러운 기색이였다.

《옴쟁인데 조선사람이라고 해요.》

조선사람이라는것과 재미나는 사람이라는 말에 절간까지 올라갔다. 산중턱에 있는 암자비슷한 절간이였다. 가는 길에 그 옴쟁이가 《토벌》대에 있었음을 알았다.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하니 마부는 웃기만 할뿐 가서 들어보라고 하

였다. 그리고는 려아에게 몇마디 수군거렸는데 려아는 단박 얼굴이 빨개졌다.
마부의 친척과 함께 옴쟁이가 나타났을 때 몸서리가 쳐졌다. 옴쟁이의 얼굴은 온통 푸릿푸릿한 멍과 흠집투성이였고 두눈은 연기에 쐬운듯 흐리멍텅했다. 마부가 중국말로 몇마디 하자 그의 흐리멍텅한 눈에 놀라움이 비꼈다.
《조선애들이란 말이지.》
물끄러미 성민을 보다가 긴 한숨을 쉬며 돌의자에 앉았다.
《너희들도 여기 와서 앉아라.》
곁의 돌의자를 가리켜보였다. 려아만은 그냥 서있고 성민이와 동무들은 돌사자가 우뚝 서있는 옆의자에 가앉았다.
《너희들은 내 얘기를 듣자고 왔다는거지?》
옴쟁이의 눈은 다시 흐리멍텅해졌다. 선뜻 대답을 할수 없었다. 혹시 알겠는가, 《토벌》대에 있었다는데.
성민은 그가 앉은 돌의자에 지전 몇장을 놓는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옴쟁이는 그에 대해서 모르는척 하며 한동안 려아만을 보다가 입을 열었다.
《난 누구한테도 내 얘기를 숨기지 않는다. 이제 살아야 얼마나 살겠고…》 목탁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그의 말을 들으며 려아가 왜 마부의 수군덕거림에 얼굴을 붉혔는가를 알게 되였다.
유격대는 새벽에 《토벌》대를 들이쳤다. 그때 옴쟁이는 변소간에 있었다. 어디 도망치려고 했으나 몰박는 총소리와 작탄소리에 벌벌 떨기만 하다가 유격대들의 수색이 벌어지자 한길 넘게 파진 변소구뎅이안에 몸을 숨겼다. 냄새도 뭣도 다 잊고 얼굴만 내민채 숨을 쉬고있는데 변소문이 벌컥 열렸다. 어망결에 살려달라는 소리부터 했다. 그 말에 유격대원은 조선사람인가고 따져물었다. 그렇다고 하자 유격대원은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 그런데 구뎅이안으로 들어갈 때는 몰랐지만 다시 빠져나오기가 수월치 않았다. 끙끙 갑자르며 비좁은 구멍으로 어깨부터 뽑으려는데… 총창이 날아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옴쟁이는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그때를 그려보는지 눈까지 반쯤

감았다.

《그건— 내가 잘못 안거다. 그 총창은 내 뒤덜미의 옷깃을 꿰고 그다음에 몸이 건중 들리더구나. 쬐꼬만 사람이 기운이 장사였다. … 그 도움으로 변소간에서 나오니 뭘하는 놈이냐구 묻기에 사실대로 말했다. 돈을 많이 준다기에 순사질을 하다가 《토벌》대에 갔구 통역도 하고 심부름하면서 죽지 못해 산다구. 그러니까 당장 빨리 가서 몸을 씻으라는거다.》

《그러니 용서를 받은것이겠습니다.》

《그래, 용서를 받은것이지. 〈조선사람이기때문에 살려준다.〉 이렇게 말했다, 다시는 개질을 하지 말고 고향에 가 살라구 하면서.》

《그런데 왜 고향엔 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고향엘 갈수 있겠니. 페물에 병신이 된 형편에…》

《왜요, 그때 인차 몸을 씻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씻는다는거냐, 힘이 다 빠진판에. 일본군대시체가 피더미로 널린걸 보니 더욱 그랬다. 한데 뒤미처 들이닥친 일본군대가 옹근 사흘동안 나를 닥달질했다. 몽둥이로 얻어맞구 불두덩일 들이채우구… 내가 통비분자가 아니란걸 뻔히 알면서도 제 족속들 죽은것때문에 앙갚음을 한거지. 그다음 몸에 똥독이 퍼지니 내던지더구나. 모진게 목숨이야. 옹근 한달을 앓았는데 일어서고보니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란걸 알았다.

그때 여기 절간 중들이 나를 도와주었지, 부처님한테 잘 빌어 래세에 가서라도 사람답게 살라구.》

기차시간때문에 더 들을수 없었다.

떠나올 때 옴쟁이는 돌의자에 놓았던 돈을 집어들고는 허청허청 절간안으로 사라졌다.

오는 길에서 그에 대한 말을 많이 했다.

사실이라거니, 아니라거니, 돈때문에 꾸며낸 거짓말이라거니 하는중에 조선사람망신을 시킨 그런 놈은 가차없이 쏴버려야 한다는데서는 일치를 보았다.

려아만은 내내 말 한마디없이 몸을 옹송그리고있었다. 성민이네가 하는 말에 귀기울이던 마부가 무슨 말들인가 물었을 때야 입을 열었다.

마부는 옴쟁이의 말 전부가 사실이라고 했다. 조선에서 순사질을 하다가 중국에 온 그놈은 어느 일본군장교의 곰보딱지딸과 눈이 맞아 장가를 들었는데 그때문에 일본군대의 조선말통역관으로 출세를 했다. 그놈이 시체더미를 뒤진것은 제 장인인 일본군장교놈을 찾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고보면 백번 쳐죽인대도 마땅한 놈이였다.

성민이네의 이 말에 마부도 동감했다. 하지만 유격대는 그걸 알았어도 살려줬을거라고 했다. 그때 《토벌》대에서 물심부름, 장작패기를 하던 중국사람도 살려주었다고 하며 유격대는 큰사람들이여서 그렇다는것이였다.

그 말에 성민은 넘치는 환희를 느꼈다.

큰사람! 여기에는 많은 뜻이 비껴있다고 보았다. 훌륭하고 선량한 그리고 강자임을 의미하는 말이다.

강자! 용서란 오직 강자들만이 하는 법이 아닌가.

가슴뛰는 생각은 기차간에서도 계속되였다. 다들 노그라져 끄덕끄덕 졸고있을 때 성민은 옴쟁이에 대해서도 생각하였다.

인간아닌 인간, 그 인간은 출발점에서부터 추물이였다. 만약 그에게 조그마한 인간적부스레기가 있었다면 용서가 아니라 죽음을 바랐을것이고 더 좋기는 유격대를 따라갔어야 했을것이다.

(용렬하고 너절한 바보.)

사람은 출발점에서부터 바른 길을 잡아야 한다, 혹시 그 길에서 탈선이 있었다면 그 즉시 바로잡을줄 알아야 하고, 그러자면 비상한 용기와 대담성을 지녀야 할것이다. 집에 돌아왔을 때 성민은 그 일에 대해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집안어른들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였다. 동무들과도 그렇게 약속했다. 그러나 태민이가 방학차로 집에 들렸을 때는 더 참아낼수 없었다.

누런 만주군관학교제복이 일본군복비슷한때문이였던가. 그때 태민의 앞날에 대한 위구가 있었던지도 모른다.

옴쟁이에 대해서는 자기가 생각한것까지 죄다 말했다.

처음엔 어쩌자고 그런 모험을 하느냐고 나무라던 태민이 《그따위 너석은 조선사람망신인데―》하며 분을 참지 못해 씨근벌떡거렸다.

함께 가보지 않겠느냐 할 땐 아직 총이 없어 못 가겠다고 하며 성

민이의 이마에 밤알총을 놓았다.
성민은 그것만으로도 대만족이였다.
그뒤 성민은 또다시 모험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뜻밖에도 려아가 물러났다.
성민은 성이 독같이 났다.
《왜 안 가겠다는거니?》
《무서워.》
《뭣이 무섭단 말이냐. 혹시 넌 그 쥐들과 옴쟁이때문에 그런건 아니니?》
《몰라, 다 무서워.》
성민은 목단강1중을 졸업하게 된 해 가을 봉천에 있는 일본군 조병창에 실습로동을 가게 되였을 때 또 한번 커다란 감격과 흥분을 체험하게 되였다.
그 조병창에는 대수리를 요하는 파괴된 땅크와 대포, 기관총들이 가득 들어차있었는데 어느 부대가 어느 전투에서 사용하다가 파괴되였다는 기록부까지 붙어있는것이 있었다.
박격포들과 기관총들 거의 전부는 항일유격대와의 싸움에서 파괴된 것들이였다. 성민은 그 기록부 몇장을 몰래 뜯어내여 깊이 건사했다. 그것이야말로 항일유격대의 위용에 대한 증표였고 조국의 해방을 예시하는 상징이였기때문이였다. 이로 하여 고역처럼 느껴지던 실습로동도 어렵지 않게 할수 있었다.
그런데 대엿새가량 일하고있을 때 목단강고녀(고등녀학교) 졸업반 학생들과 만주군관학교 졸업생들까지 그리로 밀려들었다. 고녀학생들은 근로봉사때문이였고 만주군관학교 학생들은 연수참관이였다.
그속에는 물론 태민이와 려아도 있었다. 태민이와는 그가 성민이네 기숙사에 찾아온것으로 만나게 되였고 음악부졸업반생이였던 려아와는 의무실로 가는 길가에서 만났다.
웬 안경쟁이키다리의사와 나란히 걸어나오는 흰 위생복차림의 처녀가 려아일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 방학때도 자주 만났지만 그 사이에 몰라보게 변했던것이다. 날씬한 몸매를 감싼 흰 위생복과 키다리의사의 찌프린 눈때문이기도 했다.

려아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때 성민은 수리작업용의 낡은 군복을 입고있었던것이다.

《학생이 주물작업장에서 상한 사람인가?》

의사가 그를 멈춰세웠다.

《아닙니다. 전 그때문에 지금 의사선생님을 찾으러 가던중입니다.》

성민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려아가 그를 먼저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눌 사이가 없었다.

성민이네가 사락작업(주물품의 모래털기)을 하던데서 갓 부은 포바퀴형조품이 폭발하여 몇몇 애의 눈에 모래알이 날아들었기때문이였다.

려아와는 오후일이 끝난 다음 파철창고뒤의 공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군대식규률이라 저녁식사까지 군률에 따라 하고 나오다나니 어슬녘이였다. 순찰경비병들이 어슬렁거리는 작업장구내를 벗어나 철조망 가까운 파철창고뒤로 가자 문득 가냘픈 비명과 껄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야, 더 올려라, 더. 멋진데, 멋져… 말큰하고…》

3명의 목단강1중 학생들이 쎄라복차림의 려아를 그러안고 씩씩 황소숨을 몰아쉬며 움지락거리고있었다.

려아의 입은 웬자의 손에 틀어막혀있고 한 녀석은 그의 치마를 말아올리며 키드득거렸다.

《야!―》

성난 갈범처럼 내달려갔다.

《아, 지군인가.》

성민이네 반 아이들은 아니여도 풋낯이나 있는 일본애들이였다. 다들 육담의 명수들이고 유곽에까지 다니는것을 자랑처럼 떠들던 망나니들이였다.

《이새끼들아, 놓지 못해.》

목단강1중이래 처음으로 상스러운 말을 하며 려아의 치마를 걷어잡은자를 발로 차 딩굴게 하고 려아의 입을 틀어막은자의 팔을 거세게 나꾸챘다.

《이건 왜 이래.》

두 애가 헤식은 웃음을 지으며 성민을 볼 때 팔을 엇가로 끼고 구경하던 후지산(체육선생이 붙여놓은 별명이였다.)이 성민의 어깨를 틀어잡았다.

《넌 뭐가 돼서 이 지랄이냐?》

《이 앤 내 동무다.》

《동무?! 색시감이라 그 말이냐.》

《시시한 말 그만둬.》

《같이 놀면 안될가.》

성민이가 보라는듯 얼굴을 싸쥔채 떨고있는 려아의 어깨를 그러안았다. 성민은 이자가 학교적으로 유도패권자임을 알았으나 참을수 없었다.

《놔라!》

말보다 손이 앞섰다. 그자의 팔을 쳤다고 생각한 순간 몸이 허공에 떴다가 태질을 당했다. 눈앞이 핑 돌았다.

《맛이 어때. 여, 저걸 마저 벗겨라. 센징주제에 건방져.》

하지만 두 애는 비슬비슬 눈치만 보았다. 그에 악이 받친 후지산이 《에익, 오좀싸개들!》하더니 성민이 미처 어쩔새없이 려아의 쎄라복을 콱 잡아챘다. 북— 천이 찢어지는 소리와 외마디비명이 울렸다. 성민은 어떻게 달려나가고 어떻게 들이받았는지 모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자기가 후지산의 몸뚱이를 타고앉은것을 알았다. 목을 죄였다. 성민으로서는 일생 처음 해보는 싸움이였다. 목을 죄이는것은 궁끼놀이를 할 때 영길이네들한테서 배운것이였다. 일본애들을 고상(일본말, 항복)시킬 때 목을 죄인다는것을 그때 알았다. 지금은 고상이 아니라 이자가 려아한테 다시 덤벼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것으로 만신의 힘을 다 손에 모았다.

《끅, 끅.》하는 소리에 《왜 가만들 있어.》하는 말이 들렸다. 그와 거의 동시에 뒤골이 쾅 울리며 눈알이 튀여나올듯 했다. 연신 날아드는 발길에 벌떠덕 일어나 손으로 막으려 했으나 헛된 일이였다.

《빠가!》

후지산의 노성과 함께 성민은 또 한번 공중태질을 당했다.

눈앞이 가물가물한 속에 후지산이 자기 몸을 깔고 목을 죄이는것을 알았다.

성민은 몇번 손으로 밀었으나 무익한 일이였다. 숨이 막혀들었다.

《자, 잘못했다고 빌어라, 빌어. 고상! 고상을 하란 말이다.》

성민은 안하겠다고, 죽어도 안하겠다고 말하려 했으나 입을 열 기운이 없었다.

방금전에 뜬듯싶은 초생달이 노란 불꽃처럼 아물거리다가 사라졌다. 그런데 달이 다시 보이고 숨이 콱 열리였다. 바위돌처럼 그를 짓누르고있던 후지산이 나동그라지고 도망치려던 두 애도 살맞은 개구리처럼 뻗어버렸다.

《여 태민군, 너무하지 않나. 애들 싸움엔 공정해야지.》

음탕한 목소리. 가쁜 숨결을 내뿜는 태민의쪽으로 2명의 개똥별들이 스적스적 걸어왔다.

《너희들은 입다물어.》

쇠장을 토막낼듯 한 태민의 웨침에 2명의 만주군관학교 거구들도 주춤하며 멈춰섰다.

태민은 후지산의 목덜미를 끄잡아 일으켜앉혔다.

《꿇어앉앗. 무릎을 꿇란 말이다.》

그의 노성에 살맞은 두 개구리도 엉거주춤 꿇어앉았다.

《너희들의 죄를 알겠는가.》

대답이 없었다.

《빌어먹을!》

태민의 손이 언뜻하더니 후지산이 《억.》하며 쓰러졌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2명의 개구리가 황급히 머리를 조아리며 빌자 태민은 《흥.》 하고 코소리를 내더니 두팔을 깍지꼈다.

《그럼 너희들의 잘못을 말하거라.》

《잘못했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였다.

《쓰레기같은것들, 그럼 똑바로 알아두거라.》

태민의 눈에서 또 한번 시퍼런 불꽃이 번쩍거렸다.

《첫째! 연약한 녀성을 희롱한것이다.
둘째, 교칙을 위반하고 싸움을 도발한것. 맞느냐?》
《네, 네, 잘못했습니다.》
《셋째, 내선일체의 국시를 어기고 애국반도인을 모욕한것이다. 맞느냐?》
《잘못했습니다.》
《좋다. 그럼 가거라.》 태민은 돌아섰다. 스적스적 걸어가는 그의 옆으로 후지산들이 날래게 빠져달아나자 2명의 군관학교 거구들도 맥없이 따라갔다.
려아의 손이 어깨에 닿았다. 달빛보다 더 창백한 그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였다.
《어데 다치진 않았어요?》
《아니.》
창피스럽고 부끄러웠다. 자기도 울고있다는것을 알고 고개를 돌렸다.
《려아가 알렸나?》
《네.》
《그럼 가봐. 내 조꼼 있다 갈테니.》
《일어선 다음… 가겠어요. …》
려아의 손수건이 이마와 입술에 와닿았다.
《그러지 말고 어서 가봐.》
헛기침소리에 몸을 일으켰다.
《꼴 좋―다.》 태민형이였다. 《사내명색에 훌륭한 보리자루로구나.》
성민이도 형님처럼 웃어보이려 했다.
《후지산은 제꼈는데 세녀석이 다 달라붙어서―》
《닥쳐.》
태민의 얼굴이 험상스럽게 이지러졌다.
《사내란 세놈이건 열놈이건 다 이겨야 한다. 이겨야, 이겨야 한단 말이다.》
태민은 앞에 보이는 돌멩이를 콱 걷어차고는 휙 돌아서갔다.
성민은 그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냥 보기만 했다. 이

때처럼 형님이 돋보이고 애정겹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였다.

《려아, 우리 형님이 정말 멋있지?》

《그래요. 헌데 좀 무서워요. 뭐랄가, 성서에 나오는 다위드같아요.》

《다위드란게 누구야.》

《그는 골리아데라는 거인을 때려눕힌 대장부예요.》

《그렇다면 우리 형님이야말로 그런 사람이야.》

《성민씨도 그래요.》

려아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리고는 찢어진 옷때문에 드러난 가슴을 가리우며 고개를 푹 떨구었다.

《전… 오늘일을 영원히… 잊지 않겠어요.》

《나도 그래. 다시는 패배자가 되지 말아야 하니까.》

성민은 려아가 하는 말의 의미를 미처 몰랐다.

다음날부터 려아는 성민이를 만나는것을 피했고 혹간 마주치면 얼굴이 빨개 눈을 내리깔았다. 하지만 성민이 려순공대에 입학했을 때는 축하전보에 소포까지 보내주었다. 공책과 만년필이 들어있는 그 소포에는 백합꽃을 수놓은 손수건이 들어있었다.

그후에도 계속 소포가 왔는데 그때마다 백합꽃손수건은 빠지지 않았고 겨울철을 앞두고 보내온 소포안에는 털실목도리와 함께 두줄짜리 편지가 들어있었다.

《제가 처음으로 떠본 목도리입니다. 저의 마음으로 알고 추위를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

성민은 이때에야 려아의 감정이 단순한 소꿉시절의 우정만이 아닌것을 알았다.

놀랐다. 조병창 파철창고뒤에서 무엇때문에 그가 얼굴이 빨개졌고 잊지 않겠다느니 뭐니 하며 내우를 했댔는가까지 알게 되였다.

기분으로는 과히 나쁘지 않았으나 곰곰히 생각해보니 억이 막혔다.

(안된다!)

그와 자기사이에는 깊은 계선이 가로놓여있다고 생각했다.

골리아데를 때려눕힌 다위드는 침마르게 칭찬하면서도 왜놈들을 쳐눕힌 유격대의 싸움에 대해서는 무섭다고 하지 않았는가.

녀자니까 그럴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으나 머리를 저었다. 하지만 그가 보낸 털실목도리는 썼다. 하분하분하고 부드러운 그 목도리는 려순의 겨울추위를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였다. …

려아!… 성민은 그의 이름자아래에 친 밑선을 보며 자기가 쓴 글을 볼 때의 려아를 상상해보았다.

어느 정도로 리해하고 받아들일수 있겠는가.

사실을 정확히 쓰는것은 쉬웠지만 자기의 생각과 감정까지를 정확히 밝힌다는것이 무척 어렵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펜을 다시 잡았다.

제 3 장

1

성민이 새롭게 수정보충하는 글을 한창 쓰고있을 때 메밀눈의 소령이 또다시 찾아들었다. 무엇때문인지 상당히 근심어린 얼굴이였던 소령은 책상바닥에 버려진 종이장들과 그동안 새로 쓴 종이장들이 두툼히 쌓인것을 보자 한결 밝아지는 기색이였다.

성민의 피발진 눈길을 보고는 쉬염쉬염 하라고 하며 음식이 입에 맞는가, 잠자리가 어떤가 하는 식의 문안까지 하고는 그만 물러가겠다고 했다. 그 뒤끝에 하는 말이 의미심장했다.

《우리 부사령관님께서는 선생님을 잘 아시더군요. 한데 선생이… 이처럼 하지 않을가봐 걱정이 크셔요.》

《고맙다고 해주오.》

《래일이면 끝날가요?》

《글쎄…》

《뭐, 너무 조급해하실건 없습니다. 부사령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봐서는 웃어른들도 무척 관심한다는것 같은데—》

《웃어른들이란 누구요?》

《거야… 제가 알수 있겠습니까?》

소령은 재삼 건강을 돌보라고 하며 물러갔다.

택규?!… 성민은 쓰다만 종이장을 내려다보았다. 택규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명례, 박정희. 태민에게는 택규보다 박정희가 더 큰 영향력으로 되였을것이다.

명례로부터 박정희에 대해서까지 생각하게 되니 로씨야녀성인 나쟈를 처음으로 알게 된 일이 떠올랐다.

나쟈는 려순시내의 어느 한 식당에서 일했다.

백계로씨야인들의 식당중에서 제일 값이 눅은 이 식당은 려순공대의 엽전패(돈이 적은 학생들)가 이따금 찾아드는 단골식당이였다.

성민이도 돈푼이 생길 때면 이 식당에 찾아들군 했다. 대부분의 백계로씨야인들의 식당들에서는 몸파는 녀자들과의 추잡한 놀음으로 손님들을 끌지만 이 식당만은 그런 페풍이 없었다. 이것은 몸과 마음에 때묻는 일이 없어야 한다던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신칙과 그자신이 정한 계률에도 알맞는것이였다. 이 식당의 고정음식인 아무르강의 심어료리가 더욱 그를 끌었다.

빠다를 두고 끓인 심어국은 경성앞바다에서 잡던 방어국을 련상케 했던것이다.

성민은 해방된지 보름째 되는 날인가 명례와 함께 그 식당에 찾아갔다.

성민이보다 한학년 우인 명례는 이 식당보다 고급식당들에 즐겨다니군 했지만 이날엔 그가 찾는 식당들이 하나같이 문을 닫았던것이다. 로씨야의 10월혁명을 피해온 사람들이니 붉은군대가 오는것이 두려울것이였다.

식당안에서는 몇명의 중국사람들이 술잔들을 찧으며 기염들을 토하고있었다. 그들중에는 붉은 완장을 팔에 두른 젊은이들도 있었다.

식당가운데탁에 자리를 잡은 그들을 비웃는 눈길로 보던 명례는 빵그릇을 들고온 나쟈의 날씬한 몸매를 꺼리낌없이 훑어보다가 나쟈의 손목을 덥석 잡으며 눈을 휘둥그렇게 떠보였다.

《나쟈, 아가씨도 어디 도망치든가 숨어야 하지 않소?》

《왜요?》

《붉은군대 체까들이 아가씨를 잡아갈것이 아니요.》

《호호, 건 걱정하지 말어요. 이곳에서의 수난이 저희들로서는 속죄로 되였으니까요.》

나쟈는 능란한 일본말로 대꾸했다. 명례는 깜짝 놀라는 시늉을 하며 로씨야식으로 두팔을 쩍 벌려보였다.

《그러니 나쟈도 붉은 사회주의를 따른다는거요?》

《저도 로씨야사람이니까요.》

《허 그래, 사회주의가 어떤건지는 아오?》

《그동안 공부를 좀 했어요.》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책이 있겠지요?》
성민이가 성급하게 물었다. 나쟈의 눈이 정겹게 빛났다.
《성민씨는 로어를 알던가요?》
《이 친구는 로씨야의 로모노쏘브나 매한가지의 수재요. 그러니 그까짓 로씨야어를 배우는데는 1주일이면 될것이고.》
명례의 대답에 나쟈는 반색을 했다.
《글쎄 저도 성민씨가 남다르다는걸 알아요. 그래 정말 로어를 배우겠어요? 필요한 책들은 제가 줄수 있어요.》
《허, 혹시 나쟈는 이 성민군한테 반한게 아니요?》
명례는 어지간히 심술궂은 표정을 보였다. 나쟈는 그에는 아랑곳않고 생글생글 웃었다.
《그래요. 당신같은 난봉군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미남자이고…》
《명례형, 그만 빨리 먹고 나갑시다.》
성민은 가운데탁에 앉은 중국인들이 못마땅한 눈길로 쏘아보는것에 주의가 미쳤다. 하지만 제흥에 뜬 명례는 나쟈에게 푹 빠져버린것 같았다.
《나쟈, 나한테 개별교수가 되여주지 않겠소. 사회주의강의도 해주고—》
이때 술병으로 식탁을 내리치는 소리가 울렸다. 그 탁에서 일어선 2명의 중국인이 소매를 더 높이 걷어올리며 그들한테 다가왔다.
《이놈들을 쫓아버려.》
나쟈의 어깨를 두드리며 손짓, 눈짓으로 이 말의 뜻을 표시하고난 그들은 이글거리는 눈길로 명례며 성민이를 쏴보았다.
《이 쪽발이원숭이새끼들아, 이 자리에서 나가지 않았다간 골통을 부실테다.》
련이어 하는 말은 혹독한 쌍소리였다. 성민은 자기들을 일본인으로 오해하고있음을 알았으나 어떻게 말했으면 좋을지 알수 없었다. 명례는 이런 식당들에서 생겨나는 싸움에 어지간히 익숙된지라 뛰쳐나갈 문쪽을 보며 방어자세를 취했다. 다행히 주먹질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나쟈가 능란한 중국말로 그들이 조선인학생들이고 왜놈이 망한것을 축하해 이 식당에 들렸음을 말해주었기때문이다.

이로 하여 당장 큰일을 칠듯싶던 중국인들의 분노는 어지간히 가라앉았으나 그대신 모멸스러운 빛이 퍼렇게 살아올랐다.

《여하튼 너희들은 쪽발이들의 주구들이지? 대학을 다녔다니 부자집자식들일것이고. 조용히 처먹고 떠나들 가. 빌어먹을 꼬우리팡즈, 퉤.》

침까지 뱉았다. 성민은 기가 막혔다. 말하지 않을수 없었다.

꼬우리팡즈란 조중인민들의 리간을 꾀한 일제의 조작품이였다는것을 말하고 다같이 놈들한테 천대를 받던 처지에서 너무하다고 하자 나쟈가 감심한 얼굴로 통역을 했다.

탁에 앉아있던 중국인들까지 왔다.

《물론 우리가 좀 잘사는 집안의 자식들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흰 가난하게 사는 우리 나라 사람들과 중국사람들을 볼 때면 송구스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손중산선생은 말하기를 자기의 목적은 중국사람들모두가 황제처럼 잘사는것이라고 했습니다.

홍군의 모택동선생도 중국과 세계의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운다고 했습니다.》

《호!》

중국사람들속에서 환성이 일었다. 몇사람은 술잔까지 들고 함께 마시자고 했으나 빌다싶이 사양했다.

《성민군이 이처럼 뛰여난 수사학을 배운걸 몰랐는걸.》

명례는 벌깃해진 얼굴을 쓰다듬으며 너털웃음을 웃고는 심술기어린 눈길로 곧추 쏴보았다.

《그런 연설법은 어데서 배웠나. 혹시 려아의 모친한테서 배운게 아닌가. 복음해설을 할 때면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한다던데.》

《시시한 소리 말어요.》

명례가 성민이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인것은 언젠가 성민이를 찾아왔던 려아를 본 뒤부터다.

《왜들 성난 수닭처럼 하고있어요.》

차를 가지고온 나쟈는 정겨운 웃음을 지으며 성민을 보았다.

《성민씨는 모택동에 대한 연구도 깊이 했군요.》

《그저 풍설로 들은셈이지요.》

《호호, 풍설이란 말이지요?… 그럼 **김일성**장군님에 대해서도

알고있겠군요.》
《그분을 모르면 조선사람입니까.》
《이제 그분이 이끄는 빨찌산들도 이리로 온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입니까?》
《그것도 풍설로 들은 소리니 정확성여부는 모르겠어요. 그래 앞으로 다들 어떻게 하려고 해요?》
《고향에 가 아들이 왔노라 하고 인사를 하지요.》
명례가 영화관 변사의 흉내를 냈다. 나쟈의 관심이 성민이에게 쏠린것이 못마땅한듯 했다.
성민은 쪽발이원숭이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무척 불안스럽게 생각던 태민의 일이며 집안일이 근심스러워 한마디 비쳤다.
《사실 기차가 제대로 다니면 오늘이라도 떠나겠는데… 못 가고들 있습니다.》
어제 저녁 려순공대의 한 교수로부터 중국사람들속에서 친일분자들을 타도하기 위해 창과 칼들을 벼리고있다는 말을 들은 성민이였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일본 가나가와현의 륙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봉천에 와있는 태민은 물론 지주로 알려진 아버지도 무사치 못할것이라는 생각이 방금 죽일듯 성을 내던 붉은 완장들의 태도로 봐서 사실로 될것이라는데서 근심이 커졌다.
《제가 알아보고… 도와들 주겠어요.》
성민의 얼굴을 유심히 지켜보던 나쟈는 확신성있는 태도로 말했다. 성민은 잘 믿어지지 않았다.
《이 란시판에 어떻게 주선한단 말입니까. 지금은 붉은군대 수송렬차만이 움직인다는데—》
《자기 동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쏘련사람들은 없어요.》
이렇게 되여 그들은 나쟈가 약속한 때로부터 한달 지난 늦은저녁 쏘련군 군수렬차에 올라앉게 되였다. 나쟈는 로씨야글이 적혀진 밑에 커다란 붉은 공인이 찍힌 종이장을 내보이며 그들이 타고갈 자리까지 잡아주었다. 성민이에게는 그 문서종이와 《일로사전》, 레닌저작집 두권과 얄팍한 소책자로 된 쓰딸린의 《민족문제에 관하여》라는 원서를 기념으로 주었다.
《그 녀잔 체까야. 체까란 로씨야의 제르쥔스끼가 만든건데 국내혁

명이 승리한 뒤부터 세계의 프로레타리아화를 위해 각 나라들마다에 스파이들을 파견했지, 국제공산당의 프락치야들을 내세워서.
나쟈도 분명 그런 스파이야, 아주 로련한 스파이지. 누구나 녹여낼 미모에 기지까지 갖추지 않았던가. 하는 말도 그렇고 분명 체까야.》
명례는 붉은 공인이 찍힌 종이장을 내보일 때마다 깍듯이 거수경례를 붙이는 붉은군대 경무관들의 검열을 무사히 마친 뒤면 의례히 이 말을 곱씹군 했다. 려순공대가 아니라 일본법대를 지망했던 명례는 그와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해서인지 성민이 모르는 정치적인 비화들을 무척 많이 알고있었다.
차는 드레없는 완행이였다. 어떤 역에서는 2～3일씩 머물러있을 때가 있었다.
그통에 10월이 다간 마감날에야 목단강에 있는 집을 찾아들게 되였다.
집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밖에 없었다. 바줄로 동인 이불짐이며 세간살이짐들이 쌓인 방안에서 다 낡아빠진 농군복을 입고 저녁밥을 먹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신수가 멀끔해 나타난 성민이를 보자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난것만치나 기뻐했다.
《따(때린다는 뜻. 중국말)를 받지 않았습니까?》
성민이의 첫 물음에 아버지는 그럴만하다는 태도로 웃었다.
《하마트면 우리도 따를 당할번 했다. 시안의 우리 비슷한 집들과 일본놈 집들은 거의가 다 따를 맞았다. 다행히두 네 외삼촌의 동무라는 사람들과 쏘련군대까지 와서 우리 집을 지켜주었다.》
아버지는 이 말을 하며 괴춤에 넣고있던 종이장을 꺼내보였다.
《이 덕을 단단히 보았다.》
성민이네가 차칸에서 내보이군 하던것과 비슷한 공인이 찍힌 종이장우에는 세 나라 글로 된 글발이 적혀있었다.

—이 집은 반일애국자의 가정이므로 각방의 보호를 요망한다—

《이건 누구한테서 받았습니까?》
《늬 외삼촌과 잘 아는 친구라고 하더라.》
성민은 만시름이 풀렸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입고있는 농군복에 시

선이 갔다.

《한데 옷들은 왜 그 모양입니까?》

《말두 말어라. 요즘 밴밴한 옷을 입고 다니다가는 돌싸개에 든단다. 그 어른두 당분간은 이런 차림이 좋겠다고 하더라.》

《이런 문서장이 있는데두요?》

성민이 붉은 공인의 종이를 흔들어보이자 아버지는 흡족한 웃음을 머금었다.

《돌싸개를 당할 때 그걸 꺼내보일 여유가 있겠니? 하긴 그 종이장때문에 우리는 물론 옥영이네와 려아네 집에서도 톡톡히 신세를 졌다.》

《그들이 우리 집에 와있었습니까?》

《그래. 친일주구와 부자들, 일본놈 집들을 들이친다는 소문이 돈 다음날로 우리한테 왔댔다. 그때 굉장했다. 다들 거렁뱅이 옷을 입고 우들우들 떨며 찾아들었는데 옥영인 재가루로 화장을 했더구나.》

《옥영이야 신경에 가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 앤 5족협환지, 친선인지 하는걸 보여주는 영화 찍는데 뽑혀갔댔는데 봉천에 와있던 태민이가 알고 되돌려보냈다는구나. 일본놈 선전영화에 얼굴을 들이미는것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하며…》

《형님의 소식은 모릅니까?》

《그 애 일이 걱정이다. 엊그제 그한테서도 소식은 왔다. 무슨 피난민구조대인지 하는데서 책임을 지고있다는데 거긴 다 일본군대나 만주군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란다. 그 소식을 가지고온 사람두 사복을 입었더라만 내 보기엔 군대더라. 지금 네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와 태민이 오기만을 눈이 까매 기다렸단다.》

《오겠지요 뭐. 근데 옥영이와 려아네는 지금 어데 있습니까?》

《조선으루 나갔다.》

《형님이 언제 오겠다는 말은 없었습니까?》

《편지엔 인차 떠난다고 했더라만 거야 알겠니. 거기 모여드는 피난민들을 죄다 조선에 보낸 다음 떠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맥락없는짓인지 모르겠다.》

《형님의 성미로 봐선 그럴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자기의 처지를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전범국이고 전범국군대의 장교들은 하나같이 전범자로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우물거리다가 어느 코에 걸려들지 무슨 장담을 한답니까.》

《그러게 말이다. 그래서 난 네가 오면 그 애한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족도릴 끌어서라도 데려와야겠다고—》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 네가 지금 제정신을 가지고 하는 소리냐?》

성민이의 저녁밥을 지어 들여오던 어머니가 까무라치는 소리를 했다.

《너도 오며 보았겠다만 지금 무슨 란시판인지 잘 알것 아니냐. 호박쓰고 도투굴(돼지굴)로 들어간다는게 이런 일을 두고 하는 소리다. 올 사람이야 오겠지. 난다긴다 하는 너의 형님이 아무려면 포승 쓸 일이야 하겠니. 아버지두 너두 안된다.》

어머니의 말로 하여 성민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다.

《어머니, 가야 합니다. 형님으로서는 제절로 떠나오기가 힘들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벗을 저버려서는 안된다는것이 형님이 늘 하던 소리가 아닙니까. 보나마나 거기엔 형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많을것이고 피난민소리를 한결 봐서는 옥영이와 려아네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 빠진 조선사람들을 돕자는것일테니까요. 그러니 제가 가서 적당한 구실을 붙여 형님을 데려오겠습니다.》

《아이구, 갔다가 화를 당하면 어쩌니.》

《제가 무슨 철없는 어린앤줄 아세요. 이제 그냥 형님을 거기 뒀다가 후날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화를 당할수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안 간다는것은 가문의 법도에도 어긋나는것입니다.》

《성민이의 말이 옳소. 호박쓰고 도투굴로 간다면 다같이 가는것이고 그러니 일구이언할것이 없소.》

아버지의 이 말로 아퀴가 지어졌다.

성민이가 태민을 데리러 갔다오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를 형편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먼저 경성에 나가기로 락착을 보았다. 봉천까지 가고오는 문제를 의논하던 끝에 아버지는 괴춤에 넣었던 문서장을

다시 꺼내놓았다.

《이건 네가 건사하거라. 길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은을 낼거다.》

《전 필요없습니다. 건 아버지가 가지고 가야지요. 차를 타는데도 그렇고… 조선안은 더 복잡할지 모릅니다.》

《차를 타는건 념려말어라. 옥영이와 려아네를 보낼 때 역에 있는 사람하고도 안면을 익혔고 또 한 기관사와도 가까와졌다. 청진사람인데 이제 우리 집엘 또 올게다. 한데 돈은 좀 있느냐?》

《있습니다.》

성민이가 밥을 먹고났을 때 아버지는 이사짐안에 싸넣었던 함을 열고있었다.

《그건 왜 엽니까?》

《오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니. 지금 시국에도 어데 다니려면 돈이 푼푼해야 할거다.》

《그 돈은 그냥 건사하십시오. 저한테도 돈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학하는 애들처럼 돈벌이를 했느냐. …》

《아니, 그저 그렇게 있는거지요.》

성민은 집에서 보내주는 돈을 무척 아껴썼던것이다.

그 다음날로 성민은 집을 떠났다. 아버지의 말대로 역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쉽게 차를 얻어탔다.

2

성민이 열흘만에 도착한 봉천은 자유와 무법의 왕국이였다.

명목상 쏘련군 위수사령부가 치안을 맡고있다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일본군 패잔병들을 적발억류하는것과 폭력배들의 준동을 억누르는 정도에 머물러있었다. 시안의 유지들과 여러 계층의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위원회도 있었지만 그것은 유명무실한 존재에 불과하였다.

어느 쪽으로 가는가. 키도 방향타도 없는 상태였다.

도시에는 팔로군의 공산당활동가들과 국민당정객들이 제가끔의

세력을 규합하고있었으나 누가 패권을 쥐겠는지는 두고봐야 알 일이였다.

시안에서 활개치는것은 장사군들과 사기군들, 소매치기와 부랑아, 화류계의 녀성들이였다. 시장과 뒤골목들에서는 일본돈과 중국돈을 쏘련군표와 바꾸는 놀음이 성행했고 일본인과 부자집들을 털어내는 인파가 네거리를 누볐으며 이런 속에 애매한 사람들이 따를 당하고 주머니의 잔돈까지 털리우군 했다.

형님이 있다는 피난민구제소라는 곳에 가니 담벽에 붙인 광고문에도 그런 내용이 적혀있었다.

—환영! 고국에 가려는 조선동포들의 숙박, 차편을 알선해드림—

조선문과 중문으로 쓴 글이였다.

허름한 협화회복차림에 커다란 배낭을 진 성민이 그 광고문앞에 이르자 눈섭등에까지 일본놈의 도리우찌를 내리쓰고 색안경을 낀 스물두세살 나보이는 갱핏한 얼굴의 청년이 그를 불렀다.

《조선사람이야?》

《네.》

《뭣하러 왔어?》

접이걸상우에 앉은 그 청년의 말투에서는 광고문과는 다른 불친절이 느껴졌다. 도리우찌밑으로 삐여져나온 고수머리칼과 색안경이 성민이로 하여금 경계심을 가지게 했다. 광고문을 보며 말했다.

《저두 도움을 받자고.》

《돈이 있어?》

《네.》

성민은 웃옷주머니에 있던 백원짜리지폐를 내보였다.

《흠.》

고수머리는 코방귀를 뀌였다.

《천황이 자빠진지 언제게 그따위걸 들고다녀. 무슨 돈냥이 될것이 없어?》

《없는데요.》

아편덩이를 생각했다. 고수머리는 또 한번 그의 아래우를 내리훑고는 쌀쌀하게 말했다.

《후날 다시 와보라구. 지금은 정원이 다 찼어.》

《저긴 고국에 가려는 사람들을 알선—》
《정원이 다 찼다고 하지 않아.》
팩 하고 내쏘는 고수머리의 말은 군사교련때 소리치던 왜놈사관의 호령과 흡사했다.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여기에 지태민이라고 하는분이 안계십니까?》
《지태민?!… 그를 어떻게 알아?》
성민은 그의 태도가 돌변한것을, 여차직하면 끌어안던가 한주먹 먹일듯 한 태도를 보며 솔직히 말했다.
《저의 형님입니다.》
《형님?!… 정말이야?》
《그런것두 거짓말하겠습니까.》
《뭐, 증명할만 한것이 있어?》
《건 없습니다.》
《그럼 신분을 확인할것도 없는가?》
《있습니다.》
성민은 미심결로 가지고 왔던 려순공대학생증을 꺼내보였다.
《어!—》
고수머리는 외마디소리를 내지르며 성민의 두손을 와락 그러잡았다.
《맞아. 려순공대 수재!… 친구, 안됐다.》
고수머리는 대번에 삽삽한 사람이 되여 성민의 잔등까지 두드려주었다.
《내 군의 말을 많이 들었어. 이러고보니 진짜 태민형을 먹고 게웠군.》
고수머리는 색안경까지 벗어내렸다.
《그래, 여긴 어떻게 왔나?》
《집에 일이 생겨서… 아버지가 앓고있습니다.》
《어, 그거 안됐는걸.…》
고수머리는 진심으로 걱정어린 기색을 보이고는 성민의 배낭을 벗겨내렸다.
《이러고있지 말고 어서 들어가자구. 난 군의 형님과 막역한 사이야.》

미닫이문 안쪽의 긴 복도를 지나 구석진 한 방에 갈 때까지 고수머리가 봉천군관학교 졸업반생이였고 형님이 교관을 하였음을 알게 되였다. 올여름 일본륙군사관학교를 마치고온 형님이 아버지와 어머니앞에서 일본놈 총대잡이는 절대 아니 되겠다고 다시 맹세했다던 말이 사실로 되였다는것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잠간 기다리게.》

돋음무늬의 벚꽃모양이 새겨진 문앞에 이른 고수머리는 도리우찌까지 벗어들며 약간 굳어진 기색을 보였다.

《뭐야, 다들 떠나갔다고?!》

고수머리가 열어제끼는 문틈으로 탁을 내리치며 울리는 노성에 성민은 저도 모르게 흠칫 했다.

좀 있어 문이 다시 열리며 고수머리가 반기는 기색으로 손짓했다.

《어서 들어오라구.》

누비돗자리를 깐 방에는 7～8명되는 사람들이 앉아있었다. 다부산자차림도 있고 제낀 신사복차림도 있었다. 제낀 신사복에 넥타이를 맨 눈매가 날카로운 사람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성민군이라지. 군에 대해서는 나도 잘 알고있어. 정말 들은바 그대로 끌끌한 미청년이구만. 그런데 어쩐다? 한발 늦었으니—》

그 사람은 이 말을 하고는 성민이가 더 물을 틈을 주지 않고 주변사람들을 손짓해보였다.

《여기 모인 사람들도 다들 태민군의 친구들이야. 나로 말하면 이곳 반장을 하는 원권이라고 하네.》

원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때까지 성민이를 지켜보다가 자기옆에 끌어앉혔다.

《그래 집에서 부친이 잘못되였다는데 어찌된 일인가. 얼마전에 보낸 우리 사람의 말로는 다른 일이 없었다고 하던데—》

어조는 부드러웠으나 눈빛은 속까지 뚫어볼듯 예리했다. 성민은 진땀이 났다.

《제가 집에 가보니 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통에 아버지는 허리까지 상했는데 제대로 운신조차 못합니다. …

사실 지금에 와서 저희 집은 별로 잘살지도 못하는데두.》

성민은 만약을 생각해 이런 말까지 하다가 흠칫하며 혀를 깨물었다.

벗꽃문양의 은지를 바른 벽에는 화보장에서 본 레닌과 쓰딸린의 초상화가 걸려있고 그밑에는 쏘련국기까지 붙어있었다. 그의 놀라와하는 기색을 본 원권은 싱그레 웃으며 더 살갑게 물었다.

《그래 점심은 먹었나?》

《네.》

《그럼 좀 쉬다가 저녁식사때 다시 만나자구.》

《저… 저의 형님은 지금 어데 있습니까?》

《그에 대해선 걱정 말라구. 이제 다시 올테니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자구. 부친의 병세때문에 되돌아가겠다면 별문제지만…》

《여기서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래, 그게 좋을거야. 택규군, 동무해주라구.》

《하잇!》

고수머리는 용수철처럼 튕겨일어나며 거수경례를 붙였다. 원권의 눈섭이 일그러졌다.

《이봐, 언제면 그 버릇이 고쳐지겠나.》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택규라는 고수머리의 황급한 대답에 원권은 손을 한번 휘젓는것으로 더이상 할말이 없다는것을 표시했다.

《저 사람들은 지금 무얼하고있습니까?》

밖으로 나온 성민은 택규가 들고나온 또 다른 접이걸상에 허물없이 앉으며 물었다.

《새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의논들이지.》

택규는 방금전에 핀잔을 들은 사람같지 않게 밝은 얼굴이였다. 성민은 호기심이 부쩍 치밀어올랐다.

《새 나라를 세운다는건?…》

《그건 한두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운거요. 군이야 사각모선생님이니 잘 알테지만 이곳 땅이야 우리 조상들이 개척하고 자리잡은 고구려의 옛땅이 아닌가. 그러니 필부가 아닌 이상 지금과 같은 기회를 스쳐보낼수 있는가, 되찾아야지.》

《아니, 그러면 쏘련군대와 중국사람들과 전쟁을 한다는것입니까?》

《허허, 이런 선생님이라구야.》

택규는 유쾌한 웃음을 터쳤다. 허나 눈만은 웃지 않았다. 성민을 스쳐볼 때도 또 앞의 행길을 지나가며 《빈 땅후루.》(아가위 사시오.)를 부르는 로인을 살필 때도 매눈같이 예리하고 차거운 빛이 번쩍였다. 꽃무늬게다를 따각거리며 지나가는 기생퇴물림인듯 한 녀인을 보자 한손을 휘저어보이며 말을 계속했다.

《필요하면 싸움도 해야지. 하지만 그런 싸움은 없을거네. 쏘련군은 일본군 무장해제를 끝내면 돌아가게 되는것이고 장개석총통이나 홍군의 모택동은 관내 패권싸움에 여기엔 시선을 돌릴수 없거던. 군은 삼국지를 읽었나?》

《읽었습니다.》

《력사적으로 중국은 내란이 심한 나란데… 이 동북만은 관심밖이였어. 그러니 우리가 잽싸게 여기를 타고앉으면 그들로서 어쩌겠나. 그래 내 말이 어떤가.》

그는 길거리를 살피기도 하고 성민이의 반응을 곁눈질해보기도 하며 이 말을 했다. 성민은 그가 밖에 나와있는것이 그 《새 나라 의논》을 지켜주기 위한 망보기임을 알았다.

더 깊이 알고싶어 능청스럽게 머리를 끄덕였다.

《듣고보니 그럴듯합니다.》

《거야 명백한 리치니까. 한데 일은 여의치 않아. 관내의 싸움군들이라고 하던것들이 죄다 서울로 갔다는거야. 그까짓 〈림정〉령감태기들은 계산밖이였으니 애당초 제껴놓은것이지만 일본군에서 쟁쟁히 이름을 떨치던 장교들까지 서울로 들고뛴다는거야. 통분할 일이지. 신념도 량심도 없는것들이야. 군은 미군이 서울에 들어온걸 알아?》

《그건 처음 듣는 소립니다.》

《그럴테지, 그 관내의 패거리들은 미군한테 붙어 한자리 얻을 생각부터 했을거란 말이야. 그러니 통분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건 비밀이네만 자네 형님은 바로 관내에서 도망칠 궁리를 하는 떨거지들한테 갔어, 이곳에 와서 힘을 합쳐 기회를 노리자구.》

《관내란… 어느 곳인데요?》

《쭉 훑어야지. 여러곳에 널려있을테니까 잡힌 장교들은 어쩔수 없지만, 혼자 간건 아니니 념려할건 없어. 빌어먹을것들, 우리두 여기에 있는게 좋아 있나? 붉은군대를 보면 역기가 나지만 대업을 생각해야지. …》

《저… 방금 볼려니 방엔 로씨야 수령들의 사진과 붉은기까지 걸려있던데요.》

《그건 위장때문이야. 그래 쏘련군이 판을 치는 땅에서 방법있나. 큰일을 위해서는 공산당과도 손을 잡고 필요하면 쏘련군대도 등에 업자는거야.》

《저… **김일성**장군님은 공산주의를 한다고 하던데 그러니 우리 나라는—》

《아니, 아니야. 우리로 말하면 이 땅을 타고앉고 조선까지 죄다 우리것으로 만든 다음 그 정치라는 기발도 우리의 기발로 바꾸자는게야. 다나까내각을 뒤집던 방식으로 몇명 청년용사의 칼부림만 있으면 박씨든 리씨든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왕으로 아니, 대통령이지. 대통령으로 올리면 만사가 쭉 펴이지.》

성민은 기가 막혔다. 이자의 눈을 봐서는 만만치 않지만 하는 말은 미친자의 잠꼬대같은 망언이였다. 목단강에서 여기까지 오며 알게 된 장개석군과 모택동군간의 싸움을 봐도 이들의 생각이야말로 천진란만한 꿈이라는 가소로움을 금할수 없었다.

택규로부터 이러루한 장광설을 듣는 사이 세사람이 왔다가 물러갔다. 다들 초라한 행색에 들고온 짐이란 이불보따리와 쌀짐이였다. 택규는 그들에게도 성민이한테 하던 식으로 묻고는 후날 보자는 식으로 쫓아버렸다. 봉천역에서 근무했다는 대모테안경을 낀 사람으로부터 《당신네는 돈잡이를 하려고 이걸 차려놓았소?》라는 말을 듣자 다짜고짜 귀쌈을 후려쳤다.

《이놈의 친일분자야, 네가 다시 왔다간 뼈다귀도 추리지 못할줄 알아라.》

택규는 싸쥔 볼을 움켜잡고 쫓겨가는 대모테안경에게 주먹까지 흔들어보이고는 껄껄 웃었다.

《별 떨거지들이 다 온다니까.》

《아니, 그럼 저 광고문은 떼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야 되나.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하니까, 물론 돈은 탁탁히 받아야지만.》
《돈은 무엇때문에.》
《허, 부자집 도련님이니 깜깜이구만. 우리가 여기서 먹고 사는것도 그렇고… 보다는 군자금확보지. 총도 사람도 돈이 없으면 어데서 얻을텐가.》
《그래도… 너무하군요.》
《역시 선비님이군. 그런 생각으론 아무 일도 치지 못해. 그리고 저러루한 떨거지들은 아무 판에도 살아갈것들이거던. 저 대모테안경은 펜대나 놀리며 꽤 살았겠지만 여하튼 백성에 불과하거던. 백성이란 다스림을 받고 다스림을 하는 힘앞에 끌려다니는 마소와 같은거야.》
《저도 백성인데요.》
《허허, 이 친구 봐라. 한다하는 부자집 아드님이 하잘것 없는 백성이라니, 더구나 태민형의 동생이.》
태민을 상기시키는 말에 성민은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다. 그처럼 총명하고 깨끗한 형님이 이러루한 사람들의 동아리속에 있다는것이, 더구나 되지도 못할 망상에 빠져 이러구저러구 한다는것이 억이 막혔다. 잘 믿어지지도 않았다. 그렇다 해서 더이상 물어볼수도 없었다.
성민은 한주일동안을 이 집에서 살았다.
이 집은 얼핏 보면 조용했으나 밤이면 몹시 부산스러웠다. 군인출신들이 분명한 사람들이 찾아왔다가는 날이 밝을녘이면 어데론가 떠나갔다. 어느날 밤에는 멱을 따는듯 한 비명에 놀라 깨여났다. 문짬으로 내다보니 마루를 구르며 나가는 사람들의 손에 커다란 마대같은것이 들려있었는데 그 마대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직 살았군.》하며 마대짝을 걷어차기까지 했다.
그 다음날로 숙박장소를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시안의 여기저기를 헤매던 그는 조선사람이 경영한다는 려관을 찾게 되였다. 《해방려관》이라고 국한문으로 쓴 간판옆의 미닫이창에 《조선동포들에 한해서는 렴가로 봉사함》이라는 글발까지 붙어있

는 려관이였다.
이 려관에서 달포가량 묵어있는데 그동안 이틀이 멀다하게 찾아들던 택규가 어느 하루는 불맞은 노루모양으로 허겁지겁 뛰여들었다.
《이보게, 여기를 떠야겠네.》
《뜨다니요?》
성민이 《일로사전》을 놓고 쓰딸린의 《민족문제에 관하여》를 한창 뜯어볼 때였다. 그런데 그전까지만 해도 성민의 앉은뱅이책상우에 놓인 맑스며 레닌의 책들을 볼 때면 이게 뭔가고 사시눈을 흡뜨면서 비양거리던 그가 이번에는 쓰딸린의 초상까지 붙어있는 책이건만 외눈도 돌리지 않고 엮어댔다.
《서울에서 기별이 왔네. 신경에 있는 우리 본부에서도 지시가 있었구. 당장 여기를 떠 서울로 가라는걸세.》
성민은 놀랐다.
동북땅을 다 타고앉는다던 기세는 어데로 갔는가. 웃음집이 흔들거렸다.
《저… 거사계획은 어떻게 하구요?》
성민의 말에 택규는 게면쩍게 웃고는 낯을 찌프렸다.
《자넨 려관방에 있다나니 영 깜깜이구만. 이제 여기서두 장개석군대와 모택동군대가 대판 싸움을 벌리게 돼. 그러니 우리같은 새우들이야 고래싸움에 등 터질노릇이 아닌가. 그리고 좀 있으면 38도선을 경계로 서로 다른 정부가 서게 돼. 38도선 이남은 미국식민주주의정권이 서게 되고 이북은 쏘련식붉은정권이 서지. 이건 물론 우리가 바라는건 아니야. 때문에 우리가 빨리 가서 우리가 바라는 정부를 이북에까지 세우기 위해 혈전분투를 해야 할거거던.》
너무나도 뜻밖의 무지스런 말이였다. 나라가 둘로 갈라진다는것은 뭐고 혈전분투란 또 뭔가.
《그럼 우리 형님은 어찌 합니까?》
성민은 나라도 나라지만 당장은 태민형의 일이 걱정되였다.
《실은 그때문에 온거야. 지금 임자 형님은 광동 아니면 중경에 있을터인데 그를 찾아와야겠어. 아직까지 여기 오지 못한걸 봐서는 뭔

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것 같고… 일본군에 있은 사람은 장개석도 모택동도 사정보지 않으니까.》
성민은 가슴이 덜컹했다. 그러지 않아도 늘 그때문에 시름이 컸던 성민이였다. 저도 모르게 불쑥 일어섰다.
《그렇다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광막한 대륙, 그 머나먼 험한 길과 형을 그려보니 가슴이 화들거리며 눈물이 핑 고였다.
《성민군, 장하이.》
택규가 목멘 소리를 지르며 성민의 손목을 와락 그러잡았다.
그는 강개한 음성으로 말했다.
《나도 가겠네. 사지판에 동지를 두고 외면할수 있는가.》
《아니, 택규형이?》
《그럼.》
성민은 가슴이 찡해들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건 우리 본분일세. 그리고 나도 꼭 찾아야 할 사람이 또 있네.》
갈 일을 의논했다. 로자가 문제라고 하자 택규는 피씩 웃었다.
《그건 념려말게.》
저녁녘에 기차에 올랐다. 그런데 차는 두 정거장을 지나 멎고말았다. 그때부터 간고한 려행이 시작되였다.
마차를 세내여 타기도 하고 도보로 걷기도 했다.
택규한테는 넘치도록 돈이 많았다. 금붙이따위들도 수두룩했다.
피난민도움을 바라 찾아온 사람들에게서 울아낸것일것이였다.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는 길이였다. 어설픈 연기도 해야 했다. 이런데서 택규는 비상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다 낡아빠진 다부산자차림의 택규는 대상에 따라 중국사람행세도 하고 반벙어리흉내도 냈다. 그리고 그에게는 여러가지 증명서들이 교예사의 손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주패장처럼 취체자들의 행색과 말투에 따라 연신 뒤바뀌 나왔다.
팔로군앞에서는 연안의 화북조선인독립동맹휘장을 보였고 국민당군한테는 중경《림시정부》의 공인이 찍힌 증명서를 휘둘러댔다. 그

보다도 더 잘 통하는것은 돈과 금붙이였다.
그러나 이런 단속은 드물었다.
피난민떼가 범람하는 때이라 웬간히 표가 나지 않는 한 스쳐보내는것이 일쑤였다. 그런데다가 택규는 먼발치에서 울리는 대포소리를 듣고도 저건 어디 편이고 저건 팔로군이고 하는 식으로 재빨리 판단하였고 그들과 맞다들지 않을 길을 찾아내군 하였다.
관내에 들어서면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 애를 먹었다.
성민이나 택규가 배운 얼치기중국말은 동북방언이여선지 도저히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종이장에 글로 써서 화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광동까지 오는데 두달반이 걸렸다.
성민은 여기서 택규가 오게 된 진짜 목적을 알게 되였다.
택규는 태민형도 태민형이겠지만 자기 누이와 매부때문에 온것이였다.
큰 점포를 7개씩이나 가지고있다는 매부라는 사람은 택규의 매부라기보다 아버지벌로 볼 중늙은이였다.
그들 내외는 초라한 거지행색의 택규를 선뜻 알아보지 못했다. 차림도 그렇거니와 까뭇하게 타고 말라빠진 얼굴에 눈만 남은 정도였다. 성민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택규가 한바탕 친척간의 상봉극을 보인 다음 태민에 대하여 물었다.
매부라는 사람은 가엾다는듯 성민을 보며 말했다.
《그 사람은 서울로 간지 오래다, 여기 왔던 병정들과 함께. 한데 그걸 알린다구 너희한테 사람을 보낸것 같은데 못 만났느냐?》
택규는 그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다행이라는듯 끔뻑 반가운 흉내를 냈다.
《됐군요. 저도 그때문에 온겁니다. 매부네도 당장 짐을 싸고 서울로 가야겠습니다.》
《아니, 서울루는 무슨 서울. 이곳 집과 재산은 어찌하고…》
《허참, 매부는 목이 두렵지 않수. 이제 여기두 장개석이나 모택동의 땅이 될텐데. 그렇게 되면 일본령사관 경찰출신의 매부는 더 말할것도 없고 누이까지 잘못될것 아닙니까.》

《하긴 여기 온 군대들두 그렇게 말하더라만…》
《여기 온 군대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태민이라는 사람을 찾아왔는데 그가 떠난 다음이여서 우리 집에 눌러있다. 그들도 매일 서울루 가자고 성환데 배를 얻는것때문이라고 미루던 참이다.》
《떠나야 합니다. 더 우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허허 참.》
그 집에서 점포의 물건과 가산을 처리하는 동안 성민은 몸살을 만나 열흘넘게 자리에 누워있었다. 오는 길의 로독도 로독이지만 집 생각과 태민형에 대한 근심으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시진해버렸던것이다.
설명절을 코앞에 두고 큰돈을 들여 마련했다는 밀선에 올랐다. 그동안 지하실에 붙박혀있던 일본군장교출신들은 배가 뭍을 떠나자 《갓떼 구르도조》(일본군가)를 불렀다.
성민은 아연해졌다.
(어떻게 되여 형님이 이런자들과 가까울가.)
배가 인천에 도착했을 때는 3월말이였다. 지난 기간 잠상으로 이곳 배길에 도통했다는 선장이였건만 풍랑이 사나운데다가 곳곳에 널린 군함때문에 여기저기 에돌고 도중도중 섬에 올라 물도 얻고 식량을 얻으며 오느라니 이처럼 늦어지게 되였던것이다.
고향에 있을 때 아버지가 가지고있던 배들을 타고 여러번 바다에 나가봤던 성민이였지만 그도 이 배길에서는 내내 멀미를 하며 몇숟가락씩 들군 하던 낟알까지 죄다 토하군 하였다. 심청이 빠져죽었다는 림당수어림에서는 아예 선실바닥에 쓰러져 형도 부모님과도 다 하직이라고까지 생각하였다.
인천항에 들어설 때 처음으로 미군을 보았다. 자그마한 순찰정을 몰고온 그들은 배의 곳곳을 뒤져보고 승선자들의 명단까지 작성한 후 역한 냄새가 나는 소독약으로 배안과 성민이네의 옷까지 화락하게 적신 다음 허가가 있을 때까지 항구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다음날 그 순찰정이 다시 나타났다. 거기에는 미군군복과 비슷한 옷차림을 한 조선사람들도 있었다.
《성민아, 성민아.》

그중의 한사람이 입나팔을 하고 소리쳐 부르는 소리에 그가 형님인 것을 알아보았다.
태민은 그럴 필요도 없겠건만 순찰정과 성민이네 배가 나란히 맞붙을 때 성민이네 배의 배전을 짚고 훌쩍 뛰여올랐다.
《성민아!》
또한번 거센 소리를 지르고는 성민을 와락 그러안았다.
부두에서 간단한 조사를 다시 받은 다음 성민은 태민이 타고온 스리쿼타에 올랐고 택규와 일만군장교출신들은 미군이 몰고온 대형군용차에 올랐다. 그 차의 적재함 량쪽의 붙임걸상에는 총을 세워든 미군 네명이 죄인을 몰고가는 호송병의 엄엄한 자세를 취하고있었다.
《저 택규형이랑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간단한 심사를 하지. 그다음 적당한 밥자리를 얻을거다.》
《신분이 탄로되면 전패국 장교로서의 처분을 받겠군요.》
《아니, 저건 그저 형식이지. 나도 심사를 받았다.》
《한데 형님은 지금도 군댑니까?》
《아니, 응. 지금은 군사영어학교 학생인셈이다만 이제 곧 장교로 될거다.》
더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한시간 못미처 서울시가로 들어선 차는 2층목조가옥앞에서 멈춰섰다.
《이게 내가 사는 집이다.》
《야, 굉장하군요.》
《인사차비를 잘하거라. 이젠 옥영이가 너의 형수로 된셈이고 목단강녀걸은 내 장모님으로 되였다.》
《네?!—》
《흠, 그렇게 되였다. 이 집은 옥영이네 집인데 얼마전에 그와 약혼을 했다.》
운전사가 두번 경적을 울리자 현관문이 활짝 열리였다.
처음에는 몰라보았다. 노란반회장조선저고리에 옥색치마를 받쳐입은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녀인이 두손을 찰싹 맞부딪치며 《아휴—》하고 소리를 칠 때야 옥영임을 알았다. 성민은 어떻게 인사말

을 해야 할지 몰라 벙긋이 웃었다.
옥영이가 한수 높았다.
《온다온다 해서 눈이 까매 기다렸는데 이제야 오셨군요.》
깍듯한 례입에 더 기가 죽어들었다. 현관 전실의 푹신한 주단을 밟고서야 인척간의 례법을 상기했다.
《형수님, 시동생의 절을 받으시우.》
성민이 넙죽 엎드려 절을 하자 옥영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 창피해. 어서 일어나요.》
성민은 행주치마바람으로 뛰여나오는 옥영이 어머니에게도 무릎절을 했다.
《장모님, 그동안 귀체 무강하셨습니까?》
《허허, 장모야 나한테 장모지 너한테도 장모야.》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옥영의 어머니가 성민이의 무안을 덜어주었다.
《형님의 장모면 어떻고 동생의 장모면 어떻소. 아직 성례도 치르기 전인데.》
집안은 지지고 볶는 냄새로 꽉 찼다. 부엌에 들어갔다 나온 태민이 옥영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한마디 했다.
《옥영이, 이제 손님들이 오면 그 옷 말고 다른걸 입소.》
《야회복에 분화장도 하리까?》
《건 좋을대로.》
태민은 비주룩이 웃으며 성민에게 돌아섰다.
《너의 저 말괄량이는 지금 숙명녀대에 적을 붙이고있다. 게서는 조선옷이 위주다.》
조선옷이 좋다는지 나쁘다는지 모를 소리였다.
《미국사람들도 오는가요?》
옥영의 물음에 태민의 숱진 눈섭이 꿈틀했다.
《것들은 뭣때메—》
부엌에서 2～3명의 녀인들이 얼굴을 기웃이 내밀고는 사위를 빼물어 닮았다거니 그보다 잘났다거니 하며 수선을 부렸다. 옥영이와 그의 어머니의 손에 붙잡혀 여기까지 오는 도중의 일을 대충 말하는 사이 옷을 갈아입고 나온 태민이 자기 방으로 가자고 했다.

방은 서양식으로 꾸려져있었다.
상두대에 놓인 풀색전화기가 이채로왔다.
《앉아라. 그래 무슨 목적으로 예까지 왔니?》
태민이 걸상을 권해보였으나 성민은 어릴적부터의 습관대로 장판바닥에 꿇어앉았다. 장판은 두툼한 해면마분지로 된 북신한 장판이였다.
《이 집을 사는데 굉장한 돈이 들었겠습니다.》
좀더 케를 봐가며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태민은 유심히 그를 보다가 별다른 기색없이 대답했다.
《이 집은 옥영이 어머니가 공짜루 얻은거다.》
《공짜루요?》
《그렇다. 옥영이네 부친의 선생이였다는 미국선교사의 아들이 지금 〈미군정〉청 민사처에 와 있는데 그가 얻어주었다.》
《대단한 인심인데요. 그 미국선교사도 왔습니까?》
《아니, 그 아들이라는 사람만이 왔다. 옥영이 아버지는 그의 주선으로 지금 〈미군정〉청에서 통역 겸 무슨 사무일을 본다고 한다. 잠도 대체로 거기서 자고— 건 그만 하고 이젠 본론으로 들어가자.》
태민은 꺼칠하게 마른 성민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다가 《안됐구나.》하며 빙그레 웃었다.
《네가 집을 떠난건 11월초라지?》
《그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 아는수가 있다. 널 보낸건 아버지겠지?》
《네, 저도 그렇고.》
《하여튼 용타. 한데 아버지가 화를 당했다는것이 사실이냐?》
《그건 거짓부릴 했습니다.》
《집에서 나때문에 무척 속을 태우겠구나.》
《네.》
성민은 부모님들을 만나기까지의 전후사를 간단히 밝히고 여기까지 오면서 가장 적중하다고 생각한 대답을 덧붙였다.
《아버진 지금과 같이 시국이 복잡한 때일수록 집안이 한군데 모여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옳다. 한데 내가 가도 일없을가.》
태민은 두눈이 가느스름해져 중을 떠보듯 웃었다. 성민은 속이 울뚝했다.
《일없지 않구요. 아직 나라두 서지 않은 때에 여기서 군대노릇하다가 무슨 코에 걸려들지 어찌 안답니까.》
《허허, 그 말두 일린 있다. 한데 여기선 지금 군대가 피신처루 된다. 친일파 타도요, 공산당 타도요 하고 서루 죽일 놈만 찾는데 군대한텐 어쩌구저쩌구 없다. 그러니 정치를 한다는 어중이떠중이들의 놀음이 잦아들 때까진 군대가 적당한 피신처로 된다 그 말이다.
하긴 이 도깨비정치놀음이 언제 끝날진 모르겠지만.》
《그러니 더욱 그렇지요. 이제 집엘 가면 만사가 잘될겁니다.》
《아니 북쪽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것이 없다. 거기선 공산당이 득세한다지만 조용하진 않다. 더구나 여기선 나도 이쯤한 정도로 무사하다만 거기선 나같이 일본군에 관계된 사람은 마구 족치는 판이니 어림있니?》
《아, 거야… 아버진 목단강에 있는 외삼촌 동무로부터 반일애국자 보증서까지 받았는데요.》
《나도 그런 정도는 알고있다. 아버진 지금 군자치위원회에서 서무과 일을 본다고 하더라.》
《군자치위원회에서… 그걸 어떻게 압니까?》
《허, 이 나라 크지 않은 땅에서 그만한것도 모르겠느냐. 지금 쓰고사는 집이 어느 모퉁인지도 알고있다.》
《그래－요?!》
태민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집안소식을 묻지 않은것이 이제야 리해가 되였다.
《한데 다시말한다만 그곳 정세도 여의치 않다. 복잡하긴 여기와 다를바 없고 어쩌면 더 소란해질거다.》
《더 소란해진다는건 어떻게 된다는겁니까?》
《넌 우리가 경성에서 살 때 린근 지주들 다가 우리 집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걸 알겠지. 그래, 령세어민들과 소작농들을 좀 봐준것으로 우릴 죽자꾸나 미워하던 사람들이 공산당을 그대로 둬둘상싶니?》
《그런 사람들이야 거의다 여기루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한데 공산당때문에 쫓겨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8따라지〉라고 업수임 받으면서 그냥 있을상싶으냐. 벌써 그러루한 사람들이 토지개혁을 하여 저들의 땅을 농민들에게 나눠준 북의 공산당을 때려없앨 원쑤루 윽벼르고있다.》

《그럼 가지 않겠다는겁니까?》

《허, 수륙 몇만리길을 톺아온 너한테 어찌 못 가겠다는 소리야 하겠니. 그건 좀더 생각해보기루 하고 우선 목욕부터 하고 옷이랑 갈아입어야겠다.

여하간 너한텐 정말 미안하구나.》

태민은 성민의 얼굴을 측은히 보다가 일어섰다. 목욕실까지 성민을 데리고 간 태민은 자기것이 분명한 흰눈같이 깨끗한 모달리내의와 밤색제낀양복을 놓고 나갔다. 성민이 목욕을 끝내고 나오자 태민은 무척 대견해하는 얼굴이였다.

《네가 이젠 완전한 미장부로 되였구나.》

《처녀들이 줄을 지어 따른답니다.》

《거참, 멋지구나. 한데 려아네 뒤소식은 더 모르니?》

《못 알아봤습니다. 어머니의 친정이 있는 삼봉으로 갔다는것밖에는—》

《그 애 아버지쪽은 다 여기 서울에서 산다고 했지?》

《네, 그렇긴 하지만 려아의 어머니와 갈라진 뒤부터는 남남사이로 되였답니다.》

《그래도 려아넨 일루 오는게 나았을게다.》

《건 무엇때문에요?》

《지금 북에 있던 예수쟁이들이 거의나 다 이리루 쓸어오고있다. 너도 사회주의자들이 종교를 부정한다는건 알겠지. 지금 북에서는 친일파와 지주, 자본가 다음에는 예수쟁이들을 타도대상으로 한다더라. 그러니 려아네가 그 동란에서 벗어날수 있겠니.》

《그건 모를 소립니다. 그전날 외삼촌한테서 들을라니 **김일성**장군님은 종교인들까지 반일혁명에 뭉쳐 세운다고 했습니다.》

《정치란 그렇게 단순한것이 아니다. 글쎄 그렇게 되면 오죽 좋으랴만—》

옥영이가 나타남으로써 이야기는 여기서 끊어졌다. 손님들이 온것

같다고 했다.
《너무 눈부신걸. …》
옥영을 보는 태민의 눈에는 만족과 긍지감이 넘쳐있었다.
몸에 착 달라붙게 지어입은 까만 비로도달린옷은 옥영의 호리호리한 몸매를 더 돋보이게 했고 삼각으로 파진 가슴팍에서 하느적거리는 청보석목걸이는 그의 희디흰 살결을 눈부시게 했다.
《오늘의 손님접대는 임자가 기본이니 먼저 나가보라구.》
《형님은 저런 차림으로 내세우는것이 좋습니까?》
검박과 검소를 우선시하던 형님이 그동안 크게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건 그동안 칼과 총밖에 모르던 사람들께 새시대가 왔음을 알리자는거다.》
손님들이란 피난민구제소에서 보았던 사람들과 택규와 함께 끌려갔던 그전날 일본군장교출신들이였다. 심사를 받는다던 그들도 어느 사이에 멀끔하게 리발도 했고 비록 새것은 아니지만 어지간히 값비싼 신사복들을 입고있었다.
응접실 겸 소연회실로 쓴다고 하는 너렁청한 방에는 앉은뱅이밥상들을 1렬로 모아 붙여놓았는데 거기에는 성민으로도 놀랄 정도의 진수성찬이 가득 차려있었다.
태민이 미리 준비해둔듯 짧으면서도 의미심장한 인사말을 했다.
《저는 여러분들과 새시대의 역군이 될 초지를 더욱 굳게 하기를 바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일제하의 비애와 울분, 고뇌와 눈물과의 결별을 축하해서 또 여러 선배님들과 제관들의 밝은 앞날을 기원하여 건배를 제의합니다.》
술잔들이 오고갔다. 취하는 속도가 빨랐다. 술도 술이지만 옥영의 발랄한 웃음과 미색이 위력한 주정으로 되는것 같았다. 혀들이 꼬부라지자 걸죽한 롱담들속에 별의별 말이 다 쏟아져나왔다.
몇사람의 입에서 일본노래까지 터져나오자 태민이 엄하게 막았다.
《여긴 료리점이 아닙니다.》
태민의 이 한마디 말에 모두가 기신거리는 몰골이 되였다.
성민은 더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몸이 오슬오슬해지며 열이 났다.

이날 밤부터 성민은 한달가까이 열병으로 신고했다. 이통에 집소리는 두번다시 꺼낼수 없었다. 태민이도 일체 그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다.

5월에 접어들어 얼마간 걸음을 하게 되였을 때 다시 그 뜻을 비추자 태민은 조금더 기다려보자고 하였다.

그런 어느날 태민은 또 한번 연회를 차렸다. 이때에도 그전에 왔던 택규의 패들이 거의 다 밀려왔다. 거기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몇명의 사복쟁이들이 왔는데 그중에 한사람이 무척 인상적이였다.

표표한 얼굴에 눈빛이 무척 날카로왔다. 남들이 말하는 사이에도 연방 술잔을 기울이는데 까뭇하게 보이던 얼굴색이 조금 희여졌을뿐 눈빛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태민이가 그와 인사를 시킬 때 《아, 군이 성민인가.》하며 무척 반색해했었다. 술잔들이 오가는 속에서 박정희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과 그와 함께 새로 나타난 중국관내의 일본군복무자들의 귀환을 축하하는 연회임을 알게 되였다.

《성민군, 이리 오라구.》

다들 거나하게 취했을 때 그가 성민을 찾았다. 새침할 정도로 웃음이 없던 그의 눈에 은근하면서도 따뜻한 미소가 피여올랐다.

《왜 술을 마시지 않지?》

《전 마실줄 모릅니다.》

《허, 태민군을 닮았으면 모든데서 형님과 같아야지.》

《그 앤 일찌기 우리 아버님앞에서 술을 안 마시기로 맹세했답니다.》

태민이 례입을 써 말하자 그는 호탕하게 웃었다.

《그런가, 장하구만.》

그는 또 한잔의 술을 물붓듯 입에 털어넣고는 성민의 어깨를 툭 쳤다.

《이봐, 그 맹세를 꼭 지키라구. 우린 얼룩점이 많은지라 술로 그걸 씻지. 그래서 이렇게 마시는거구. 입잔 티없는 청년이니 그 맹세를 꼭 지키라구. 맹세! 사내의 맹세란 귀중한거야.》

그도 전혀 취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것 같았다. 택규가 앉은쪽에서 군대가 어떻소, 정국이 어떻소 하는 말을 듣자 술상을 쾅 내리쳤다.

《여, 생도!》

성민이와 말할 때 하고 판 다른 쩡쩡한 웨침에 군대가 정국을 바로

잡아야 한다던 택규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움찔린 자세로 긴장되였다. 박정희는 비양거리는 눈길로 택규를 견줘보며 말했다.

《이봐, 자네 하는 말 랑설이야. 정치도 뭣도 다 군대가?!… 이거야말로 어불성설이지. 그래 일본이 왜 망했는가. 니뽄도밖에 모르는 사무라이들이 내각이요, 뭐요 다 틀어쥐고 날쳤으니 개죽을 쑨게 아닌가.》

《중위님, 지금 적색세력이 들고 나서는판에 우리같은 군인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땅이 어찌 됩니까?》

《적색이면 어떻고 백색이면 어떤가. 군대는 민중의 편을 따르면 그만이야. 민중이 좋다는 정부, 민중이 세우는 국가의 파수군으로 되는것, 여기에 군대의 사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거야.》

《박군, 취하지 않았나. 지나친 탈선일세.》

누군가의 말에 박정희는 코웃음을 쳤다.

《탈선?!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난 오늘에 와서 볼 때 과거와의 결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군대를 보십시오. 그네들은 창군 첫날부터 오늘까지 정치와는 무관계한 표대를 세우고 오직 민중과 국가에 헌신하는걸 자기들의 본분으로 삼음으로써 세계의 최강군으로 선위를 떨치는것입니다.》

다들 어리둥절해하는 기색이였다. 분위기도 서먹해졌다. 몇몇 사람들이 채 모르겠다는 식으로 고개를 젓는것을 보자 한결 겸양스런 태도로 말을 이었다.

《내 말하자는건 지금의 복잡한 시국에 실수가 있을가 념려되여 하는 소립니다. 지금은 우리로서 관망하는 시기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선 조상들의 중용지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용지도는 태민군의 지론이기도 하지요.》

박정희는 벌씬 웃으며 태민을 돌아보고는 한손을 높이 쳐들었다.

《긴급제의가 있습니다. 태민군과 옥영씨의 노래를!… 반대 없습니까?》

요란한 박수가 터졌다.

성민은 박정희라는 사람이 분위기조절에도 능숙한것에 감탄했다.

정치론담으로부터 오락회로 넘어간 환영연은 밤이 깊어서야 끝났

다. 다들 만족한 기분으로 떠나갈 때도 박정희는 성민이에게 남다른 친절을 보였다.

《이제부턴 여기 저 사람들보다 군과 같은 새 사람들이 떨쳐날 시대일세. 그래 인차 돌아갈텐가.》

《네.》

박정희는 실눈이 되여 웃으며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정희라는 사람이 여간치 않은 인물같던데요.》 손님들을 바래주고 방에 들어설 때 성민은 그에 대해서부터 물었다. 태민은 의당한 말이라는듯 고개를 끄덕였다.

《간단치 않은 사람이다. 한데 넌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다 받아들였니?》

《그가 한 말을 따져보면 좀 분명치 않은데도 있고 모순된 점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군대가 정치와 무관계해야 한다는건 공뜬 소리가 아닙니까. 물론 유미렬강들에서는 군대와 정치의 무관계를 표방한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스츄어가 아니겠습니까.》

《건 옳은 말이다. 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한텐 정치와 군대의 무관계가 절박한 문제다.》

《그럼 형님은 어떤 정치를 하던 관계없이 그에 복무한다는것입니까?》

랭수 한사발을 다 들이키고난 태민은 꼿꼿이 굳어진 성민의 눈길을 보자 눈섭을 찌프렸다.

《네가 이런 문세엔 백지로구나. 내가 말하는 정치와의 무관계는 지금의 혼란속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철리라고 할수 있다. 만약 군대라고 하는, 그것도 각양각색의 림정의 광복군이요, 우리같은 친일총대잡이요 하는 팀들이 제마끔의 정강을 떠드는 정객들과 발맞춰 이편저편 이길내기에 끼워들면 이 땅이 어떻게 될테니, 서로 죽일내기를 하는 내란이. 그 내란속에 피주검만 가득 쌓일것 아니냐. 그래서 무관계설을 내세우는거다. 아까 박정희도 관망이구 중용지도구 한것도 다 나와 의합이 되여 한 소린데 지금은 그런 정치싸움속의 류혈이 없게 하는것이 급선무다. 하지만 그도 나도 어떤 정치를 폈으면 하는

꿈은 버리지 않고있다.》
《그럼 박정희라는 사람은 어느 편입니까?》
《거야 그 사람 말대로 민중이 가자는 편이지.》
《그럼 그는 민중이 사회주의를 따른다면 거기에 발맞춘다는것입니까?》
《그렇다.》
태민은 생각깊은 눈길로 성민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 여기 남쪽에도 적색이라고 하는 공산당세력이 제일 드세다. 때문에 나도 그렇지만 박정희이라는 사람 역시 거기 동조하는 립장이다.》
《그러니 그도 원래부터 사회주의를 따랐는가요?》
《아니, 그런것 같지도 않다. 그는 만주군관학교와 일본륙사시절 나의 1년선배였는데 야마도 1주의와 반공에서는 한다하는 일본인들도 혀를 두를 지경이였다.
그의 손에는 숱한 팔로군과 중국공산당원들의 피가 발려있고…》
《그렇다면… 종잡을수 없는 사람이군요.》
《문제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와 미래다. 사실 그는 특등일본인이라고 칭찬을 받을 지경으로 일본에 충실한 군인이였다.》
《그런데 형님과는 무척 가까운 사이같던데요.》
《가깝다. 그는 원래 남에게 속을 주기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왜서인지 나한테는 형제지간의 믿음을 가지고 대했구 나 역시 그 사람이 범상치 않다는데서 그와 가까이했다.》
《택규라는 사람도 형님과 무척 가까운 사이라 하더군요.》
《그것두 사실이다.》
《제 보기엔 신통치 않아 보이던데요.》
《얼핏 보면 그렇지, 가볍고 사설이 많고… 사방팔방 잘 삐치고… 하지만 그 사람 배속엔 구렝이가 틀고있다. 서울에서 순사질을 하다가 봉천군관학교엘 왔는데 학년적인 성적에서 괜찮은 축이였다.》
《형님은 경망한 사람이라면 아예 질색하지 않았습니까?》
《경망한것이 하나의 위장물로 될 때면 다르다. 그와 박정희는 전혀 다른 류형인데 박정희로 말하면 말이 없는 속에 조용히 대세를 살피다가 결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택규는 군사설과 얼벙치기로

사람들의 경계감을 무장해제시키며 슬금슬금 제 안속을 채우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자.》

태민은 파랗게 서려오르는 담배연기를 날려버리며 성민을 보다가 입을 열었다.

《넌 여전히 내가 꼭 가야 한다는거겠지.》

《거야 더 말할것이 있습니까.》

성민은 펄쩍 뛰여오를만치 기뻤다. 태민은 싱그레 웃었다.

《그럼 가자. 사실 난 네가 여기 온다는 소식이 오기 전부터 가려고 마음먹었다.

우선 부모님들과 친척들 있는데서 성례도 치러야 하는것이구… 다음으로는 그쪽 정치를 알아보구 거기 영 눌러살자는 결심을 한거다.

오늘 그간 동료들을 우리 집에 청한것도 여길 떠나기 위한 송별식을 겸한것이다. 거기 가서 보고… 여기 사람들도 오게 하자는 생각도 했구—》

《형님!》

성민은 훌쩍 일어나며 태민의 어깨를 와락 그러안았다.

《됐다, 이젠 그만 자자.》

태민은 옥영이 펴놓은 이부자리우에 두개의 베개를 맞붙여놓았다. 그리고는 싱글벙글 웃고있는 성민에게 한눈을 찡긋해보였다.

《우리 옛날처럼 자보자.》

짜개바지시절부터 성민은 이 태민형과 늘 함께 자군 했다.

3

순간과 운명, 인간의 한생은 때로 순간에 결정된다. 그렇다면 태민은?… 아버지는 만주군관학교를 저주하였고 때로는 종파사대주의분자들을 원망하기도 했다. 거기서는 성민이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요인과 환경이 작용하는 일면에만 한한것이다.

여기서는 려아도 같다고 해야 할것이다.

성민은 자기에게서 가장 괴로왔던 날들을 그려보며 계속해 글을 써 나갔다.

…온대진쪽 바다가에는 까까중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인산인해를 이루고있었다. 지독스럽게 찌물쿠는 날씨였다.

성민은 언젠가 외삼촌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후미진 모래불쪽으로 가다가 낯설은 이동천막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인차 되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돌아설수 없었다.

짧은 속치마와 수영빤쯔차림으로 뛰쳐나오는 로씨야녀성군인들의 천막주변에는 해빛에 감실감실 탄 열서너살가량 되는 까까중이들이 잔뜩 모래불에 엎드려 이방녀인들의 육체미를 흥미진진하게 감상하고있었던것이다. 저들끼리 키득키득 웃기도 하고 뭐라 수군대다가도 처녀들의 눈길이 쏠릴제면 손까지 흔들어주는것이 이런 관람에 이골난 애들 같았다. 다행스러운것은 로씨야처녀들 역시 상대방이 아이들이여서인지 아무런 타내는 기색도 없이 혼연히 손을 마주 젓기도 하고 《하라쇼!》《하라쇼!》하며 웃어주기도 했다.

《이러면 못써. 저리들 가 놀아라.》

성민이가 키득거리는 한 애의 팔을 잡아 일궈세우는데 누군가의 시선이 자기에게 못박혀있는것을 느꼈다.

귤색수건을 손에 말아든 처녀였다. 몸에 착 달라붙는 까만 수영복에 금발머리… 성민의 눈길과 마주치는 순간 처녀의 입에서 실날같은 소리가 새여나왔다.

《지!》

성민이도 알아보았다.

《아니—》 그가 나쟈가 아닌가고 묻기도 전에 처녀의 팔이 목에 휘감겼다.

《성민! 성민동무가 옳았군요.》

연한 향수내와 함께 일생 처음 느껴보게 되는 뭉클하면서도 탄력있는 젖가슴이 가슴에 마쳐왔다. 이로 하여 당황함이 앞섰다.

《야— 멋진데.》

까까중이들의 감탄에 더욱 그랬다.

《잠간 기다려요.》

나쟈는 얼굴이 불돌처럼 달아있는 성민에게 방긋 웃어보이고는 천

막안으로 날듯이 뛰여들어갔다. 잠시후 다시 나타난 나쟈는 방금전보다 더욱 날씬하고 싱싱한 모습이였다. 군복을 입고있었다. 가죽반도를 띤 어깨우에는 소성 두알의 견장이 붙어있었다.

《어데 좀 가앉자요.》

나쟈는 예나 다름없이 능숙한 일본말로 속삭이고는 떠들썩 웃으며 손을 휘젓는 동족의 말괄량이들에게 뭐라 소리치고는 그 말이 재미난다는듯 까르르 웃었다. 성민은 벗이라는 말밖에 알아듣지 못했지만 나쟈와 그 동족들의 태도로 봐 짐작할수 있었다. 나쟈는 동족의 말괄량이들에게 또한번 눈인사를 보내고는 성민의 팔을 잡아꼈다.

《지금 저 처녀들이 뭐라고 하는줄 알아요. 동무를… 미남자라고 해요.》

《허허, 참.》

더위도 도당일군과의 불쾌한 담화도 잊혀졌다. 나쟈의 옷차림을 다시 살폈다. 언젠가 하던 명례의 말이 옳다고 생각되였다.

《어떻게 여길 왔소?》

의사소통을 하려니 일본말을 쓰지 않을수 없었다. 키낮은해당화 몇그루가 가림막으로 되여있는 소나무밑에 앉았다.

《왜 왔는가구요.》 나쟈는 날씬한 다리를 쭉 펴며 깜찍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동무를 만나려 왔지요.》

《나를…》

《믿어 안지는가요. …》

나쟈는 길고 곧은 매끈한 다리우에 하얀 모래를 솔금솔금 뿌리며 그간의 이야기를 했다.

려순에서 붉은군대에 입대했다고 했다. 그후 자진하여 조선에 나왔고 이곳에 오기는 보름전이라고 했다.

《동문 지금 뭘하고있어요?》

《군교육부에 있습니다.》

《군교육부에! 아이, 훌륭하군요.》

나쟈는 기뻐서 어쩔바를 몰랐다.

하지만 성민은 마음이 우울해졌다. 군교육부지도원의 일도 오늘로써 끌장인때문이였다. 도당에서 나온 일군이 그렇게 선언했던것이다.

쏘련에서 나왔다는 그 일군은 성민이앞에서 책상까지 두드려댔다.
어떻게 지주집안출신이 군교육부에 있을수 있는가.
문서장을 뒤질 때 입에서 침방울까지 튀여나왔다.
여기엔 월남한 일본군장교까지 있군. 놀랍소. 놀라와, 친일주구의 동생이… 당장 군교육부에서 나가 다른 직업을 구하라 고래고래 소리쳤다. …
《왜? 어데 몸이 불편하지 않아요?》
나쟈의 푸른 눈에 의혹이 실렸다. 성민은 망설였다. 백계로씨야식당의 평범한 접대부가 단 2년사이에 붉은군대 군관으로 되였다는것은 그가 보통처녀가 아니라는것을 생각하게 되였다. 그로부터 레닌전집을 받았던것도 생각했다.
《한가지 물어도 되겠소?》
《뭔데요?》
《쏘련에서는 계급투쟁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면에서요?…》
《그… 저… 10월혁명이 끝난 다음 지주, 부농계급을 청산했다는건 알고있습니다. 한데 지주계급이라고 해서… 다 청산했는지. …》
《그건 왜 묻는가요?》
나쟈의 물음에 성민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가문의 래력으로부터 태민형의 일까지 말하자 나쟈는 나직이 한숨을 쉬였다.
《동무네도 저희와 비슷한 집안이였군요.》
《비슷하다는건… 무슨 소리입니까?》
《저의 집안도 오랜 귀족가문이였으니까요.》
나쟈는 다리우의 모래들을 쓸어버리며 생긋 웃었다.
《지금 친척들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얼마 없어요.》
《다들 잘못되였습니까?》
《그저… 그렇게 되였습니다.》
나쟈는 한동안 바다멀리 수평선쪽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키다가 추연히 말했다.
《혁명은 누가 누구를 하는 준엄한 싸움이니만치 류혈도 있고… 그 과정엔 애매한 사람들의 희생도 없지 않지요. 독초를 뽑을 때 그옆의 화초들도 피해를 당하듯이… 어쩌겠어요. 이건 력사발전의 불가피

한 현상이니 그 희생에 익숙돼야 하고 또 이겨내야 하지요.》

《그렇다면 저나… 친척들도… 그런 희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것입니까.》

《그건 본인의 태도여하에 관계되지만… 크건… 적건… 어찌하겠어요. 이겨내야지요.》

《이겨낸다는건?》

《아니, 이젠 그런 말은 그만하자요.》

나쟈는 풀어 제쳐진 금발을 올려쓸며 생긋 웃었다.

성민은 그의 가슴속에도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음을 알았다.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뭔데요.》

《동문 어떻게 군관으로 되였습니까?》

《나 말이예요? 그러니 이 군복차림이 어울린다는거지요.》 나쟈는 묘하게 대답을 피했다.

《그렇습니다.》

《동무도 멋있어요.》

자동차의 경적소리가 그의 말을 끊어버렸다. 그 경적소리에 이어 《률라!— 률라!》하는 강한 억양의 목소리가 울렸다.

《나를 찾는군요.》

《동무의 성이 률라였던가요.》

《네. 지금의 저는 률라 쎄묘노브나라고 불러요. 률라 쎄묘노브나. 똑똑히 기억해두세요. 그럼 저녁에 다시 만나자요.》

나쟈는 만날 장소와 시간까지 찍어말하며 일어섰다.

성민으로서도 바라던 일이였다. 채 듣지 못한 대답을 꼭 들어야 했기때문이였다. 어떻게 백작가문의 처녀가 붉은군대 군관으로 될수 있었는가.

군교육부 사무실에 돌아와 심란한 생각을 달리던 성민은 퇴근시간이 되기 바쁘게 밖에 나섰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있었다. 우산이 있어야 했다. 하여 먼저 집부터 들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여느때면 그의 발걸음소리가 울리기 바쁘게 열리던 문이 굳게 닫겨있었다. 퇴마루밑의 낯선 코고무신을 보며 가볍게 헛기침을 하고 문을 여니 방에는 뜻밖에도 려아가 와있었다.

려아의 신색이 달라진데 무척 놀랐다. 눈만 남은듯 한 수척한 얼굴에는 눈물자욱까지 어려있었다. 어떻게 왔느냐 하는 인사물음에도 대답을 안했다.
어머니의 얼굴색도 좋지 않았다.
그동안 려아는 세번인가 그의 집을 다녀갔다. 첫번째는 성민이가 서울에 갔을 때이고 두번째는 옥영이와 태민이의 결혼식때였다. 그때는 화려한 성장을 하고 왔었는데 지금은 어느 구석짬에 박아두었던듯싶은 물날은 연두색달린옷차림이였다.
《얘네 집안이 지금 말이 아니구나.》 어머니가 장탄조로 말을 뗐다. 《엄마는 앓아누워있구 이 애두 학교에서 쫓겨났다는구나.》
《쫓겨나다니?》
려아는 녀중학교의 음악교원이였다.
《쫓겨난것이 아니예요. 제가 저절로… 나왔어요.》
《그럼 벼슬길에 올랐다는거냐. 예수쟁이라구 해서 나왔으면 쫓겨난것이지.》
성민은 가슴이 덜컹했다. 오늘 만난 도당일군이 출연한 며칠전의 강연회에서는 계급대오의 순결성을 보장할데 대한 장시간의 강론끝에 사회기관들과 교육문화단체들에 숨어배긴 친일파, 민족반역자, 부르죠아인테리를 비롯한 자산계급의 떨거지들과 석가모니, 그리스도, 천도교의 어중이떠중이들을 말끔히 청소해치우라는 불호령이 떨어졌다. 려아는 분명 그 불호령속의 어중이떠중이로 지목되였을것이였다.
려아에게 무슨 말부터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우리 집 이야기도 대수간 들었겠구만.》
밥상을 차려놓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방에 올라갔을 때에야 입을 열었다.
음식들을 들며 그사이의 일들을 주고받았다.
상에는 려아가 사가지고온 갖가지 떡들과 어물반찬들이 수두룩 했으나 려아도 그랬고 성민이 역시 구미가 동하지 않아 인차 수저를 놓고말았다.
《좀더 드시지 않고.》
려아는 무척 서운해하는 기색이였다.

성민이 랭수 한사발을 다 들이키는것을 보자 겁기어린 눈을 깜빡이다가 뜻밖의 소리를 하였다.
《저한테 명례씨가 왔댔어요.》
《명례가.》
하마트면 물에 개칼번 했다.
도문역에서 헤여질 때 명례는 곧추 서울의 고향집으로 간다고 했다.
《저도 뜻밖이였어요. 라진에 있는 친척을 데리러 왔다고 하면서 무슨 조선업기술자라고 하던가…》
《그런데 동무한텐 무엇때문에 왔다고 하오?》
성민의 거치른 말에 려아의 얼굴이 빨깃해졌다.
《그는 저와 어머니도… 함께 가자고… 했어요.》
《함께?!—》 성민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요동치는것 같았다.
《그래 어떻게 하기로 했소?》
려아는 절망적인 기색이였다.
《전… 어찌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성민은 《모르겠다는거야 가겠다는거나 같은 소리가 아니요?》라는 말이 혀끝까지 나오는것을 간신히 참았다.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요?》
《어머니는… 저만 좋다면… 저한테 맡겼어요.》
려아는 간곡한 기대와 애원어린 눈길로 성민을 보았다.
성민은 그의 눈길을 외면하였다.
그가 지금 무엇을 바라는가를 알았기때문이였다.
어느만큼 려아를 위해줄수 있는가.
아침에 만났던 도당일군의 서슬푸른 모습이 떠올랐다.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지금 나로서 말할수 있는것은 명례든 뭐든… 절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그것이요.》
려아의 눈에 희망의 불꽃같은것이 반짝했다.
《사실은… 어머니도 그 비슷하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동무와 의논해보라고…》
성민은 속이 흠칫했다. 태민의 결혼식때 려아와 함께 왔던 그의 어머니의 말이 생각났다. 봐둔 처녀가 있는가 하고는 의미있게 려아를

향해 웃으며 이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때 성민은 아직은 나이가 안됩니다라는 식으로 적당히 넘겼다. 그것이 후회막급했다. 그러니 려아에게도, 그의 어머니에게도 의연히 미련을 준셈이 아닌가.
(모질지 못한때문이다. 아프더라도 명백히 선을 그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말은 다르게 나왔다.
《어머님의 생각이 옳소. 그런데 지금 명례는 어데 있소?》
《무슨 이모네 집인가 있다는데… 한번 가보자고 하는걸 싫다고 했어요.》
려아는 귀뿌리까지 빨개졌다.
《난 명례라는 인간을 신통하게 보지 않소. 그러니… 그의 말은 믿지 마오.》
려아는 방긋 웃었다.
《그래요. 저도 좀 싱거웠어요.》
성민을 쳐다보는 려아의 눈에는 더 짙은 기대와 희망의 빛이 얼른거렸다. 성민은 랭정해지려 애썼다.
《명례가 가자는건 남쪽이겠지.》
《네, 거기선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억누르는 일은 없다고 하며—》
성민은 울끈했다.
《동무… 예수를 꼭 믿어야겠소?》
《이제 와서 그것이 무슨 의의가 있나요. 전 학교에서 나왔을뿐만 아니라 민청에서도 출맹되였어요!》
《출맹?!… 한데 동무 도대체 입은 뒀다 뭘하고있소. 예수건 뭐건 상관없는것이라고 하면 될거 아니요.》
《전 거짓말을 할줄 몰라요.》
《거짓말?!… 난 동무가 진짜로 그렇게 될걸 바란단 말이요.》
《건 뭣때문에요?》
려아의 말은 도전적으로 울렸다. 눈빛도 달라졌다. 비웃는듯 한 눈길인가 하면 설음에 찬 눈길이였다.
성민은 가슴이 뻐근해졌다.
(어쩔수 없다. 우리들 사이에는 바로 이것이 넘을수 없는 계선이다.)

성민이 묵묵히 침묵을 지키자 려아는 불시에 입술을 옥물며 발딱 일어섰다.

《전 가겠어요.》

《아니, 이제 어떻게 간다고.》

《열한시차가 있잖아요. 집엔 오늘안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니까요.》

려아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거웠다.

웃방문이 드륵 열리며 아버지의 웅글진 목소리가 울렸다.

《려아야, 네가 정말 떠날 작정이냐?》

《네.》

려아는 소리없이 미닫이문쪽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다.

칠칠한 머리태가 장판에 가로누웠다. 흑 하는 흐느낌과 함께 비오듯 눈물이 샘솟아 흘렀다.

성민은 보기 민망하여 문밖으로 나섰다. 신발을 찾아신다가 부산스런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어머니가 려아를 붙안아 당기고있었다. 그 통에 려아의 손에 들린 가방이 떨어져내리며 분홍색비누곽과 치약이 굴러내렸다.

성민은 려아가 자고가려고 했음을 알았다.

거리는 조용하였다. 이 지방에서 즈내라고 부르는 이슬비가 추썩거리는 길바닥에 뿌잇한 연기발같은것이 굽실거리며 력청탄 타는 냄새를 진하게 풍겼다.

역기다림칸에 이를 때까지 거의나 말없이 걸었다. 려아는 차표를 사왔을 때도 《고마와요.》라고 했을뿐 눈길마저 피하고있었다.

역표받는 곳으로 나갈 때 그의 표정이 얼마나 깔끔하고 차거웠던지 성민이의 나들표를 검열하던 역원은 수상스러워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내가 마치 동무의 가해자이고 동문 피해자쯤 되는것으로 보는구만.》

머리속이 온통 벌둥지가 된 속에 이런 말로 호기를 보였으나 려아는 걸음발만 재촉했다. 우산을 줄 때야 뭔가 달라졌다.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내야 뭐라오. 게 가면 비가 더 올수도 있으니까.》

려아는 잠시 망설이는 기색으로 있다가 우산을 받아들었다.

기적소리가 길게 울리자 려아는 기다렸다는듯이 재빨리 승강대로 뛰여올랐다. 성민은 자리까지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려아는 거절했다. 승강구를 막으며 돌아설 때 눈에 물기같은것이 핑 고이는것이 알렸다.
덜커덩, 차가 움직이자 려아의 몸이 휘친하며 넘어지는듯 했다. 그러나 다시 꼿꼿이 펴졌다. 차의 속도가 빨라져도 그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어둠속으로, 안개속으로 사라져가는 그 모습은 하나의 굳어진 조각상같았다.
《내 인차 한번 가겠소.》
성민이의 이 말은 재차 울리는 기적소리에 묻혀버리고말았다.
려아를 바래주고 왔을 때 성민은 또 하나의 가슴아픈 사실을 알게 되였다. 군서무과에서 일하던 아버지도 해고령을 받았다는것이였다. 역시 태민형과 자산계급출신이라는 딱지때문이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성민은 밤새워 아버지와 의논을 한끝에 언젠가 도인민위원회에서 일한다고 기별을 보내온 외삼촌의 옛 동무를 찾아보기로 락착을 보았다.
아버지가 가기로 했다.
《잘되겠지. 요즈음 반일혁명자들을 내세우는데 우리도 사돈에 팔촌쯤 되지 않겠니.》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난 아버지는 그날 밤 늦어서야 집에 들어섰다.
《안된다고 하더라.》
렬차안에서 술을 마셨는지 얼굴이 불깃해진 아버지는 방에 들어서기 바쁘게 잠자리에 들었다가 두세시간도 안되여 깨여났다.
벙긋벙긋 타는 그의 담배불을 보고 성민이도 일어나자 아버지는 한숨을 꺼지게 쉬며 낮에 겪었던 일을 자초지종 말했다.
아버지를 반겨맞은 외삼촌의 옛 동무는 그게 무슨 일인가고 펄쩍 뛰며 도당으로 가자고 했다. 쏘련의 따슈켄트에서 당사업을 하다가 왔다는 도당위원장은 그 사람한테는 공경스러운 태도였다고 했다.
《그 도당위원장이라는 어른이 조선말도 아직 잘 모르더라. 우리가 독립운동자를 도왔다는데 대해서는 성을 내였구 외삼촌이 조국광복회

회원이였다는 소리엔 광복회가 뭔가고 하지 않겠니?

그다음은 나한테 호령을 치더라.

착취요, 압박이요, 프로레타리아독재요 하며 알아들을수 없는 소리를 하던 끝에 하나만은 똑똑히 말하더라. 〈그만큼 무산자의 피땀을 짰으면 되지 않았는가. 이젠 당신네도 마치와 호미를 잡고 피압박인민이 당한 고통을 맛보라. 이건 반동계급에 대한 우리의 어길수 없는 원칙이다.〉 하구.

가만 생각해보니 과히 틀린 소리는 아니더라만 쓰다달다 말하지 않구 나왔다. 그다음 너의 외삼촌 동무가 나오는데 한바탕 싸운 기색이더라. 역전까지 바래주면서 하는 말이 지금 장순명이라고 하는 그 도당위원장이 하는 일이 **김일성**장군님 뜻과 어긋난다고 하면서 바루 잡힐 때가 온다는거다.

그랬음 오죽 좋겠냐마는… 우리가 그전에 호의호식했으니 그 도당위원장 말대로 해야 할것 같다.》

성민은 속이 울끈했다.

《아버지, 무슨 일을 하든 그건 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반동계급입니까? 그럼 저나 아버지는 일생 반동의 락인을 찍히우고 살아야 한다는겁니까?》

《어쩔수 있니. 살긴 살아야 하는거구 사느라면 알아줄 때도 있겠지. 참, 청진역에서 그전 왜놈들한테 죽은 목재상의 딸을 만났다. 우리 집에 와 숨어있던 처녀애 말이다.》

《순정이 말이지요. 그 애 아버지는 빨찌산지하공작원이라고 했어요.》

《그래, 맞다. 그 애가 먼저 나를 알아보구 어떻게나 반기는지 평양으로 가는 길에 차에서 잠시 내렸더구나.》

《그 애 집은 경원 어디라고 하던데요?》

《평양에서 산다고 한다, 지금 **김일성**종합대학엘 다니구… 우리가 경성에서 사는걸 알았더면 들려보는걸 그랬다구 아쉬워하더구나. 여기 온포온천에 와서 보름넘게 있었다는데… 그런데 말이다. 그 애가 글쎄 김정숙녀사님과 함께 온포에 와있었다는것이 아니겠니. 그 앤 **김일성**장군님과 김정숙녀사님께서 각별히 돌봐주신다고 하면서… 너랑 우리 얘기를 듣더니 꼭 그분들께 우리 얘기를 하겠

다더구나.》
《우리 얘기를?!… 그렇게 될수 있을가요?》
《글쎄 말이다.》
그런데 이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성민은 군보안서의 호출을 받았다. 혹시나 하여 달려가보니 도보안국에서 내려온 사람이 그를 만났다.
날카로운 눈매의 그 일군은 려순공대시절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는 명례를 아느냐고 심문조로 물었다.
《네.》하고 선뜻 대답하자 일군의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오?》
성민은 뭔가 심상치 않는 일이 생겼다는것을 느끼며 덜지도 보태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죄다 말했다. 말없이 듣던 일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인간적으로 글렀다 이 말이구만. 그런데 그 명례라는자가 라진조선소에 폭탄을 던지고 도주한걸 아오?》
성민은 깜짝 놀랐다. 그가 입을 하 벌린것을 알아본 일군은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말했다.
《그렇소. 폭탄을 던졌소.》
그 일군은 종이장 몇장을 뒤적이다가 눈섭을 찌프렸다.
《동문 동무의 형이라는 사람이 남으로 간걸 아오?》
《네. 그 길밖에 없을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 한데 왜 동문 함께 가지 않았소?》
성민은 속이 욱 끓어올라 쓴입만 다셨다.
《내 말이 지나쳤다면 용서하오.》
일군은 빙그레 웃으며 성민이를 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반동들의 준동이 심하오. 대체로… 동무네 같은 잘살던 사람들속에 그런자들이 많이 나오오.》
《저흰… 그렇지 않습니다.》
성민의 고집스런 대답에 일군은 무척 호감어린 기색이였다.
《동문… 우리와 함께 일할 생각이 없소?》
《네?!…》
성민은 잘못 듣지 않았는가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일군은 또다시 문서장을 뒤번져보고는 나직이 한숨을 지었다.

《지금 우리한테는 공부한 사람이 적소. … 동무네 집안은 좀 복잡한데 김정숙녀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봐서는… 문제는 동무가 어떤 립장으로 건국사업에 림하는가 하는거요.

동문 이 고장의 자본가였던 박주래가 몰수당했던 양조장이며 재산까지 다 되찾은걸 알고있소?》

《네?!—》

《허, 같은 곳에서 살면서도 그걸 모르다니. 그건 **김일성**장군님을 받들어싸운 김정숙녀사님께서 취하신 조치요. 그분께서는 이곳 도당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장군님뜻과 어긋난다고 하시며 지난 기간 잘살았다고 해서 죄다 반동취급하는것은 잘못이라고 하셨소. 잘 생각해보오. 나도 좀 더 알아보겠소.》

날아갈듯 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온 성민은 아버지와 함께 박주래를 찾아갔다. 그 일군의 말은 사실이였다.

화만 쌍으로 오는것이 아니였다.

다음날 성민은 **김일성**종합대학으로 가라는 지시를 전달받게 되였다.

그 지시는 다름아닌 도당의 쏘베트쓰끼가 전달했다. 성민이를 군교육부에서 떠나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던 때와는 판다르게 풀이 죽은 기색이였다.

그는 종합대학이 마음에 안 들면 군교육부에 그냥 있어도 좋다고 하며 멋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동무때문에 되게 꾸중을 들었소.

내딴으로는 프로레타리아 계급투쟁원칙대로 했는데… 우에서는 동무와 동무의 아버지에 대해 애국적이고 량심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내 말은 다요.》

그날 저녁 성민은 려아가 탔던 렬차에 올랐다.

아, 얼마나 기쁨넘친 길이였던가. 또 얼마나 가슴들먹였던가. 쏘베트쓰끼는 상급당의 뜻대로 한다면 려아도 대학에 갈수 있다고 했다.

이때문에 려아를 찾아떠나게 된것이였다. 날이 푸름푸름 밝아올 때 려아네 집을 찾아가니 자그마한 기와집앞에서 웬 중년사나이가 마당 청소를 하고있었다.

성민이 려아에 대해서 묻자 그 사나이는 비자루를 집어던졌다.
《그와 잘 아는 사인가?》
《좀 압니다.》
《좀 안다?! 그년들은 하루밤새에 솔가도주를 했소, 조선소를 파괴했다는 반동과 함께.》
성민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다.
그때를 더듬고난 성민은 이렇게 썼다.
《…려아가 그렇게 된데는 당시 함북도당에 잠입하였던 종파사대주의자들과 어중이떠중이들의 좌경적책동과도 관계되지만 나의 잘못도 크다고 본다. 이로부터 나는 무식하고 독선적이고 교조와 편견에 사로잡힌자들의 책동으로 오인된 우리 공화국의 정책에 대한 재인식을 주기 위하여, 그런자들의 활개짓속에 인간적의무를 다하지 못한 나 자신을 반성하기 위하여 남으로 왔다. 왜 그를 돕지 못했는가, 이것이 나의 반성이고 아픔이다. …》

4

《HG란 나겠지?》
《죄송합니다. 각하의 성과 장군이라는 뜻의 략자로—》
《뭐 틀렸다곤 할수 없지.》
얇은 미농지로 된 새끼수첩 몇장을 뒤적여보고난 지태민은 책뚜껑자국이 생생한 한쪽볼을 쓰다듬으며 부관실대기의자에 가앉았다.
《그럼 들어보자구.》
정창호는 눈앞이 캄캄했다. 이럴 때면 눈물이라도 콱 쏟아지면 좋으련만 그놈의 눈물은 어데 가 말라붙었는지 맨숭맨숭한 눈시울이 종이까풀처럼 빳빳스럽기만 했다.
빌어먹을 문, 그런데 문을 조금 열어놓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여 지장군이 이 부관실에 나올 때까지 기척조차 알아듣지 못했는가. 일기장을 치워버리지 못한것이 한스러웠다.
《왜? 들려줄수 없는건가?》

지태민이 재차 하는 말에 정창호는 우들쩍 몸을 떨었다. 깨알같이 박아쓴 글자들이 벼룩뜀을 했다. 자포자기상태에서 읽었다.

《10월 11일 오늘ー》

《그건 봤어. 그 다음날부터.》

《알겠습니다.》

정창호는 활랑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음장을 번졌다.

《10월 12일. 비상대기해제는 일장춘몽, 파티취소와 함께 또다시 얼음 동산. HG는 24시간 대기상태에 있겠다고 함. 면도도… 하지 않고 나왔고 눈에는…》

《왜 반벙어리소린가. 눈에는 충혈이 져있다고 했지. 사내답게 읽으라구.》

《알겠습니다.》

정창호는 속이 한줌만 해진 속에서도 오제도의 수기를 생각했다. 이비슷한 위기상황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고 상대방에게 약점을 잡혔을 때에는 그 약점을 숨길것이 아니라 솔직히 드러냄으로써 신뢰를 얻을것.

읽었다.

《눈에는 충혈이 져있었음. 북의 동생으로 인한 불면증때문일것이다.

오전 첫 시간에 HG로부터 3가지 특별지시를 받았다.

A, HG에 대한 사적면회를 일체 불허할것.

B, HG에게 걸려오는 사회전화를 일체 두절시킬것. (장모댁과 시내 집전화도 매한가지임.)

C, HG에게 걸려오는 사모님의 전화도 차폐시킬것.》

《왜 그대로 읽지 않아? 사모님이 아니라 OK로 쓰지 않았는가.》

《잘… 잘못했습니다.》

《빼지도 더하지도 말고 곧이곧대로 읽으라구.》

《알겠습니다.》

젠장, 부관직에서 쫓겨나면 갈데가 없을가.

《오후 3시에 퇴역륙군중장인 H외무장관께서 래림. HG는 긴급브리핑(정황통보)이 있어 만날수 없다고 함.

의장각하의 비서실에서 부탁전화가 와서야 만났음.

HG는 불쾌한 상으로 H를 맞았다. 그들은 다 북쪽출신이지만 HG는 H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는 정평이 있다.

방에서의 대화;

H; 일본유람을 가게 되였는데 군의 도움을 받자고 하네.

HG; 미안하지만 저에게는 그럴 경황이 없습니다.

H; 하, 이건 의장각하의 권고에 따른걸세. 실은 유람이 아니라 한일관계의 첫 돌파구를 열러 가는거지.
뭐 놀랄건 없네. 그것들이야 나에게도 오랜 숙적이지만 어쩌겠나. 늘 눈을 부릅뜨고 산대서 얻어질건 없잖나. 한마디로 그것들을 달구고 주물러서 배상금부터 뽑아내자는거여.

HG; 거기에 이 지태민이 무슨 보탬을 줄수 있겠습니까.

H; 따는 그렇기도 해. 날 놓고 봐도 다들 기름외교라고 하지만 북과의 정전담판때도 둘러리놀음밖에 못한 처지라 그닥 자신은 없어. 하지만 해봐야지. 임자한테서의 도움이란 법조계나 내각에 그전 친구들이 있지 않나 알자는걸세. 짚오래기건 썩은 판자건 도움될 때가 있을것 아닌가.

HG; 저에게는 애당초 그런자들과의 친교가 없었습니다.

H; 임자의 배일감정이 어떠했는가는 나도 아네. 하지만 생도대장까지 한 자네였으니 굽실거리던 하잇뽄들이 있었을것 아닌가.

HG; 그것들이 어느 구석에서 뭘 해먹는지 제가 알겠습니까?

H외무는 랑패한 얼굴로 떠나갔다. 그런데 그를 바래주고난 HG의 얼굴은 더욱 험상스러웠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일로 현관밖에서 가래침을 뱉았다. 그리고는 사격장에 가자고 했다.

권총이 아니라 기관총사격을 하였다. 한탄창 다 쏘았지만 목표판을 맞힌것은 두발뿐이다.

추리에 기초한 심리분석;

HG는 극도의 불안과 심리적인 방황속에 있다.

그 불안과 심리적방황은 동생의 출현으로 초래된것으로서

첫째, 동생의 운명에 대한 불안.

둘째, 동생으로 인해 생겨난 자기자신의 처지와 립장에 대한 불안.

셋째, 동생을 고발한 형으로서의 고민.

여기서 HG가 일체 면회를 사절하고 24시간 대기근무상태에 들

어간것은 나라앞에 죄를 지었을 때 스스로 자기를 결박하고 죄다스림을 청한 옛 량반님들의 자학행위를 본딴것으로서 훌륭한 자기보신법이라고 할수 있다.》

정창호는 이 대목의 마지막글은 입안의 소리로 굴리며 지태민을 슬쩍 곁눈질했는데 다행스럽게도 태민의 눈은 반쯤 감겨져있었다.

목소리를 더 낮추었다.

《또 하나 OK와 장모의 전화까지 차페시킨것은 동생구원에 대한 호소가 있을수 있는 경우 형제간의 감정이 되살아날 위험을 막기 위한것일것이다.》

《이봐, 그런 말투는 련애할 때나 써.》

지태민의 말에 정창호는 소리를 높이지 않을수 없었다.

《H외무의 도움요청을 거절한것은 HG께서 설명한것과 함께 주요하게는 복잡한 심리적요인의 작용때문일것이다.

그것은 첫째, 한일관계개선방침에 대한 반감이고

둘째, 동생의 출현으로 충격받은 남북분렬에 대한 번민때문일것이다. 침을 뱉은것, 줄담배를 피운것, 기관총사격시 두발밖에 맞히지 못한것, 무엇때문에 기관총을 쏘았는가, 그것은 울화증의 폭발이다. 그럼 그 울화증의 과녁은?…

HG의 심정이 리해된다.》

지태민은 여전히 눈이 감긴 상태였다.

《10월 13일.

지난 밤 HG는 말한바 그대로 자기 방을 떠나지 않았다. 밤 12시, 본부 당번들의 근무상태를 검열하고 문을 닫아걸었다. 불은 껐으나 잠든 상태는 알수 없다.

나 역시 부관실에서 잤다.

HG는 계엄해제조치에 따를것을 권했으나 나로서는 그럴수 없었다.

어려운 처지의 상관을 방치해두는것은 부관으로서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잘못된 처사이기때문이였다. 급식당번장교의 말에 의하면 HG는 아침식사는 건네고 점심식사는 절반밖에 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후 첫 시간에 담배가 떨어졌다고 하여 나의 비상용 〈켄트〉 두갑을 주고 보급계에 추가공급을 요구했다. 그런데 빌어먹을 보급계녀석

들은 새달분을 미처 못 타왔다고 하며 애걸복걸… 내가 마련하겠다고 선심을 보인 후 HG에게 외출을 신청했다.

HG는 담배를 얻으러 간다는데 대해서는 불응했으나 세브란스에 입원한 어머니의 병문안소리에는 선선히 허락을 표시하며 문병금까지 주었다. 참 후덕하신분이다.

어머니의 병문안이란 순간적으로 꾸며낸 거짓말이다.

나의 외출은 담배도 담배지만 북의 동생을 맡은 한인수를 만나려는데 진목적이 있었다.

나의 중학시절 문학써클 책임자였던 한인수는 륙사시절에도 3년 선배로서 나와 각근한 사이였으니만치 응당한 친절을 보이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인수는 나를 만나는것마저 경계하며 HG의 동생에 대한 질문에 동문서답의 대답만 하였다. 부득불 내가 알고있는 파악사항을 알리고 HG의 내밀적인 부탁이 있었다는것을 암시해서야 약간의 토설을 했다.

그의 말을 간추려보면

첫째, HG의 동생이 매우 점잖고 교양이 높다는것.

둘째, 전반적인 인상과 대질심문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쉽게 우리편으로 될수 있다는것이다.

이에 기초한 추정;

한인수의 말에서 느낀것은 간단한 전향기만 보이면 석방될수 있다는것이다. 이것은 한인수의 결심이 아니라 웃어른들의 내밀적인 지시에 따른것일것이다.

좋기는 내가 직접 그를 만나보는것인데 한인수는 규정상 위반일뿐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경우 련좌법에 걸릴수 있다고 하며 벌벌 떨었다.

보고할것인가 말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던 끝에 HG에게 사실그대로 말했다. 그에 대해 HG는 몹시 언짢은 기색이였으나 끝까지 다 들어주었다.

〈그런 일에 다신 삐치지 말어.〉 HG는 이 말만을 하고 문건철을 펼쳤다. 그런데 문건철은 거꾸로 끄당겨있었다.

심리분석;

한인수를 만난 나의 처사에 대해 HG는 그닥 나쁘지 않게 생각했을것이다. 언짢은 기색을 보인것은 만약시의 잡음을 우려한것이고 나의

관심에는 고마움을 느꼈을것이다. 문건철을 펼친것은 이런 심리를 엿보이지 않으려는것이고 그 문건철이 거꾸로 놓인것을 몰라봤다는것은 동생에 대한 나의 말에 흥분했다는것을 의미한다.

10월 14일.

오늘 아침 나는 OK에게 전화를 걸었다. HG가 아침식사도 절반밖에 하지 못했다는것을 알았기때문이다.

OK는 그동안 전화 한통 걸어주지 않은것과 교환대에서 일체 전화가입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 야단을 쳤다.

나는 군기상 필요에 따라 그런 조치가 취해진데 대해 량해를 구하고 HG의 영양식사와 수면보장을 위한 음료를 청탁했다.

OK는 무척 반가와하면서도 HG로부터 부대안에 얼씬하지 말라는 엄명을 받았다고 하며 우는 소리를 하였다. 내가 부대후문에서 만날것을 약속하고 정한 시간에 나가니 OK는 불랙위스키 두병, 칠면조구이 둘, 함박크와 나박김치외에 여러가지 안주와 이차떡, 팥밥을 해가지고 왔다.

(OK도 그동안 퍼그나 수척해진 인상, 시동생에 대해선 일언반구 묻지 않았다.)

나는 저녁식사시간이 되기 바쁘게 HG가 거실로 리용하는 뒤방에 그 음식들을 들여갔다. 동기훈련대강을 검토하던 HG는 자못 의아해하는 기색이였다.

〈그게 뭔가?〉

〈저, 오늘이 나의 생일이여서 함께 식사를 했으면 하는것이 소원입니다.〉

뻑따고 하는 거짓말에 HG는 저으기 당황해하는 기색이였다.

〈허, 군의 생일이라고…〉

〈각하, 부탁입니다.〉

나는 애처로운 기색을 지어보였다.

〈이거 미안하게 됐군.〉

HG는 쾌히 응해주었다.

〈이런건 딱 오늘만일세.〉

오늘처럼 내가 술을 많이 마시기는 처음이다.

두번째 병의 밑굽까지 비웠을 때는 저녁 9시, HG는 조금도 취

하지 않은 목소리로 예하 당직장교들과 전화를 건 후 다시 문건검토에 착수했다. 나에게는 쉬라고 했으나 떠날수 없었다. 이럴 때일수록 만전지책의 긴장대기가 필요한것이다. 취침나팔이 울려 30분 조금 지났을 때 탱크의 엔징음과 같은 요란한 코소리가 울렸다. 손등두께만큼 열어놓은 문을 조금 더 열고보니 HG는 쏘파에 기댄채 세상모를 굳잠에 빠져있었다. 《일본륙전사》 한권을 베워드리고 돌아섰다. 측은한중에 기쁨이 컸다. 부관으로서 상관의 건강보호에 한몫 한것이 아닌가. 식사도중에 오고간 대화를 더듬어보며 책상에 앉았다.

무슨 말을?… 딱히 적어둘만 한것이 떠오르지 않는다. 젠장, 나도 자빠져 잘가. 음식준비를 OK가 했다는 말을 했을 때 〈거짓말재간이 있군.〉 했지.

이건 실점이야 실점. 그리고…》

일기는 여기서 끝났다.

정창호는 어떤 불호령과 처벌에도 끄덕하지 않을 장부의 기상을 보이려 하며 고개를 쳐들었다.

《답니다.》

《잘 썼군. 그럴듯해.》 반쯤 눈을 감고있던 지태민은 정창호의 손에 쥐인 수첩을 보다가 싱긋이 웃었다.

《한데 그런건 뭣때메 쓰지?》

《…》

《기자가 되려는가?》

불현듯 높아지는 소리에 정창호는 동태짝처럼 차렷을 했다.

《아, 아닙니다.》

《왜, 요즘은 누구는 어쨌소 저랬소 하는 글만 쓰면 돈이 삼태기로 쏟아진다는데.》

《용서해주십시오. 그저… 필력을 높이고… 훌륭한분들의 인간상을 연구해 모범으로 삼자고…》

《허허, 그러니 이 HG가 훌륭한 사람이렷다?》

《각하, 그… 그건 사실입니다.》

《유치해.》

지태민은 또 한번 싱그레 웃었다.

《그런건 중학생때나 하는 장난이지. 필력도 분석도 중학생정도야.

하긴 나에 대한건 비슷이 맞췄어.》
《버릇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한데 한인수가 우리 애를 맡았다는건 어떻게 알았지?》
정창호는 다시 동태짝이 되였다. 잔등으로 진땀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는 저와 오랜 지기로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되였습니다.》
사실은 방첩계 장교로부터 알게 된것이였다. 수첩에 그를 밝히지 않은것이 천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태민은 미덥지 않아하는 눈길이였으나 더 따지지 않았다. 비웃는듯 한 어조로 물었다.
《이제 그 일기장을 어떻게 하지?》
운명적인 시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령관님!》
그는 한마디 거세게 웨치고 수첩을 북 찢었다.
《연극하지마.》
두쪼각으로 된 수첩을 보는 태민의 눈빛은 사뭇 날카로왔다.
정창호는 사색이 되여 우들우들 떨었다. 다져먹은 각오요, 결심이요 하는것이 공중으로 날아났다.
《쓰는건 자유야. 하지만 두번다시 들키지 말게 하라.》
지태민은 손을 홱 내젓고는 문밖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갔다.
《맙소사.》
정창호는 풀자루처럼 주저앉으며 가슴을 쓸어만졌다.
시계를 보니 12시 32분이였다. 그런즉 지태민은 12시에 깨여났을것이다. 어제도 그제도 바로 그 시간에 청사경비검열을 나갔다. 계엄은 해제되였건만 지태민은 여전히 계엄인것이다.
빌어먹을, 북에서 온 동생이 원망스러웠다.
그때문에 방첩계의 장교는 련일 전화질이고 지장군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보고하라는 그 엄명을 따르려고 하니 오늘같은 망신살이 뻗쳐온것이다. 그런데 이제부터 태민을 대할 일이 낟가리같은 시름으로 마음을 짓눌렀다.
두쪼각으로 된 수첩을 갈기갈기 찢어 휴지통에 넣고(몇쪼각의 종이는 휴지통옆에 흘렸다. 지장군의 눈에 뜨이는것이 좋다고 보았기때문

이였다.) 30분 넘게 벌받는 소학생의 자세로 책상을 마주하고있을 때 지태민이 방으로 들어섰다. 정창호가 바라던대로 휴지통옆의 종이장들을 봐준 지태민은 왜 자지 않느냐고 사뭇 친절히 묻고는 한대 포 하지 않겠느냐 하며 침실로 이끌어들였다. 지태민이 비상용으로 건사하고있은듯 한 포케트용위스키까지 말끔히 비우고나니 새벽 2시였다.

《난 임자가 좋아.》

지태민은 이 말을 하며 자리에 눕고 정창호는 임자가 좋다는 그 말때문에 기상시간을 30분 넘게 어겼다. 아침식사는 맹물로, 점심에는 언 김치물에 만 꽁보리밥으로 알콜에 지쳐빠진 위를 달래고 밀려드는 졸음에 한숨 붙일가 하는데 지태민의 운전사가 그를 찾았다.

한달음에 지태민의 방으로 가니 이건 무슨 일인가. 말끔히 면도를 하고 정장을 하고 기다리는 지태민의 몸에서는 향수내까지 풍겼다.

《나와 함께 가자구.》

차림과는 달리 사뭇 근심스러운 얼굴이였다. 차안에서도 시종 어룩한 얼굴이였는데 왜서인지 정창호와 눈이 마주칠 때면 어색스러울 정도로 다정한 눈길이였다.

(내가 술기운에 감각이 잘못된것 아니야?)

5

《오전에 택규가 왔다갔어.》

와이샤쯔바람의 박정희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를 받고는 우유빛장쏘파의 옆자리를 눈짓해보였다.

지태민은 그냥 서있었다. 5. 16혁명후부터 박정희는 그에게서 박형이 아니라 의장각하인것이다.

재털이에서 한줄기 연기가 모락모락 피여오르는것을 보며 박정희의 심기가 여의치 않음을 알았다. 무엇때문에 찾았는가. 하루 두세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박정희에게서 점심식사뒤의 휴식은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것으로 되여있다.

박정희는 그의 생각을 엿본듯 심드렁한 기색으로 말을 이었다.

《태규 그 사람 신통치 못해. 오늘 점심땐 좀 눈을 붙일가 했는데 그 사람 설레발때문에 안되더라구. 한데 왜 그러고 섰나. 여기 와 앉으라구.》

예나 다름없이 무랍없는 사이임을 강조하는 말투였다. 앉았다.

《그래, 집의 녀왕이랑 다들 잘 있나?》

《네.》

《뭐 앓고있겠지.》

박정희는 싱그레 웃으며 탁우의 담배갑을 그에게 떠밀어주었다. 지태민은 받을가말가 망설이다가 흔연한 태도로 담배를 뽑아들었다.

그가 박정희를 처음으로 알게 된것은 만주군관학교 첫 학기시험직후였다. 태민의 방에 찾아들어 자기를 소개한 박정희는 태민군과 같은 수재를(예과학기말시험에서 태민이 수석으로 꼽혔던것이다.) 알게 된것을 더없는 기쁨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친교를 청했다.

첫인상에서는 그닥잖게 보였다. 체소한 몸매에 거동도 말투도 조용하고 온화하여 문관이나 시골훈장에 합당한 재목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였다.

신경의 중국인차집에서 있은 일이였다.

차와 함께 술을 파는 이곳에서 박정희는 술을 청했다.

《태민군도 술을 하겠지? 상을 보니 대주간데.》

박정희는 술을 사발채로 들이켰다. 태민도 지고싶지 않았다. 차집주인의 얼굴에 함박웃음을 짓게 하며 네홉술을 말끔히 비워버렸을 때 박정희는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였다.

《자넨 날 어떻게 보지?》

그뒤를 이어 하는 말에 덴겁할 정도로 놀랐다.

《자넨 나를 쥐상으로 볼테지. 아아, 너무 바빠할것 없어. 지금은 달리 본다는걸 아니까. 하지만 쥐상이면 어떤가. 부지런하고 영악하고 눈치 빠르고, 안 그래?》

박정희는 너털웃음을 웃고는 태민의 손목을 꽉 잡았다.

《내가 자넬 왜 끔찍이 생각하는줄 아나? 건 바로 자네 얼굴에 새

겨진 대감님 기품때문이야.

뭐, 얼굴을 붉힐것까지 없어. 하지만 이건 내가 왜 자네를 가까이 하는가 하는걸 알리자는거니까. 세상에 사람은 많아도 인걸은 적어. 사내가 한번 세상에 태여났으면 뭔가 자취를 남겨야 하는데 그러자면 재목이 돼야지. 재목이 못되면 재목이 될만 한 인걸을 찾아 하인배노릇이라도 해야 하는거구. 그래서 난 자네의 견마잡이로 될 용단을 내렸다 이거야.

뭐, 취했다구?!… 난 취할줄은 몰라. 그러니 똑바로 들어두라구. 내 오늘 자네와 함께 여길 찾은건 바로 이런 뜻에서 사지동고를 맺자는 걸세.》

이 일이 있은 뒤부터 태민은 또 다른 눈으로 박정희를 보게 되였다.

그의 특출한 지감과 야심에는 두려움까지 느꼈지만 그에 끌려드는 감정을 막을수 없었다. 이렇게 보면 박정희에게는 남다른 용인술이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어느 한 자리에서 사람을 끄당기고 주무르는 그의 솜씨를 놓고 칭찬하자 박정희는 허심탄회한 어조로 말했다.

《일은 사람이 치르는것이니 사람이 사람을 멀리하면 우자로 되는 걸세. 그러니 밉건곱건 가까이 해두는것이 현자의 처신이라고 할수 있는거야. 이때문에 나에게는 동료들이 많지. 하지만 내가 제일 믿고 정을 주는것은 태민군 하나라고 할수 있어.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건가? 그럼 들어보라구. 건 내가 사람을 정확히 보는데서 나온거야. 자넨 태음성을 띤 태양인이고 수재지. 한데 이런 사람은 극히 적어. 음은 물인데 자넨 깊은 물이야. 얕은 물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설레이지만 깊은 물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 이건 내가 자네를 배반하지 않는 이상 자네 역시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되지. 그리고 양은 움직임인데 자네는 비상한 두뇌와 뜻이 있으니 큰일을 칠 재목이거던.

여기에 또 하나 덧붙이면 자네와 나는 판판 다른 형갈지만 내가 추남이고 자네가 미남이라는것 내놓고는 거의다 같다고 할수 있어.》

그의 말은 사실로 증명되였다.

박정희는 별치 않는 문제거리가 생겨도 태민을 찾았고 누구에게도 말할수 없는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 곧이곧대로 털어놓았다.

어느 봄날의 일요일이던지 시내 외출을 나갔던 지기들이 유곽으로 밀려갔을 때 박정희는 술이나 먹자고 하며 사지동고를 맺던 차집으로 태민이를 이끌었다.

《태민군은 녀자생각이 안 나는가?》

술상머리에 앉은 박정희는 이것부터 물었다.

전 아직… 이런 식으로 머리를 젓자 박정희는 자못 진중한 기색이였다.

《참는다는거겠지, 남성의 그것은 생각없이도 든장질을 하는거니까. 아까 그치들은 유곽을 찾아갔어.》

《형도 가고싶다 그 말이군요.》

《그래, 사실 나도 녀자생각에 몸 달 때가 많아. 참을수 없을 정도로 말이야. 하지만 참지. 정 참기 어려울 때엔 무도장(유술, 격검훈련장)에 가서 기운을 뽑지. 그통에 이 박정희는 훈련모범생으로 평가되고… 내 보기엔 자넨 그런 참을성을 천성으로 가지고있는것 같애. 자, 이러면 내가 태민군한테 속옷까지 벗어보인셈이지.》

1942년 봄,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한 박정희는 부의황제로부터 금메달을 받은것으로 세론의 초점으로 되였다. 기자들은 물론 고관들까지 찾아드는 속에서 박정희는 태민을 따로 만났다. 가나가와현의 일본륙군사관학교로 떠나게 된것으로 태민이와 마지막작별연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날의 태민은 박정희에 대해 심한 회의감에 빠져있을 때였다. 교내 송별식때 박정희는 《대동아공영권을 확립하는 성전에서 사꾸라꽃처럼 사라지겠다.》고 연설하였던것이다.

진심인가, 연기인가.

《군도 내뒤를 따라오겠지?》

그날도 중국인차집에서 술잔을 놓고 마주앉았다.

《그건 두고봐야지요.》

《나에 대해 불만이 많을테지.》

박정희는 그의 속을 말짱 꿰뚫어보고있었다. 태민이도 더이상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난 형의 답사연설을 곧이곧대로 다 믿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알고있던 박형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옳아.》

박정희는 이렇게 긍정하고는 찌를듯 한 눈길로 마주보며 말했다.

《군은 명치 천황을 어떻게 보나?》

《개혁자지요.》

《그래, 개혁자지, 그리고 일본의 구세주고. 그가 없는 오늘의 일본을 생각할수 있나? 명치때 일본은 미국의 흑함전술에 졌지만 그것으로 일본이 잃은것은 봉건의 무지몽매뿐이였어. 그렇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하지 않아. 패한자는 승자앞에서 배우고 그다음 그 승자를 눌러야 되지. 실지 현실이 그렇게 되고있지 않나. 진주만기습으로부터 오늘까지 일본은 련전련승이야. 물론 그것으로 미국을 완전히 없앨수 있다는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박형의 사꾸라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일본을 위해 죽는다, 이거야말로 희극이 아닙니까?》

《아니, 아닐세. 태민군이 오늘은 범재로 추락되는군. 들어보라구. 자네가 나라 찾는걸 목표로 삼는것처럼 나 역시 그 뜻에서는 변함이 없어. 하지만 국토도 병사도 죄다 잃은 상태에서 무슨 도리가 있나? 내가 이자도 말했지만 일본은 승세야. 지금의 기세로 나가면 조만간 대동아제국이 형성되지. 하지만 그건 일시적이야. 올리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일본도 조만간 추락할 때가 오는거야. 미국까지 먹는다 해도 마찬가지지.

일본의 팔이 제아무리 길고 억세다 해도 그걸 다 그러안고 소화시킬순 없는것이거던. 그리고 먹힌 나라들에서도 가만 있자고 할텐가. 이 지나(중국)땅만 해도 장개석이와 모택동이 계속 반일항전을 벌리는것이고 군이 숭상하는 **김일성**장군 역시 관동군을 짓조기지 않는가. 그러니 시간문제이긴 하지만 일본은 억지스럽게 삼켰던 땅들을 하나하나 내놓을수밖에 없어. 난 바로 그 기회를 노리는것이고 그때를 타 풍운의 사나이로 나서겠다는 그것이야. 내가 일전에 와신상담을 말한것도 바로 그런 기회를 노린다는것이고 명치를 떠올린건 그처럼 이긴

자한테서 배워 구국성업을 이뤄보자는거야. 그래, 틀린가?》
태민은 그에 대한 회의감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사지동고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했다. 이렇게 되여 한해후에 부의황제의 은시계표창을 받은 태민은 학교당국의 추천도 있었지만 박정희와의 연분을 줄잡고 현해탄을 건너 일본륙사에 갔다. 1944년에 들어서면서 미드웨이해전(미일해공군의 결전)을 비롯한 여러 전투들에서 일본의 패전이 명백하다는것이 알려졌을 때도 그에 대한 존경감은 더욱 커졌고 결국엔 자기의 일신사와 장래문제까지 그의 조언을 지침으로 삼는데까지 이르게 되였다. 해방직후 성민이를 따라 북행길에 오른것도 박정희의 지지를 받아서야 결행하게 되였다.
그때 박정희는 지금의 민심은 **김일성**장군님께 쏠리고있다고 하며 태민이가 가서 보고 좋다면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태민의 되돌이걸음에도 박정희를 위한 생각이 적잖게 작용했다. 그때 서울로 돌아온 태민은 한동안 시세관망의 자세로 집에 불박혀있었다. 그의 북으로의 길이 의심을 사 일거일동을 신중히 하지 않을수 없었기때문이였다.
전날의 친구들도 그를 외면했는데 놀랍게도 박정희까지 잘있는가 식의 문안편지를 두세번 해왔을뿐 좀해 만나려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태민은 극도의 보신이라고 이를 갈았다.
그런 때 려수폭동이 터지고 이어 순천군인폭동이 터졌다. 그뒤로 숙군처형의 피비린 바람이 불어칠 때 태민은 박정희로 하여 또 한번 무릎을 치지 않을수 없었다. 박정희가 려수, 순천군인폭동 주범자의 한사람으로 검거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였던것이다. 매일같이 들이닿는 소식들엔 박정희가 《한국》륙군사관학교 교사를 할 때부터 지하조직에 들었고 거기서 군사책까지 하였다는 말도 있었다.
태민은 놀라움속에 과연 박정희는 박정희구나 하고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동안 박정희가 자기를 찾지 않은것도 북에 갔다온것으로 의심을 사는 자기를 위해서였고 그 위태위태한 놀음에 자기를 끌어들이지 않으려는 념려때문이라는것으로 더욱 감심했다.
그를 살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여 중용지도의 처신법까지 집어던지고 륙군참모차장을 하는 원권을

수차에 만났고 옥영이네와 인연이 있는 미군 민사처 요원까지 찾아가 박정희의 구원을 요청했다. 남에게 머리를 수그리지 않는 그로서 생면부지의 외국사람에게까지 빌붙어보기는 이때가 처음이였다.

1948년 봄 고등군법재판장에 나선 박정희는 《당당하고 굳센》 태도로 태민을 또 한번 감동시켰다.

유감스러운것은 대질문답때 박정희가 지도급인물들의 이름까지 팔며 거사준비과정을 고스란히 토설하는 비겁성이였으나 그가 렬거한 인물들과 거사과정이 이미 말끔히 드러난 뒤끝이라는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 불만도 지워지고말았다.

세월을 속이려면 세월에 맞춰 차림을 해야 되고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던 박정희의 말을 되살려보며 큰일을 하자면 우선 살아야 할 것이니 어쩔수 없다고 생각했다.

6일간의 공판끝에 박정희는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태민으로서는 불행중다행이라고 마음속 위안을 가져보았으나 아까운 인재가 썩게 된다는것으로 괴로움이 컸다. 6. 25전쟁발발과 함께 예비역은 물론 근시, 절름발이까지 군에 끌어들일 때 태민이 군에 들어가지 않은것은 동족상쟁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그리고 성민이며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는것이 기본이였지만 박정희 역시 하나의 차단봉으로 되였다. 민중의 지향, 민중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던것이 박정희의 《지론》이였고 태민 역시 그것을 자기의 신조로 삼았기 때문이였다.

피난민대렬과 함께 부산에 이르렀을 때 뜻밖에도 인편으로 박정희의 편지를 받게 되였다. 비상시국하의 특별조치에 따라 사면 석방으로 풀려나와 군에 편입되였으니 태민군도 군에 들어와야 한다는 권고밑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돌이킬수 없는 화가 있을것을 암시한 편지였다. 그러지 않아도 태민은 자기에 대하여 별의별 험담이 다 돌고 조만간 헌병대나 경찰서 구류장에 끌려갈수 있는 형편에서 전전긍긍하던 때였다.

두 길뿐이였다.

반역자로 죽겠는가, 대의에 따르겠는가. 태민은 더이상 선택의 자유가 없음을 알았다. 우선 살아야 했던것이다. 중대장으로 군에 편입되였다. 될수록 후방에서! 죽일내기는 싫었다. 하지만 여기에도 자유

는 없었다. 락동강전투에서 1선에 나서게 되였다.

미군고문관의 독전밑에 반돌격의 앞장에 섰다. 그뒤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자기가 살고 중대가 살기 위해 맞다드는 《적》을 무자비하게 쏴갈겼다. 이로 하여 두달후엔 대대장으로 승격하였고 부대안에서 나돌던 빨갱이성향에 대한 뒤소리도 없어졌다. 특무대의 감시도 해제되였다. 량심과 리성을 판 대가로 얻어진 승격이고 신임이였으나 그것을 잊으려 했다. 그러나 북으로 가는 길에서 미군의 폭격과 군경들의 총탄에 숨진 시체를 볼 때면 무서운 공포와 아픔에 전률하군 했다.

서울을 수복한지 얼마 안되는 어느날 폭격에 지붕이 날아난 벽돌단층집에서 박정희와 만나게 되였다. 그의 행처를 안 박정희가 재회의 기쁨을 나누려 찾아왔던것이다.

하지만 기쁜 말들은 나누지 못했다. 박정희가 가지고온 미군보급품인 위스키를 나누며 지난날과 현재를 놓고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자넨 나보다 한계급 높구만.》

그때의 태민은 소령이였고 박정희는 대위였다.

《내가 옛날에 하던 말 생각나나, 견마잡이로 되겠다던 말.》

그런 말은 하지 말자고 했다.

《그래, 그러자구. 참, 자네한테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하는데.》

인사는?—

《아니, 그건 평생 잊을수 없는거지. 내 자네의 뒤교섭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 역시 내가 사람을 잘 봤다는 생각 옳았어. 정말 고마우이.》

원, 무슨 소릴—

《그런가. 한데 자넨 그때 나를 온곱지 않게 보더군. 피고석이였지만 난 자넬 놓침없이 보았네. 내가 동료들과의 거사과정을 말할 때 눈을 내리깔던것까지.》

그랬던가.

《나삐 생각하진 않았어. 역시 도와 의를 중히 여기는구나 하고 높이 봤지. 사람이 자기 동료들을 판다는것은 더러운 일 아닌가.》

모든것을 리해했다고 했다, 동료들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죄다 잡혔거나 처형당한 상태였으니.

《그렇게 알아주니 더 고맙구만. 한데 그렇게 된건 아니야. 그때 내가 말한 동료들중에는 잡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는 잊었어. 나! 나를 살려야 한다는 이 생각 하나뿐이였어. 놀랍지 않어?》

박정희는 묻는듯 한 눈길로 태민을 보다가 계속했다.

《자네, 사람이 태여날 때 무슨 소리부터 하는지 알아? 응—아! 라고 하지. 아!— 아란 나라는 소리지. 우선 나부터!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물론 자네 아닌 다른 사람앞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아, 대의를 위해 살아남아야 했다고. 하긴 이것도 전혀 거짓말은 아니야.

내가 살아야 한다는건 나 하나의 개인적욕구만은 아니였어. 가깝게는 자네나 원권, 백선엽준장의 의사였고 또 다른 어른들도… 내가 살아날것을 바랬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끌어줬고.

이렇게 보면 나를 살리기 위한 배신과 변절은 나라는 생명체의 욕구와 외계의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행위였어.

그래, 군의 생각은 어떤가, 이래도 박정희를 벗으로 볼텐가?》

어색스러운 물음이라 화제를 돌렸다.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하는 소린가?》

이건 선배님한테 하기 전에 자기자신을 두고 하는 고민이라고 했다. 한때엔 자기 역시 민중이요, 뭐요 했지만 동족을 쏴눕히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는가.

그 말에 박정희는 순간적으로 침울한 얼굴이 되였다.

《물론 그건 자네나 나나 그리고 우리 민중전체의 비극이지. 하지만 우리에겐 죄를 묻지 않을걸세. 약소민족의 숙명으로 지어진 이 불행앞에 자네나 난들 무슨 방법이 있는가. 끌려가는 양, 어느 흐름이든 끌려가는 양은 자유롭지 못하거던. 하긴 량자택일의 자유는 있어. 민중의 흐름을 따른다면 민중이 이북편을 따르니 그를 따라야겠지. 하지만 지금은 그럴수도 없어. 량편이 다 리성을 잃은 상태이니 옛사람들의 말대로 이긴자는 장군이요, 진자는 역적이라는 그 리친데 미군이 달려붙은 싸움에서 남한이 이길것은 명백하지 않나. 인생을 태여났다가 승자로, 장군으로 되는것이 낫지 패자로, 역적으로 될텐가.

자네의 그 공자라는 사람도 제 리속을 찾아 이 나라, 저 나라 헤매지 않았나. 그리고 큰뜻을 품은 사람들은 아녀자식의 감정과는 결별하였다는것을 잊지 말라구.》

아녀자식감정과의 결별! 지태민은 《5.16》을 통해 박정희의 이 말이 그의 체질로 되였음을 알았다.

무자비성! 박정희는 제딴의 뜻의 실현을 위해서라면 상대가 친구든 혈친이든 관계없이 목을 쳐버렸다. 《5.16》준비때는 20여년의 정분을 맺고있던 죽마지우의 목도 거침없이 쳐버렸고 얼마전에는 어린시절의 유정한 추억으로 늘 입에 올리던 자기의 옛 담임선생까지 총살형에 처하게 했다.

타고난 랭혈인간.

그때부터 태민은 박정희를 대할 때마다 은근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다.

력사에는 화려한 겉치레와 분식된 말로 자기를 위장하고 희세의 악당, 폭군으로 군림한자들이 오죽 많은가. 인간을 하나의 리용물로, 장기쪽으로 보는 초인들.

이렇게 볼 때 박정희 역시 그런 초인을 꿈꾸는것이 아닌가.

하면서도 태민은 그를 리해하려 애썼다. 리해하려 했을뿐만아니라 큰뜻을 실현하자면 불가피한것이라고 합리화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자기자신을 기만하는 어리석음이라는것을 알면서도…

처음에는 속히우고, 다음에는 속히움의 관성에 끌려가는것이 인간의 본태일가.

태민의 이러한 리해와 타협은 자기자신도 감정과 인정을 초월해야 한다는데로 떠밀었으나 태민에게는 뭔가 부족되는것이 있었다. …

《내가 자넬 부른건.》 박정희는 성냥불이 타는것을 지켜보다가 옆탁우의 두툼한 종이철을 집어들었다. 《이때문일세.》

표지우의 타자문을 본 태민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성민이가 쓴 글이였다.

《제가 꼭 봐야 됩니까?》

《봐야지, 형님이 안 봐서야 되겠나. 택규 그 사람 말로는 유서라

고 하는데… 나까지 때렸더군.》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받아들었다. 박정희까지 때렸다는 것과 이 유서에 대한 자기의 처신을 생각하느라니 등골까지 땀이 괴였다. 굳센 표정을 지으려 했다. 하지만 두세장 넘어가자 그 굳셈에 지진이 일었다.
—일제강점하에서도 우리 집안은 서로의 결렬과 흩어짐이 없었다. 크건적건 모두가 조선독립의 뜻을 품고 반일선상에서 살았다. 특히 당시의 고향일대를 휩쓴 백두산바람, 항일무장투쟁의 드세찬 바람은 가문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치를 따르게 하였다.
여기서는 나의 형님인 지태민도 례외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우리 가문의 반렬에서 떠나갔고 가문의 수치로 되였다. 동족이 동족에게 총을 겨누는 속에서 그도 우리 가문의 적이 되였기때문이다. …
그 인간으로 볼 때 처음부터 우리를, 가문을 배신할 사람은 아니였다. 하지만 여기에선 우선 그의 책임을 론해야 할것이다. 일제를 미워하면서도 일제에 편승한 행동, 잘못된 선택은 만주군관학교부터라고 할수 있다. 철저하지도 굳세지도 못한 《애국》과 《량심》은 그 어지러운 환경속에서 첫 이질을 가져왔고 새로운 종주국, 미국식민주의화의 제물로 됨으로써 인간자체의 본도와 량심마저 저버렸다는것이 지금의 나의 견해이다.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물론 형님만을 탓할 일은 못된다. 형님도 한때 말했다.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스승을 모시는가, 어떤 벗을 택하는가에 따라 그 인간의 진퇴가 결정된다고. 그런데 형님은 어찌하여 그 어지러운 인간들을, 매국노들과 사기군들, 자기 하나만을 생각하는 추물들을 가려보지 못했는가. 형님이 늘 말하던 도와 의는 어데 갔는가. …
보다 진심을 말한다면 나는 나의 이러한 모든 생각과 판단이 잘못이기를 바란다,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착각이였다고. 하여 나는 형님을 만나러 왔고 어릴적 그때의 따뜻한 마음으로 《형님!》하고 불러보고싶다. …
태민은 그다음의 글들은 제대로 못 봤다.

택규로부터 성민이가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을 때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충격에 전률을 느꼈다.

택규의 말을 들었을 때는 발작적인 분노와 고통만을 느꼈다면 지금은 심장이 비틀려지는듯 한 아픔과 절망적인 불안속에 마음을 다잡을수 없었다.

《그 뒤장을 자세히 보라구.》

박정희의 말에 정신을 차렸다.

(아니 이건?)

눈앞이 아찔해졌다.

—…나는 이 땅의 《5. 16정변의 지도자》와도 만나고싶다. 그도 한때는 민중의 뜻을 말했다. 그렇다면 그도 역시 민중의 뜻, 갈라진 겨레와 혈육들이 손잡는 통일을 위하여야 할것이 아닌가. …

《어때, 아깝지 않어?》

태민이 마지막장을 덮었을 때 박정희는 침울한 눈길로 태민을 보았다.

《여전히 소학생때군요.》

태민은 억지스럽게 웃어보였다. 박정희도 따라웃었다.

《하긴 철부지라 해야겠지. … 더 좋긴 천사라고 해야 할가. 얼마나 아름답고 순결한가. 어느 한군데도 그른데가 없어. 친척이 친척을 보고싶어 왔다, 옳지. 서로의 반목과 싸움이 없어야 한다! 그것도 그렇고 모두가 자네의 이 동생같다면 이 세계는 얼마나 태평하고 아름다워지겠나. 통일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나?》

태민은 어떤 대답도 할수 없었다.

《난 오늘 이 글을 보며 예전에 봤던 그를 떠올려봤어. 그 앤 신통히 자네를 먹고 게웠지.》

《그렇게들 말했습니다.》

《그래, 이 글에도 일편단심이거던.》

박정희는 잠시 눈을 감고있다가 말을 이었다.

《내가 자넬 부른건 이 앨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때문일세.》

태민은 무릎우에 떨어진 재가루에 눈을 주었다.

《각하로선… 그에 대해 너무 마음쓰지 마십시오.》

《뭐 그저 그렇다는거지.》

박정희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본래의 표정으로 돌아갔다. 우선우선한 태도로 말했다.

《자네 그 동생에 대해 택규는 절망적이야. 나도 역시 저 글을 보고나니 난감해. 철두철미 적색에 빈틈없는 론리거던. 되돌려세우기 불가능하다는 말엔 나도 반박 못했어. 그래서 택규더러 구면지기의 연분으로 직접 솜씨를 보이라고 하니 못하겠다는거야. 하긴 택규로도 어림없는건 사실이야. 우선 리론과 인격으로 적수가 못될것 같애. 택규도 그걸 알지. 하긴 설유공작이 실패된 뒤의 체면을 먼저 생각했을테지. 그런데선 역바르니까. 택규는 박사급의 이북전문가를 붙여보자는건데 그것도 실패작일건 뻔해.

그 글을 보니 이북비평가들의 무기가 조금도 날이 들어갈것 같지않아. 자네도 보았지만 우리가 타매하는 공산사상의 부조리를 말끔히 뒤집지 않았나. 실지 이북은 레닌이나 쓰딸린의 아라사식주의와는 퍼그나 다른것만은 사실이거던. 저기에 쓴 부르죠아타도론에 대해서도… 이북에서는 계급으로서의 타도지 인간에 대한 육체적말살까지는 없었다고 한것만 봐도 그렇고, 사상과 리념을 초월하여 남북이 합심하여 살자는것도 그렇지 않나. 물론 합심이요, 제도초월이요 하는건 이북의 정략선전이긴 하지만 그에 대한 론단은 궤변으로 들릴거거던.

정치와 인생에는 량면생리가 있고 필요하면 이렇게 저렇게 기발을 바꿔야 한다는걸 심어주면 좋겠는데 자네처럼 도와 의에 젖어있는데다가 인민군 사단군중문화지도원까지 했다니 어데 먹어들텐가. 모름지기 나나 자네가 설유한다고 해도 침을 뱉을건 뻔하거던.》

《그건…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나?》

태민은 몸이 떨렸다.

대답은 명백한것이다. 《각하, 눈 꾹 감고 그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동생고발의 수치도 면하는것이요, 부모님과 가문에도 불륜의 인간으로는 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입안에서만 맴돌았을뿐이다. 이 글을 보기 전이였다면 말할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할수 없는것이다. 설사 그를 맡는다 해도 어림없는 일일것이다. 그렇다. 돌려세울 방도는 없다. 택규의 말을 들어봐도 그렇고 저 글은 더욱 그렇다.

성민은 저 글 하나만으로도 교수대에 올라야 한다. 《불법잠입》은 제하고라도 적화선전죄를 어떻게 덮어버린단 말인가. 그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그냥 내놓아줄것을 청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고… 더구나 자기의 은사까지 처형한 박정희가 제아무리 《아깝소.》뭐요 했지만 일단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시비가 벌어지면 《나 역시 자유스럽지 못하니 어쩌겠나. 정은 정이고 일은 일이니까.》하며 성민은 물론 자기라는 존재도 대의의 제물로 만들것은 불보듯 명백한 사실이 아닌가. 성민이가 가증스러웠다.

《전 이미… 택규군과 각하에게 그의 처분을 부탁한 이상… 그밖에 없습니다.》

《허 허…》

뜻밖의 너털웃음에 태민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자네 너무하구만.》

박정희는 시름겨운 기색으로 입을 다시였다.

《난 말이야, 처음부터 이렇게 될줄 알았네. 택규는 자신만만해 했지만 북에서 자네같은 집안사람들에 대해선 뒤전에 밀어제쳤다는 자료를 놓고 그 애의 있음직한 고행을 소설처럼 추리해 떠들었지. 일종의 심리학까지 강의하면서 여느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심문도 문죄도 없이 해대자는것이였어. 량순한 학생물림을 붙여 지조요, 뭐요 하는건 그저 그러루하다는걸 느끼게 해서… 간단히 받아내고 내보내자는것이였어. 너무 요란스러운 실력가를 붙여 설유공작을 하면 반발심이 생긴다나. 그땐 나도 그럴상싶었지. 한데 싱겁게 되였거던. 허나 어쩌겠나. 살리긴 살려야겠고…》

태민은 눈굽이 핑— 젖어들었다.

《그런데 시간이 문젤세. 택규는 비밀스럽게 한다지만 귀와 눈은 어디에나 있지 않나. 사실 나의 선생건도 비밀리에 하려던것이 허, 며칠사이에 큰집어른들까지 알더란 말이야.》

박정희는 불이 죽은 담배를 다시 붙여물었다. 성냥불이 벙끗할 때 눈살이 가늘게 떨리는것이 알렸다. …

곱살하게 생긴 접대부가 세번째로 가지고 들어온 브라질산 고급커피를 점잖게 받아 마시던 정창호는 《가자.》하는 소리에 펄쩍 뛰여

일어섰다. 목소리도 그렇거니와 지태민의 모습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보였다.

차에 올랐을 때 대기실에서 슬쩍해온 《말보로》를 터쳐 한대 권했으나 지태민은 보지조차 않았다.

《효자동으로.》

지태민은 긴의자 몇개가 놓인 공원쪽에서 차를 세우게 하고 아무말없이 차에서 내렸다. 정창호는 뒤덜미가 팽팽히 켕길 정도로 불안한 속에 부관으로서의 처신을 생각하며 잽싸게 뒤따라 내렸다.

지태민은 공원쪽으로 슬밋슬밋 걸어가다가 짝지발을 든 상이군인 한 명만이 있는 공원가녁에서 멈춰섰다. 정창호도 따라 섰다.

《이보게.》

지태민의 얼굴은 이때야 평소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얼굴빛만은 여전히 어두웠다.

《내 한가지 부탁을 하자구. 자네 한인수를 잘 안다고 했지?》

《네, 저의 학교 3년 선배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를 가서 만나라구.》

지태민은 주머니를 뒤지더니 두툼한 돈뭉치를 꺼내였다.

《좀 어려울수 있네만 이걸 한인수에게 전하게. 다른건 아니구 내 동생녀석한테 술이나 한번 실컷 먹이라는거야.》

《저… 사식차입도 엄금할텐데 술을…》

《그래서 부탁이라지 않나.》

《알았습니다. 명령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정창호는 요란스럽게 발뒤꿈치를 부딪쳤다.

《명령은 아니야. 그럼 난 먼저 가겠네.》

정창호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의 뒤모습을 지켜보았다.

순간 사형수들의 형집행직전에 술을 먹인다던것이 떠올랐다.

(설마… 아니, 그럴수도 있어. 한데 건 너무하지 않는가, 제 동생을…)

오한이 난듯 몸이 떨렸다.

제 4 장

1

성민은 《음-》소리를 내며 눈을 치떴다.

서서히 어둠이 걷혀지는 속에 천정의 전등과 그 전등갓두리에 생겨난 그림자며 벽에 휘갈겨쓴 락서들까지 어렴풋이 나타났다.

습관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여보았다. 감각은 살아있었다.

련 12일 뻐드렁이에 주름살투성이의 중령이 네다섯명의 샤쯔차림을 데리고 우르르 밀려든 때부터 사태가 달라졌다.

《흠, 상팔자로군. 그래, 나도 너를 쓰다듬을줄 알았더냐.》

《야, 여기 모셔!》

고문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각재와 몽둥이의 휘파람, 연신 내리차는 발타격.

《뭐 리해를 시키고 마음을 합치려구 왔다구? 우리도 계급투쟁을 한단 말이다, 계급투쟁을…》

《그래, 넌 아직도 지장군을 믿는것 아니야? 지장군은 널 죽여치우라고 했다, 죽이라고… 하지만 곱게 죽을 생각은 아예 말어. 야! 뭣들 하고있어?》

하루에 두세번 까무라쳤다가 깨여날 때마다 자기의 끈질긴 생명력에 놀라움을 느꼈다. …

(이제 얼마나 견딜수 있을가.)

천정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성민은 또 한번 손가락을 굽혔다 펴보고는 벽가의 락서들에 시선을 주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글자들을 알아볼수 있었으나 지금은 뿌잇한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답은 명백했다. 지금까지는 견뎌냈지만 앞으로 어찌될지 무슨 장담이 있단 말인가. 식물인간이 되여 손가락마저 움직일수 없을 때면…

최후의 결행조차 할수 없을것이다.
태민! 아 그와 한번만이라도 만났으면… 그렇게 되여 인간이 보일수 있는 모든 증오와 저주를 한가득 퍼부을수 있다면… 온몸의 피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팔다리가 경련하듯 떨렸다.
그러나 인차 맥이 진했다.
곁에 누운 사병의 요란스러운 코고는 소리를 듣다가 몸을 일으켰다. 터져나오는 신음을 간신히 참았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이쑤시개만 한 나무살을 꺼내들었다. 합판으로 된 책상밑판에서 훑어낸것이였다. 이제 그 나무살로 혈관을 찌르면 모든것이 끝날것이다.
반듯이 누웠다.
놀랍게도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가 두려움 같은것은 전혀 없었다.
인간으로서 인간을 지키는 길은 이밖에 없다는 생각을 수십수백번 했기때문일것이다.
《그까짓 죽음은 대수롭지 않아. 단지 독립을 보지 못하고 가는것이 한스럽다.》
외삼촌이 하던 말 그대로의 심정이였다.
1944년 12월 외삼촌이 있는 감방의 널마루에는 하얀 성에가 은빛을 뿌렸고 그 은빛갈보다 더 하얀 외삼촌의 얼굴은 비범할 정도로 숭엄하였다.
그로부터 한달후 성민은 싸늘하게 식어든 그의 시신을 마차에 싣고 아버지와 함께 비분의 눈물을 쏟으며 목단강까지 되돌아왔다.
(묻어줄 사람도 없고, 눈물을 뿌려줄 사람도 없고… 이것이 나한테는 또 하나 유감인데ㅡ)
성민은 싱그레 웃으며 자기의 태연함에 자부를 느꼈다.
하지만 외삼촌이 말한 한스럽다는것만은 골수까지 살아있었으니 그것이 고개를 쳐들고 날개를 저을 때면 결행의 의지는 부뚜막의 엿가락처럼 녹아들고말것이다.
팔목의 동맥을 찾기가 어려웠다. 오래도록 팔목을 주무르다가 미세하게 뛰는 맥박을 가늠하게 되였고 팔라닥거리는 혈관의 따스함을 느꼈다. 입술을 사려뭄과 동시에 나무살로 그 혈관을 힘껏 찔렀다. 그다음 두세바퀴 휘둘렀다. 팔목에서 뽀잇한 실오리같은것이 뻗쳐오

르는것을 보며 안도의 숨을 쉬였다.
이제 몇분이면 끝날가?… 마지막기분을 밝게 가지고싶었다. 하여 가장 즐겁던 때를 그려보려 했다. 아니, 스스로 떠올랐다.
《순정이!》
검스레한 천정을 보며 안해의 이름을 나직이 불러보았다.
《내가 참 똑똑이지요. 당신같은 미남자를—》
그 목소리, 그 눈동자가 안겨온다.
《그때면 이 나무는 흰눈을 소복이 쓰고… 흰 수염을 날리겠지요.》
처음으로 사랑이 언약된 버드나무…
성민이 순정을 처음으로 알게 된것은 1945년 봄방학때였다.
무산에서 온 동무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거리구경을 나섰을 때 책을 보며 걸어오는 한 《일본인처녀》와 부딪치게 되였다.
성민은 그가 보는 책이 안데르쎈의 동화집인것을 알아보았다. 새삼스럽게 그를 다시 뜯어보게 되였다. 안데르쎈할아버지가 동화의 주인공으로 삼을만큼 말쑥하고 아릿답게 생겼다. 고개를 갸웃하고 걷는것도 일본처녀들속에서 가끔 보게 되는것이지만 이 역시 허물로가 아니라 매력으로 보였다. 선하고 착한 마음만을 호소하는 안데르쎈의 책을 본다는것 역시 그랬다. 하지만 따가닥거리는 게다까지 보게 되자 역증스럽게 눈길을 찌프렸다.
(저렇게 얌전하고 말쑥해도 만들어내는것은 사무라이짐승일테지.)
일본애들이라면 한번씩 걸쳐봐야 속이 씨원해하는 무산동무 하나가 처녀의 앞을 막아나섰다. 교외의 어느 한 목재소 말파리군인 그는 익살과 장난이 세차기로 소문이 나있었다.
《오바상, 오하이오 고자이마쓰!(할머니, 안녕하십니까!)》
허리까지 깊숙이 굽히며 싱글거리던 그가 얼뜨기상이 되며 흠칫 굳어졌다.
그런데 처녀는 피끗 그를 스쳐봤을뿐 여전히 눈가에서 책을 떼지 않고 걸어갔다.
《체, 재수없는걸.》
한적한 거리에서 일본인처녀를 혼내울 잡도리였던 무산친구는 썩살이 돋은 손으로 뒤덜미를 쓸어만지는데 이마에는 땀방울까지 몇점 맺혀있었다.

《아는 사이나?》 성민의 물음에 무산친구는 쓰겁게 웃었다.
《안다면 알구 모른다면 모르는 사이일세. 우리 목재소어른의 딸이네.》
《아니? 그 사람은 조선사람이라구 하지 않았나.》
《조선사람이지. 저 애도 그렇구. 빌어먹을, 그가 늘 왜놈옷을 입고 다닌다는걸 알면서도 매번 헷갈리거던.》
《뭘 하는데?—》
《중학꼴 마친 다음부턴 집안구석에서 책더미에 묻혀있어. 가끔 밖을 나설 때면 저따위 왜놈복색을 하고 나서는데 모를 일이야. 집안 부모님들을 봐서는 다들 점잖고 괜찮은데… 하긴 그 아버지라는 어른도 왜놈들한테는 찰떡처럼 감겨도는 사람이니 그럴만도 해. 왜놈뿐만 아니지. 이곳 관청과 경찰들까지 명절이면 명절마다 집에 끌어들여 흥야라 붕야라야.》
방학이 끝나 성민이 다시 려순으로 떠날 준비를 할 때였다. 시교외의 일본군 군수창고가 화재를 만나 밤새 포탄 튀는 소리로 요란스러웠다. 온 시내가 술렁거렸다. 유격대가 쳐들어왔다거니 어느 술취한 왜놈장교가 담배불을 뗠군통에 불이 났다느니 하며 이말저말 옮아갈 때 목재소의 말파리를 끄는 무산친구가 헐레벌떡 뛰여들었다.
《성민이, 우리 목재소어른이 오늘 새벽 잡혀갔는데 그 불탄 창고자리에서 목을 친대.》
《뭐?—》
성민은 깜짝 놀랐다.
《그가 군수창고를 불태웠다는거야. 글쎄 난두 평소부터 그가 좀 류다른 어른이다 하구 봤는데 그런 거사를 할줄이야.》
《그 집 사람들은 어떻게 되였나?》
길가에서 만났던 처녀가 생각되였다.
《다행히 미리 알고 피했는지 주인어른만 잡혀갔어. 이거 무슨 방도가 없겠나?》
성민은 다짜고짜 친구의 말파리에 올랐다. 3시간 넘게 걸리는 길을 시간반으로 당겨갔다. 하지만 그 집에는 얼씬조차 할수 없었다.
왜놈경찰과 군대 몇이 살기등등한 눈길로 집두리를 에워돌고있었던 것이다. 하는수없이 집에 돌아와 아버지와 의논했으나 아버지에게

도 신통한 방안이 없었다.

《나도 그 사람을 몇번 만나본 일이 있다. 인격두 있구 뭔가 뜻을 품은 사람이라고 여느 목재상과 다르다고 보았다.》

《저두 그때문에… 어떻게 손을 쓸수 없을가 해서 그럽니다.》

《그렇게 할수 있다면 오죽 좋으랴만… 어디 맥을 찾을수 있겠느냐. 돈을 좀 쓴다 해도 될탁없는 일이구 너 외삼촌 친구들이 어데 남아있다면 움썰거릴진 모르겠다만 그들 역시 안될거다.》

다음날 아침 구장이며 경찰들이 요시찰대상이거나 그러루하게 의심스러운 집들마다 문을 두드리며 거리로 끌어내여서는 60리 가까운 군수창고쪽으로 몰아댔다. 피발선 왜군들의 총부리에 떠밀려 아버지도 그속에 끼였다. 성민은 려순공대 학생인것으로 제외대상으로 남겨졌지만 그냥 있을수가 없었다. 인차 아버지를 다좇아간 그는 시시각각 늘어나는 대렬속에서 일본처녀복색만 보이면 무작정 가보군 하였다. 나많은 늙은이들과 녀인들, 젊은이들과의 간격이 뚜렷이 갈라질무렵부터는 젊은 사람들과 녀인들속을 자주 오가군 하였다.

해가 두세발 남아있을 때 형집행을 한다는 군수창고자리에 이르렀다.

꺼멓게 벽체만 남은 군수창고자리에서는 그때까지 그물그물 연기가 피여올랐고 가설무대처럼 만들어놓은 단우에 그 처녀의 아버지가 의자에 비끄러매여있었다. 평소에 잘 알던 사람이라 해도 전혀 가려볼수 없도록 피칠이 랑자한 얼굴이였다.

처녀일이 걱정되여 여기저기 헤살피며 찾아보았으나 숲속에서 바늘찾기였다. 아무리 둘러봐도 일본처녀복색은 별반 없었고 있었다 해도 그 처녀와 비슷한 모양은 하나도 없었다.

형집행은 왜놈장교의 악에 받친 욕설과 짐승의 울부짖음과 비슷한 구령으로 집행되였다.

성민이와 아버지는 맨 마감으로 자리를 떴다. 이 가까운 곳의 철도역으로 방향을 잡았다.

스러지는 노을빛이 하늘을 뒤덮는무렵이였다. 검붉은 구름이 띠처럼 펼쳐진 사이로 비스듬히 내리쏟아지는 마지막잔광 역시 붉은빛이였다.

장엄하면서도 비장한 그 색조는 마치나도 독립투사가 휘뿌리고 간 선혈처럼 느껴졌다.
역에는 예상보다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들 역시 성민이네처럼 다음역까지 기차로 가서 시내로 가는 말파리를 얻어타려는것 같았다.
첫차를 놓치고 다음차에 올랐을 때도 어지간히 사람들로 붐벼 자리를 잡을수 없었다. 어느 한 자리를 좁혀 아버지만을 앉히고 성민은 승강대쪽으로 나갔다. 그런데 거기에도 사람이 있었다. 처녀였다. 그것도 일본인처녀, 처녀는 창문에 이마를 붙인채 꼼짝않고 서있었다. 까만 기모노차림이였다.
어찌보면 사형장에서 본것 같은 처녀였다. 한번 얼굴이라도 돌렸으면 했으나 여전히 한자세, 한모습이였다.
앉을 자리를 찾아 오가던 승객들중의 하나가 성민이처럼 그 처녀를 기웃하고 보더니 사라졌다. 그런데 그가 사라진지 얼마후 철도보안경찰 2명이 나타났다.
성민이를 어깨죽지로 밀치며 대바람에 그 처녀의 어깨를 두드린다.
얼핏 고개를 돌리는 그 처녀를 본 성민은 숨이 꺽— 막혔다. 온종일 찾고찾던 목재상의 딸이였다.
광명단시절의 경험때문이였던가. 반대쪽문으로 밀려났던 성민은 처녀의 어깨를 다친 경찰의 팔목을 건듯 잡아들었다.
《왜 그 처녀를 다치는가.》
일본말로 소리쳤다. 그러자 그 경찰은 이건 웬 녀석이냐 하는 눈찌로 마주보다가 《아는 사인가.》하고 묻는데 이미 한풀 죽어있었다.
《그렇소.》
만주국경찰이란 거개가 사각모(대학생모자)들앞에서는 움츠려드는 자세다. 사각모들이란 하나같이 부자집자식들이거나 관청관리들의 자식들인데도 있지만 높은 지식앞에서의 굴종도 있다.
그 경찰은 머리를 기웃거리다가 옆의 경찰과 뭐라 수군거리고는 또다시 기세를 돋구었다.
《그렇다면 이 처녀의 신분과 사는 곳을 말하오.》
성민은 입이 얼어붙었다. 자칫 시뻐르게 말하다가는 완전파탄인것이다.
《그한테 묻지 말고 나한테 물어요.》

아, 얼마나 다기차고 지혜로운 처녀인가. 차창에서 고개를 돌릴 때만 해도 비애의 짙은 구름이 비껴있던 얼굴이 놀랍게 달라졌다.

《무얼 알자는거예요?》

재차 말을 떼는 그의 눈에서는 종잡을수 없는 광채가 뿜겨나왔고 비웃음을 머금은듯 한 입가에는 오만하면서도 차거운 기상이 서려있었다.

《저 아가씨, 이름은 어떻게 부르는지요?》

처녀의 미모와 도고함에 경찰은 한절반 넋이 빠진 몰골이였다.

《아이스께 미쯔꼬.》

《아, 내지인이십니까?》

《그래요. 방해말고 물러가세요. 그러지 않았다간 국장한테 고소할테예요. 저의 집은 신경 ○○○구에 있어요.》

은방울소리처럼 울려나오는 목소리는 마구 버무려 하는 소리라 일본말에 밝은 성민으로도 우의 말은 짐작을 덧붙여 해득한셈이였다. 그러니 이 만주국경찰로서야 더욱 해득하기 어려울것이 아닌가. 하지만 국장이라는 단어만은 뚜렷했으니 경찰은 그 관직때문인지 더더욱 황송해하는 꼴이였다.

《저… 잘못 신고를 받고… 우린 일본처녀로 가장한 조선처녀를 찾지요. 비적의 딸년입지요.》

성민은 가슴이 조마조마해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처녀는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웃음까지 지어보이는듯싶었다.

《사람을 똑바로 알아보라요.》

《이거 정말 실례했습니다.… 두분의… 좋은 다툼을 방해해서…》

두 경찰은 헤식은 웃음을 남기고 다음차칸으로 쫓기듯 갔다.

성민이와 《일본인처녀》가 나란히 있는것을 무슨 련애관계로 본것같았다.

《어디서 사세요?》

불쑥 처녀가 물었다.

《이곳 시내에서 삽니다.》

《고마웠어요.》

처녀는 유심히 그를 보다가 다시 돌아섰다. 문손잡이를 잡은 하얀

손에 한가닥 파아란 피줄이 팔라닥거리는것이 보였다.
가슴이 아파들었다.
그리고 놀라왔다.
분명 처녀는 자기 아버지가 잘못된것을 알고있을것이였다. 그런데 나이로 봐서는 극상해야 성민의 나이또래겠는데 이 처녀가 어떻게 되여 그런 모진 아픔을 이겨내고 경관들앞에서 그처럼 태연자약하게 처신할수 있는가. 그에게 말을 붙이고싶었으나 그에 대해 안다고도 할수 없고 자칫 잘못하면 그를 도와줬다는 생색으로 될가봐 침묵을 지키는수밖에 없었다.
《얘, 이젠 내릴 때가 된것 같다.》
아버지가 렬차이음짬 발판을 잘못 짚을가봐 어름어름 다가오다가 처녀를 본 순간 우뚤 놀랐다.
《아니?!－》
흡뜨는 소리를 내는 순간 처녀도 깜짝 놀라는 기색이였다.
《아이, 아버님이－》
《쉿, 이자 너를 찾더라.》
아버지는 량쪽차칸들에서 띠염띠염 일어서는 사람들을 엿돌아보며 처녀를 싸안듯이 몸으로 가렸다.
《그래… 너두… 거길 갔댔냐?》
《…》
《어데서 내릴테냐?》
《모…르겠어요.》
처녀의 눈에서 구슬같은 눈물이 주르르 쏟아졌다.
《얘, 일없다.》
아버지는 황급히 그의 손을 잡아쥐며 또다시 량쪽차칸을 휘둘러보고는 성민에게 눈짓했다.
《넌… 내뒤를 따르며… 살피거라.》
장명등이 껌뻑이는 역구내로 차가 들어서자 아버지는 초조한 눈길로 밖을 살폈고 성민이 역시 차칸이며 바깥을 분주스레 살폈다.
그 처녀와 함께 집에 들어섰을 때는 한밤중이였다. 손님들이 많다나니 말파리 역시 늦게야 잡아타게 되였던것이다.
그날 밤 그 처녀－순정은 아버지앞에서 어린애처럼 흐느껴울었다.

《울어라, 울어. 실컷.》
아버지도 눈굽을 자주 훔치는데 그 옆방에 있던 성민이 역시 미닫이유리창으로 보게 되는 그 광경앞에서 비감을 금할수 없었고 그 처녀를 위로해주고싶었으나 차마 들어갈 용기까지는 없었다.
순정은 열흘가량 성민이네 집에 숨어있다가 누구도 모르게 떠나갔다.
그 역시 태민이처럼 쪽지편지 한장을 남기고 갔는데 단 여섯줄로 된 글에는 이렇게 써있었다.
—아버님, 급한 사정으로 떠나갑니다.
그동안 보살펴주고 기울여준 정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찾아뵈일테니 그때까지 부디 몸성히 안녕히 계셔주십시오.
성민씨에게도 후날 다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성민이 순정을 사랑하게 된것은 퍽 후날이라고 할수 있지만 이때부터 그 씨가 묻혀지고 싹이 트기 시작했을것이였다.
하지만 그때까지 성민이 그와 그의 가정에 대해서 알고있는것이란 처음 알게 되였을 때나 별반 달라진것이 없었다.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몇번 그 집에 갔다가 순정이와 낯을 익혔을뿐이였다.
그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야 모든것을 알게 되였다.
순정이 아버지는 조국광복회 특수회원이였고 순정이 역시 그걸 아는 상태에서 아버지를 도왔다.
일본옷차림도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서였고 경찰들과 마주쳤을 때의 도담성과 령활함도 아버지가 심어준것이였다. 그는 아버지의 말이라면 절대적이였다. 어떤 심부름이든, 어떤 일이든 아버지의 분부라면 무조건이였다. 그가 아버지의 분부를 어긴것은 위험을 예감한 그의 아버지가 한 동지네 집에 그를 피신시키고 다시 찾을 때까지 얼씬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마지막분부를 지켜내지 못한것뿐이였다.
순정이가 떠나간 다음 성민은 마음 한구석이 텅 빈것 같음을 느꼈다. 그리고 순정이가 떠난것을 형때문이라고 하며 태민이를 원망했다.
일본륙군사관학교를 마치고 심양에 가기 전에 집에 들린 태민은 웬

낯선 처녀가 있는것을 보자 꼬치꼬치 캐물었고 비록 랭대까지라고는 할수 없으나 늘 근심어린 기색을 보였던것이다.

물론 순정으로서는 일본군 별을 단 장교가 모르는척 하는것만으로도 감사해하는 빛이였고 후날 다시 만났을 때도 그 말을 했다. 형님의 처사가 고마왔노라고…

종합대학에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모란봉, 청류벽우의 버드나무, 날리는 나무잎사귀들…

눈가에 뜨거운것이 그득히 고여올랐다. 온몸이 허궁 날아오르는것 같기도 하고 무슨 솜더미의 나락속으로 내려앉는듯 했다. 모든것이 희읍스름한 안개속에 잠기는가싶은데 문득 꽃밭이 펼쳐진다. 성민은 순정의 손을 꽉 잡고 꽃밭으로 나비처럼 날아오른다.

다양한 색갈의 꽃, 빨갛고 노랗고 희고… 심장이 꿈틀했다. 그다음 밤이 왔다. …

《뭘 알겠다고 구접스레 만나.》

태민은 꽥 소리를 지르고는 집어삼킬듯 한 눈길로 정창호를 노려보았다.

《그저… 우연히 만났습니다.》

정창호는 볼부은 소리를 했다. 그리고 눈치를 살폈다.

이제 자기가 하는 말에 놀라기도 하고 눈섭을 실룩거리기도 하며 폭 어깨가 잦아질 그를 생각하니 여간 재미스럽지 않다. 물론 그가 측은하고 동정이 가는것도 없지 않지만…

《실은 오늘 제가… 우연히 한인수를 만나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일도 궁금하고… 마침 술집이 옆에 있어 그리로 끌어들였습니다.》

《거 실없는 서론은 그만하고 할 얘기나 있으면 하고… 가서 누워.》

《네.》

정창호는 능숙한 연출감독이 서툰 작가의 극대본을 뜯어고치는것처럼 한인수가 들려준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보면서 말을 이었다. 대목에 따라 표정과 말투도 적당하게 변화시켜야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이 과정을 통해 지장군의 심리적반응과 동요가 어떤가를 알

아야 할것이며 그것이 어느 정도 자기의 판단과 맞는가를 확인해야 하는것이다.

정창호는 먼저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다.

《한인수의 말에 의하면 그동안 그는… 그 북의 동생의 일에서 손을 뗐다고 합니다.》

흘깃 태민을 쳐다보며 약간 분개한 기색으로 어성을 높이였다.

《그 사람 말로는 자기는 반대였지만… 체형을 가하는 식의 혹독한 고문을 들이댔답니다. 헌병대적으로 제일 드센 최 뭐이라는 중령이 맡았는데…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야 한다고—》

태민의 눈섭이 쫑깃해지는것을 보며 괴로운듯 눈길을 내리깔고 계속했다.

《근 20일간을… 각종 형태의 고문을 다 들이대니…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죽었으면 죽구 살았으면 살았구 그것만 말해.》

태민의 눈에 불꽃이 튀였다.

《네.》

정창호는 머리속에 짜둔 꾸밈새가 죄다 허물어지는것을 느꼈다.

《죽지는 않구… 하긴 그가 그렇게 되게 하지 않기 위해 고문이 끝난 다음엔 약도 발라주고 주사도 놓아주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자살?!》

《네.》

태민의 치뗘진 눈섭이 꿈틀거리고 관지뼈가 돌처럼 굳어지는것을 보며 정창호는 한인수의 말을 듣던 때의 송연한 기분속에 빠지며 계속했다.

《그… 동생되는 선생은 나무살로 팔목 동맥을 찔렀는데… 다행히 피가 흐르다가 응고되며… 더 흘러나오지 않아서… 생명은 건졌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라는게 무지막지해서… 숨만 남은 선생을… 이번에는 자살을 시도했다구 마구 짓조겼는데… 한인수의 말로는 자기와 김택규라는 부사령관님이 제기해서 손을 뗐다고 합니다.》

정창호는 태민의 손이 가늘게 떨리며 담배곽을 끄집다가 도로 놓는

것을 보자 왜서인지 코등이 저릿해졌다. 하긴 한인수로부터 그 끔찍한 고문과 그 고문속에서도 억척같이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는 북의 동생을 놓고 감탄했고 자살까지 하려 했다는 그 행동세부까지 들었을 때 눈물이 날번 했다.

《그래, 그 애한테 뭘 좀 사먹였대?》

태민은 퉁명스럽게 물었다.

《저… 한인수는 제가 부탁한대로… 양주 10병을 사서 비닐통에 채워 그한테 줬다는데… 마시진 않고… 발을… 씻었답니다. … 상처가 도질가봐 발라준 약을 씻어버리느라고…》

태민은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 앤 원래… 술을 마시지 않아.》

속이 후두두해있던 정창호는 태민의 말에 한결 마음이 놓여 주머니에 정히 싸넣어두었던 돈을 꺼내 슬며시 그의 책상앞에 놓았다.

《이건 뭔가?》

《술을 사고 남은 돈이랍니다. … 사식공급은 엄금이라서… 그 술을 주는것도 최가라는 사람을 겨우 설복시켜… 하였답니다.》

《흠.》

태민은 뜻도 색갈도 없는 군소리를 내고는 담배를 피워물었다.

《왜 그러고 섰나, 앉지 않고.》

책상앞 의자도 아니고 쏘파를 가리켜보였다. 친밀감이 느껴졌다.

《한데 그 앨 이제 어떻게 한다는 얘긴 못 들었나?》

《미군 502부대에 보낸답니다.》

《502?!》

《네, 거… 저 CIA(미중앙정보부)계통의 부대 있잖습니까. 제가 들은 말로는 거기 가면… 아이적에 한 일도 죄다 말할 정도로 심문기재와 기술이 대단하답니다. 지금 중앙정보부사람들은 거기 가서 기술을 배우고…》

《그밖에 다른 말 없던가.》

태민의 표정은 뜻밖일 정도로 밝아졌다.

무엇때문인가 하는 의문은 있었으나 그와 오늘 더없이 가까와진듯하고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 적잖게 마음을 의지하는듯싶은 믿음을 느껴 정창호 역시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그런데 또 한가지 들은것은… 그 동생되는 선생의 부인이 북조선 교육성의 간부랍니다. 부처장이라고 하던지— 무척 미인이라고 그 말까지 하더랍니다.》

《어데 녀자래?》

《건?…》

《고향 말이야.》

《그것까지는… 이름이 곱더군요. 김순정이라고…》

《김순정?!》

《네. 무슨 독립운동자의 아니, 혁명자의 딸이랍니다.》

《그—래?!》

《한데… 이런건 비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동생은… 정식 심문할 땐 말하지 않다가… 생활사를 말하던중에 우연히 얘길 했다는데… 한인수는 그와 약속한대로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게 무슨 비밀인가.》

《건 동생되는분의 주장때문이랍니다. 개인사는 필요에 따라 말할수 있지만 그건 자기가 결심할 일이지 공식심문에서 대답할것이 못된다고 법을 가지고 주장하기에 그렇게 되였답니다.

어떻게나 론리가 세고 선이 명백한지 한인수는 그런 사람 처음이라고 놀라더군요. 하여튼 그가 발을 잘못 붙였으니 그렇지 여기 그냥 있었으면 사령관님 못지 않게 큰일을 할 아까운 인물입니다.》

《그런 삐꾸기소린 그만둬.》

말과는 달리 얼굴색은 여전히 밝았다. 정창호는 사기가 났다.

《참, 한가지 더 말씀드릴것이 있습니다. 동생되는 선생의 배낭에… 송이버섯이 있었답니다.》

《뭐—이, 송이버섯?!》

《네, 헌데 그 사람들이 한심합니다. 송이버섯에 뭔가 들어있지 않는가 해서 하나하나 쪼개보고 거기에 다른것이 없으니까 시험액에 잠가 검열하다나니 죄다 못쓰게 됐답니다.》

태민은 입술을 꽉 깨물고있었다. 손에 쥔 담배대에서 재가 떨어져내리는것도 모르고있었다. 정창호는 그 송이버섯에 무슨 사연이 있는듯싶어 꼬리를 붙였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법이 어떻고 해도 분명 사령관님께 가져온것인데 인사로라도 몇송이 보내와야 하지 않습니까. 북쪽 송이버섯맛은 특별하다는데…》

《그런 소린 그만해…》

태민은 이제까지와는 판다른 소리로 몰박스레 내고는 일보철을 끄당겨잡았다. 창호가 무슨 일인가싶어 눈을 꺼벅거리며 있자 한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이젠 가서 쉬라구. 하여간 오늘일은 고마우이.》

부관실로 나온 정창호는 송이버섯의 일이 되게 궁금스러웠다. 혹시 거기에 무슨 비밀신호약속이 있지 않았을가. 동생이 502부대에 간다고 하는데도 천연스럽던 지장군이 어떻게 되여 그 송이버섯소리에 혼들린 사람처럼 되였는가.

(그건 그렇고. 송이버섯을 보내왔으면 나도 좀 맛볼수 있는건데—)

울적한 기분을 이런 생각으로 돌리려는데 태민의 굵진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매번 문을 닫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조금 삐써 열어놓은 새짬으로 그가 하는 말을 어렵지 않게 알아들을수 있었다. 옥영사모님과 하는 말 같았다.

《응… 그래. 그 사람 말이야. 엔트로우… 그를 청하라구. … 뭐 꼭 명절만이야 되는가. 내가 그를 만난지도 반년은 더 되는것 같애. 그래. … 리유는 적당히 붙이라구. …》

정창호는 엔트로우라는 이름을 한두번 들은적이 있는것 같았으나 떠오르지 않았다.

(엔트로우라?!… 이름도 별나구나.)

정창호는 주섬주섬 책상우의 문건들을 정리했다.

2

시가를 벗어난 차는 밋밋한 등성이들이 물결쳐간 연갈색들판을 꿰질러 달렸다.

성민은 주린듯 공기를 들이마셨다.

아, 삶이란 얼마나 좋은것이냐. 순간이나마 모든것을 잊고싶었다.
영등포→ 4km. 얼핏 스쳐지나는 리정표를 본 순간 성민은 목이 울컥 메여올랐다.
11년전 성민은 이 어데선가 밥을 지어먹었다. 전선사령부로 찾아가는 협주단군인들과 함께 노래도 불렀고 서울에서 혹시 만날듯싶은 태민이며 옥영이를 그려보며 끝없는 즐거움에 취했었다.
《전번에 갔던 치들은 굉장한 대접을 받았대여. 칠면조구이랑, 거기에 양주까지 받쳐.》
기생방이야기로 분주스럽던 장교들의 화제가 바뀌여졌다.
《건 임자 회를 동하게 하자는 수작이여.》
《안, 정말이래. 세종로계집대감 있잖아. 그치 영어 오케이에 써비스왕초라 살살 구슬려 한상 차리게 했다는거야.》
《그럼 이번엔 임자가 한번 솜씨를 보여봐.》
차가 미군전용표식의 석비레길로 들어서자 뻐꾸기소리같은 입담들도 끊어졌다. 잠시후 차는 고압전류표식과 해골바가지표식이 붙은 철조망앞의 정문보초소앞에서 멈춰섰다. 구내의 건물들은 죄다 보관용집함 비슷한 철재건물이였고 그 부지를 감싸고 돌아간 철조망밑으로는 말같은 군견들이 어슬렁거렸다.
미군보초의 검열을 마친 차가 한 철재건물앞에 이르자 2명의 사복쟁이가 마중하였다. 암팡진 몸매에 오지독같은 얼굴의 사복쟁이는 《트기》(백인과 흑인의 혼혈) 같았고 기름한 얼굴이 유난스레 창백한 사복쟁이는 전형적인 유럽형의 늘씬한 사나이였다. 한데 이 유럽형앞에서는 《국군》장교들은 물론 오지독도 설설 기는 태도였는데 이상스럽게도 성민을 여겨볼 때의 그자의 눈에서는 이름못할 호기심과 미묘한 웃음이 스쳐지나갔다.
세발 달린 사진기앞에서 사진을 찍히고 강제리발을 당한 후 옷을 갈아입었다. 한쪽아래기장이 절반이나 잘라져나간 퍼릿한 미군작업복이였다. 머리 한쪽이 이상스러워 매만져보니 머리 역시 한쪽만 깎여있었다. 이에 대해 리발기계를 쥔 카츄사병에게 한마디 내쏘자 그는 벙어리시늉으로 싱글싱글 웃고 유럽형도 역시 싱그레 웃었는데 뭘 그러느냐 하는 식으로 고개를 저어보이고는 나가버렸다.
그다음 끌려간 곳은 두사람이 있기에는 좀 작고 한사람이 갇혀있기

에는 좀 넓어보이는 방이였다. 복도와 접한 벽에 철문이 있고 철문 복판에 여닫기식감시구가 있는데 세면 벽은 콩크리트벽이고 바깥벽으로 짐작되는 쪽은 철판이였다.

오지독이 지켜보는 속에 이곳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들었다. 주의사항이란 죄인으로서 지켜야 할 준칙이였다.

《이곳 질서를 잘 지키면 담배도 주고 산보도 시키오.》

이 말을 할 때 철문쪽벽에 붙어있는 일과표를 가리켜보였다. 조선어와 영어로 된 일과표였다.

오지독과 카츄사병이 물러간 뒤 성민은 그 일과표의 산보시간을 다시 확인해보았다. 자기로도 무슨 기운으로 일어섰는지 몰랐다.

인왕산머리의 아침해를 보고 시원스런 바깥공기를 마신 때부터 생겨난 변화라고 생각했다.

무서웠다. 삶에 대한 애착에 지고마는것이 아닌가.

벽들은 철판벽까지 죄다 흰 뼁끼칠로 되여있는데 벽의 아래단들만은 퍼런 뼁끼칠로 매닥질되여있었다. 수인의 정신력과 신경을 쇠멸시키는데는 흰색이 좋은것이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푸른색을 칠하였겠는가. 희망, 마음의 안정?…

물끄러미 벽을 더듬어보던 그는 흠칫하며 무릎걸음을 했다. 벽의 아래단에 패인 홈자리들을 쓸어보고 만져보고 하다가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질렀다.

—… 공화국 만세! ×8년 9월 ×일—

—나는 영수, 변× 안했다—

한곳에는 공화국기발표식까지 새겨있었다. 이전 거주자들의 웨침과 호흡이 생생히 미쳐오는 발견이였다.

그런데 그들은 어데로 갔는가.

점심밥을 날라온 카츄사병은 묵상하는 자세로 앉아있는 성민을 자못 측은하게 바라보았다.

《여기가 어데요?》 열에 뜬듯 한 눈길로 쏴보는 성민의 돌연적인 물음에 카츄사병은 그러면 그렇겠지 하는 식으로 비죽이 웃었다.

《좋은뎁지요.》 들고온 목꽉밥과 국그릇을 가리켜보였다. 뿌잇한 국물우에는 칠면조대가리의 주둥이가 삐죽이 솟구쳐있었다.

유혹이건 굴욕이건 먹기로 마음먹었다. 부실부실한 안남미밥을 수지국그릇에 털어놓고 통채로 목구멍에 들이부을 때 칠면조대가리가 걸려들었다.

뽑아보니 희멀끔한 눈과 반드르르한 털들이 착 달라붙어있었다. 왈칵 구역질이 일었다.

《그게 몸에 좋습지요. 여러가지 광물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니… 헤헤…》

카츄사병이 떠나간 다음 성민은 그 칠면조주둥이의 도움으로 틈자리의 뻬끼를 긁어내는 고고학작업을 계속하려 했으나 할수 없었다. 밥을 날라왔던 카츄사병과 일본씨름군같은 체격의 미군군조가 나타나 그를 일궈세웠다.

검회색창가림이 드리운 방에서 오지독과 조선인통역이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감상이 어떻습니까?》

오지독은 자못 친절을 보이며 (조선인통역이 그의 말을 옮겨주었다.) 의자까지 권해주었다. 그의 책상에는 원반형테프가 감겨있는 록음기와 영문으로 된 타자문철이 놓여있었다.

《여기는 어데요?》

성민이 스스럼없이 의자에 앉으며 묻자 오지독의 입술이 단번에 이지러졌다. 툭 불거져나온 눈으로 한동안 성민을 노려보다가 책상우의 타자문철을 집어들었다.

《이게 뭔지 알겠소?》

《여기는 어데요?》

성민이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자 오지독은 쓰겁게 웃었다.

《그럼 먼저 당신의 호기심부터 만족시켜주려고 하오. 여긴 미군부대의 정보기관으로서 명칭은 502부대라고 하오. 우리의 사명을 말한다면 한미간에 체결된 방위협정에 따라 적측의 온갖 적대행위, 적화남침행동의 모든 요소를 종합하고 연구하는것이라고 할수 있소.》

오지독은 멋적게 어깨를 으쓱이고는 록음기시동단추를 눌렀다.

《이름은?》

거의나 무표정한 태도로 물었다.

출생지, 학교, 군대복무, 신문사… 진술서에 썼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심문이였다.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와 목적까지 듣고나자 오지독은 커피를 권했다.

《당신의 말은 솔직한듯 하면서도 빈구석이 많소.》

《어떤것이 빈구석이라는거요?》

《파견목적이 석연치 않거던… 당신은 로동당원인데 계급적원쑤인 형님을 만나러 왔다는것이 말이 되오? 원쑤에게는 무자비하라! 이것이 당신네의 원칙이 아니요?… 이렇게 볼 때 당신은 원쑤인 형님을 처단하는것이 옳을것이요.》

《당신은 거짓말을 요구하오?》

《노―》

오지독은 책상을 쳤다.

《월!》

차겁고 메마른 목소리가 울렸다. 성민이 돌아보니 언제 들어왔는지 유럽형이라고 본 창백한 얼굴이 뒤에 와 서있었다.

《왜 싸우오?》

그의 입에서는 조선말이 튀여나왔다. 오지독이 뭔가 설명하자 그는 매서운 눈길로 성민을 쏴보았다.

《당신은 여기가 어떤덴지 알고있소?》

《들었소, 거짓을 강요하는 곳이라는것으로.》

《거짓이라?―》

그자는 싱그레 웃으며 벽가의 철함에서 신문지절반만 한 크기의 사진 두장을 꺼내들었다.

《여기선… 솔직한 대답을 하기 전에는 나가지 못합니다. 보시오.》

보았다.

철조망으로 달려가는 한 사나이에게 3마리의 개들이 덤벼들어 어깨와 다리를 물어뜯는 사진이였다.

《그건… 솔직한 대답을 기피하여 도주하던자의 마지막모습입니다. 우리로서는 바라지 않는 일이였지만… 불행하게 되였습니다.》

또 한장의 사진 역시 죽음의 장면이였다. 자동차에 치웠는지 땅크에 깔렸는지 땅바닥에 쓰러진 사나이의 한쪽다리는 물크러져있는데 마지막순간의 고통이 그대로 찍혀진 얼굴에서 불붙는듯 한 눈과 이마의

흉터가 가슴을 찔렀다.
《이건 솔직한 대답을 한것이 괴로와 자살을 시도한 남한빨찌산출신의 사진입니다. 우리 차가 지나갈 때 용감하게 뛰여들었지요. 기실 이 사람은 영웅적사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지도 강하고 용기도 있고… 그러나 제아무리 의지강한 사람도 우리앞에선 솔직한 대답을 하지 않을수 없었지요.》
그는 아무런 흥심도 감정도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는 벽가에 놓인 대형무전기 비슷한 기구앞으로 다가갔다. 그가 한개의 스위치를 틀자 거밋한 유리판이 은백색으로 밝아졌다.
《이게 뭔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럴테지요. 이건 거짓말탐지기라고 하는데 뇌수신경에 일정한 자극을 주어 대방의 속생각과 비밀까지 죄다 말하게 하는 기구지요. 이런 기구가 있다는걸 들어봤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유감이군요. 사실 이건 별로 자랑할만 한것은 못되지만 당신은 대학출신이니 어느정도 가늠이 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내가 당신에게 도적질을 한적이 있는가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솔직히 말할수도 있고 감추려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선 우리로서도 가부를 판단하기 어렵지요. 하지만 저 기구는 아주 정확히 식별해내지요. 식별해낼뿐만아니라 당신이 아이적부터 한 도적질을… 실례합니다. 당신은 도적질과는 인연이 없으리라는걸 알고있습니다. 죄다 말하게 되지요. 그땐 당신의 자제력이나 의지는 령으로 됩니다. 내 말이 믿어집니까.》
《당해봐야 알테지요.》
《당해본다? 옳습니다. 여기 왔던 대부분 사람들은 다 당신과 같았습니다, 결국… 그때문에 이처럼 되였습니다만.》 자리에 와앉은 그자는 땅에 쓰러져있는 사람의 사진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한국헌병대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 무척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릴수 있는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법앞에 당신을 변호할만 한 주패장을 얻지 못했거던요.》
《나에게 무슨 죄가 있어 방도요, 뭐요 말하는것입니까?》

《아, 친척이 친척을 만나러 왔다? 그때문이겠지요. 물론 국제법상으로는 위법이라고 할순 없습니다. 그까짓 정전체약국으로서의 위법은 빼놓읍시다. 하지만 당신은 이 진술서에서까지 반미적화선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실을 말하는것이…》

《아아, 법과 개인의 진실이 매양 합의를 볼수야 없는것이 아닙니까.

나는 우리들의 사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당신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것입니다. 현재는 당신의 이 진술서 하나만으로도 극형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환경의 이 땅에서… 그런걸 용인하고 리해할만 한 아량은 있다고 봐야겠지요. 더우기 당신의 반미와 적화선전은 말그대로 선전미수로 끝난셈이니 현행범죄는 아니거던요. 이런 측면에서는 지장군에게 감사를 드려야 할것입니다.》

《당신은 미군장교가 옳습니까? 자기를 고발한 사람을 고맙게 생각하라.》

《당신과는 말할 재미가 있군요. 옳습니다, 미국인은 복수심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 복수는 실용에 따르는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지장군의 고발은 당신을 위한 덕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지장군의 고발이 없어 일정한 기간 자기의 목적실현을 위해 이러저러한 행위를 했다면 우리는 당신을 도울 방도를 찾을수 없을것입니다.》

《그럼 나를 어떻게 도울수 있다는것입니까?》

성민에게는 여유가 필요했다.

이자들은 무엇을 노리는가, 앞으로 무엇이 닥쳐올것인가.

《그에 앞서 몇가지 더 말할것이 있습니다.》

그자는 담배를 꺼내물었다. 큰 고기가 물렸다고 확신했을 때 요령있게 다음동작을 생각는 로련한 낚시군의 표정이였다.

《우린 당신의 진술서가 비교적 솔직한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문제에서 의혹이 있습니다.

지장군을 만나려는것은 민족과 통일을 위한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친척지간의 재회를 마련하자는것이였다, 명분상 나무랄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만이 목적이겠는가. 그밖에 옛 친지들을 만나려는것도 있지만 우리로선 지장군에 대한 의혹이 큽니다. 그는 비록 당신을 고

발했고 빨리 처형할것을 바란다지만… 그것이 진심이겠는가. 이것도 물론 당신이 밝힐 문제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은 권밖에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것은—》 그자는 불을 붙이다가 꺼버린 담배대를 만지작거리며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이 알고있는 당, 국가, 군사비밀입니다. 어떤것을 얼마만큼 우리에게 제공하는가, 이에 따라 당신의 운명이 결정될것입니다. 알만 합니까?》

《당신은 군인이라고 했지요?》

성민의 물음에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군인입니다, 미룩군중좌 엔트로우. 이름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대답해보시오.》

《좀더 생각해볼 여유를 줄수 없겠습니까?》

《그럽시다.》 록음기 회전단추를 눌렀던 엔트로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듯 선선히 응낙했다. 하지만 윌이라고 불리운 오지독은 여전히 개상판이였다.

다음날 아침 성민은 산보를 요구했다. 움직일수 없는 몸으로 어떻게 산보를 하느냐고 했으나 성민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놀랍게도 엔트로우가 그의 방에까지 찾아왔다. 무엇때문에 산보를 하려는가 하는데 대해 20여일 넘게 해빛도 바람도 못 쐬였다고 하자 엔트로우는 선선히 허락해주었다.

성민은 지난밤 통방신호를 받았다. 인적기 하나 없던 옆방에서 신호가 울려왔던것이다. 처음에는 작게 그다음에는 크게… 급급히 응답했으나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성민은 군대때 배운 모르스부호로 타전했으나 상대방은 전혀 해득할길 없는 단절음만 보내왔던것이다.

성민은 날이 푸름히 밝자 위생지로 공급된 종이에 자기의 이름과 소속을 썼다. 쓰는데는 칠면조주둥이의 도움을 받았다. 어깨박죽의 상처자리를 터쳐 그 피를 묻혀 썼던것이다.

그 종이를 신발안에 넣고나니 만시름이 다 풀려나가는듯 했다.

산보시간이 되자 밥을 날라주던 담당카츄사병과 물감자처럼 몸이 좋

은 카츄사병이 나타나 그를 부축해 일떠세웠다. 밖에 나서자 현기증이 일며 눈앞이 횡 돌아갔다.

《허, 호사를 하는구만.》

뜻밖의 소리에 고개를 쳐드니 줄느런히 늘어선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고있었다. 차림도 머리깎음새도 하나같이 성민이와 같은 그들의 얼굴은 삶은 빨래처럼 희였다.

말같은 군견을 끌고 서있는 미군군조 하나가 뭐라고 소리치자 그들은 이렇다 할 반응도 적의도 없이 마당둘레로 천천히 걸었다. 깊은 묵상에 잠긴듯 하고 살아갈 날의 길이를 재이는듯 땅바닥만 짓숙히 걷는 그들에게서는 일푼의 반가움과 따스함도 찾아볼수 없었다. 그중에서 전날밤의 통방자를 찾아보려 했으나 얼결에 자기를 보는 눈길들에서는 의혹어린 방심과 쌀쌀한 랭기만이 느껴졌다.

(괜히 나왔구나.)

그때야 성민은 2명의 카츄사병이 자기를 부축하고있다는것과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다는것을 생각하게 되였다.

(호사라고?!…)

멀리 철조망우로 뻗쳐간 전기줄에는 몇마리의 새들이 앉아있었고 봄날특유의 희푸르스름한 하늘에는 묵은 솜같은 누릿한 구름이 떠돌았다.

(그래도…)

마지막희망과 기대로 땅바닥에 우리 글과 한문자로 이름을 썼다. 담당이 뭐냐고 묻고는 투박한 구두발로 지워버렸다.

《허, 병장씨는 록크춤을 잘 추시네.》

평북도억양의 목소리에 고개를 쳐드니 거쿨진 체격의 《푸른 작업복》이 벌씬벌씬 웃고있었다.

담당이 그에게 또 전기찜질을 당해야겠느냐고 을렀다멨다.

《그래보지. 치료 좋더군.》 평북도억양은 카츄사병에게 눈까지 찡긋해보이며 성민을 턱짓해보였다.

《나와 동향인가?》

《그런건 안 묻게 되지 않았어.》

《뭘 그래, 호사하는 량반 부러워그래. 대학가 선생님이신가?》

《아니, 난 평양사람이요. 지성민이라고 합니다.》

성민의 말에 평북도억양은 네모진 턱을 쳐들고 껄껄 웃었다.

《병아리도 평양이 좋다고 피양, 피양해.》
《빨리 꺼져.》 담당이 그한테 꽥 소리치자 물감자가 물었다.
《저자 정신 왔다갔다 끝났나?》
《여전해.》
성민은 맥이 풀렸다. 한껏 기대를 걸고 이름자까지 알려준 사람이 온전한 정신이 못되는 사람이라는것으로 실망이 왔던것이다.
그때 호각소리가 울렸다.
20여명의 서렬이 질서있게 돌아섰다. 그러자 성민을 지켜섰던 담당도 그만 들어가자고 했다.
《조금만 봐주구려.》
성민은 신발안의 종이장을 생각했다. 넘겨줄 대상도 방법도 찾지 못했으나 여기에 모든것이 달려있는듯싶어 마주오는 사람들을 애모쁘게 바라보았다.
《이보게, 손 한번 잡아보자구.》 쫓겨들어간가싶던 평북도억양이 불쑥 나타나더니 성민의 어깨를 쳤다.
《이 짜식이.》 담당의 손이 번개같이 그의 뺨으로 날아갔다.
《여보, 정신 돈 사람 왜 치는가?》
수인대렬의 맨앞에서 걸어오던 사람이 호령을 쳤다. 쇠불이같은 눈에서 불꽃이 번쩍였다. 나이는 서른일여덟, 날렵한 몸매에 강파롭게 생긴 얼굴이였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때문인지 담당은 움질린 기색이였다.
《망종을 부려서.》
《그래도 그렇지. 언제 왔습니까?》
군인식표준어, 예리한 눈길은 대렬검열을 할 때의 중대장, 대대장들을 련상시켰다.
(이 사람이 아닐가.)
《어저께 왔습니다.》
《난 오영기라고 합니다.》
《지성민이라고 불러주시오. 평양사람이요.》
더 말을 할수 없었다.
《평양에서?!》
《정말 평양사람이요?》
《고향은 어데요?》

《언제 왔소?》

저마끔 성민에게 몰려들었다.

이제껏 삶의 빛이 꺼졌는가싶게 어둡고 침침하던 얼굴들에 밝은 미소와 활기가 풍겼다.

(동지들!)

성민은 목구멍이 꽉 잠겨 아무 말도 못했다.

눈물이 망막을 가리웠다.

《이거 초면인사 안됐습니다. 여기선 언제나 반대를 겁내거던요. 반대! 반대라는 뜻과 범위를 잘 모르는 어른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군과 카츄사병들이 성민이와 그들을 갈라놓자 오영기가 눈을 끔뻑이며 이 말을 했다.

성민은 또 한번 가슴이 울컥해졌다. 그런데 오영기를 뒤따르는 사람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컴컴한 눈확의 침울한 눈길도 눈길이거니와 겨드랑이에 끼고있는 쌍지팽이를 보게 되자 전날 본 사진이 떠올라 소스라치게 되였다.

(그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성민이와 시선이 맞부딪쳤을 때도 침울한 눈빛은 변함없었고 지어 적의가까운 사나운 눈길이였다.

이로 하여 방에 들어와서도 마음을 다잡을수 없었다. 오영기며 여러 수인들과의 상면은 분명 기쁨이고 힘이였으나 고문때문에 머리가 잘못된듯싶은 평북도억양의 모습으로부터 쌍지팽이까지 상기하게 되자 앞으로의 나날들이 몸서리쳐졌다.

(과연 지켜낼수 있겠는가?)

제일 무서운것은 이것이였다.

3

《이젠 대답이 준비되였습니까?》

엔트로우는 전날보다 더 상냥한 태도로 물었다.

《어떤걸 알자는겁니까?》

성민은 그의 중을 떠보고싶었다.
엔트로우의 얼굴에 알릴듯말듯 그늘이 스쳐지났다.
《말하지 않았던가요. 좋기는 이북의 대미, 대남전략과 전술, 당, 국가정책으로부터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전반실상과 자료들, 여기서는 한계를 긋지 않겠습니다. 기억되는껏 다 말하시오.》
성민은 지난밤에 준비한 대답을 되새겨보며 허심하게 말했다.
《나는 당원이고 예비역중좌요. 하니만치 당, 국가, 군사비밀을 말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지요.》
이 말에 엔트로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유리알같은 눈길로 성민을 보았다.
《당신은 저 기구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들개처럼 쏴줄걸 바라는것이 아닙니까?》
《그걸 바랄 사람이 어데 있겠소.》
《그럼 솔직히 말해보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엔트로우의 눈에는 가시같은 빛이 뿜겼고 얇은 입술을 감빨았다.
《그럼 말합시다.》
성민은 크게 숨을 들이긋고 말했다.
《당신들한테 있을수 있다고 보는데 올해의 조선중앙방송자료를 종합해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만족이겠지요.》
《야!》
조선인통역이 벌떡 일어나며 꽥 소리를 질렀다.
엔트로우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시켰다.
《그이상 더 말할것이 없습니까?》
《당신의 례절을 생각해서 한가지만 더 말하지요.》
성민은 이자들앞에서 마지막대답으로 그리고 심문의 종결로 끝날 말을 생각했다.
《나는 우리 당의 대미전략이라고 할가, 정책상문제를 알리자고 합니다.》
그는 엔트로우의 눈이 깜빡이는것을 보며 말을 이었다.
《그것은 당신들이 하루빨리 제집으로 돌아가라는것과 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이라는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가야만 이 땅

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기때문입니다.》

《당신은 계속 이런 식 설교를 하겠습니까?》

엔트로우는 애써 침착한 자세를 보이는데 윌은 그와 성민을 표독스럽게 보다가 훌쩍 일어나 밖으로 사라졌다.

《나한테도 인내력은 제한되여있습니다.》

《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민의 싸늘한 대답에 엔트로우는 낯이 파랗게 질리며 까딱않고 마주 쏴보았다.

이때 문이 벌컥 열리며 윌과 함께 노릿한 털이 얼굴 한가득 덮인 번대머리가 들어섰다.

흉맹한 독수리의 상이였다. 맵짜고 예리한 눈길이 성민에게 멎었다. 엔트로우는 윌을 차겁게 스쳐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번대는 말없이 벽가의 걸상에 앉았다. 윌은 깨고소한 눈길로 엔트로우를 일별하고 성민을 쏴보았다.

《계속할가요?》

성민은 엔트로우에게 물었다.

《하시오.》

신경질적인 답변이였다.

성민은 번대머리의 흉맹한 눈길을 즐기듯 보며 입을 열었다.

《내가 당신들과의 투쟁에 대해서 말했지요. 남의 집에 와서 삿대질을 하고 불까지 지르는 강도는 우리에게 적입니다. 이로부터 우리에겐 반미가 우선시되는것이고 그에 따른 반미로선이 나온것입니다.》

《까뗌!》

번대머리의 노성이 방안을 들었다놓았다. 뒤이어 2명의 카츄사병이 달려들어왔다.

다음날 성민은 거짓말탐지기에 비끄러매웠다.

엔트로우는 보이지 않고 번대머리의 지휘밑에 윌과 미군군조가 성민이에게 달라붙었다. 빤쯔 하나만을 남기고 옷을 벗긴 다음 문어다리의 흡반같은것을 가슴팍과 팔다리에 붙였다.

성민은 언젠가 해보았던 심전도검사를 생각하며 마음을 평온하게 하려고 했다. 지난밤 오영기와의 통방에서 (성민은 그가 말한 《반대》

를 생각던끝에 모르스부호를 반대로 쳤는데 그것이 성공하였다.)
이 거짓말탐지기에 대하여서도 어느정도 알게 되였다.

질문에는 계속 응답하라, 침묵을 지키면 심한 전기적자극이 온다, 의식이 흐려질 때면 오직 한가지 생각만을 하면서 그 생각만을 말하라, 명심할것은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 묻는대로 대답할수 있는데 이 때를 조심하라. 영기의 말을 요약하면 이것이 전부였다.

붕— 전기투입소리가 요란했다.

탐지기의 거밋한 형광판이 회백색으로 변하더니 푸릿한 흰선들이 나타났다.

번대머리가 질문했다. 전날에 하던 윌의 질문을 되풀이하는것이였다. 푸릿한 선들이 뛈박질을 할 때마다 가벼운 전기적자극이 왔다.

《비교적 솔직하다고 보오.》

번대머리는 뜻밖의 말을 하며 싸늘히 웃었다.

《그런데 당신은 처음부터 이 모든 말을 준비했고 또 지금도 이런 저런 타산을 하며 말하지요?》

《그렇소.》

《그럼 누가 당신에게 이런 준비를 시켰소?》

오영기가 떠올랐다.

《그런 사람은 없소.》

순간 형광판의 푸릿한 선이 파곡선을 이룸과 함께 온몸이 훌쩍 뛰였다. 저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나왔다.

《보시오.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있소.》

번대머리는 의미있게 윌과 눈길을 마주치고는 계속해 물었다.

《당신은 이곳에 와서 내란을 꾀하려 했지요?》

《아니요.》

《당신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가.》

《그건 사실이요.》

《그렇다면 로동당원으로서 응당 투쟁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소. 나는 죽더라도 당신들을 쫓아보낼 결심이요.》

아픔이 덜어졌다.

놀랍게도 번대머리는 흡족한 기색이였다. 여유작작한 태도로 물었다.

《당신은 왜 지장군을 공작대상으로 삼았소?》
《친척이니 친척으로 온것이요.》
《왜 공작대상으로 삼았는가?》
《친척이니—》
《지장군이 북에 간것은 무슨 목적이였소?》
《집이 그곳이요.》
《거기선 체포하지 않았는가?》
《체포가 아니라 친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소.》
아픔이 더 심해졌다. 번대머리의 눈알은 바다속 물고기눈처럼 보였다.
《그렇다면 일본군장교로서 응당 처형되여야 하지 않는가.》
《처형받을 행위가 없다는것이 확인되였소.》
《지장군은 북에서 무슨 과업을 받았는가?》
《없소.》
《지금 북조선의 강철생산량은 얼마인가?》
성민은 공포를 느꼈다. 놀랍게도 그 세부적수자들까지 명료히 떠올랐기때문이였다.
붕— 하는 전류소리가 높아지며 전기고문때보다 더한 아픔이 미쳐왔다. 온몸과 뇌수가 파렬되는듯 했다.
성민은 이 아픔이 탐지기의 자체동작때문에가 아니라 번대의 손짓에 따라 고문기구로 변한것까지는 알수 없었다.
무수한 불꽃같은것이 서물거리다가 사라졌다.
의식을 잃었던것이다.
처음에는 천정이 그다음엔 불깃한 전등이 눈에 안겨들었다. 번대는 보이지 않고 윌과 조선인통역만이 있었다.
(이겨냈구나.)
성민은 기뻤다. 하지만 벽가의 시계를 보게 되자 흠칫 놀라게 되였다. 시침은 4시를 가리키고있었다. 탐지기에 비끄러매인 때는 10시 아니면 11시경이였을것이다. 그러니 그동안은 내내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자기가 뭔가 헛소리라도 개가 될 말을 할수 있었다는 생각이 번개치듯 했다.
다행히 윌과 통역의 기색을 봐서는 별일없은것 같았다. 다들 삶은

시라지꼴이였다.

《여기에 이름을 쓰오.》

성민이 깨여난것을 본 통역이 한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종이장에는 영문과 조선문으로 된 글이 적혀있었다.

— 본인에 대한 심문에서는 어떠한 물리적폭력과 협박, 공갈, 강제가 없었음을 확인함—

이날부터 계속된 심문은 넉달을 끌었다.

4

《마지막으로 담배나 나눠피우고 헤여집시다.》 월은 문쪽을 보며 담배갑을 내밀었다.

성민은 담배는 피우지 않았으나 받아들었다.

그동안 월도 퍼그나 수척해졌다. 성민이 거짓말탐지기에 비끄러매웠다가 풀려날 때마다 땀투성이가 된것처럼 월도 매번 땀투성이가 되여 헐떡이군 했다.

《이제 당신은 남조선군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것은 우리로서 당신에 대한 좋은 의견을 한마디도 할수 없다는것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그런 말이 더 필요합니까?》

성민은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그동안 어떠한 위협과 꾀임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살았으며 정신병자도 자살미수자도 되지 않은것이야말로 승리라고 해야 할것이였다. 사는가 마는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한동안 서로의 얼굴색을 살피며 무료히 담배를 피울 때 엔트로우가 들어섰다.

월은 기다린듯 했다. 하지만 재빨리 일어서는 그의 눈에서는 심술궂은 적의가 엿보였다.

《오래간만입니다.》

엔트로우는 날카롭게 성민을 스쳐보고는 자리에 앉았다. 흥분이란

전혀 모를것 같던 창백한 얼굴에 알릴락말락한 홍조가 비껴있고 눈빛은 어두웠다. 윌과 시선이 맞부딪쳤을 때는 눈빛이 표독스러워졌다.

엔트로우는 번대머리가 나타났던 뒤부터는 심문장에 거의나 나타나지 않았다. 이따금 들어와서는 랭철한 방관자의 자세로 지켜봤을뿐이다.

그런 속에서 성민은 번대와 윌이 엔트로우와는 관계가 좋지 않음을 알았다.

《난 당신을 위해 오늘 하루를 얻어냈습니다.》

엔트로우는 무엇때문인지 윌과 통역을 밖으로 내보냈다.

쌍지팽이— 진영팔이라는 사람도 이자의 오그랑수에 걸려들어 뭔가 털어놓았고 그 수치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고 했다.

성민은 잔뜩 긴장되였다.

《그 말은 어떻게 리해해야 합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것은 없습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한것이지요.》

《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과 나와는 차이가 있지요.》

엔트로우는 얼핏 시계를 보고는 고개를 들었다.

《당신의 외삼촌은 일정때 반일투사로서 려순감옥에 갇혔지요.》

《네, 거기서 사망되였습니다.》

《좋은 유전입니다. 당신은 투사로 죽게 됩니다.》

《유전학전공입니까?》

《아니, 난 종교철학연구가 전공이였습니다. 교파로 말하면 감리교계통이고.》

《그래서 나에 대해 왼심을 씁니까?》

말을 비틀어보았다.

《정 아니라곤 할수 없겠지요. 먼저 묻고싶은것은 당신은 원래부터 미국과 미국인들에 대해 그렇게 나삐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정확히 말한다면 45년 9월부터지요. 미국이야 드라이저, 마크 트웬을 낳은 나라가 아닙니까.》

《혹시 당신은—》 엔트로우의 미간에 주름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한 미국선교사가 일제강점하에 신음하는 이 나라 인민들을 생각

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런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식민지 재분할의 척후병으로 온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지요.》
《그렇다 합시다. 그 척후병중엔 나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랬댔구나.)
성민은 마음을 가다듬으며 곧추 그를 쏴보았다. 엔트로우는 여전히 제 생각에만 옴한 기색으로 말을 이었다.
《나로서는 물론 아버지가 어떻게 왔고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신앙과 량심에 충실했다는것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한데 이런 이야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하지요. 나로서는 당신의 오해를 풀자는것이고… 사실 나는 10대 소년시절부터 이 나라와 이 나라 인민에 대해 무척 가까운 감정을 품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내에서 이 나라를 아는 사람은 얼마 없었습니다. 안다 해도 아프리카의 어느 한 준민족 비슷한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만은 고맙게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이 나라 사람들이 매우 슬기롭고 영민한 민족이라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내가 여기에 온것은 바로 그때문인것이고—》
《그러니 자원해왔다 그 말이군요.》
《옳습니다.》
《그럼 여기 온 목적은 무엇이였습니까. 우선 국익을 위해서라고 해야겠지요, 강점군의 척후로서. 그 척후가 오늘은 형리로 변했고…》
《너무한데요.》
《너무하다— 그래 당신이 와서 한짓이 무엇입니까. 졸개를 얻기 위해 집을 얻어주고 국익을 위해 통일인사들과 애국자들을 고문하고 학살하고…》
《당신은 내가 고문하는것을 봤습니까?》
《그러니 매는 안 들었다 그 말이군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하는짓은 고문이 아닙니까. 당신이 이걸 모른다면 천하의 백치거나 사기군입니다.》
《어떻게 이 담화가 고문으로 됩니까?》
엔트로우의 볼살이 가늘게 떨렸다. 성민은 통쾌했다.

《그래 피심자를 놓고 희롱하는것이 고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고문중에도 제일 심한 고문은 인간을 놓고 거짓을 꾸미며 유희를 하는것입니다.》

《유희라?!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하나 물읍시다. 려운형선생은 누가 죽였소. 내 알기에 당신은 려운형선생과 무척 가까웠다고 하던데. 물론 그를 쏜 당사자가 당신은 아닐테지요. 하지만 그분은 바로 당신들때문에 죽은것이 아닙니까. 그래 이것도 부인하겠소? 또 하나, 전쟁때 당신은 무엇을 했소?》

《전쟁때 나는 보통문관이였소. 그리고 려운형선생에 대해 말한다면 나나 많은 우리 사람들이 애석함과 비분을 금치 못했다는 그것이요. 전쟁도 마찬가지요. 당신은 그 전쟁을 놓고 나와 미국전체를 저주하는것 같은데 전쟁은 맥아더장군이나 트루맨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요.》

《허허, 당신은 천국으로 갈 준비를 다 갖췄군. 편안히 영면할수 있겠소ㅡ》

엔트로우의 볼살이 또 한번 경련하듯 떨렸다. 하지만 놀랍게도 웃음을 보였다. 살기도 증오도 없는, 안개발같이 희미하고 멋적은 웃음을.

시계를 보고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난 당신앞에서 자기 직무를 배반하고있소, 당신을 살리기 위해.

이건 당신의 형님과 옥영부인앞에서 한 약속을 리행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나의 권한이란 극히 제한된것이요. 때문에 여기서는 당신의 노력과 방조가 필요되오.》

《고맙긴 하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것을 잘 알고있지 않소.》

《지금은 그럴 때가 못되오. 이런 면에서 난 당신이 보다 깊이 숙고할것을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당신은 이전의 진술서 말고도 이곳에 와서 한 몇가지 말만으로도 총살형이요.

지조와 신념에는 관계치 않겠소. 그러되 이 나라 법에 응하겠다는 대답쯤은 해야 되오.》

《그러니 당신은 나에게… 외적으로라도 변절하라 그 소리겠구만.》

《변절?!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못됩니다. 우선 살고 그다음 지장군이랑 도우면 당신은 자기의 뛰여난 지식과 언변을 훌륭히 써먹을수 있지 않겠소.

지금 이 나라의 추세는 민주화로의 지향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당신은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서 큰 몫을 할수 있지요. 실례로 사설변호사협회의 변호사로 되여 통일운동에 나선 동지들을 도와줄수 있지 않소.》

《그럼 한가지 더 물읍시다. 만약 내가 당신의 요구대로 하고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나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당신네가 주관하는 이 땅의 법은 나를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래일은 래일의 태양이 솟는다. 이건 우리 나라의 유명한 녀류작가 미첼의 말입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응해줄수 없겠소?》

《친절을 보여주어 감사하오.》

성민은 례절있게 머리를 끄덕여보였다.

엔트로우는 낯이 파랗게 질려 입술을 사려물었다.

방으로 돌아온 성민은 30분도 안되여 다시 불리워나갔다. 이번에는 심문실이 아니라 건물밖이였다. 마침 저녁산보시간이라 수인행렬이 마당둘레를 돌고있는데 물매미같이 매끈한 승용차곁에 윌과 엔트로우가 서있었다.

윌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 웃는 얼굴이였고 랭담한 기색의 엔트로우의 얼굴은 어두워있었다.

《생각해봤습니까?》

엔트로우는 이 물음을 던지고는 차에 올랐고 모든 수인들의 눈길이 성민이에게 쏠린것을 알아본 윌은 사뭇 친절한 태도로 성민의 팔굽을 잡으며 차에 오르게 했다.

성민은 《시간이 없다.》고 하던 엔트로우의 말을 상기하며 수인모두를 향해 머리숙여 절을 했다.

수인대렬은 그동안 퍼그나 줄어들었다.

여섯사람은 어데론가 실려갔고 세사람은 죽었다. 한사람은 병으로, 두사람은 자살했다. 평북도억양도 자살했다. 그는 개가 될 말을 할것같아 자살했고 또 한사람은 개가 된것이 알려지자 나무저가락으로 목을 찔러 자살했다고 했다. 오영기는 감옥으로 갔고.

한시간 채 안되여 도착한 곳은 《아리랑》이라는 간판이 걸린 단층집이였다.
미리 와있던 한 사복쟁이미군(성민은 그가 3명의 카츄사병들을 일격에 쓰러눕히던 격술선수임을 알아보았다.)의 안내밑에 들어선 방에는 큰 원탁이 놓여있고 거기에는 해삼탕으로부터 문어회며 물고기구이, 그밖의 조선료리들이 가득 차려져있었다.
《앉으십시오.》 윌의 눈짓을 받은 조선인통역이 흰 카바를 씌운 걸상에 성민이를 앉혔다.
《엔트로우씨께서 송별연을 마련하신것입니다.》
그 말에 엔트로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윌도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렇다면…》 성민은 엔트로우를 보며 말했다.
《우리 동지들도 다 청해야 인사가 아니겠소.》 어릴적의 고즈나끼와 망둥어를 생각했다. 그때의 그자들도 자기에게만은 특전을 보였다.
《먹기 싫다면 그만두지. 한데 이런 좌석은 당신만 아니라 우리와 헤여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거요.》 윌이 거드름스럽게 말했다.
조용히 문이 열리며 2명의 처녀들이 들어섰다. 요란스럽게 화장을 한데다가 신다리까지 환히 드러나는 짧은 치마차림이였다.
윌의 눈짓을 받은 한 처녀가 성민의 앞잔에 먼저 술을 부었다.
《자, 어서 듭시다.》
술잔을 쳐든 윌이 자못 친절한 태도로 말을 건넸다.
《난 먹지 않겠다고 했소.》
《할수 없군. …》
윌은 입안의 소리로 두덜거리고는 술을 들이켰다. 엔트로우는 술잔에 조금 입을 대였다가 떼고는 갓김치를 집어들었다. 한쪼각두쪼각, 윌도 지지 않을세라 갓김치에 달라붙었다. 햄쪼각을 얌전스레 씹던 조선인통역이 성민의 옆구리를 건드렸다.
《선생, 좀 드시지요.》
입술에 기름기가 번질거렸다.
성민은 위장이 비틀렸다. 배에서 울리던 꼬르륵소리가 더 커지고 눈

앞이 어질거리며 진땀이 났다. 각재와 몽둥이의 휘파람, 물고문, 전기고문… 아득한 옛적의 모래불로 달려갔다. 지지는듯 한 해볕, 가죽혁띠를 쳐든 영길, 《아프지.》, 《참으라.》…

뭉클한것이 어깨에 닿았다. 정신을 차리며 팔굽으로 그것을 뿌리치자 《아이.》하는 실낱같은 비명이 울렸다. 눈이 올롱해진 처녀가 유방대를 춰올리고있었다.

엔트로우는 못 보는척 했고 윌은 미간을 찌프렸다.

《지선생은 우자입니다. 아, 오늘같은 기회를 놓치다니요. 그래도 하루밤은 인간다운 생활을 즐길수 있었는데—》

다들 거나하게 취해 밖으로 나올 때 조선인통역은 애달픈 어조로 성민이에게 중얼거렸다. 성민은 방안 한쪽에 쌓여진 깨끗한 이불들과 자기를 그러안았던 처녀를 생각하며 쓰거운 웃음을 머금었다.

그들이 가자는데로 가니 502부대의 심문실과 신통히도 같은 방이였다. 그 방에는 번대머리가 한발 앞서 와있었다.

《식사를 안했소?》

번대는 피로한 눈길로 성민에게 묻고는 엄한 기색으로 엔트로우와 윌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성민은 그의 손에서 상아물주리가 뱅글뱅글 돌아가는것을 보며 이것이야말로 최종심문이라고 판단하였다.

《커피를 좋아한다지요.》

《네, 그닥 나쁘지 않더군요.》

심문에 림할 때의 커피는 그에게서 적잖은 방조로 되였다. 흐릿한 머리를 맑게 할수 있는 음료였기때문이였다.

《드시오.》

번대머리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윌이 은제주전자에서 커피를 부어 성민이에게 권했다.

《혼자 들기는 멋적군요.》

《아, 그럼.》

번대의 고개짓에 따라 그자의 앞에 있는 금테두리고뿌에도 커피가 부어졌다. 번대머리는 고뿌전에 조금 입술을 대였다가 떼였다.

《난 이걸 즐기지 않소.》

《하긴 커피를 많이 하면 몸엔 그닥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커피는 여느때보다 더 달았다. 사탕을 많이 넣은것 같았다.
《당신은 인격자요.》
《감사합니다.》
순간 머리가 멩해졌다. 다음 눈앞이 핑 돌아갔다.
(속았구나.)
방안이 빙 돌아가며 구역질이 일었다. 커피에 약이 들어있음을 알았다.
번대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묵묵히 지켜보다가 상아물주리로 성민의 턱을 추켜들었다. 성민은 저항을 시도했으나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다.
(아편인가.)
온몸이 천길나락속으로 떨어지는듯 하고 모두의 형체가 하나의 그림자로 가물가물해졌다. 개로 되여 자살한 사람의 유서가 떠올랐다.
《동지들, 나처럼 되지 마시오.》라고 쓴 유서였다.
붕— 하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보니 자기가 거짓말탐지기에 비끄러매인것을 알았다. 타자기건반같은것을 매만지던 번대머리가 조용히 물었다.
《머리가 맑아집니까?》
건반우에 놓인 손이 사마귀다리처럼 움직이자 진짜 머리가 맑아지고 부옇게 보이던 물체들도 원상대로 보였다.
《어떻습니까?》
《…》
《그럼 내가 하는 말을 반복하시오.》
번대는 안과의처럼 성민의 눈을 주의깊게 보다가 말했다.
《나는 조선로동당의—》 국어강독때의 발음처럼 토막토막 끊어하는 말이였다.
성민은 원반형테프의 회전만을 지켜보았다.
《왜 입을 비끄러매고있소?》
번대의 눈이 사납게 번쩍였다.
《나는 당신의 학생이 아니요.》
《그렇다?!》

번대의 말이 떨어짐과 함께 심한 쇼크가 일었다. 지금까지의 탐지기 심문때보다 더한 아픔이 왔다. 온몸과 뇌수를 불칼로 쑤시는것 같았다.

《응하겠는가, 안하겠는가?》

성민은 더 참기 어려웠다. 여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나는 조선로동당의—》

《좋소, 좋아. 그래야지.》

번대머리는 시죽이 웃고 《강독》을 계속했다.

《나는 조선로동당의 한 괴수로부터 지장군을 흡수하여 내란을 일으키라는 과업을 받고… 반복하시오.》

성민은 이 놀음의 위험에 몸서리쳤다. 의지력의 한계를 생각하며 《아니요!》라고 소리높이 웨쳤다.

《흥, 당신한텐 〈아니요〉가 전부군.》

불칼의 세기는 더 커졌다. 온몸의 신경이 요동을 쳤다. 성민은 《아니요.》를 반복했다. 의식이 마비되여도 《아니요.》의 발음만은 남아있을것이라고 생각했다.

《대단한걸.》

상아물주리에서 파아란 연기가 고불고불 피여올랐다. 그와 함께 아픔도 사라졌다. 그대신 방안의 물체들이 다시 휘돌아갔다. 의식도 사고도 죄다 마비되는듯 했다.

번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만약 당신이 지금대로 한다면 영원한 폐인이 되오. 지금의 고통을 안고 백치로 산다 이 말이요. 그럼 또 한번 기회를 주지.》

번대의 손이 다시 건반에 가닿았다.

《나는 이곳 지하조직책임자였던 오영기와 함께 미군과 카츄사병들을 때려눕힌 다음 도주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을 반성한다. 따라서 나는 오영기와 그 조직성원들을 알려주겠다.》

붕— 소리가 더 높아짐과 함께 몸이 공중 뜨는것 같았다.

《다시 말한다. 나는 지하조직책임자인 오영기와—》

말소리만은 명료히 들렸다. 흐려지는 의식과 싸웠다.

《옳다. 너희들과는 끝까지… 이겨낼것이다.》

《좋다, 그럼 이 말을 해라. 나는 남한정복과 공산체제확립을 위한 장기잠복과 그를 위한 임무를 받았는바—》

말소리는 여전히 명료했으나 사고는 마비된듯싶었다.
성민은 자기의 혀가 그의 말을 고스란히 옮겨놓는듯 한 환각이 일었다.
(힘, 힘인데—)
성민은 만신의 힘을 다하여 책상을 들이받았다.
《갓뎀!》
이것이 그가 들은 마지막소리였다.

5

이즈음 정창호는 경자에게 푹 빠져버렸다. 일은 경자의 무용교습을 돌봐달라는 옥영사모님의 부탁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창호씨는 무용에도 밝고 태권에도 능하다니 그 앨 잘 지켜주리라고 믿어요.》
지태민도 선선히 허락해주었다.
《군무에만 지장이 없으면 되지.》
골치거리의 동생이 간 뒤부터 생겨난 따뜻한 변화였다.
그 사연은 어떻든 정창호로서는 일생 처음되는 호사라 기쁘기 그지없었다. 저녁마다 지장군의 차를 타고 무용교습장에 갔고 돌아올 때 역시 그 차를 타고와서는 썰렁한 장교식당이 아니라 옥영사모님의 솜씨가 깃든 알뜰살뜰한 료리로 포식하군 했다. 그까짓 포식은 제쳐놓고라도 서울장안의 한다하는 미녀들과 향긋한 분내에 취하여 피를 끓이는것이야말로 호사중의 호사였으니 이중에도 뽑아고른 무용교사들과 날라리아가씨들마저 감탄할 정도로 룸동과 맵시에서 이목을 끌게 되는것이 더없는 쾌감이였다.
경자는 벌써 첫날에 그한테 쏠리는 처녀들의 눈길을 놓고 시샘을 했다. 《헛눈 팔지 말어요.》 그뒤에는 《야, 자》하는 호칭도 삼가하라고 하며 어른처럼 대해달라고 했다. 처음에는 재미거리로 응했다. 그런데 경자는 어데서 이 모든것을 배웠는가. 그야말로 녀왕이였다. 차붓이 가슴에 안겨 눈을 사르르 내리깔 때면 요염한 녀인의 교기로 가슴 울렁거리게 했고 빠금히 눈을 치뜨고 마주볼 때면 숨구멍까지 꽉

막힐 지경이였다.
요런 햇병아리한테… 틀지게 마음을 가다듬으려 해도 안되였다. 조금 몸이 부딪치거나 박자를 맞추지 못해 동작이 헝클어질 때면 《아이, 미안해요.》하고 살짝 얼굴을 붉히는데 이럴 때면 자기가 안고 도는 경자가 소녀라기보다 이골 튼 춤아가씨였다.
경자는 집에 와서야 그 모든 허울을 벗어버렸다. 웃고 떠들고 어리광을 부리고 《아저씨.》, 《아저씨.》하며 본래의 소녀로 돌아갔다. 이럴 때마다 창호는 헛가비한테 속히운듯 한 기분에 혀를 찼으나 이상스럽게도 그 소녀로의 환원도 일종의 유혹으로 마음을 간지럽혔다.
엄청난 공상에 몸이 달 때가 많았다. 그럴 때면 7살이나 우인데 하는 생각도 무시되였다. 오히려 그 비슷한 경우의 실례로 가능성을 기정화하였다. 달콤한 공상속에 그와 나란히 혼례식장에 들어서보기도 하고 뜨르르한 장성들과 유명인사들앞에서 《제 처입니다.》라고 소개하는, 대령은 못돼도 중령쯤 될 자기를 그려보며 개미가 지나가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군 했다. 이런 환상때의 경자는 지금의 경자이기도 하고 옥영사모님의 모습이기도 하였다.
군장성 부인들속에서 단연 손꼽히는 옥영사모님. 경자는 그 어머니마저 릉가할 미모인것이다. 이런 속에 꿈나무는 시간마다 커갔다.…
《아이, 손님이 왔네요.》
응접실창문이 환히 밝은것을 본 경자는 팔굽까지 와닿은 비단장갑을 벗어버림과 동시에 덜렁이처럼 차에서 뛰여내렸다. 정창호에게는 그것 역시 발랄한 처녀의 신선미로 느껴졌다.
마당 한구석에는 보지 못하던 승용차가 서있었다. 번호판도 알아볼수 없었다. 현관문밖으로 나온 집지기사병으로부터 미국인손님이 왔음을 알게 되였다. 경자가 환성을 올렸다.
《엔트로우, 저의 교부군요. 어서 들어가자요.》
응접실에 채 닿기 전에 문이 열리며 옥영이 서둘러 나왔다. 향긋한 고급려송연냄새와 위스키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오늘은 일찍 왔군요.》
여느때보다는 서름서름한 태도였다. 손님의 래방이 불시적이여서인지 옷차림은 평소의 집안차림 그대로였다. 미색뜨개옷우에 까만 숄을 걸친것만이 여느때와 달랐다.

《엔트로우씨가 오셨다.》
경자에게 하는 말도 례없이 뚝뚝했다.
정창호는 돌아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흰 문전거절인가요.》
경자 역시 뭔가 색다른 기미를 알아차렸는지 성난 고양이처럼 입술을 뾰조롬히 내밀며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다.
《인사는 하려무나. 주인도 계십니다.》
정창호에게 어색한 미소를 지어보일 때 귀에 선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부인, 왜 그러고있습니까, 내 딸이 온것 같은데—》
정창호는 반쯤 열려진 문안에서 지태민과 마주 앉았던 사나이가 움쭉 일어서는것을 보았다.
《들어가요.》
옥영은 향기나는 웃음을 지으며 돌아섰다.
《아저씨!—》
경자가 호들갑스러울 정도의 애교를 흘리며 뛰여들어가자 정창호도 어쩔수없이 따라섰다.
《누군가?》
경자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난 미국인이 누구에게라없이 묻자 정창호의 거수경례에 고개를 끄덕인 지태민이 《내 부관이요.》라고 말했다.
《아, 그렇습니까. 앉소, 앉으라구.》
정창호에게는 앉으라고 하는 그 말이 그만 떠나가라는 소리처럼 들렸다. 묵묵히 담배만 피우는 지태민의 풀기없는 얼굴로 하여 더욱 그러했다.
《돌아가겠습니다.》
정창호는 구두발뒤꿈치를 요란스럽게 부딪치는것으로 때맞지 않는 장소에 때맞지 않게 들어온 옹색함을 눌러버렸다.
옥영사모님이 따라나왔다.
《그냥 가면 안돼요, 식사도 하고…》
정창호는 딱하기 그지없었다. 그냥 간다면 옹졸한 소위로 되는것이고 그냥 눌러붙어 차려주는 밥을 먹는다면 자존심에 거슬리는것이다.

그때 경자가 뛰여나왔다.
《엄마, 샴페인 있다지.》
《응, 엔트로우씨가.》
《오케이. 아저씨, 가자요.》
《오늘은 그냥 갈가 하는데.》
《아니, 방금 아빠도 말했어요, 가지 말라고.》
경자의 손에 끌려 이 집 취사장이자 식당으로 쓰는 부엌방으로 들어갔다.
경자는 따라오려는 옥영을 되돌려보냈다.
《아빠, 엄마들끼리 싸우라요.》
취사장의 식탁을 보고는 또다시 뾰로통해졌다. 채 썰지 않은 꼴바싸와 쏘세지토막들이 널려있었다.
《아이참, 이게 무슨 꼴이람. 차라리 잘됐어요. 내 료리솜씨를 보이겠어요.》
경자는 가시대엷의 그물망태기에서 2병의 샴팡을 꺼내놓고는 자못 기세돋친 눈길로 취사장안을 둘러보다가 식탁을 맞들자고 했다. 응접실과 잇닿은 벽의 흰 모슬린천이 드리운 곳으로 바싹 가까이 가져다 놓았다.
《이자 아빠엄마의 싸움이란 무슨 소리야.》
자리에 앉은 정창호는 이것부터 물었다. 경자는 쌔무룩 웃었다.
《그건 절대비밀인데… 이제 알게 돼요.》
경자는 눈길이 가느스름해져 흰 모슬린천을 들어올렸다. 연두색널판이 드러났다.
《이게 뭔지 아세요? 큰 연회때 쓰군 하는 배식구예요.》
《근데…》
정창호의 머리는 재빨리 돌아갔다.
《말소리를 낮춰요. 여기선 저안의 말들을 다 엿듣게 되거던요.》
《아 아, 내려. 어른들 말 엿들으면 못쓰지.》
《호호, 아저씬 석두야. 난 연회때마다 여기 앉아서 공부를 해요. 어른들 말 다 들으며 머리에 차곡차곡 챙겨두고 욕하는것, 웃는것 다 배우지요.》
《어, 대단한데.》

《그건 그렇구요, 내 가정비밀 말할가.》

《맘대로.》

《혼자만 알아야 돼요.》

경자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창호는 또 한번 개미가 가슴으로 지나가는감을 느끼며 새끼손가락을 맞걸었다.

《저기 엔트로우씨는 아주 멋쟁이예요. 이 세상일 모르는것 없고 사모님도 멋쟁인데 여긴 한번 오고 발길을 끊었어요. 왠지 알아요? 우리 어머니때문이예요. 엔트로우씬 일찌기… 우리 엄마한테 프로포즈(구혼)했거던요.》

《프로포즈를…》

《네, 그래서 그 멋진 사모님도 다신 안 오고… 우리 아빠도 엔트로우씰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아까 교부라고 한건 그 프로포즈때문인가.》

《아니, 아네요. 그건 엔트로우씨가 나의 미국류학까지 맡겠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부르게 된거예요.》

《아, 그렇댔구만.》

《이건 절대비밀이예요. 한데 내가 이걸 아저씨한테 말하는건… 이런걸 알고 아빠한테 계몽을 시켜달라는거예요. 울아빤 다 좋은데 아직도 봉건내음이 물씬물씬해요. 샴페인을 마시세요.》

한동안 먹고 마시기만 했다. 정창호가 두번째 병을 기울일 때 첫 잔의 샴팡을 조금씩 핥아마시던 경자가 갑자기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붙였다.

《쉿.》

응접실쪽에서 두런두런 울리던 말소리가 커졌다.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지장군을 미워하면서도 막아나서는… 내 알기엔 옛날 귀국의 남이장군도 자기를 음해한 당사자가 미워 그가 비록 반역음모를 꾀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패당이라고 고발하여 함께 형장에 갔다지 않습니까.》

엔트로우의 장황한 말을 지태민의 목소리가 끊어버렸다.

《거야 당신네의 그 기곈지 약물인지 하는 덕택일테지요.》

《아니, 그 기계와 약물은 무관계한것이지요. 피심자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토설하게끔 만들어진것이니까.

그런데 그 당신의 동생은 지장군에 대한 혐의를 죄다 부정할뿐만아니라 나로서도 아슬아슬하다고 본 국면에서는 책상을 들이받으며 자결을 시도했단 말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귀가 항아리만 해 그쪽말을 엿듣던 정창호는 경자의 눈이 동실해진것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여길 떠나겠다는건 뭣때문입니까?》

《건 뭐 한두마디로 하기는 힘듭니다. 우선 지장군과 옥영부인의 부탁을 지키지 못한것이라고 해야겠지요. 사실 그 문제로 지금도 생각이 복잡합니다. 살리자면 뭔가 타당한 조건이 있어야겠는데 찾을수 없거던요. 순수 이 집을 위한다는 면에서 보면 그를 백치로 만들어 순응케 하던가. … 기밀을 제공한 밀고자로 만들어놓는건데—》

《그건 죽기보다 못한겁니다. 일단 우리 가문의 인간으로 알려진 이상 백치가 되여도 안되고 밀고군으로는 더욱 안됩니다. 죽어야지요.》

《지장군의 심정은 알만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결정된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평한 〈개심불가능〉은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를 선포하는것으로 되니까.》

《떠나겠다는 리유는 또 뭐요.》

《이젠 지쳤고 또 싫어졌다는 그것입니다.

사실 내가 이 땅에 발붙일 때는 상당한 포부와 경륜이 있었지요. 허지만 그것은 다 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대로 기대를 걸었다면 5.16혁명이지요. 나로서는 봉건과 군주제의 종말로 보게 될것이니까. … 아시겠지만 나는 링컨주의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링컨은 국토를 통일하고 신세계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신세계! 이 땅에 올 때의 꿈이 바로 이것이였지요. 그런데 허망한 환상이였습니다.

땅이 다르고 인간들이 다르고… 〈영국사람 하나면 바보고 둘이면 스포츠, 셋이면 대영제국을 이룬다〉, 반면에 〈한국사람 하나면 똑똑이고 둘이면 바둑친구, 셋이면 패권싸움을 한다〉

누가 만들었는지 비슷한 격언이 아닙니까. 이 한국땅을 보십시오. 여야싸움에 일본계요, 만주계요, 경상도요, 전라도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엔트로우씨, 물고뜯는 싸움이란 오랑캐의 발굽밑에서 생겨난 이질이요.》
《그렇다칩시다. 그런데 이 나라엔 무슨 사상과 주의가 그렇게 많습니까.》
《미국엔 그런것이 없습니까?》
《정 없다고는 할수 없지요. 그러나 정치가와 철학가들이 만들어내는 주의와 사상도 내분과 싸움으로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걸 요란스럽게 떠들던 사람들도 돈과 실용이라는 가치관에서는 일맥상통이였으니까.》
《돈과 실용에만 정착한다면 인간이 뭘루 되겠소.》
《허, 내가 지장군의 공맹지도(공자맹자의 유교지론)를 무시한것 같은데 내가 말하자는건 하나의 통일된 가치관이야말로 내분도 싸움도 끝장내는 길이라는것입니다.》
《5.16이 바로 그걸 해결하자는것이 아닙니까.》
《해결한다?!… 그렇다칩시다. 그런데 이북은… 이북의 영향을 어떻게 막습니까.
남한자체의 정신적통일도 어려운데.》
《그때문에 5.16이 있는것이 아닙니까. 현재는 우리가 너무 렬세입니다.
여기서는 나 개인의 견해이긴 합니다만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힘이면 호상 공평한 상태의 악수가 있겠느냐 하는것입니다. 수법과 힘이 동등한 적수들은 악수를 하는데… 미국은 바로 이것을 도와줘야 할것입니다. 강한 국력과 군사력으로 이북과 평형을 이루거나 압도할수 있게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 역시 동감입니다. 사실 내가 떠나게 된 동기도 이 문제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얄따회담에서 제기한 루즈벨트대통령의 신탁통치안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력사발전상에서 볼 때 조선은 한단계 뒤떨어진만큼 선진국들의 도움이 꼭 필요될것이라고… 그런데 웬걸, 이 나라가 정치분쟁의 왕국일줄이야 알았습니까. 이런데서부터 리더(지도자)가 아니라 중재자, 조정자역을 하는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지(해방직후의 남조선 미군정장관)를 탓해야 할지, 애치슨(미국무장관)을 탓해야 할지 중재자, 조정자가 될대신 씨저(케자르, 고대로마의 독재관)가 되였단 말입니다. 처음엔 이것도 필요한것이 아니겠는가 했는데 아니였지요. 싸움에 또 싸움, 끝내는 전쟁이였고 오늘도 전쟁이나 다름없는 상태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일찌기 나는 평양에 갔다온 려운형선생으로부터 북조선이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을 희망한다는 소릴 들은바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사실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리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걸리는것이 있다면 력사적으로 이 나라가 중국이나 로씨야에 눌려있은것만큼 중공이나 붉은로씨야의 세력권에 들수 있다는것이고 이로부터 그 세력의 남하를 막기 위한 미군진주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들이 나간다면 이북은 그 즉시로 우리를 먹어치울것이요.》

지태민의 목소리엔 분기가 어려있었다. 대답이 빨랐다.

《물론 그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국민들의 래일을 생각할 때 과히 나쁘지 않는 일이라는것입니다.

지장군도 알겠지만 북에는 내분도 정치싸움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의 사상, 하나의 가치관으로 굳게 결속되여 남한과는 하늘땅차이를 보여주고있습니다. 이런데서부터 남한의 많은 사람들까지 북에 동조하고있지 않습니까.》

《허허, 엔트로우씨는 오늘 나의 동향을 검토할 과업을 받은것이 아닙니까?》

《실례했습니다. 내가 지장군의 반공열을 무시한것 같은데… 하지만 지장군도 이북을 그리 적대시하진 않겠는데요. 하긴 이 말도 실례겠지요. 그러나 말이 난김에 다 합시다. 만약 이북이 당신네를 삼키려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우겠지요?》

《피할순 없습니다.》

《그럴테지요. 그렇게 되면 무척 많은 피가 흐를것입니다, 피! 류혈은 좋지 않지만 이 나라의 발전을 생각하면 그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엔트, 오늘 취하셨군요.》

옥영이가 끼여들었다.

《부인,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왜 류혈이 필요한가. 그 피를 통해 다시는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찾고 서로 싸우지 말자는 결론을 얻게 한다는것입니다. 지금 발전된 나라의 적지 않은 정치가들이 그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에는 그런 정치가들이 적습니다. 이곳도 마찬가지고…

내 심정으로 보면 당신들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나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나는 이걸 우리가 말아보는 빨갱이들을 통해 더욱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뻐젓이 할수 있는것은 지장군의 동생을, 그 공산당론설원과의 대화를 통해 완전한 결론을 보았기때문입니다.》

《그럼 이젠 조선로동당 입당청원서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태민의 말이였다.

《허허, 하긴 난 이미 그 비슷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트루맨시절같으면 히틀러법에 걸려 전기의자에 오를수도 있을것이지요.

하지만 나는 미합중국의 리익을 떠난것이 아니라 바로 미합중국의 권익과 명예를 생각했기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왜 그런가. 당신의 위구대로 이북이 통일을 한다 해도 그에 따른 대책은 있기때문입니다. 북의 **김일성**령수는 옛날부터 오늘까지 사랑으로 정치를 주도합니다. 사랑, 이것이야말로 만능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조선인들은 사랑에 주리고 사랑에 쉽게 끌려가는 속성을 가지고있지요.

이렇게 볼 때 북이든 남이든 통일을 하면 우린 막강한 자금과 차관으로 이 나라를 포옹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내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김일성**령수는 한평생 인민을 위한것을 신조로 삼는것만큼 제 인민, 제 자식을 잘 도와주는것을 나쁘다고 보지 않을것입니다.

그까짓 사상과 주의는 갈데로 가라고 합시다. 그들이 통일된 나라의 치안을 잘 다스리고 우리와 가까이 하면 만사 오케이가 아닙니까.》

《당신같은 견해가 미국에 또 있을수 있다고 봅니까.》

《왜 없겠습니까. 나는 이제 본국에 가면 이런 내용의 글도 쓰고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정치가들을 찾아 적극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진심입니까?》
《희망을 잃었기에 배머리를 돌린것이지요.》
《떳떳하니 좋군요. 한데 그것이 배신이라는 생각은 없습니까.》
《배신?! 누가 누구에 대하여 배신한다는것입니까.》
《우리 남한의… 당신네들이 말하던 혈맹 우방국이지요. 구체적으로는 나나 이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지장군은 누구를, 무엇을 믿고있습니까.》
《사람은 다 제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있는 법이요.》
《신념… 그 신념이란 도대체 어떤것입니까. 정몽주의 일편단심입니까? 지장군, 그런 잠에선 깨여나십시오. 구체적인 신념이란 실용입니다. 나, 나와 가족들, 친지들을 위한 실용, 관념의 유희는 필요없습니다.》
《엔트로우씨, 나 역시 나와 가족들을 생각해서 그러는겁니다. 공산제도는 두번 그들을 배신한 나를 용납하지 않을것입니다.》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동생은 일체 과거를 백지화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믿지요. 그건 그들의 주의와 사상이고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 그럴수밖에 없는것이지요. 그런 면에서는 그들도 실용에 접근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과 주의도 철저히 민족과 국가를 위한 계산에서 나온것이니까.》
《엔트로우씨, 오늘 당신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럼 한가지 실례를 듭시다.
우리가 어떻게 되여 일본을 이기게 되였는가.
전쟁사가들과 언론가들은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을 운운하고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요. 하지만 그보다 사상때문이였습니다.》
《사상이라니, 당신은 그걸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왜 사상이라고 하는가. … 조선전쟁에서 미국군인들은 비겁쟁이로 락인되였습니다.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무모한 싸움에 말려든걸 안 이상 누가 용감성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러나 태평양전쟁은 이와 달랐습니다. 진주만의 비극, 수많은 미국청년들의 죽음은 무서운 복수심과 증오를 낳았지요. 일본놈을 쳐죽이라!

미국전체가 들고일어났지요. 내가 말하는 사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북은 국토통일을 하나의 절대적목표, 절대적사명감으로 삼고 매진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남한의 전반민심이 발맞추고있습니다.
그러니 별다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좋기는 원자탄을 쓰는것이지만 그건 지장군과 옥영부인까지 무덤속으로 끌고가는 일이니 안될것이지요.》
《너무 성급하구만. 로마는 하루이틀에 이룩된것이 아니지요. 다 때가 있는 법이 아닙니까.》
《그때가 어느때입니까.》
《그건 우리의 국력이 이북과 평형을 이루거나 압도할 때ㅡ》
《그것이 가능할것 같습니까?》
《그때문에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것이지요. 이 나라의 분렬과 비극에는 당신도 말했지만 미국의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책임에 대해선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떤 도움도 무력하다는데 대해서는 지장군도 인정해야 할것입니다. 그래 지금의 한국을 보십시오. 어느 정도 안정은 있다지만 이것이 실제적인것입니까.
총칼로 유지되는 안정인데 이 안정밑에는 어마어마한 반항이 꿈틀거리고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도… 해결할것입니다.》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겠지요.》
《얼마동안만일것이요.》
《허, 신라의 이른바 3국통일도 당나라가 돌아서니 끝장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엔트로우씨한텐 어떤 방안이 있다는것입니까.》
《우리가 일찌감치 물러가는것이지요. 물론 이런 일이 기분좋은건 못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지배하고싶은 욕망이 있다는데 나 역시 미국시민으로서 이 땅과 온 세계가 우리한테 고분고분할것을 바라고 그우에 군림한 씨저가 되고싶습니다. 이런 소린 지장군한테도 옥영부인한테도 실례긴 합니다만 리해해줘야 할것입니다. 식민지총독이 되는것, 이것은 미국의 거의 모든 남성들의 꿈이라고 해야 할것입니다.》

정창호는 입술을 사려물었다.
저 빌어먹을 철면피, 항간의 글쟁이들이 침략성이요, 식민지성이요 하며 미국과 이 남쪽땅의 관계를 종주관계로 묘사하더니 저자도 식민지총독이요, 뭐요 안하무인이 아닌가.
그런데 엔트로우는 더욱 성수가 나 말했다.
《꿈! 하지만 이것은 말그대로 꿈이지요. 잘못된것이라기보다 어리석은… 이 땅의 사람들이 옛날의 인디안들이 아니라는걸 몰랐던거지요.
그전에 우리 병사들이 하던 말이 생각납니까. 온순한 사람들의 나라로 알고온 이 땅에서 아침저녁으로 돌벼락에, 주먹찜질에 넋이 빠진다고… 이건 오늘날에 내가 겪는 고통보다는 한결 또 나은겁니다. 나로 말하면 매일마다 눈에 불을 달고 쏴보는 사람들과 싱갱이를 해야 하는데 사람이 얼마를 산다고 이 놀음을 계속해야 한다는겁니까. 될수 없는것, 실현될수 없는것에서 일찌감치 손을 떼는것이 현명한 처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걱정할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떠벌이지만 미국은 당신네의 희망을 존중시할테니까.
그럼 오늘은 이만 실례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벌써요?》
옥영사모님의 말소리였다.
《떠나기 전날 다시 오겠습니다. 부인의 어머님이랑 만나야 할테니까요.》
《저… 그 사람은 어찌 되나요?》
《말하지 않았던가요? 륙군본부 검찰부에 송치되였으니 이제부턴 지장군네의 군법회의가 결정할것입니다. 래달쯤 검찰측 기소가 제기되고 심의가 있고… 잘되면 래년초안으로 공판이 있을수 있지요.
너무 비관할건 없다고 봅니다. 당신네 대통령도 관심을 두는 인물이니…》
《아깐 극형을 예고하지 않았소?》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란 사형만은 아니지요. 우리측에서 사형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제가… 막았습니다. 간첩죄는 없으니까.》
《감사해요.》
《이제라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개심의 실증만 보이면 되지요. 검

사측 기소처리가 끝난 다음엔 면회도 할수 있는것이니… 이젠 지장군과 옥영부인의 재량에 맡길수밖에 없지요. ―》

걸상을 밀어젖히는 소리에 정창호는 재빨리 일어섰다.

《경자, 오늘 말은 못 들은것으로 돼야 돼.》

식탁을 닁큼 들어 옮겨놓았다.

《저… 공판이란 그를 재판한다는건가요?》

경자의 눈에는 겁기가 흘렀다. 정창호 역시 속이 화드드 떨렸으나 내색하지 않았다.

《그렇지.》

《야― 그럼 어떻게 될가. 학교엔 어떻게 다니고 춤도… 아이, 속상해.》

창호는 눈이 덩둘해졌다.

《야, 떠나신다.》

옥영이가 들어섰다. 별반 축이 나지 않은 음식상을 보고는 미안쩍은 기색으로 창호를 보았다.

《오늘 안됐어요. 참, 쟤 아버지도 부댈 나가겠다고 해요.》

빨깃한 담배불, 후사경속에 비쳐진 그 불빛이 커질 때마다 지태민의 침침한 눈과 코언저리의 주름살이 뚜렷이 드러났다.

차안은 담배연기로 꽉 찼다. 그처럼 창호의 마음속도 번뇌와 시름으로 꽉 찼다.

(어떻게 할것인가.)

명백한것은 지장군의 밑에서는 더이상 미래를 기약할수 없다는것이였다. 물론 엔트로우는 개자식이지만 지장군은 변함없는 충신이다. 그러나 세상이 그걸 알아준다던가.

북한 《빨갱이》의 형님, 미구하여 그 《빨갱이》는 처형될것이고 그때면 제아무리 《대통령》이 그를 싸고돈다 해도 지장군이 무슨 얼굴로 사병들을 대하며 자기 아래사람을 위해 마음쓸수 있겠는가.

(아아, 이 무슨 일이람.)

지장군의 동생이 그처럼 악질인줄은 몰랐다. 개심은 먹어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감았다.

후사경속의 담배불빛이 꺼진것이다. 지태민의 심정을 헤아려보았다. 어제날의 자기와 같을것이라고 생각했다.

백포에 싸여 돌아온 시체… 그날의 일을 돌이켜보자 자기 운명의 길라잡이가 떠올랐다. 놀기 잘하면서도 뱀처럼 차거운 방첩계의 인물, 며칠전 무도장에서 만났던 그는 중앙정보부 과장으로 출세하였다고 으시댔다. 그러면서도 이전의 관계는 변함없음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방금 들은 말들을 어찌해야 하는가. 거침없이 내뱉던 《용공》, 《리적》발언들, 하지만 지태민에게 루가 미칠짓이야 할수 없지 않는가. 이전 방첩계의 장교가 자기의 길라잡이라고 할 때 지태민 역시 마음속 의지고 희망의 길라잡이가 아니였던가. 이렇다 하여 그 엔트로우라는 개자식을 폭로하지 않으면 《호국》의 남아로서 참답지 못할뿐만아니라 사소한 이색이라도 죄다 보고하겠다고 한 이전 방첩대장교와의 약속을 어기는것으로 된다. 그 약속은 국가와 군의 안녕을 위한 서약이기도 했다.

이전 방첩대장교와 지장군을 놓고 저울질을 했다.

륙군특무대장 김창룡이 피살되였다는 사실로 온 나라 여론이 물끓듯 할 때 사단검찰감으로 있던 창호의 아버지가 불시에 체포되고 얼마후에는 시체로 되여 집에 돌아왔다.

군부요인 살해, 국가반역의 어마어마한 죄명을 진 아버지의 장례식에는 헌병대에서 온 사람들과 친척밖에 없었다. 누구도 창호네를 동정하는 사람이 없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의 가슴에 새겨진 상처는 더욱 깊어갔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나의 장래는? 눈물속의 외로움과 슬픔은 미구하여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적의로 바뀌졌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겨났다. 아버지를 잃은지 2년 채 안되는 어느날 창호의 집에는 군부내의 모모한 인물들과 함께 오늘의 중앙정보부 과장이 찾아왔다. 그들은 아버지에 대한 처형은 잘못된자들의 음해라는것과 《호국일선》에서 분투한 아버지를 륙군공로자로 높이 평가하게 되였다고 하며 동리 뒤산에 묻혔던 아버지의 시신을 대전국립공동묘지에 옮기는 요란스런 행사를 벌렸다. 그 행사에서 창호는 오늘의 중앙정보부 과장이 귀띔하는데 따라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기를 바치겠다고 맹세하였다. 하여 법과대학 학생이였던 그는 사관학교에 갔고 졸업때에는 대번에 중위로 되는 특전을 얻었다. 사실 그의 희

망은 군이 아니였다. 그것은 창호자신의 뜻이기에 앞서 아버지의 영향때문이였다. 사립변호사로부터 군에 징집되여 검찰감으로 승진한 아버지였지만 군이라고 하면 도리를 쳤다. 군은 인간이 아니라 기계를 만드는 도형장이라고 했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죽일 놈이요 하며 군대의 부패상을 놓고 개탄했다. 창호 역시 그러루한 이야기들과 실지 목격하게 되는 군병들의 치졸함과 무지스런 행동에 머리를 젓게 되였고 중학교졸업을 앞둔무렵에는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예능이냐, 법률이냐 하는 길에서 법과를 택했다. 그가 천성의 소질로 인정받은 예능과 문학이 아니라 법과를 택한것은 법은 량심과 도덕의 파수병이라는 인식과 아버지를 음해한자들을 찾아 복수하리라는 엉뚱한 야심때문이였다.

오늘의 중앙정보부 과장은 바로 그의 이런 야심에 불을 질러 군으로의 방향전환을 하게 했다.

남북의 대치상태에서 군대야말로 《호국》남아의 활무대인것이고 아버지를 음해한자들이 아직도 군부내에 남아있으니만치 그들을 찾아 복수하는데도 유리하다고 했다. 아버지처럼 그런 불의한자들의 손에 죽을것이 아니라 그런자들을 먼저 적발색출하여 짓눌러버려야 한다고 하며 창호의 사관학교입학으로부터 배치에 이르기까지 숨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로부터 창호는 그를 자기의 은사로, 길라잡이로 따르게 되였던것이였다. 그런데 왜서인지 그에게는 정이 붙지 않았다. 반대로 지태민에게는 이름할수 없는 친근감이 생겼고 마음 전부를 기탁할 정도였다. …

《댄스홀에 아는 사람이 많어?》

지태민의 목소리에 창호는 소스라치듯 생각에서 깨여났다.

차는 서라벌호텔옆을 지나가고있었다.

《전 별로 없지만 따님한텐 많습니다. 학교동무들도 있고… 여러 사모님들도 다들 따님을 놓고 칭찬이 대단합니다.》

《이제부턴 주말 토요일이나 한번쯤씩 가지. 학생은 공부가 기본이니까.》

지태민은 이로써 말을 끝냈다.

불빛 한점 없는 본부청사앞에 차가 멎었을 때 창호는 다시 시작될 한랭을 생각했다.

다른데로 가야 한다, 다른데로!

졸업할 때 그의 길라잡이는 방첩대를 권고했다. 하지만 그때는 뿌리쳤다. 똥별 하나를 달고 수색견처럼 여기저기 뛰여다니며 킁킁 냄새를 맡고 필요에 따라 따귀도 붙이고 팔삭둥이흉내도 내야 하는 좀스러운 일이 자존심에 걸렸던것이다. 될바에는 대뜸 이목을 끌고 존경을 받을만 한 탐정계의 인물로 되여야 했다. 그러자면 여러 방면에서 안목을 넓히고 경험을 쌓고 권력계의 인사들속에 깊이 몸담근 다음 이 나라 안보의 기둥이 되여야 했던것이다.

《참, 군의 부친 제사날이 모레지.》

현관문으로 들어서던 지태민이 돌아섰다.

《그날은 잊지 말고 묘소에 꼭 가보라구.》

태민은 이 말을 남기고 컴컴한 복도로 사라졌다.

창호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냥 한자리에 서있었다. 가슴이 뭉클해졌던것이다.

(그래, 인간으로서는 더 나무랄것이 없어. 얼마나 우애 깊고 다심한가.)

그가 아버지의 제사날을 기억해낸것은 미구하여 처형될 그 동생때문이겠지만 창호의 여린 마음에는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경자의 말이 귀전을 울렸다.

《학교엔 어떻게 다니고… 춤도… 아이, 속상해.》

철부지의 한심스럽던 말이 새로운 의미로 가슴을 쳤다.

(그래, 이 집은 하나같이 굳건해.)

순간이나마 지장군을 배반할번 했다는것으로 낯이 화끈거렸다.

다음날 밤 창호는 그의 길라잡이의 호출을 받았다.

예나 다름없이 단골료리점으로 자리를 정한 그의 길라잡이는 자그마한 앉은뱅이책상을 마주하고 20대의 녀자가 쳐주는 약주를 졸금졸금 마시며 기다리고있었다.

창호가 들어서자 매양 그러듯이 그 녀자는 사뿐히 일어서 사라지고 과장은 긴 팔을 내뻗쳐 창호의 손을 정겹게 잡아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지?》

과장의 모상과 차림은 그동안 조금도 달라진데가 없었다, 푹 우무

러져들어간 눈확을 가리우는 진주빛대모테안경이며 높이 쳐 깎은 머리에서 발산하는 번들번들한 머리기름의 광채도.

《내가 임자를 찾은건—》 20대의 녀자와 술기운때문인지 얼굴이 개고기빛으로 된 그는 목이 긴 술잔에 가득 부은 술을 창호에게 내밀며 말을 이었다. 《임자의 지장군을 잘 돌볼 필요성때문일세.》

껄, 게트림을 하고는 창호의 속까지 꿰뚫듯 찬찬히 보다가 실그레 웃었다.

《한데 요즘 임잔 보고란걸 죄 잊은게 아니야?》

《어떻게 찾을지 몰라서—》

《뭐 이전처럼 암호를 쓸것도 없고 번호로 찾을 필요도 없어. 중앙정보부 과장 박명례씨 하고 찾으면 되지.》

명례는 물수건으로 입술을 닦고 담배를 꺼내물었다. 넥타이는 반쯤 풀어져있고 와이샤쯔단추도 밑에것 두개만 채워진 상태였다.

명례는 오늘만 아니라 다른 때도 이런 차림으로 맞았고 이런 차림으로 상하간의 격식도 초월해있음을 보여주었다. 어느날인가는 창호앞에서 그 20대녀자와의 포옹도 보여주었다.

《그래, 요즘도 지장군은 쇄신분튼가?》

《네.》

《그럴테지, 하지만 뭔가 변화가 있겠는데…》

《예, 변화라기보다》 창호는 명례가 자기의 땐스홀출입은 물론 엔트로우의 방문건까지 알수 있을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장군은 북에서 온 동생을 빨리 처리할걸 바라는것 같습니다.》

《바라는것 같다, 건 어떻게?》

《건 제 추리입니다.》

《이보게, 내가 언제부터 말했나. 나에겐 추리가 아니라 사실이 필요하다고. 물론 추리도 필요하지.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 특히 임자의 상태에선 추리라는건 나한테 맡기고 사실을 밝혀야 돼.》

《사실을 말한다면—》

창호의 뇌리에는 엔트로우와 주고받던 지장군의 말이 토 하나 빠짐없이 생생히 감겨돌았으나 그 말은 할수 없어 자기딴의 지혜를 펼쳤다.

《며칠전에 제가… 그의 동생에 대해 얼핏 물었던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고. 그랬더니… 왈칵 성을 내며 빨리 꺼지라던지… 그 비슷한 소릴 했습니다.》

《꺼지라, 죽여달란 소리로구만. …》

《네, 제 생각도… 빨리 처단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제 사병들한테까지 알려지면—》

《건 임자가 생각할 몫이 아니야.》

명례는 날카롭게 말하고는 시죽이 웃었다.

《임자생각 진심이야?》

《네, 그자가 지장군의 동생이라지만 상당한 빨갱이지식분자라고 하니 우리에게 해가 클것이 아닙니까.》

《단순해. 물론 나도 그런자를 없애는데선 조금도 유감이 없어. 하지만 그 모든것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것이고 우리에게 유해한것이 큰것만큼 유리하게 써먹게끔 해야 하거던.

물론 이것까진 우리로서 할일은 못돼.

그럼 군으로서 할일은 무언가. 그 동생일을 걱정해주면서 친척이 친척을 찾아온만치 말과 행동에서 그걸 표시하는거야.》

《아니, 그럼 제가 용공분자로 되게요?》

《이건 정치의 필요고 지장군을 위한 일이야. 그럼 정식 임무를 받으라구. 임잔 장도영사건을 잘 알지.》

《네.》

《지금도 장도영의 아류들은 적잖아. 이건 최고지도급의 지신데 그 아류와 동조자들을 적발분쇄하는것이 군과 나라를 위한 중요사업으로 됐어. 그런데 임자의 지장군에 대해 불미스런 말들이 많아.》

《과장님, 지장군은 충신으로서 다른 야심에 탐혹될수 없다고 봅니다.》

《또 추린가. 물론 그런 믿음은 좋아. 그런데선 나도 임자와 크게 다른 점은 없지. 그에 대해선 임자보다 내가 더 잘 아니까.

하지만 우린 모든것을 의심해야 돼. 생각해보라구. 그의 집안은 거의다가 적색이고 그도 북을 동경하며 고향에까지 가지 않았댔나. 북의 동생이란자는 친척을 만나러 왔다지만 신문사 부장까지 했다는 그자가 단순히 친척상봉을 위해 왔다는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오기바쁘게 포박을 당할줄 알았다면 그런 생념도 내지 못했을텐데 왔거던.

이건 지장군한테 뭔가 발붙일수 있는 큼직한 요소가, 말하자면 친북경향, 심하게는 북에 갔을 때 그 어떤 내밀적인 약속이 있었다는걸 의미하지 않나.》
창호는 가슴이 싸늘해졌다. 이제까진 동생을 고발했다는것으로 지태민에 대해서는 일푼의 의심도 두지 않았는데 명례의 말을 듣고보니 그럴상싶은 생각이 커졌다.
《진짜 추리란 바로 이런데서 필요한것이지.》
명례는 독스럽게 그를 쏴보았다.
《이봐, 사람이 인정에만 끌리면 대의도 잊게 될 때가 많아. 지장군은 용인술이 있는 사람이여서 임자같이 순결하고 고지식한 사람들의 마음을 찰떡처럼 끄당길수 있어. 거기에 너무 침혹되지 말라구.》
대모테안경밑에서 번쩍거리는 눈을 본 창호는 또 한번 가슴이 섬찍해졌다.
《그렇다면 전… 자리를 옮겼으면 합니다.》
《거— 무슨 망발인가. 군으로서야 지금같은 기회가 천재일우라고 봐야지.
북의 동생에 대한 공판은 5～6개월안으로 있을것 같은데 지장군의 동향에 대해 각별히 살피라구. 그의 일거수일투족으로부터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알겠습니다.》
《한데 요즘 임잔 지장군의 집에 자주 다닌다지.》
《네, 땐스홀출입때문에…》
《건 나로서도 기쁜 일이고… 그 집에 다닐 때 려아라는 녀자가 찾아온건 못 봤나?》
《여러 부인들이 오는건 보았지만 인사소개가 없어서—》
《경자를 통해 알수 있지 않나.》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려아라는 녀자가 나타나면 즉시로 나에게 알리라구. 자, 이걸 보라구.》
명례는 지갑에서 한장의 사진을 내밀어보였다.
창호는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언젠가 옥영이와 마주앉아있던 요단강을 건느는 성모마리아같다고 감탄했던 녀자였다.

《왜 놀라나?》
《너무 이뻐서―》
《허, 임자 누이에 또 누이별일세.》
명례의 얼굴은 벌레씹은 상으로 돌아갔다.

6

패통을 두드리는 소리에 이어 늘어빠진 고음이 감방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에, 오늘은 7월7석이라서 특별급식이 차례졌다. 다들 신나게 먹고 하느님과 당국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 급식―》
묵직하게 지켜지던 고요가 깨뜨려졌다. 식기들이 부딪치는 소리, 키득키득 웃는 소리, 걸죽한 마구잡이욕설들…
《허, 개뭂이구나.》
《견우직녀상봉날 이게 단가?》
《여, 아가릴 닥쳐.》
성민은 키높은 담벽우의 창밖을 내다보았다. 미결수 석달동안에 얻어진 유일한 자유란 바깥하늘을 바라보는것뿐이다.
(그러니 오늘이 바로…)
손바닥만큼한 하늘로 13년전의 이날이 비껴들었다.
순정이와 처음으로 다시 만난 날이 바로 13년전 오늘이였던것이다.
요즘은 거의 매일마다 안해며 집생각을 하군 했지만 별스럽게 가슴이 미여지는듯 아파들었다.
무료한 나날, 운명은 이미 결정되였고 그 시각을 기다리는 최종공판싸움은 다 각오된것이니 그것이 비록 괴로운 추억이든 즐거운 추억이든 자기 인생의 떳떳한 총화로서 지금같이는 가슴을 허비지 않았다.
너무 편안한탓인가.
1주일에 두세번씩 륙군본부 보통군법회의 검사를 만나는것과 고독과의 싸움이 전부라고 할수 있었다.
따분하고 지루한 문답, 그의 법정기소를 담당하게 된 법대출신의 애

젊은 검사는 근 석달동안 악을 쓰며 그의 《범죄》를 법조문에 맞추려 애썼고 성민은 하루빨리 그 문서작성이 끝나기를 바라 여러모로 훈수도 하고 편달도 하며 각근히 도와주었다.
처음에는 성민의 《범죄문》작성보다 그의 《빨갱이》사상과 리론에 더 흥미를 가지며 그의 사상과 리론을 일격에 부셔버릴듯 하던 검사는 함무라비법전으로부터 나뽈레옹법전의 세부까지 파고들며 일일이 반격하는 성민의 말에 《어휴, 선생님한텐 손을 들었습니다.》했고 죽음을 초월하는 기상과 죽음을 앞당기려는 성민의 친절한 도움에는 검사로서의 충심마저 흔들렸는지 《그럼 안돼요. 이러이러하게 하는것이 좋지 않아요.》하며 기소문작성까지 토론에 붙였는데 그 검사의 감동과 호의가 작용해서인지 이 서대문지옥에서의 처우도 성민에게만은 여전히 대감님대접이였다.
《선생님, 면회입니다.》
감시창구가 열리며 간수의 얼굴이 보이는가싶더니 찌쿠덩 하고 문이 열렸다. 한발자국 들어선 간수는 내키지 않은 기색으로 일어나앉는 성민을 보며 혀를 찼다.
《어데 편치 않으신가유?》
《면회자는 누구요?》
《부인이라는데 그밖에 또 있다는것 같아유.》
성민은 구겨진 옷자락을 펴며 망설이였다.
(그자가?…)
며칠전에 찾아왔던 명례를 생각했다.
소장실에서 찾는다고 하여 끌려가보니 소장이 아니라 명례가 그를 맞았다.
《성민이, 나야. 날세, 명례야.》
두팔을 쳐든 명례는 반가움을 금치 못하겠다는 태도로 성민이를 와락 그러안으려 했다. 그때 한걸음 물러섰던가. 하지만 그때까지는 례의를 잃지 않았다.
명례는 많은 말을 했다.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다 안다고 하며 살아야 한다고, 자기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때 성민은 먼저 라진조선소의 파괴사건에 대하여 물었다.
《어찌겠나, 쾅! 해치웠지. 우리 친척의 재산을 그냥 남겨둘수 없

잖어.》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대답에 그만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왜?》 명례는 깜짝 놀라는 기색이였다. 《듣자하니 자네가 일루 온데는 나를 만나자는 목적도 있었다는데—》
《그렇네.》
《그렇다면 진지하게 얘기를 해봐야지.》
성민은 더 참을수 없었다.
《난 인간을 만나러 왔지 지금같은 흉물과 만나리라고는 생각 못했어.》
《허허, 그러니 내가 그전엔 인간이였구 지금은 짐승이라 그 소린가.》
《물론 그때도 절반짜리였어. 하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지.》
《야!》 명례는 책상을 쳤다. 문이 벌컥 열리며 간수가 총을 들고 뛰여들었다.
명례는 불이 이는 눈으로 성민을 노려보다가 간수더러 나가라고 소리쳤다.
《그럼 려아도 만나지 않을텐가.》 명례는 비양거리는 웃음을 지어보였다. 《려아는 지금 나와 사네. 자네한텐 안됐네만 어쩌겠나. 자네가 돌봐주지 않으니 내가 구원해줄수밖에… 그래, 어떤가.
물론 싫겠지. 그 역시 나같은 흉물과 사니 같고같은 흉물인것이고… 원쑤일테니까.》
성민은 그때 아무 대답도 않은채 문밖을 나섰다. …
(려아일것이다.)
전과 같이 긴 복도를 지나 면회장소라고 하는 교도소 소장의 방으로 갈 때까지 성민은 어떻게 만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아무런 준비도 못했다.
《나는 이런 려아를 보리라고는 생각 못했소.》
머리속에 감겨도는 말은 이 하나뿐이였다.
의자에서 다소곳이 일어서는 녀인은 려아가 아니라 옥영이였다. 진회색조선치마저고리에 목수건 역시 진회색뜨개천이였다. 그뒤에는 낯모를 중위와 함께 몰라보게 달라진 경자가 눈이 말똥해 서 있었다.

《어서 말씀들을 나누십시오.》
소장이 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성민이와 옥영은 그냥 한자세로 보기만 했다.
《오래간만입니다.》
성민은 간신히 이 말을 했다. 옥영은 대답을 못했다. 맑은 눈에 눈물이 고여올랐다.
《영 못 만날줄 알았는데—》 성민은 아픈 마음을 누르며 경자에게 눈길을 주었다.
《경자, 친척이 친척한테 인사를 안하면 되니?》
눈이 휘둥그래 성민을 살피던 경자는 대번에 얼굴이 빨개지며 까딱하고 고개를 숙여 절을 했다.
《그래야지, 한데 저 사람 누구지?》 창문가에 선 중위를 가리켜보이자 그때에야 옥영이가 입을 열었다.
《정창호씨라고 애아버지의 부관되는이예요.》
정창호는 이때라고 생각하였다.
《지선생, 선생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훌륭한분이라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뵈옵자고 찾아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정말 기쁜 소립니다.》
《배고프지요?》
옥영은 다행이다싶은 얼굴로 커다란 풀색가방에서 음식꾸레미들을 꺼내 펼쳤다. 빵과 단물, 통졸임, 사탕, 과자, 배따위들이 주런이 나왔다.
성민은 반색한 웃음을 지었다.
《이거 고맙군요. 그래, 어머님이랑 잘 계시는가요?》
《네.》
《응석아주바이네는…》
《잘 있어요.》
《나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는가요?》
《안… 몇번 불려다녔지만—》
《지장군덕이겠지요.》
성민의 말에 옥영이의 얼굴빛이 흐려졌다.
《저… 애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나삐 생각말아요. 그이는…》

《그 얘긴 하지 맙시다.》
《지선생!》
정창호는 지태민과 옥영이앞에서의 자기 의무를 리행하자고 마음먹었다.
《선생에 대한 지장군의 심정과… 당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그분은 명실공히 선생을 위해서 그런 용단을 내린것입니다. 그때의 지장군의 고민과 고통을 다 렬거한다면—》
《허, 당신은 그 어른을 무척 존경하는것 같구만.》
《그렇습니다. 진실로 존경할만 한분이니까요.》
《건 좋고… 상관을 존경하고 따르는것은 아름다운것이라고 봐야 할테니까. 한데 내앞에선 그런 소리를 더 하지 않았으면 하오. … 그런데 어떻게 되여… 왔습니까?》
성민은 헌헌한 태도로 옥영을 향해 물었다.
《어쩜…》
이 한마디를 번지고난 옥영은 애원하는듯, 원망하는듯 한 눈길로 성민을 바라보았다.
성민은 경자에게 눈길을 옮겼다. 눈이 휘둥그래있는 경자를 보자 가슴속에 몰아치던 질풍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경자, 내가 무섭지?… 이제 좀더 무서워진다. 이마에 뿔이 돋구 얼굴이 벽돌처럼 빨갛게 되지, 〈빨갱이〉니까.》
《건 거짓말이예요.》
《그런가.》
《집안소식이나 들려줘요.》
옥영은 애잔한 미소를 지으며 성민의 손을 끄당겨 잡았다.
성민은 가슴이 찌르르해졌다.
예나 오늘이나 인정은 변함없는것이 아닌가.
성민이 집안형편으로부터 옥영이가 알수 있는 친척들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펼쳐가는 이야기에 옥영은 물론 경자까지 눈이 게슴츠레해있을 때 정창호는 오제도를 생각했다. 그처럼 예민한 시각과 판단으로 지성민이라는 인간을 파보고 개심의 열쇠를 찾아보자고 했다. 법조계나 정보계가 못한 일을 자기가 성사시킨다면 옥영이네 집안에는 물론 나라앞에서도 큰 공으로 될것이 아닌가. 하지만 수많은 할아버

지, 할머니, 고모, 숙질붙이들의 이름자와 생활사가 나오자 어언중 가정세태사에 열중하는 청강자가 되였고 성민이 역시 자기와 다를바 없이 가까운 사람들의 행복에는 기쁨을, 불행에는 슬픔을 금치 못하는 인간이라는데서 애착 비슷한 련민과 동정을 느꼈다.

《내 아들애의 눈도 경자와 비슷해, 쌍까풀이 있고 못되고 앙칼지고.》

성민이가 마지막에 하는 말은 웃음으로 버물어졌으나 정창호는 눈굽까지 시큰해졌다.

《이제 너도 앞으로는 꼭 만나보게 될거다. 이런데서가 아니라 경성바다가나 다도해에서 만날수 있지.》

성민의 이 말에 옥영은 손수건으로 눈굽을 찍었다.

《이걸 좀 들어요.》

옥영이가 귤을 쪼개 성민에게 주며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다니요?》

성민의 반문에 옥영은 가늘게 숨을 내뿜았다.

《거기서는… 죄를 다 인정했다지요.》

《죄?!… 어떤 죄말입니까?》

《법에서 금하는…》

《허허… 전 애당초 그런 법은 인정도 하지 않지만 그 법이 죄라고 하는건 인정했습니다.

공화국이 좋기에 좋다고 한것이고 조국통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것이니 그 희망을 우기게 된것이고… 량심을 팔수 없으니 지키겠다 한것인데 이것이 죄라니 어쩔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형수는 이런 저의 결심을 되돌리려는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당장 살아야 하지 않아요. 법과 싸워야 무슨 승산이 있어요.》

《지금의 나에게서 승산여부는 무관계한겁니다. 그저 이 지성민이 가문에도 나라에도 수치스럽지 않은 인간으로 남기를 바랄뿐입니다. 이밖에 더 있다면 형수도 그리고 경자도 제가 택한 길, 저의 량심과 뜻에 대해서만은 리해하리라는걸 바라게 되고 믿고싶은것입니다.》

《그에 대해선… 취급하는이들도 장하게 본다고 합니다만… 무엇때

문에 죽을 길을 찾는가 안타까와한대요.》
《그런 말은 더 하지 맙시다. 참, 려아소식은 모르는가요.》
《왜 모르겠어요.》 옥영의 얼굴에 한가닥 밝은 웃음이 피여올랐다. 《사실 난 오늘 그와 함께 오려고 했다가 그만두었어요.》
《건 잘했습니다. 한데 그가 누구한테 시집을 갔는가요?》
《저… 명례라고… 거기서도 알지요?》
《알고있습니다. 사람질을 못할 개차반이지요.》
성민의 날카로운 말에 옥영은 면구한 기색이였다.
《나도 그닥잖게 보지만 지금 그는 중앙정보부라는데서 과장을 해요. … 한데 려아는 그닥 행복하지 못해요. 생활적으로 보면 괜찮게 산다고 할수 있지만… 여기 와서 할아버지쪽 재산을 물려받고 지금은 음악학원을 경영하는데 명례씨도… 그의 재산덕을 많이 보았어요.》
《그렇다면 금슬도 좋고 생활도 행복하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질 못해요. 그들사이는 처음부터 의가 맞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말이 부부이지 별거생활과 다름없어요. 다음번엔 그와 함께 오겠어요. …》
《그만두십시오.》
《왜 그래요? 려아는 거기 소식을 듣고는 잠도 끼니도 번지고… 거기탓이지요. 무엇때문에 그를 버렸어요?》
성민은 억이 막혔다.
《그 문제에선 버리고말고가 없습니다. 물론 내 잘못도 있지요.》
《그럼 꼭 만나요, 꼭…》
《형수, 형수는 지금 뭔가 내 말을 오해하는것 같은데 난 그가 인간으로서 인간을 지키지 못한것이 괴로와 하는 말입니다. 무엇때문에 그가 명례같은 인간과 결합되였는가, 분합니다.》
《거야 방금 말하지 않았는가요, 자기탓이라고.》
《허.》
성민은 옥영에게 명백히 말해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내가 말하는 잘못이란 형수가 생각하는것과는 다른겁니다. 형수는 내가 마치 그를 사랑하다가 버린것처럼 보는데 려아에 대한 나의 감정이란 소꿉시절의 벗으로서… 그밖의 다른것은 없었습니다. 깨

끗하고 맘씨 고운 녀자였다는 그뿐이였지요.》
《그래도 그와 그 집에서는…》
《옳습니다. 나도 그런 눈치를 모른것은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알고도 명백히 말해주지 못한것이 또 하나 잘못이라고 할수 있는데… 나의 진짜 잘못이란 소꿉시절의 벗으로서 그를 돕지 못한것입니다.》
《아이구, 난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그럼 그한테 한가지만은 꼭 전해주십시오.
고향에서 당한 그의 비극적인 일은 우리 공화국의 정책이 그래서가 아니라 일부 그릇된 사람들의 처사였다는것을 꼭 말해주십시오.
이런 면에서는 형수도 형님도 반드시 알아야 할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정치는 패덕한, 역적들이 아닌 이상 모든 인간들을 따뜻이 품에 안는 사랑의 정치라는것입니다.
또 하나 형님에게 하고싶은 말은 더이상 인간의 본도에서 벗어나지 말아달라는것입니다.
나를 마지막으로, 그렇지요, 나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성민은 빙그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옥영은 얼어붙은듯 꼼짝않고 서있었다.
성민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돌아섰다.
《형님은 나를 만날 생각이 없답디까?》
《저… 경자 아버진 일이 바빠서—》
《그럴테지요. 그럼 형한테 한가지만은 더 전해주십시오. 제가 옴쟁이에 대해서 묻더라고.》
《건 무슨 소리예요?》
《제가 한 말이라면 알것입니다.》
성민은 옴쟁이라는 소리에 눈이 올롱해있는 경자의 볼을 가볍게 쓰다듬어주고 밖으로 나섰다.
호실에 돌아오니 점심밥이 와있었다.
성민은 옥영이가 색색으로 꾸려온 음식들을 호실수인들한테 넘겨주고 그 점심밥이 담긴 목곽을 끌어당겼다.
7월7석명절이여서인지 아침에는 꽁보리밥우에 새우젓이 버물려있더니 이번에는 썩은 정어리토막이 놓여있다.

혜식은 밥을 한숟가락 넣기 바쁘게 그것부터 집어들던 성민은 불시에 목이 콱 메여올라 얼른 놓고말았다.

한쪽면이 까맣게 탄 정어리… 성민은 그 밥마저 밀어놓았다.

영문을 모르는 호실수인들은 그것마저 날래게 가무리해치웠다.

(왜 이럴가? 이건 정신적쇠약인데…)

이렇게 자기를 다잡으려 했으나 안되였다.

또다시 뙤창밖을 내다보았다.

물고기탄내, 그때는 바싹 마른 망챙이였다. 그것을 굽는 부엌에는 연기가 자오록했고 그때문에 어머니는 연신 눈굽을 훔쳤다.

《이건 꼭 순정이한테만 줘라. 그 애가 물고기구이라면 사족을 못썼다.》

가는 길에 변할가봐 바람이 잘 통하는 베보자기에 싸주며 어머니는 몇번이고 이 말을 했다.

어머니의 말대로 순정은 그 보따리를 받아안고 어쩔바를 모르며 자기만 먹겠다고 했다.

성민이 **김일성**종합대학 추가편입추천장을 안고 평양에 도착한것은 이른새벽이였다.

전차를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종합대학청사에 가닿으니 한창 아침등교중이였다.

커다란 트렁크를 든채 활기넘쳐 밀려드는 그들을 지켜보던 성민은 도착하는 즉시로 순정이를 만나려던 계획을(이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부이기도 했다.)바꾸기로 마음먹었다.

편입시험에서 합격된 다음 떳떳이 만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편입도 1학년이 아니라 2학년으로.

력사학부를 지망했으니만치 자신만만했다. 조선력사는 일찌기 할아버지와 구학교사 아버지의 신칙과 방조밑에 년대별, 왕조별 비사까지 휑하니 알고있는 상태고 현대사는 체험자, 목격자이니 더욱 자신만만했다. 세계사는 이미 중학교때 뗀것이고.

2학년! 여기에는 순정이한테 꿇리지 않으려는 승벽도 없지 않을것이였다.

더 속깊이 말한다면 고맙고 슬기로운 그 아름다운 녀성한테 잘 보이려는 이성의 감정, 문득 되돌이켜보면 얼굴이 뜨뜻이 달아오르고 가

슴이 세차게 활랑거리는 오직 풋사랑을 앞둔 총각시절에만 갖게 되는 감정때문일것이였다.
그런데 대학교무부에 들어가 초벌인물심사를 받고 림시로 배정된 기숙사호실에 들어가 짐을 풀 때 순정이가 나타날줄이야.
여러가지 펼쳐놓은 잡동사니들때문에 더욱 당황하게 되였다.
왜 당황했을가? 그것 역시 그러루한 어설핀 감정때문일것이였다.
그러나 순정은 달랐다.
뛰여들기 바쁘게 손을 잡았고 부모님들의 안부를 물은 뒤끝에는 왜 자기부터 만나지 않았는가 다짜고짜 나무람을 앞세웠다.
이 나무람때문에 성민은 기가 죽었다. 변명할 말을 찾을수 없었기때문이였다. 그런데 말린 낙지와 구운 망챙이가 그를 구원해주었다.
《아이, 이건 어머님이 저한테 보내주신거지요.》
베보자기꾸레미를 안아든 순정은 어린애처럼 기뻐 어쩔줄 몰라했다. 그통에 성민은 부모님의 인사말뒤끝에 자기의 속감정까지 얼마간 비칠수 있었고 강의시간을 뚜꺼먹으면 되느냐고 한살 우 년장자로서의 존엄도 보였다.
한데 그때문에 또 퉁을 먹을줄이야.
《사람들이 다 동무같은줄 알아요? 남은 눈이 까매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는데… 이른아침에 왔다면서 그게 뭐예요.》
자기가 잘 아는 외국어강의시간이여서 승인까지 받고왔다는것은 그뒤에 한 말이고…
그날 성민은 자기가 어떻게 종합대학에까지 오게 되였는가를, 자기와 가정에 대한 보증은 순정이나 외삼촌의 동무들만이 아니라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친히 말씀까지 계셨음을 알게 되였다.
그리고 **김일성**장군님께서 함북도당안에 잠입한 종파사대주의분자들의 좌경책동에 또 한번 경종을 울리시였다는 사실도 깊은 감동속에 듣게 되였다.
이렇게 볼 때 순정은 두분의 위대한 뜻과 사랑을 성민에게 심어주는 첫 교사였고 생활의 걸음걸음에 비쳐지는 인도의 별이기도 했다.
별! 별은 그만큼 가까이, 따스하게 있었으나 여하튼 하늘에 있는것이니 존경과 애정속에 보기만 할뿐 손잡을수도 오를수도 없는 가깝고도 먼 공상속의 꿈나무일뿐이였다. 하지만 성민에게는 이것만으로

도 행복하였다. …
마음속의 상처만 더 헤집어놓았던 옥영이가 열흘후에 또다시 찾아왔다. 이때도 정창호와 함께 왔다. 경자만은 보이지 않았다.
성민은 무엇보다 옴쟁이소리에 대한 태민의 반응이 궁금해 어지간히 반가움을 보였다. 그런데 령치금과 음식꾸레미를 싸들고 온 옥영은 건강을 잘 돌보라는 말만 했을뿐 옴쟁이에 대해서는 전혀 비치지 않았다.
부득불 묻지 않을수 없었다.
《형님이 옴쟁이를 놓고 무슨 말이 없었습니까?》
《아이, 내 머리를 봐. 깜빡 잊다보니 말해주지 못했어.》
너무나도 수월히, 재빨리 나오는 대답이였다.
(거짓말이로구나.)
예견했던 일이였다. 분명 태민은 성을 냈을것이다. 별의별 험한 욕을 다 했을수 있고… 하지만 속는척 할수밖에 없었다.
《그럼 이번엔 꼭 잊지 말고 전해주십시오. 아마 형님이 들으면 무척 좋아할것입니다.》
속에서는 노기가 태질을 쳤다.
옥영은 미안스럽게 성민을 훔쳐보고는 차입음식속에 려아가 보낸것들도 있다고 하며 서둘러 떠나갔다.
감방에 돌아가 그 음식꾸레미를 헤쳐보니 백합꽃을 수놓은 손수건이 있었다. 이번에는 속이 왈칵 뒤집히는것 같았다.
명례! 그자의 공작이 아니겠는가.
모두가 치사스러웠고 그만큼 분노가 컸다.
령치금과 차입음식을 그전때처럼 감방수인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다.
그런 어느날 성민이 담당검사와 최종기소문을 합의보고났을 때 또다시 면회가 있었다. 그런데 이날의 면회는 소장실이 아니라 일반면회실에서 하게 되였다. 면회때마다 한번쯤은 얼굴을 비치던 소장도 나타나지 않았다.
반들반들 닳은 쇠그물앞에 이르자 고깔솜모자를 쓴 경자와 정창호라는 중위가 서있었다.
《이젠 경자가 엄마대신이냐?》

성민이 웃음을 보이자 경자의 입귀가 일그러졌다.
《왜, 무슨 일이 있니?》
다우쳐묻는 성민의 물음에 경자는 흑— 하고 울음을 터쳤다.
면회를 지켜보던 간수가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무슨 일이 있었소?》
성민이 정창호를 보자 그는 무겁게 한숨을 내뿜었다.
《지장군이… 잘못되였습니다.》
《잘못되다니—》
《별일 없을것이라고 봅니다만 직책에서 물러나 연금되였습니다.》
《연금?!…》
《네.》
《삼촌탓이야!》 경자의 날카로운 웨침이 면회실을 쨍— 하게 울렸다.
《얘, 그럼 못써.》
정창호가 그의 어깨를 다치자 경자는 더 서럽게 울었다. 창호는 게면쩍은 기색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뭔가 오해가 생긴것 같습니다. 군에선… 지장군말고도 여럿이 당하셨는데… 무사히 해명될걸로 믿습니다.》
성민은 놀랐다. 마음속에 지워버린 형님이였지만 이 시각은 그렇지 못했다.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와도 일없겠소?》
《저야 뭐—》
《하여간 고맙소. 난 당신이… 이 경자랑 잘 돌봐줄줄 믿소.》
《아, 거야 더 말할 여부가 있습니까.》
《경자 아버지가 좋은 부관을 두고있었구만.》
《원, 무슨 과분한 말씀을.》
경자와 창호가 왔다간 뒤부터 성민은 자기에 대한 대감님대접이 깨끗이 끝났다는것을 알았다. 간수들의 얼굴에 씌워졌던 곰살궂은 도금도 말끔히 벗겨지고 끼때마다 반군 하던 1등식(감옥안에서 제일 높은 급의 음식)은 곰팽이투성이염장무 한쪼박이 댕그랗게 놓인 썩은 꽁보리밥 4등식으로 바뀌졌다.
성민으로서는 오히려 이것이 마음에 편안하였으나 그대신 태민에 대

한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졌다.

수많은 혹시와 만약이 엄청난 환상과 기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백두산 무장부대로 가겠다던 말을 다시 상기하게 되였고 그 본심에 돛을 올리자 따뜻한 추억과 믿음의 정이 마파람의 산불처럼 불붙어 식어버린 애정을 되끓게 했다.

이로부터 그를 만나고싶은 그리고 꼭 만나야 한다는 욕구와 의무감을 더욱 강하게 느꼈고 이것은 단념했던 삶에 대한 의욕을, 아직 죽기는 이르다는 생명과 활동에 대한 강한 애착을 불러일으켰다. 하여 그는 얼마동안 중단했던 랭수마찰도 다시 시작했고 옥영의 면회까지 간절히 바라게 되였다. 배고픔속에 시들어가는 육체를 보존하자면 먹을것이 필요했던것이다. 하지만 면회나 차입은 두번다시 없었다.

그런 어느날 담당검사가 찾아왔다. 매번 검찰부 비둘기장에서 의좋은 벗인양 마주앉던 담당검사는 시죽은 얼굴로 래일이 공판일이라는 것과 공판과정에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말해주었다.

《상서롭지 못한 말은 절대 하지 말아줘요.》

여느때면 성민은 이러루한 말에 코웃음을 쳤겠으나 이때는 상당히 주의깊이 들었다.

《주로 어떤 경우를 념두에 둡니까?》

《공화국에 대한 선전과 통일에 대한 지론 말입니다.》

담당검사가 성민이앞에서 손을 들게 된것은 통일문제에 대한 론전에서 패한 뒤부터였다.

제 5 장

1

성민은 처음에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 그다음 쓴웃음을 머금었다.

(다구나.)

객석 맨 뒤줄 한복판 누구의 눈에도 뜨이지 않게 몸을 움츠리고있던 정창호 역시 성민이 못지 않은 놀라움과 실망을 체험하였다.

도대체 무슨 일로 이런 변화가 생겼는가.

창호는 옆에 앉은 옥영이며 시종 고개를 떨구고있는 려아라는 녀인의 숨소리를 들으며 빌어먹을 유다를, 7～8월 학질환자처럼 목소리를 떠는 검사를 죽일듯이 쏴보았다.

엊그제만도 검사는 간첩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옥영이가 찔러준 돈까지 되넘겨주며 걱정말라고, 죄명으로는 반미죄와 공화국찬양죄만이 거론되게 되니만치 형기도 극상해야 5～6년을 넘지 않을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무서운 배신, 무서운 기만이 생겨난것이다.

객석의 반응 역시 정창호와 비슷한듯싶었다.

피고에 대한 재판장(중령이였다.)의 대질심리때 형님을 찾아왔다가 형님으로 하여 체포된 동생이라는것으로 애잡짤한 감상에 젖어있던 사람들은 첫마디 안짝부터 무시무시한 법률로 옥죄여대는 검사의 말에 거의나 다 불만어린 기색이였고 개중에는 가벼운 헛기침과 몸놀림으로 거부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검사도 그것을 알았는지 객석에는 애당초 눈길도 주지 않고 높은 단우의 법관들만을 보며 말했는데 오직 군복입은 법관들만이 검사의 말은 다 진실이라는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어마어마한 범죄가 증명될때면 독기서린 눈길로 피고를 노려보기도 했다. 그런데 검사는 이럴

때마다 잠시 말을 끊든가 입안의 소리로 말을 흘렸는데 정창호의 경우에는 이 유다에게도 량심이 남아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 싫은 말에 주의를 집중시키려는 서툰 연설군의 잔꾀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피고는—》

검사는 이때도 입안의 소리로 말을 굴렸다.

《그 범행의 목적과 기도로 볼 때 가장 위험한 반국가범죄인임을 부인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피고의 공작대상이 국가와 군의 중추적거물로서 그를 적화포섭하는 경우 한국의 기틀이 흔들릴수 있었기때문입니다. 또한 피고는 이북의 적화통일전략과 사상을 공공연히 비호선전하였을뿐만아니라 우방국인 미국을 침략자, 조국분렬의 범죄자라고 함으로써 실제적인 현행범으로 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피고에 대해서는 국가의 기틀을 뿌리채 흔들려는 목적과 기도, 이북의 통일전략과 사상을 적극 옹호선전한 죄, 비법잠입상태에서 자수를 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개심과 전향에 대한 성의있는 방조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한국의 법과 질서를 타매우롱한 비방중상죄 등으로써 마땅히 극형이 가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될 또 하나의 리유로는 피고의 성향과 준비상태로 볼 때 그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도 개심과 전향이 전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이로부터 저는—》

검사는 여기서 말을 끊고 처음으로 객석을 휘돌아보았는데 눈에는 초점이 없었고 파릿하게 질린 볼살들이 가늘게 떨렸다.

《사형일테지.》 누군가 나직이 속삭이는 말에 검사는 흠칫하며 그쪽으로 시선을 주다가 어쩔수 없다는 태도로 기소장을 내리읽었다.

《상술한 제반사항에 따라 피고 지성민에 대해서는 사형이 가함을 제소합니다.》

정창호는 무엇보다 지태민을 만날 일이 걱정스러웠다. 어저께 헌병대 류치장에 있는 지태민에게 갈아입을 내의와 음식꾸레미를 들고갔던 창호는 성민이에 대해 4～5년정도의 경한 형기로 끝날것이라는것을 제 공로처럼 말하며 옥영이랑 함께 재판정에 가는데 대해 허락을 청했다.

지태민은 《꼭 가봐야겠나.》하며 말로는 시답지 않아하는 태도였으나 꺼칠하게 돋아난 수염을 매만지며 고개를 끄덕일 때의 얼굴빛을 봐서는 상당한 기대와 관심이 있음이 알렸다.
그런데 사형이라니, 물론 검사의 기소는 말그대로 기소이니만치 최종언도는 두고봐야 알일이다. 하지만… 단우의 법관들과 배심원석의 랭랭한 얼굴들을 보게 되자 어떠한 희망과 기대도 비누거품임을 알았다.
문제는 검사다.
성민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도 호감을 가졌노라고, 더구나 지태민을 생각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하던 녀석이 이처럼 탈을 바꾸다니.
《피고는 할말이 없는가.》
재판장의 엄엄한 말소리에 정창호는 목을 쑥 뽑아들었다.
그는 검사의 기소에서 한두가지라도 론박당하기를 바랐다. 물론 론리로는 어렵다고 보았다. 검사는 만능의 무기 《반공법》을 휘두르는것이고 《반공법》은 기존의 상식과 도덕을 초월하는것이기때문이였다.
《피고는 할말이 없으면 안해도 되오.》
성민은 재판장의 두번째 말에야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자기가 지금까지 견뎌온것이 바로 이날 이 시각때문이라는것으로 한껏 긴장되였다.
《말하겠습니다.》
가벼운 가슴떨림이 지나갔다. 육박전투에 뛰여들 때 이랬다.
《나는 길게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전에 미국인들로부터 죽음을 선고받았고 이제 와서 그 어떤 힘으로도 그걸 돌려세울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장내에 가벼운 소음이 일었다.
《하지만 나는 이 땅의 량심과 선의앞에 속임도 조작도 모르는 력사앞에 진실을 밝히는것이 옳다고 보아 몇가지만 말하고저 합니다.
검사의 기소에서는 나를 놓고 공작대상이 〈국가〉와 군의 중추이니만치 포섭하는 경우 〈국가〉의 기틀이 파괴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느 정도의 진실이 있는가.

단 하나 이 〈국가〉의 기틀이 매우 허약하고 보잘것없다는것만은 진실이라고 봅니다.》

《피고! 피고는 또 하나의 현행범죄를 저지르고있다.》

《재판장! 이건 나의 분석이기보다 이미 검사의 기소에서 제시된것이요. 검사는 나의 형님이 이른바 적화포섭되는 경우 〈국가〉의 기초가 뿌리채 흔들릴수 있다고 했소. 단 한사람때문에 말이요. 그러니 이 〈국가〉라는 틀이 허약하고 보잘것없다는 나의 말이 무슨 범죄라는것이요?》

장내에는 가벼운 탄성과 호응조의 웃음이 일었다.

《그런데 나의 형님이 과연 〈국가의 기틀〉을 무너뜨릴 용의와 힘이 있겠는가.

검사의 말을 존중하여 그렇게 한다 합시다. 그 경우 형벌집행을 누구에게 먼저 하게 되는것입니까.

저 멀리 〈동태복수법〉이라는 인류초창기의 법으로부터 오늘의 현대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의 법은 이른바 위법행위를 한 당사자를 처벌하는것이지 그렇게 하도록 한 조장자는 그다음의 취급대상으로 되는것입니다.》

정창호는 이마를 쳤다. 왜 이것을 생각 못했던가, 법의 초보적상식인데.

《그런데 저의 형님으로 말하면 그럴 용의도 없을 사람이거니와 저 역시 그런 행위를 바라지 않았으며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슬프게도 이 땅의 법은 형과 동생의 상봉을 〈적화〉와 〈용공〉행위로 규정했고 형님 역시 나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피고! 피고는 그때문에 현행중범죄는 면한셈이다.》

《중범죄?!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물읍시다. 그래, 혈친으로서의 끊어졌던 정을 되찾자고, 이 땅과 민중앞에 죄되는 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것이 과연 범죄란 말입니까.》

《피고는 적화통일을 고취하려 하지 않는가.》

《재판장, 민족이 하나로 단합되고 통일을 하자는것이 그래, 당신의 눈에는 적화로만 보이오?》

《…》

《하긴 존경하는 나의 담당검사도 그렇게 말한바 있습니다.》
성민은 통일문제에 대하여 론할 때 검사가 《손을 들었습니다.》라고 하던 말을 상기했다. 그때문인지 시종 고개를 떨구고있던 검사가 불안스런 눈길로 성민을 보고있었다.
성민은 그에 대해서는 더 까밝히지 않기로 하고 장내를 돌아보았다.
감심한 눈길들이 초롱초롱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분들속에서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통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소망이고 민족사활의 절대적인 과제이기때문입니다.》
《피고! 피고는 내란선동을 계속할텐가.》
재판장의 얼굴이 험상궂게 이지러졌다.
그 말에 여기저기서 투덜거림이 일었다. 재판장은 구리판우의 망치를 집어들다가 아니꼬운 눈길로 성민을 보며 계속하라고 했다.
《그럼 합시다.》
성민은 웃으며 검사를 스쳐보았다.
《존경하는 검사는 나에게 우리 공화국, 나의 조국에 대한 찬양을 죄라고 하였습니다, 옳습니까.》
《옳소.》
재판장이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재판장에게 한가지 묻고저 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것도 죄로 됩니까. 좋은것을 나쁘다고 말하라, 이 땅의 법은 거짓을 요구하는것입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른바 개심과 전향에 대한 반대를 놓고 범죄라고 하는것 역시 언어도단의 궤변이고 무지라고 봅니다.》
《피고, 무지한 사람은 당신이요. 물론 리해는 되오. 북한체제에서 오래 살다보니 옳고 그름에 대한 식별능력이 경화되였을테니까.》
《그렇다면 한가지 더 물읍시다. 〈5.16〉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사회의 부정과 부패, 악을 일소하기 위해서라고 했지요. 이른바 혁명이 아니면 이 어지러운 사회를 도저히 지탱할수 없다는데서… 그런데 지금 역시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피고!》

《난 멀지 않게 가까운 실례만을 말하려고 합니다. 며칠전까지만 해도 나의 담당검사는 나의 죄명을 놓고 불법잠입죄와 공화국찬양죄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전의 기소진술은 어떠했습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래 이 땅의 법정신과 도덕성의 체현이라고 하는 법관이 이럴진대 5.16이 제창하는 신성과 정의는 무엇이며 그 신성과 정의를 지킨다는 귀관들은 어떤 카멜레온들입니까.》

《검사, 피고의 말이 사실인가.》

《그건… 거짓입니다.》

《그럴테지. 피고, 당신은 법관을 무고한것으로 또 하나의 범행을 저질렀다. 물론 우리는 당신의 절망적인 심정을 리해한다. 그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당신의 전향과 개심에 대해서 마음을 썼고 재판관인 나로서도 그걸 바랐다. 그래, 피고로서는 지금의 이 자리에서도 한국의 전향제도에 응할 생각이 없는가.》

《허허 재판장님, 도대체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향하라는것입니까. 실례지만 당신의 부인이 간활한 사기군의 위협공갈에 따라 〈나의 남편은 지랄쟁이고 도적이고 강도다.〉라고 하며 당신을 차버린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탕, 나무망치가 금속판을 울렸다.

《피고의 발언을 중지시킨다, 착석!》

2명의 헌병이 성민의 어깨를 끄잡아 눌러앉혔다.

정창호는 의자가름대를 다독였다.

자기로도 놀라운 일이였다.

법관들의 참패와 망신에 대해서는 동류의 《호국》군인으로서 응당 수치와 분격을 느껴야겠으나 그 반대였고 가긍하게 보여야 할 성민이가 영웅처럼 우러러보였다.

(객관적으로 볼 땐 이런 심리현상을 놓고 《용공》, 《적화》라고 할수 있어. 하지만 나의 이런 심리는 이데올로기와는 무관계한거야. 저 얼뜨기같은 법관들에 대해서는 리승만때의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경멸하게 되는것이고 《빨갱이》에 대해서는 사상을 초월한 상태의 인간적지조와 총명박식에 끌린때문인것이야. 그리고 중요하게는 지장군의 동생이기때문인것이고—)

이러한 생각은 변호사의 변호발언을 들으면서 더욱 확고한것으로 굳어졌다.

갱핏한 얼굴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40대의 변호사는 인정적인 각도에서 취급해야 할 문제를 정치로까지 끌어간데 대하여 울분을 토한 다음 《반공법》의 불합리성까지 운운했는데 그의 변호는 이때문에 중단되였지만 정창호에게는 자못 생신한 충격으로 되였다.

(변호사의 말이 옳다. 저따위 얼뜨기법관들도 문제지만 이 땅의 법이 야단이야. 법우에 도덕이 있다는것을 전혀 모르거던.)

《반공법》비난때문에 변호사의 발언을 중지시킨 재판장이 3일후에 선고공판이 있다고 하며 휴정을 선포하자 객석은 떠들썩한 소음으로 붐비였다.

불만과 찬탄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는 속에 출구로 밀려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방청자들은 저마끔 성민을 가까이 보려 앞다투어 밀려나왔다.

《젊은이, 장하네.》

성민은 한 로인의 눈에 물기가 그렁하게 고인것을 알아보았다.

가슴이 뭉클해서 머리를 숙여보였다.

2명의 헌병에게 끌려 재판정을 나설 때 손을 휘저어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검사가 다쫓아왔다. 그는 성민이의 눈길을 외면한채 헌병들에게 뭐라 말하고는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였다.

《내가 오늘 당신을 너무 욕보이지 않았소?》

성민이 그냥 말없이 걷기가 멋적어 한마디 비치자 검사는 놀란듯 고개를 쳐들었다.

《각오했어요.》

검사는 수인차가 대기하고있는 밖이 아니라 반들반들하게 닳아빠진 구리문손잡이가 달린 방문앞에서 멈춰섰다. 친척들이 왔으니 식사를 함께 하라고 했다.

《제 본의는 아니였어요.》

검사는 이 말을 남기고 사라지고 어슴비슴 따라왔던 두 헌병이 자기들은 직책상임무이니 어쩔수 없다는 자세로 문가의 말뚝이 되였다.

성민이 문을 열자 맨먼저 눈에 뜨이는 사람은 정창호였다. 한바탕 싸움을 치르고난 사람마냥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정창호가 요란스

럽게 거수경례를 붙이며 한걸음 드텨서자 백포를 편 장탁우에 음식그릇들을 펴놓고있던 2명의 녀인이 고개를 쳐들었다. 옥영은 인차 알아보았으나 하얀 목수건으로 얼굴절반을 가리다싶이하고 조용히 일어서는 녀인이 려아라는것은 뒤늦게야 알았다.

《이거 정말 고맙군요.》

성민은 모두걸이로 인사를 하였다.

《지선생, 오늘 감탄했어요. 대단해요.》 정창호가 의자를 끌어당겨놓으며 설레발을 쳤다. 《글쎄 법관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꼴일줄이야. 하참, 그 검사라는 유다는 알고보니 저의 법대출신이란 말입니다. 학교땐 민주가 어떻소, 정의가 어떻소 하던 녀석이 오라질 요술쟁이가 아닌가요. 앉으십시오.》

《당신은 이곳 장교가 맞소?》

《아무리 제편이라도 정의야 정의가 아닙니까. 선생은 오늘 쏘크라테스를 찜쪄먹었어요. 그 언변, 그 태도, 만점이였습니다.》

《창호씨, 그만해요.》

옥영이가 울상으로 말해서야 창호의 입이 다물려졌다.

《난 지금 무슨 욕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빨간 실고추와 깨가루가 뿌려진 닭곰소반을 성민이앞에 밀어놓고난 옥영은 야료를 부릴듯 한 눈길로 성민을 쏴보았다.

《얘.》

그때까지 까딱않고있던 려아가 옆구리를 찌르자 옥영은 성난 암닭처럼 그 손을 뿌리쳤다.

《넌 이 사람을 영웅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지 않아.》

《형수님, 이런 잔치상앞에서 얼굴을 찡그리진 맙시다.》

성민은 대견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한가득 펼쳐진 음식들을 둘러보았다.

《이걸 다 제가 먹으랍니까.》

《어휴-》 옥영은 한숨을 지었고 려아가 그를 대신해 물수건으로 닦은 수저를 조심스레 건네주었다.

《고맙소.》

수정을 찬 상태라 맨손으로 닭다리를 뜯었다.

《다들 함께 들어야지요.》

성민의 말에 정창호가 선참 응해나섰다.

《지선생, 이번 선고공판이 끝나면 무조건 항소심의를 하세요.》 2병의 맥주를 말끔히 비우고난 정창호는 입가에 발린 거품을 손등으로 닦으며 기염을 토했다. 《지금의 법관들이란것이 다 얼치기이니 대법원에까지 상소되면 달라질것이 분명해요. 한데… 더 좋기는 다음선고공판땐 적으나마 일정한 자제와 신축반응을 보이세요.》

《신축반응이라는건 어떤거요?》

성민은 정창호의 성의를 외면할수 없었다. 정창호는 사뭇 기뻐하는 기색이였다.

《건 선생으로서는 좀 어렵겠지만 오늘의 과격발언을 뉘우친다는… 회개발언을 했으면 하는거예요. 말하자면… 남한체제와 법을 잘 모르는데서 이러이러하게 잘못 생각했다는것과 주요하게는 이곳에 온것이… 선생도 말한바지만 형님에 대한 정의에서 출발된 점이라는것만을 계속 풀이하는것이지요. 정치나 법률에 대한 분석은 피하고… 아아 달리 생각할것은 없어요. 저로서는 선생말씀 다 옳지만 우직한 법관들로서야 그렇게 되나요. 어쩔수 없어요. 권한이야 그들이 쥐고있으니 신축성있게 하라는겁니다.》

《난 그렇게 할줄을 모르오.》

《왜 그렇게 못한다고 해요?》

그때까지 바삭과자 하나로 동석식사의 분위기를 살리고있던 옥영이가 팩하여 내쏘았다. 성민은 웃었다.

《형수님의 고견을 들어봅시다.》

《고견?!…》 옥영은 억이 막혀 그를 보았다. 《지금 그런 말을 할 계제가 돼? 목숨이 왔다갔다하는데. 내 말도 같아. 일일이 론전하지 말고 요령있게 하라는것이여. 그래, 법하고 싸워이기는 장수가 있어?》

《형수, 설설 긴다 해서 달라질것은 하나도 없소. 그리고 알지 않소? 난 기는것은 배우지 못했소.》

시종 고개를 떨구고있는 려아를 스쳐보고 말을 이었다. 《내가 오늘 잘못한것이 있다면 할말을 채 하지 못한 그것뿐이요. 더러운 인간을 더럽게 보지 못한것과 그런 인간의 비행을 막지 못한데 대한… 하긴 이건 오늘의 법정에서는 구태여 말할것도 또 들으려고 하는 문제

도 아니지만.》
《그건 누구를 념두에 두고 하는 소리예요?》
《그걸 말하면 또 하나 〈반공법〉위반이 될것 같은데—》
성민은 창호를 보았다. 창호는 얼굴이 벌개지며 어색한 웃음을 흘리였다.
《려아씨.》
성민은 처음으로 려아를 똑바로 보았다. 20년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려아의 모습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순종만을 미덕으로 아는 예수의 수제자다운 모습이다. 더 거슬리는것이 있다면 상복차림 비슷한 까만 비단두루마기와 흰 동정이 눈부신 목언저리에 청옥목걸이가 한들거리는것이였다.
(이 녀자는 무엇때문에 왔는가?)
새삼스럽게 혐오스러운 감정이 치밀어올랐다. 그러나 그 감정을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난 지금 려아씨가 어떤 녀자인지 잘 모르겠소. 찾아온데 대해서는 반갑다고 해야겠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 못하오.
물론 려아에 대해서는 나한테도 잘못이 많소. 형수한테도 말했지만 그때의 내가 변변치 못하다나니 제대로… 돕지를 못했거던. 그러나 난 려아가 좋은 사람으로 될걸 바랐고 지금도 마찬가지요. 이제 내가 이런 말을 하는것은 어리석은것일지도 모르지만 려아는 모든데 대해 잘못 생각했소.》
려아는 까딱도 하지 않았다. 입술만 바르르 떨었을뿐이였다.
분했다. 옥영을 향해 돌아섰다.
《형님이 잘못되였다는데 그뒤 소식은 모릅니까.》
옥영의 얼굴이 밝아졌다.
《인차 놓여나올것 같다고 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니까.》
정창호가 발을 달았다.
성민은 다소간 마음이 놓였다. 려아를 얼핏 보며 옥영에게 물었다.
《형님에게 옴쟁이소리를 전했습니까?》
《아이, 그걸 또… 언제 말할 틈이 있었어요?》
《하긴 그렇군요. 그 옴쟁이에 대해선 저 려아씨도 잘 알지요.

개질을 하다가 끝내 사람이 되지 못한 불쌍한 인간이 옴쟁이랍니다.》

려아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으나 성민은 모르는척 했다.

《형수,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것이 간단치 않은것 같습니다.》

《그런 말은 그만해요.》

《지선생, 너무 비감해할건 없습니다.》

정창호가 한마디 께끼는 바람에 성민은 쓰겁게 웃었다. 당황한 기색의 옥영을 보며 계속해 말했다.

《나는 이젠 나로서 할수 있는 일은 다한것 같습니다. 좀 서운한 일이 있다면 형님을 만나지 못한 일인데…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참, 경자는 잘 있는가요. 난 그 애한테마저 미움을 받게 되였는데 영원히 남남이 될가봐 두렵습니다.》

3일후에 재개된 공판에서 성민은 사형을 언도받았다.

그때 약간의 소란이 일어났다. 지응석이 뛰여들어 자수서를 내흔들며 소동을 부렸던것이다. 성민은 언젠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 자수서를 찢어버렸다. 지응석이 자작 만든 자수서인것이다.

그 소동때문에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던 지응석은 마지막발언을 하는 성민의 입에서 《친척을 만나러 왔다가》라는 말을 듣자 황소울듯 소리쳤다.

《성민아, 그따위의 친척들은 죄다 잊어라. 제 혈육을 잡아먹는 친척도 친척이냐.》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후에 비공개로 다시 열린 3심재판에서 성민의 사형은 무기형으로 고쳐졌다.

서대문형무소의 감방으로 들어설 때는 모든것이 끝장났다는 허무한 생각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차 생각이 달라졌다. 그가 든 감방에는 쓰리와 절도범으로 구속된 5명의 잡범들이 있었는데 《어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처음 며칠동안은 《빨갱이》란것으로 무척 꺼려하는 태도였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인차 친숙감을 드러내보였다. 그것은 나이가 어리건많건 성민이 깍듯이 례입을 써주는것과 옥영이가 밀어넣은 령치금을 모두의 공동구좌로 한것이 적잖게 영향을 미친것 같았다.

감방안에서 나이는 어리지만 두령격으로 있는 차호은이라는 청년이 무척 그를 따랐다. 전쟁때 류랑고아로 인민군부대에 가서 보름넘게 공짜밥을 먹었다고 하는 차호은은 때없이 북쪽소식을 물으며 지난날에 사귀였던 인민군대아저씨들을 애틋하게 추억했고 똘마니들이 보내오는 음식들이 차입되면 맨먼저 성민이에게부터 대접했다. 왈짜깡패로 서울안은 물론 지방에까지 똘마니들을 거느리고있다는 차호은은 감방안에서도 《말보로》나 《켄트》만을 피웠다. 간수들도 그한테는 넙죽 엎드리는 자세였다. 비록 구속된 몸이라지만 이 어둠의 아들에게는 줄당게 들어오는 돈과 간수나부랭이쯤은 그의 말 한마디에 북어토막처럼 두드려댈수 있는 주먹패들이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런데 이 차호은은 알짜배기까막눈이였다. 웬만한 말은 영어와 일본말로 엮어대는 그가 조선글을 모른다는것이 놀라운 일이였다.

성민은 이 차호은을 돌려세우고 글을 배워주는데서 한가닥 살아갈 의의를 찾게 되였다.

성민은 9개월후에 대전감옥으로 이송되게 되였다. 그때 핑장한 송별연을 마련한 차호은은 성민을 일생 잊지 않겠노라고 하며 눈물까지 흘렸다. 한데 성민은 이 차호은으로 하여 후날 고민도 하고 신세도 입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대전형무소에 온 성민은 정치범들에게 차례지는 0.75평의 독감방에 수감되였다. 여기서 제일 큰 고충으로 된것은 고독과의 싸움이였는데 통방과 옥내 산보시에 알게 된 정치범들과의 상면으로 그 고독은 인차 극복할수 있었다. 특히 여기서 오영기를 다시 만나게 된것과 성민이가 평양에서 온것을 알게 된 동지들로부터 북의 소식을 들려달라는 청탁을 받게 된것으로 구차스러운 목숨이라는 절망감에서 완전히 해방될수 있었던것이다.

견디기 어려운것은 숨막히는 독감방에서 여름에는 더위와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는것이였고 여기서도 제일 어려운것이 배고픔을 극복하는것이였다. 일반잡범들에 비해 절반밖에 안되는 썩은 보리밥은 한입에 넣으면 다였고 고무신짝에 담아주는 짜디짠 국물은 허기진 창자를 비틀었다. 적잖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숨을 거두었다.

이로 하여 성민은 꿈에서까지 음식을 보군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는 면회오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를 찾아오는 면회자는 하나도 없었다.

성민은 이것이 《극악빨갱이》들에 대한 징계조치라는것은 인정하면서도 원인은 이 하나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형님이 영 잘못되였는가, (이런 면에서는 잘못되지 않기를 바랐다.) 아니면 영 의절인가.

2

박정희는 또 한병의 술을 꺼내왔다.

섬세한 세공을 한 은초대의 불빛에 《로얄》상표의 블랙위스키는 황금색으로 번쩍이고 벽가에 둘러친 8첩병풍의 신선들은 극락세상의 어려움을 말하는듯싶다.

《들라구.》

《이거 너무 하는것이 아닙니까?》

지태민이 청와대의 《대통령》집무실에서 술을 마시기는 오늘이 두번째였다.

첫번째는 태민이 검속에서 풀려나온지 1년 조금 더 되던 가을이였다. 그때 박정희는 《알라스카작전》(북반부출신 장성들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의 경위를 곱씹으며 태민이까지 잡아간것은 분명 잘못된 실책이였노라고 구구히 변명을 했다.

그런데 그뒤에 하는 말이 끔찍스러웠다. 태민이더러 헌병사령관을 할수 없겠느냐 하는것이였다. 군대의 기강과 질서가 말이 아니니 엄정쇄신과 척결로 군기를 바로세워달라고.

예전같으면 한번 해볼만 한 일이였다. 군의 부패와 이색을 막는데는 특무대도 있고 검찰도 있지만 그 주역은 헌병대가 하게 되는것이다.

하지만 태민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론 각하의 기분에 거슬리지 않게 고맙기는 합니다만 제가 재목이 됩니까 하는 식으로 사정을 했다.

《허, 자네가 재목이 안되다니. 이건 임자를 생각한데도 있어. 지금 큰집어른들속에서까지 임자를 놓고 머리를 기웃거리는데 한번 본때를 보이라구. 나를 받쳐달라는것이 기본이네만.

생각해보게, 군사계엄이 끝난 뒤부터는 군안에서도 기강이 물렁팥죽인데다가 파쑈정치요 뭐요를 떠드는 각설이떼들의 타령에도 귀가 솔깃해 어물거리는것들이 있거던. 택규를 생각해봤지만 그 앤 머리가 딸려. 세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구 경찰국고쯔까이때 배운 잔재간이 전부거던. 어떤가, 이래도 못하겠나.》

박정희의 장광설과 깔끔한 눈길에 태민은 진땀이 났으나 끝까지 뻗쳤다.

알고보면 헌병대란것이 군의 기강이요 치안이요 하며 질서확립을 떠들고있지만 실제상 업무는 사람잡이이고 지금에 와서는 그 권한을 사회와 민간인들에까지 뻗쳐대는판이니 제가 어찌 그런데 갈수 있겠습니까라는 말만은 못했다. …

태민은 박정희가 부어주는 술을 스스럼없이 마시긴 했으나 그때의 일이 떠올라 여간만 불편스럽지 않았다. 그런데 부대들의 군률상태를 묻던 박정희가 뜻밖의 물음을 꺼내는통에 속이 와들짝 했다.

《참, 자네 누구더라. … 그 동생, 지금도 그 앨 만나지 않나?》

태민은 잔뜩 긴장감이 오는 속에서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제가 만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영영 남남이 되였다는건가?》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애가 어데 있나?》

《모릅니다. …》

《모른다? 무기징역이라고 했던가. … 자네 일도 안됐군.》

박정희는 머리를 휘젓고는 불쑥 일어섰다.

《내 오늘 자네한테 기쁜 소식을 알릴것이 있네.》 그는 서랍에서 두툼한 돈뭉치를 꺼내들며 말했다. 《이번에 미국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립장을 바꿨어. 그 잘난 〈푸에블로〉호사건때문에 망신을 한때문인지. 저들 위세만으로는 안되겠다는걸 깨달았거던.》

태민은 무슨 소린지 알수 없었다. 《푸에블로》호사건으로 당장 이북을 삼킬듯 소란스러울 때는 《미군과 더불어 압록강까지 먹는다.》

고 떠들던 박정희였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도 오그랑수가 있을것 같았다. 아니, 그보다 더 두려운것은 《푸에블로》호사건때의 자기내심을 알아차리지 않았는가 하는 불안이였다.

《푸에블로》호사건으로 온 나라가 물끓듯 할 때 태민은 이상스러운 환희에 사로잡혔다.

터져라! 엔트로우가 하던 말까지 생각했다.

미국이 이기건 북이 이기건 관계없다고 생각했다.

어느편에 서는가, 그건 대수로운것이 아니다.

싸움이 터져 다 죽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편한 일일것이라고 생각했다. 함께 죽는것은 함께 사는것과 같은것이 아닌가.

그런데 삽시에 북을 도륙낼듯 하던 미국이 뒤주춤 물러났다. 이것은 태민에게서 커다란 실망으로 되였다. 하나로 통일되든가, 다 죽든가 해야 한다는데서 파탄이 왔기때문이였다.

《왜 그렇게 굳어진 얼굴인가.》

박정희는 탁우에 돈뭉치를 내려놓으며 활기차 계속했다.

《내가 말하자는건 우리가 이제야말로 완전한 주인이 되였다 그 말일세. 백악관과 펜타콘에서 토론한것이라는데 우리가 단독으로도 이북을 누르게끔 대거지원을 주겠다는거야. 군사장비를 일신시키는것으로부터… 죄다 말이야. 이러구저러구 간참하는노릇두 덜하겠다고 하고. 그러니 우리가 진짜주인이 된것이 아닌가.》

태민은 귀가 솔깃해졌다. 늘 미국사람들때문에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던 박정희였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주인》이라는 말은 본래의 뜻을 되살린다는것이고 미국사람들 눈치때문에 《알라스카》검속건도 막지 못해 헤식어진 태민이와의 정분도 고스란히 내세울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

은근한 기대로 가슴이 뛰였다.

《그래서 난 자네를 예편(제대)시키기로 했네.》

박정희가 재차 하는 말에 태민은 어리둥절해졌다.

《달리 생각말라구, 정 필요하면 군에 다시 오면 될것이고. 난 자네가 돈주머니가 될걸 바라네. 재계에 나가보라는걸세. 어떤가, 사복장성으로 나를 도와주지 않겠나.》

태민의 높뛰던 가슴은 졸지에 얼어붙었다. 마지못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군에서 나가게 되니 좀 섭섭합니다만 앉음뱅이소장이니 물러날 때가 되였다고 봅니다.》
《아아, 그런건 아니야. 자네한테니 터놓고 말하네만 섭정이 끝나도 태황후는 여전히 지켜보거던. 큰집사람들속에선 이 박정희까지 려수폭동건으로 아직도 기연가미연가 의혹을 품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난 그 사람들의 의혹이 풀려질 때까진 군과 정계의 인사사업도 그들 뜻대로 하려고 하네. 그러나 이건 당분간이지. 정 싫다면 다시 고려할순 있네.》
《아니, 각하의 의향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라구. 그래서 난 합당한 자리를 고르던 끝에 군수관련회사 하나를 꾸려 그 사장자리에 자넬 앉히려고 하네. 그럼 자넨 잠간사이에 거부가 될거구 나도 덕을 볼것 아닌가, 하하.》
밖에 나온 태민은 다리가 휘청거렸다.
(이젠 헌신짝처럼 버려졌구나.)
차가 청와대정문을 벗어날 때 그사이 밤눈이 소담스럽게 내린것을 알았다. 서울날씨치고 드물게 보는 풍경이다. 여느때면 애어린 시절의 포근한 기분속에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봤겠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했다.
순결한 인생, 순결한 인간, 흰눈은 조만간 검스레하게 얼어붙든가 녹아버릴것이다.
언제부터?… 박정희도 자기도 정치라는 진펄, 대의라는 표대앞에서 인간의 본도를 벗어났다, 참인생은 허울로만 남았고. 아, 이야말로 희비극이 아닌가.
집근처에 이르러 어수선한 생각을 털어버렸다. 골목골목에서 아이들이 눈싸움을 하는것이 보였다.
맞았다! 던져라!
아이들의 떠들썩한 움직임에 시선을 팔던 태민은 《쟁강!》하는 소리와 《앗!》하는 비명에 눈이 둥실해졌다.
운전사가 급제동을 썼다. 왼손으로 이마를 싸쥔 정창호가 오른손으로 차문손잡이를 비틀었다.
《그냥 몰라구.》
태민은 차창에 뚫려진 구멍과 그 구멍과 일직선으로 뻗어진 길목으

로 키가 늘씬한 사내아이가 재빨리 도망쳐가는것을 지켜보며 침울하게 말했다.

벌써 세번째이다. 한번은 경자와 정창호가 나이트클럽에서 돌아오다가 돌총사격을 받았고 또 한번은 집창문이 돌세례를 받았다.

승용차의 경적소리가 울리기 바쁘게 옥영이와 경자가 현관문밖에까지 뛰여나왔다. 태민이 검속에서 풀려나온 뒤부터 생겨난 습관이였다.

집에 들어선 태민은 정창호의 이마빼기상처를 보고 길길이 뛰는 경자를 언짢게 보며 침실에 들어섰다. 다 큰 처녀애가 실내복바람으로 감겨드는 꼴이 거슬렸던것이다. 근심스러운 얼굴로 따라들어서는 옥영에게도 잔소리를 했다.

《저 애 옷차림을 신칙해줘야겠소.》

일본과의 회담이 결속된 후에 물밀듯 밀려드는 일본제품바람에 경자의 실내옷은 속이 환히 드러나보이는 일본제 나이론옷이다. 부녀간에는 그까짓 눈을 감는다쳐도 피가 서말동이로 끓는 정창호에게는 얇디얇은 천자락을 밀치고 일떠서는 젖가슴이 탑동공원의 돌조각과는 완연히 다를것이였기때문이였다.

《저… 아침에 해성의 아버님이 왔다갔어요.》

《뭣때메…》

태민은 옷을 벗다말고 돌아섰다. 해성이란 지응석의 아들이다. 저절로 얼굴이 찡그려졌다. 지응석이 의절을 선포한지도 수년, 그동안 한번도 얼씬하지 않았다.

옥영은 그의 흐려진 얼굴을 보고 한숨부터 쉬며 침대옆 쏘파에 조심스레 앉았다. 긴말을 할 잡도리였다. 엎친데덮친데라고 오늘은 좋지 않은 날이다.

태민은 옷을 걸어놓고 침대에 와앉았다.

《그래, 또 행악질이였소?》

태민은 돌팔매의 당사자가 해성이라는것을 생각하며 물었다.

《그 집에서 다른델 이사를 간대요.》

《건 왜?》

《저… 동리에서 몰린데다가 이번 재판에서 져가지고 가산까지 거의다 빼앗겼다고 해요.》

《재판이란건 뭐구 또 빼앗겼다는건 무슨 소리요?》

《전번에 말하지 않았어요.》
태민은 떠오르지 않았다. 기억되는것이란 지응석과 대판들이싸움을 벌린 일뿐이였다. 지응석이 그를 찾아온것은 검속에서 풀려나온지 나흘째 되는 날인가 저녁이였다. 지응석 역시 그동안 재판소출입과 류치장생활로 초췌하고 악에 받친 몰골이였다. 성민의 재판때 《법정질서》를 깨뜨린 죄와 그뒤에도 법이 어떻소, 북이 어떻소 뒤소리를 많이 하여 형사소송법에 걸려들었던것이다.
그날 응석은 마구잡이욕설과 눈물로 태민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태민은 처음에는 참으려 했으나 동생을 고발하고 잡아먹기까지 했다고 하는 말에는 참을수 없었다. 나가라고 소리쳤다. 하여 응석은 의절을 선포하며 선산의 노염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을러멨다. 그러면서도 성민을 살리게끔 해달라고 눈물코물 흘리며 애원을 했다.
《해성의 아버지 말로는》 옥영은 태민의 침묵을 전번 말에 대한 리해로 생각했는지 제 료량으로 계속했다.
《그전부터 척을 지고있던 사람의 거짓상소에다가 경찰에서까지 짜고들어 망하게 했다는것이예요. 그때문에 재판소출입을 하다가 요 며칠전에 재판을 했는데 〈불법매도〉에 또 뭐라던지… 군수품과 국가물품을 빼내서 팔았다는… 오, 사기죄라고 하던지 그런 죄에 걸려 국세청에도 돈을 들여놓고 또… 협잡군놈팽이한테도 수만금을 바치게 해서 한지에 나앉게 했다는것이예요.》
《집에 돈이 얼마나 있소?》
《저도 그 소리를 했어요. 다문 얼마라도 보탬을 줘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필요없다고 해요.》
《필요없다구?》
《자기는 청청하늘을 보며 깨끗이 살겠노라고 하며 우리 집에 온건 성민이때문이라는거예요. 만약 우리가 정 도울 생각이 없으면 자기라도 그를 만나게끔 도와달라는거예요.》
《만나는거야 제 혼자 가면 되지 도움은 무슨 도움이야.》
태민은 벌컥 성을 내였다.
《그런게 아니예요.》 옥영은 황급한 기색으로 말했다. 《성민이 그

사람은 서대문교도소에 있다가 지금은 대전교도소에 가있다는데 해성이 아버님은 대전에만도 두번씩이나 찾아갔지만 아예 만나지조차 못하게 한대요.》

《만나지 못한다구—》

태민은 떡심이 풀렸다. 경찰서요, 재판소요 끌려다니는 속에 대전에까지 두번씩이나 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왔을 지응석의 모습이 비껴오며 가슴이 아파들었다.

《술을 가져오우.》

《또 마시려구요.》

《가져오라면 가져오는거지 무슨 잔말이요.》

옥영의 눈이 휘둥그래졌다. 태민은 실내등을 끄고 상두대의 탁상등만 켜놓았다. 주단우에 길게 뻗쳐진 그림자를 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는데 문소리가 울렸다. 옥영인가 하여 고개를 들고 보니 경자가 문을 빠끔히 밀고 보다가 냉큼 닫았다.

《왜 그러냐?》

대답은 없었다. 태민은 허구프게 웃었다. 방안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에 부부싸움으로 생각했을것이다.

모든것이 파탄이였다, 가정의 단란도 웃음도. 성민의 재판건이 알려지고 태민이 검속되였다가 나온 뒤부터는 그전까지 줄닿게 찾아들던 손님이요, 지기요, 마님이요 하던 사람들도 적잖게 발길을 끊어버렸다.

《어떻게 하실테예요?》

커다란 다반에 술병까지 받쳐 들어온 옥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건 좀더 두고보기요.》

검속에서 풀려나왔을 때는 성민이따위는 잊어버리라고 소리쳤다.

제따위가 뭣이 돼서 통일이요, 악법이요 떠드는가. 숭어가 뜀박질을 한다고 흐르던 강물이 되돌아설텐가.

그러나 이러한 감정도 일정한 기간뿐이였다. 성민이가 옥영에게 했다던 옴쟁이소리도 되게 속을 긁었으나 오히려 그로 하여 형님으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하여 반년에 한두번씩은 옥영이의 면회와 물건차입을 허락해주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중앙정보부에 일일이 장악된다는것을 알게 되자

생각이 또 달라졌다.

그 녀석을 위해서도 그만두어야 한다, 고생을 하느라면 돌아설수가 있을테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의 보신을 합리화하였다.

《젠장!ㅡ》

포도주잔에 절반쯤 부은 술을 단숨에 들이키고 저가락을 들며 보니 소고기편육과 미꾸라지탕외에 고사리, 참대순, 도마도화채따위의 동맥경화방지제가 수두룩했다.

옥영은 태민이를 검진한 의사들이 이러쿵저러쿵하는 설레발에 간보호제요, 동맥경화방지제요를 극성스레 갖춰놓는것이다. 동맥경화는 헌병대에서 풀려나온 뒤 한달도 채 안되였을 때 받은 진단이였다.

류치장생활 9개월에 동맥경화라니, 어처구니없는 일이였다. 그것도 이따금 찾아드는 심문관들에게 욕이나 퍼붓고 옛날일을 새김질하던 생활이였는데… 돌이켜보면 체험자들의 충고를 무시한때문이였다. 마음만 동하면 아무때나 산보를 할수 있었건만 세상일이 다 여의치 않아 침대하고만 씨름했다. 바로 그렇게 심기를 다잡지 못한탓에 재판정에 가보련다는 청에도 눈을 감았고 감았을뿐만아니라 행여나 하고 기다렸다. 태민은 연신 술을 부어 들이키며 안주를 집어들었다. 참대순인가 하는것을 집어씹는데 맛이 별스러웠다.

《이건 뭐요?》

마음도 화제도 돌리려 했다.

《송이버섯이예요.》

《아ㅡ니!… 건 어데서 났소?》

《창호씨가 구해다줬어요.》

《창호가ㅡ》

태민은 더는 참대순ㅡ송이버섯을 집게 되지 않았다.

《왜 그래요?》

《뭐 아니야.》

취기에 잠긴 눈으로 웃어보였다. 그러나 가슴속엔 눈물이 맴돌았다.

어제날을, 고향을 보았다.

바다쪽에서 불어오는 솔스러운 바람, 산새들의 정겨운 울음소리, 쌉

쌀들크무레한 산의 냄새, 이리기웃 저리기웃. 드디여 나타난다. 노랗게 말라든 가랑잎과 솔잎을 들추며 봉긋봉긋 치솟은 연밤색송이버섯.
《야, 잡았다!》
산삼을 캘 때와 같은 말,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송이버섯은 숨어버린다고 했다.
하나하나 조심스레 따낸다. 짙은 향기, 말큰한 감촉.
《에구, 우리 태민이가 송이밭을 찾았구나.》
허겁지게 웃으며 달려오는 어머니. 어머니의 손에도 송이버섯이 들려있다.
경성에는 관모산줄기의 모든 산들에 송이버섯이 많았다. 그런데 송이버섯은 깨끗하고 외진 곳을 좋아하는지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하여 고향에서는 부정을 탄 사람과 마음이 곱지 못한 사람의 눈에는 송이버섯이 띄우지 않는다고 했다. 버섯철이면 농가들에서는 물론 시내의 부녀자들까지 송이버섯따기에 나선다.
태민이 6살때던가. 갓 후실로 들어온 어머니가 마을녀인들과 함께 산으로 오를 때 태민이도 따라갔다.
그런데 이 일로 하여 어머니가 된경을 쳤다. 대가집아낙이 려염집녀인들과 산판에까지 오르다니, 할아버지가 대노하여 길길이 뛰였던것이다. 그때 태민이가 어머니를 막아나섰다, 자기가 떼를 써 갔노라고.
집안의 장손이여서 태민이를 더없이 귀히 여기는 할아버지는 눈물까지 쏟는 장손의 말에 더이상 야단을 치진 않았으나 두번다시 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뒤에도 자주 갔다. 태민이 송이버섯을 무척 좋아했기때문이였다. 장에서도 살수 있었지만 자기가 따서 깨끗이 다듬어 태민이한테 먹이는것을 즐거움으로 아는 어머니였다.
성민이가 컸을 때 어머니는 그도 함께 데리고다녔다.
이를 놓고 들바람, 산바람이 났다고 역증을 내는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리해를 시켰다.
산의 정기를 쐬여야 애들 건강에도 좋고 자연과도 친숙하게 되니 마음가짐과 성장에도 좋다고.
금방 송이버섯의 갓을 떼고 그 뗀 자리에 소금을 친 다음 다시 갓을 맞춰놓고 해빛좋은 바위우에 1～2시간가량 놓았다가 먹는것이 별

미였다.

태민이 그 재미를 성민에게 배워주었다. 물론 그때마다 태민이가 더 많이 먹었다. 일단 성민이까지 맛을 알게 한 다음엔 홀라당 자기 혼자 다 먹어치울 때도 있었다. 그때면 성민은 울상이 되였으나 어머니한테 고자질까지는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송이버섯찬이 적을 때면 태민이만 먹으라고 밀어주군 했다. …

《허.》

태민은 자기도 모를 헛웃음을 짓고는 접시우의 송이버섯을 말끔히 비워버렸다. 무슨 일인가싶어 눈이 올롱해있던 옥영이가 시무룩해 말을 뗴였다.

《저… 오늘 려아가 왔댔어요.》

《건 왜?》

《성민이때문이지요, 뭐.》

《아니, 건 또 무슨 바람이 불어서―》

《사람의 정이라는게 그렇나요. 그 애도… 한번 알아봐줬음 하더군요.》

《허, 정이란 말이지…》

《지금 성민이같은 교도수들 생활이 말이 아니래요. 쩍하면 두들겨패구 굶기구… 그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래요.》

《건 제 남편한테나 알아보라구 해. 나같은거야 정이구 뭐구 안다던가. 그리구… 그한테는 내 소릴 일체 하지 말어.》

《건 또 무슨 소리예요?》

《그저 그렇게 알고있으라구.》

옥영이가 음식그릇을 가지고 나간 다음 태민은 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다. 희읍스름한 달빛이(실제는 바깥 눈의 반사광이겠지만) 꽉 찬 방안에서 눈만 뜨부럭거렸다.

(려아에 대한 말만 듣지 않아도 심사가 이처럼 괴롭지는 않겠는데… 더러운 고자질군.)

헌병대구류장에서 만났던 중앙정보부장은 성민이의 《친북동향자료》를 렬거할 때 지난 기간 명례한테 했던 말들을 거의다 되옮겨놓았다.

더러운!… 태민은 원체부터 명례라는 인간을 개차반으로 여겼지만

그가 소학교아이들까지 침뱉을 고자질군인줄은 몰랐다.
《더러운…》 방에 들어온 옥영을 보다말고 저도 모르게 《음.》소리를 내질렀다.
《왜 그래요?》
머리핀과 그러루한 물건들을 들어내리던 옥영이가 깜짝 놀라 물었다.
《뭐 별거 아니요.》
태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환각속에서 또다시 성민이를, 성민이의 두눈을 보게 되였던것이다.
《형님도 고자질군이요. 밀고쟁이란 말이야.》
성민은 이렇게 소리치는듯싶었다.
《저… 약을 드셔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라니까.》
태민은 울고싶었다.
내가 왜 이러는가. 이젠 승급도 뭣도 죄다 수포로 되였으니 마음바재일것도 없지 않는가. (태민은 이상스럽게도 그 어떤 희망이나 기대가 좌절되였을 때면 불안이 아니라 마음에 평온을 얻는 특성이 있었다.)
자자, 모든것을 잊어야 한다.
뽀잇한 안개속에서 옥영의 몸놀림을, 유난히 하얀 팔과 다리의 움직임을 여겨보며 달콤하고 깊은 잠을 그려보았다.
《춥지요?》
《응.》
옥영의 날씬하고 보드라운 몸을 꽉 그러안자 아닐세라 모든것이 잊혀지는듯 했다.
(그래, 모든것을 잊어야 한다.)
잠시후 옥영은 쌔근쌔근 잠들었다. 태민은 물끄러미 천정만 바라보았다.
취기로 인한 광열도, 아직도 20대의 젊음에 못지 않다는 장쾌한 쾌감도 썰물처럼 사라져버렸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치국평천하란게 뭐예요?》
애어린 성민이 그의 무릎을 흔든다. 머루알같이 까만 눈에는 깊은

연구심이 깃들어있다.

《평천하란 나라를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워야 한다는거지.》

그래, 나한테 아직도 그 꿈이 있느냐. 아, 한다하는 어르신들도 전전긍긍 앙앙불락인데 나나 네따위가 무슨 통일이냐?… 불시에 뜨거운 눈물이 쭈르르 흘러내렸다.

그래, 넌 나를 죽이려는거야, 내 속을 썩여 거름을 만들자는거야, 형님도 뭣도 아니라고 시궁창속에 처넣는거야.

문득 옥영에게 했다던 성민의 말이 떠올랐다.

(옴쟁이! 허 내가 그와 같다는거지.)

허구픈 웃음속에서도 눈물은 멈춰지지 않았다. 옥영이가 하던 말이 귀전을 쳤다.

그는 당신을 잊지 않고있어요. 고민하며 괴로와하고있어요.

잊지 않는다?!… 그래, 그럴거야, 그렇게 돼먹은 녀석이니까.

《5.16》후에 가보았던 감옥시찰때의 일이 떠올랐다. 컴컴한 감방, 그 어두움으로 하여 더욱 대조되게 보이는 피기 바랜 얼굴들, 목곽에 붙은 썩은 보리밥알들, 코를 찌르는 악취와 몽둥이들과 쇠사슬들… 그런데 나는 편히 먹고 자빠져있단 말이지, 아아, 이 무슨 일이람.

《사내로서 인간의 도란 불의에 꺾이지 않고 의를 중히 여기고 믿음을 지키는거야.》

이건 내 말이였지. 한데 지금은 그가 이 말을 하는셈이다.

아아, 넌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려느냐.

태민은 이날 밤을 거의나 밝히다싶이 하였다.

제대수속과 인계사업을 할 때 가까운 부하들의 문제에 끔찍하게 관심을 돌렸다. 밉건곱건 모두에게 좋은 평정을 주었고 권한이 미치는 한도에서 승급도 시켜주었다. 정창호때문에 적잖게 골머리를 썼다. 창호는 지장군을 따라 한생을 바치겠노라고 했지만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을 생소한 돈벌이판에 끌고갈수는 없었다. 더구나 창호의 그러한 결심에는 그간의 인연도 있겠지만 보다는 경자에 대한 엉큼한 욕심때문이라는것으로 더더욱 받아들일수 없었다. 창호는 비록 성실한 청년이였으나 사위감으로 보기는 나이도 어울리지 않는데다가 지체도 낮아 맞지 않았던것이다. 그럴 때 중앙정보부에서 창호를 달라는

청탁이 왔다.
태민은 몹시 놀랐다.
어떻게 되여 자기의 부관이 중앙정보부와 인맥져있는가.
처음에는 될대로 되라 하는 감정이 앞섰지만 내 사람이였다는 책임감이 그걸 눌러버렸다.
정창호는 사실그대로를 솔직히 다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태민의 물음에 창호는 뜻밖의 대답을 했다. 중앙정보부에는 안 가겠다는것이였다.
왜? 임자의 소원이 아니였는가?
《그건 멋모를 때의 일이였습니다.》라고 하는 정창호의 입에서는 단방 오라를 지울수 있는 위험스런 말들이 마구 튀여나왔다. 그중에 《지장군같은 호국의 중진들에 대해서까지 감시를 하고 잡을내기를 하는 일이 역스럽다.》는 말은 꽤 들어넘길만 했으나 북의 동생같은이들과는 싸울 《생각도 의기도 없습니다.》라는 말에는 뼈끝까지 오싹해질 지경이였다. 하지만 마음상으로는 그의 말이 더없이 대견했다.
《그럼 안되지.》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사람잡이놀음은 자기 역시 몸에 붙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 군에 계속 있으라구.》 이렇게 중을 뜨니 지장군의 뒤받침이 없는데야 군에 뭘때문에 계속 있겠느냐 하면서 미국류학이 소원이노라고 했다. 태민은 여기서도 주춤했다. 미국류학은 애당초 경자의 소원이였고 엔트로우와도 토론된 문제였다. 딱한 일이였다. 경자는 《빨갱이친척》이 공개된 뒤부터는 하루 한시가 급해 이 땅을 뜨겠다는것인데 창호까지 함께 미국에 간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 어찌 안다던가. 이렇다해서 안돼 하기도 어려웠다.
《임자 료량대로 하라구.》
미국류학이라는것이 맨땅짚기헤염은 아닐것이니 돈과 연줄을 잡자면 제풀에 단념할것인지라 선선히 승낙을 줬는데 창호는 사방사처에 연줄을 놓으며 기뻐 뛰였고 경자 역시 당승이 손오공을 얻은것만치나 좋아했다.
(허, 일이 맹랑한걸.)
수족들의 처리문제를 일단락지은 다음 성민이에 대한 의무를 리행하려 했다. 퇴직금 절반을 갈라 옥영에게 준것이 그 의무의 리행이

였다.

《가되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가 만나오.》

옥영은 그의 말대로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대구엘 다녀왔다.(그때 성민은 대구교도소로 이감되여있었다.)

태민은 한겻동안 그의 보고를 청취하였다. 아픔도 있었고 위안도 있었다.

성민이 해골처럼 말라있다는것과 령치금을 넘겨줄 때 집안살림이 어떠냐 하고 물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가슴찔러드는 켕김도 있었고 태민의 제대소식에 기뻐하더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마살이 찌프려드는 속에서도 한줄기 웃음이 나갔다.

《됐소. 이제부턴 매달 령치금을 보내주기요.》

그런데 옥영이가 갔다온지 얼마 안되여 그곳 교도소장이 태민을 찾아왔다.

교도소것들의 수인 친척방문이란 대체로 사바사바 뒤돈(친척인 수인을 잘 돌봐달라는 인사금)을 챙기려는것과 태민이같은 사상수의 친척인 경우에는 전향방조를 위한 청탁때문이다.

아닐세라 이자도 성민이의 위험천만한 《빨갱이》사상선전과 감옥질서교란의 중범죄를 조목조목 늘어놓으며 흘끔흘끔 눈치를 보았으나 태민이 삐꾹소리 한마디 없자 전향청탁에로 넘어갔다.

태민이 여기서도 랭담한, 랭담하기보다 릉멸한다고 해야 할 시푸른 태도를 보이자 교도소소장은 돌연히 태도를 바꾸었다.

《…제가 찾아뵙게 된 용건은 그에 대한 령치금송달을 더이상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때문입니다.》

《건 왜?》

《엄중한 문제가 생겼기때문입니다. 지장군의 동생은 부인님이 가져오신 령치금 전부를 공산했습니다.》

《공산이란 무슨 소린가.》

《노나쓴것이지요. 그때문에 전향할 마음을 품었을 사람들도 다시 눌러붙지요.》

《거야 교도소에서 할 일이 아닌가.》

《아직 법은 그렇게까진 안되여서.》

《그럼 우리도 매한가지 아닌가. 령치금 불허법이 있어?》

《건 없지만… 이건 지장군을 생각해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지장군께서 보내시는 돈이 빨갱이들과 극렬분자들을 위해 쓰인다는것이 알려지면 이모저모 해가 되지 리가 될것은 못되지 않습니까?》

《난 그따위건 몰라.》

태민은 매정하게 그를 쫓아버렸다. 그러나 그가 떠나가기 바쁘게 옥영을 불러 이제부턴 면회도 령치금도 다 그만두라고 큰소리를 쳤다.

죽든 살든 제탓이니… 속에서 불이 일었다. 자기의 이런 처사가 하잘것 없는 감옥지기의 몇마디 위협때문이라는것으로 더욱 그랬다.

이런 때 뜻밖의 일이 생겨났다.

미국류학에 앞서 동무들과의 작별연회에 갔던 경자가 행방불명되였던것이다.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경자동무들의 말에 의하면 연회장에서 나온 경자가 웬 청년과 말하다가 택시에 올랐다는것이 전부였다. 이때문에 태민은 헌병대에까지 수사방조를 요청했고 군수재벌 사장님이 된 태민에 대하여 벌써부터 돈주머니라고 우러르던 경찰들까지 사방수배를 하며 뛰였으나 한달이 넘어도 경자의 행방은 묘연하였다. 이로 하여 정창호의 류학도 류산상태에 들어갔다. 본인 당자가 경자를 구원하기 전에는 어데로든 가지 않겠다고 했던것이다. 한데 샬로크홈스를 깊이 연구한 정창호도 그의 행방을 전혀 알아낼수 없었다.

3

현대판 피라미트로 불리우는 감옥에 새벽이 왔다.

개털외투를 푹 뒤집어쓰고있던 교도관도 그것을 알았다. 자명종소리에 눈을 떴다. 그러나 얼굴을 내놓기가 으쓸했다.

전날 밤 권교장의 부덕쥐가 얼어죽었다.

이상한 일이였다. 다 죽은 송장으로 껄떡껄떡하던 권교장은 눈이 머룩머룩 살아있는데 그의 가슴팍에 안겨자던 부덕쥐가 얼어죽다니.

(한데 고사제까지 지냈다지. 세계기록편찬자들은 뭘하고있어. 이걸 광고하면 대 쎈쎄이숀일텐데. 내가 편지를 내봐? 여기 감옥안의 쥐란 쥐는 모조리 고단백식품으로 전멸되였는데 빨갱이령감쟁이 하나만

은 부덕쥐와 동거동침을 하며 고사제까지 지냈다고.)

고향이 남원이여서 《남원대망이(구렝이)》로 통하는 교도관은 개털외투짬으로 한눈을 빠끔히 내밀고 먼저 권교장의 방부터 살펴보았다. 시찰구의 네모서리짬에 성에가 다보록히 엉켜있는것이 오늘도 숨은 꺼지지 않은것 같았다.

(명줄이 질기기도 하군. 하긴 다행이야. 이 대망이의 당번 밤에 애처로운 인생 하나가 꺼지면 부처님의 노염이 나한테까지 뻗칠수 있거던.)

연덩이가 박힌 방망이와 그러루한 잡것들이 든 구럭안에 한밤의 친근한 벗이였던 양주병을 밀어넣은 대망이는 자명종의 초침이 때깍거리는것을 지켜보다가 움찔하며 일어섰다.

부르르!

성에낀 외양간의 수말처럼 몸을 떨고난 그는 한밤의 지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반나절의 휴식을 하게 되였다는 기쁨으로 늘어지게 기지개를 켰다. 그리고는 고양이걸음으로 시찰구에 다가갔다. 매방을 살피며 어깨를 으쓱이기도 하고 비죽이 웃기도 했다. 어깨를 으쓱인것은 하얗게 성에를 쓰고도 푸파 꾸르럭 꺽 하며 모질스러운 삶을 지켜내는 수인들때문인것이고 비죽이 웃은것은 털내의 두벌에 양주까지 받쳐 마시며 생을 즐기는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감때문이였다.

(이자는 어제 밤에도 통방을 시도했지. 하지만 이 대망이님앞에서야 어림있었나.)

교도관은 감옥요시찰로 지목된 권교장방 옆방앞에서 고양이웃음을 짓고는 5방앞에서도 한바탕 속푸념을 했다.

(모를 일이란 말이야, 모를 일. 대통령각하께서까지 끔찍이 위하시는 퇴역장성의 동생처지에 빨갱이라니. 뭐 남북통일?!… 간뎅이도 크지. 한데 사람은 아까와. 착실히 맘만 돌이키면 대선사님이 되시던가 대학교수님도 문제없겠는데…)

성민은 시찰구여닫이문의 달그덕소리에 눈을 떴다.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잠을, 단꿈을 청했다. 아니, 잠도 꿈도 아닌 지난날속으로 빠져든다. 지금의 감방도, 교도관의 발걸음소리도, 벽에 서린 성에도 아닌 지난날의 달콤한 아침을 그러안게 된다. 잠에서 깨일 때마다 맛보게 되는 즐거움이다. 숨도 크게 쉬지 말아야 하고 몸도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조금만 발을 내뻗치면 차거운 성에벽이 모든 즐거

움을 앗아버린다.
지금은 집에 있다. 첫살림을 차렸던 집.
…순정의 칼도마소리가 가락맞게 울린다. 치직— 지짐판에서 타는 파와 기름냄새, 성민은 파를 태울 때의 냄새를 무척 좋아했다.
(일어나야지. 마당청소를 해야 되고.)
하지만 일어나지 않는다. 드렁드렁 코고는 소리까지 낸다. 그러면 물기젖은 손이 이마에 닿는다.
《여보, 출근시간이 돼와요.》
《어―엉.》
성민은 깜짝 놀라는 시늉을 하며 눈을 뜬다. 바로 안해의 그 손을, 그의 말을 기다려 게으름뱅이흉내를 낸것이다.
《정 피곤하면 더 쉬세요. 마당청소는 내가 했으니까.》
《그럼 더 잘가.》
눈을 꾹 감고 이번에는 더 크게 코소리를 낸다.
드렁 드렁, 푸파 푸파.
그러면 안해는 간지럼을 피운다. 그다음 함께 껄껄, 호호— 웃는다.
첫살림때부터 깨가 쏟아지는 생활이였다. 제대군관이라고 제일먼저 건설된 아빠트의 입사증을 받고 첫살림을 폈다. 불이 잘 들어 엄동설한에도 추위를 몰랐다.
따끈따끈한 온돌, 따끈따끈한…
(새로 들게 된 아빠트는 온수난방이였지.)
점차 현실로 돌아온다.
(온수난방!… 탄불 살릴 걱정도, 탄을 빚을 일도 없는것이지. 아마 지금쯤은 온수난방집에서 나를 생각하겠지.)
새 아빠트입사증을 도로 바치려고 가져갔을 때 잔뜩 성을 내던 일군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 바치겠다는건가. 이제 아이들이 크면 다 제 방을 요구하겠는데―》
그래, 이젠 아들애도 따로 자려고 할거야. 날 보면 무슨 아저씬가 몰라볼것이고…
《음.》 소리를 내며 일어나앉자 즐거움은 깡그리 사라졌다. 살눈섭에 붙은 성에를 털고보니 두장의 가마니를 붙여만든 침구도 하얀 눈가루를 쓰고있었고 가마니안에서 깔고 덮었던 그의 옷과 문둥병

병원에서 쓰다버린 몽드라지고 닳아빠진 얄팍한 담요 역시 성에투성이였다.

(된추위로구나.)

머리말에 놓아둔 사탕봉지에 손이 가닿았다. 이제 한알만 입에 물고 2～3분 있으면 달콤한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감과 함께 몸에 따뜻한 열기가 퍼져날것이다.

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갔다. 남은 사탕은 3알뿐이였다.

또 한번 《음.》소리를 내며 가마니속에서 빠져나왔다. 퍼릿한 몸살이 대번에 닭살로 되는것을 보며 급급히 세면기를 찾아드니 두세사발 모아두었던 물이 꽁꽁 얼어붙어있었다. 한주먹에 깨여버렸다. 다행히도 물은 조금 괴여있었다. 재빨리 수건을 담갔다가 팔다리부터 문질렀다. 이때는 속도가 빨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상을 입던가 급성페염에 걸릴수 있다.

《으흐흐.》

시찰구구멍에서 커다랗게 흡뜬 눈이 도리를 쳤다. 성민은 웃었다.

《이 모범 따르라구.》

살갗이 뻘겋게 달아오르자 몸이 훈훈해졌다. 잠시후 랭수마찰을 끝낸 성민은 담당교도관을 되찾았다.

《왜 찾능교?》

《3방 가야지.》

《어—》

교도관은 머리가 잘 안 돌아서인지 성민을 멀뚱히 보다가 《아, 잊었댔네요.》하며 자물쇠를 따주었다.

성민은 3알의 사탕과 한줌 채 안되게 골삭한 암가루봉지를 들고 옆방인 권교장방으로 갔다.

한때 제주도소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남부군빨찌산의 중대장으로 활약한바 있는 권교장은 특이한 완력과 감사나운 기질로 소문난 사람이였는데 지금은 전신불수로 구척장신의 허울만 남아있었다.

《견디셨군요.》

성민의 인사말에도 입술만 실룩일뿐 더부룩한 수염과 눈섭에 매달린 성에를 부벼 털어주어서야 《어.》하며 반기는 기색을 보여주었다.

《요기는 했습니까?》

《했지라우.》 권교장은 미안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성민은 성급히 그의 머리맡을 뒤져보았다. 까맣게 때가 낀 빈 비닐봉지만 나왔다.

《장밤 숨이 질락끄해서… 그냥 까먹었는지라우.》

가슴이 덜컥했다. 어제 저녁만도 열다섯알이 남았었는데… 벽에 붙은 성에를 손바닥에 긁어모아 암가루와 뒤섞었다.

손의 온기에 척척히 녹아드는 은빛성에와 누르스름하게 젖어드는 암가루를 여겨보느라니 막막한 심정을 걷잡을수 없었다.

권교장의 생명은 지금의 사탕과 암가루로 간신히 이어지고있다. 그만 아니라 성민이도 마찬가지였다. 하루 500～600카로리도 못되는 감옥 4등식으로는 한여름에도 견디기 어렵지만 이런 대소한추위때에는 더욱 그랬다. 영양실조도 실조거니와 체열저하로 죽게 되는것이다.

《이거 다 죽은 송장… 정말 미안할지라.》

권교장은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성민이 넣어주는 암가루를 맛스럽게 삼켰고 세알중의 사탕 한알도 한번의 빠지직 소리와 함께 꿀꺽 삼켜버렸다.

제주도의 호랑이로 되여있던 그에게서 지금 남은것이란 원쑤에 대한 증오와 본능적 욕구에 따른 식욕뿐이였다. 성민은 이 감옥에 처음 왔을 때 이 권교장때문에 적잖게 애를 먹었다.

제주도에서 있은 4.3봉기때 자기가 가르치던 소학생들까지 떼죽음을 당하는것을 목격한 뒤부터 감사나운 사람으로 된 그는 무자비성과 극단적인 투쟁열로 소문을 냈다.

범은 사슬에 묶였을 때 더 요동을 친다고 권교장이 그랬다. 감옥내의 교도관들, 지어는 잡범들에 대해서까지 원쑤로 규정한 그는 맞다드는 기회마다 욕설과 야유의 줄포탄을 쏘았고 완력행사도 서슴지 않았다.

혹간 다른 사상수들속에서 교도관들에게 조금이라도 점잖게 대하던가 례절겹게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투항주의자로 타매하였고 공화국창건절이나 명절때 투사로서의 기개를 시위하지 않으면 변절자로 락인하였다. 이로하여 필요한 싸움만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도 무모한 말싸움과 완력투쟁에 말려들어 매타작(모두매질)과 총대수정(다리와 팔을 몽둥이에 비끌어매여 총대처럼 꼿꼿이 서있게 하는 고문. 45분이상 당하면 사지마비가 오면서 불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의 형벌속에 죽던가 종신불구로 쓰러졌다.
성민은 감옥에 왔을 때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극단적인 무모성과 자포자기한 상태에서의 자살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이였다.
이로 하여 삶의 명분이 새롭게 보충된셈이였으나 첫걸음부터 의혹과 반발에 부딪쳤다.
《북에서 살다보니 원쑤들이 어떻다는것을 잘 몰라. 우리 같은 아픔은 당해보지 못했으니까. 형은 이곳 장성님이시래.》
권교장은 성민에게 《소부르죠아 우경분자》라는 딱지까지 붙였다. 일정하게 학식과 리론까지 있는 권교장이 이렇게 나오니 성민으로서는 딱하기 그지없었다. 다행히 이곳에서 다시 만난 오영기가 성민이와 같은 립장을 취한데다가 성민이가 비밀리에 시작한 우리 당 혁명력사 강의와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전선로선과 계급투쟁에 대한 해설이 줄기차게 진행되면서 그러루한 뒤말들과 딱지들이 하나둘 벗겨졌다. 하지만 본래의 투쟁열기만은 여전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인내력으로도 견디기 어려운 물리적박해와 학대에 대한 어쩔수 없는 반항도 있었다.
권교장이 전신불구로 된것은 그 두가지 요인이 다 작용한것이라고 볼수 있었다.
올여름 독감방생활에 대한 항의를 접하게 된 감옥당국은 《그럼 늬들 좋아하는 공산생활을 해봐라.》하며 0.75평의 방에 10명의 수인들을 단꺼번에 밀어넣었다. 그러지 않아도 숨막히는 더위에 허덕이던 사람들이 밀짚단처럼 엉켜붙어 서있으려니 삽시간에 질식될 판이였다.
그때 권교장이 교도관을 찾았다.
《뭘. 공산재미가 좋아서냐.》
시찰구를 열어본 교도관이 히죽거릴 때 권교장은 뭘 보여줄것이 있다고 했다.
《멋있는거 있는지라우.》
교도관은 그의 눈이 툭 삐여져나온것을 보고 머리를 기우뚱하면서도 멋있는거에 끌려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일이 벌어졌다.
《이놈아.》 한마디 거센 웨침과 함께 수정찬 손으로 그자의 목을 옥죄인 권교장은 단숨에 그자를 쳐들어 공중태질을 시켰다. 온 교도

소가 총검을 들고 떨쳐나섰다. 아비규환의 신음과 욕설속에 란투가 벌어졌다. 성민이 역시 이러면 안되는데 하면서도 날아드는 총탁과 몽둥이들에 손짓, 발짓 다해 싸웠다.

이날 교도소장이 성민을 따로 만났다.

《당신이 주모자라지.》

《그렇소.》

《그렇다?!… 한데 교도관들은 당신을 모범수라고 하던데, 점잖고 량순하고…》

《모범수가 이쯤 되였으면 당신들도 생각해볼것이 있잖소.》

《닥쳐라, 모범수는 무슨 모범수! 우리가 모를줄 알어. 적화선전의 리더라며. 뭐, 하층 교도관이며 병사들까지 포섭해야 한다구.》

성민은 무척 놀랐다. 어떻게 이것을 알았는가. 산보시간과 목사들의 복음설교때 남모르게 한 강의를?

《야, 너 뭐 비단솜에 싸인 귀공잔줄 알아. 그래도 5.16혁명의 공로자분의 동생이랍시고 눈을 감았는데 보자보자하니까 앞남산 독두꺼비란 말이야. 너 이제 내 보고서 한장이면 즉결사형이란걸 몰라. 그동안 법도 좀 알았겠는데 기결중의 반국가죄는 즉결사형이란 말이야, 사형.》

그다음 한주일동안 먹감방속에서 총대수정신세가 되고말았다. 먹감방에서 돌아와보니 매타작에 두사람이 희생되고 권교장은 전신불수가 되여 엄정격리의 독감방에 갇혀있다고 했다. 엄정격리란 일체 산보도 금지고 다른 수인들과의 접촉도 격폐되게 되여있었다. 성민은 남원대망이로부터 권교장이 전신불수의 중태에 있을뿐만아니라 생명이 오늘래일인것을 알게 되였다. 다른 수인들도 그에 대해 어느정도 아는듯싶었으나 복수의 기회만 노릴뿐 어쩔수 없다는 태도였다. 감옥생활의 고초를 견디지 못해 자살까지 하는 형편에서 바람직한 최후가 아니냐는 사람들도 있었다.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다는데서는 비장한 영웅성이라고 보겠지만 성민으로서는 타협할수 없었다. 하여 그는 영기와의 통방끝에 집단단식을 호소했다. 감옥의 살인적인 테로행위를 종식시키는것과 당면하게는 권교장의 목숨을 살려내자는것이였다. 그의 제의는 전적인 호응을 받았다. 단식도 투쟁이니까.

이틀간의 단식끝에 성민은 또다시 먹감방으로 갔다. 이번에는 먼저

매타작을 받았고 먹감방에서 풀려나온 다음에는 또다시 교도소소장에게로 불려갔다.
《네가 단식을 선동했다지?》
《그렇다.》
《요구조건도 네가 꾸몄느냐?》
《그렇다.》
성민의 꿋꿋한 태도에 소장은 한숨을 내쉬였다.
《야, 널 륙자배기로 조리돌림시키고싶다만 네가 영웅으로 될가봐 그만은 참는다. 또 내 잘못도 있고… 네 문서장을 늦게야 연구한탓이지. 〈사회주의사상을 과학리론적으로 정립체계화하고… 개심이 불가능하므로…〉 말하자면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는걸 그냥 스쳐봤다는 거야.》
《허허, 소장님. 그렇게 후회가 되면 여기 어디 땅밑에 파묻구려.》
《아아, 난 그런 영웅 만드는 놀음엔 질색이야. 먼저 요구조건부터 묻자구. 사람을 살리기 위해 치료조건과 간병의사를 붙이라, 맞어?》
《옳소.》
《그래, 그건 들어주지. 한데 여긴 보양원도 치료원도 아니니 전문간병의사는 없는것이고. 어떤가, 자네 한번 하지. 오영기 그자한테서는 답을 얻었어.》
《거 반갑군요.》
성민은 이렇게 되여 권교장의 옆방으로 왔는데 알고보니 영기와 자기도 엄정격리로 처분된셈이였다.
교도소측은 성민이와 영기가 오기전까지 감옥의 골치거리였던 권교장을 격리시킴과 함께 새롭게 나타나 평양물을 먹이는 성민이와 영기를 감옥안의 감옥으로 류치시킨것이였다.
이때부터 성민은 총집교회(복음설교)라고 끌어내는 때 말고는 일체 동지들을 만나볼수 없게 된 처지였으나 권교장을 구완하게 된 자격으로 영기와는 부단한 접촉을 이루게 되였다.
교도소가 실시한 이 엄정격리는 영기와 성민이의 평양물을 막기 위한데도 있지만 죽어가는 사람앞에서 비애와 아픔을 실컷 맛보라는것이였다.
성민이도 이것을 모르는바 아니였으나 권교장을 볼 때마다 그러한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기 어려웠다. 지금도 그랬다. 생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서도 살것을 바라고 한알의 사탕이 동지의 건강을 지켜내느냐 못하느냐 하는 속에서도 거침없이 먹는 그를 볼 때면 자기도 언젠가는 이런 식물인간의 처지에 떨어질수 있다는 공포감에 전률하기도 했다.

삐그덕—하는 문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영기였다.

《선생님! 오늘은 신수가 환합니다.》

영기는 언제보나 밝은 얼굴이였다. 아무리 어려운 때도 웃음부터 보이는 사람이였다.

《무슨 일이 있었소?》

《귀구멍청소를 하다나니 늦었구만.》

영기는 시찰구에 말박귀가 붙어있는것을 알면서도 흔연히 큰소리로 말했다. 귀구멍청소란 성민이와만 통하는 통방신호의 은어였다. 교도소가 엄정격리책을 실시하면서 딱 한가지 실수라면 영기의 통방선을 차단시키지 못한것이였다. 성민이, 권교장, 영기 순서로 방을 배치하다보니 격페와는 관계없이 통방을 할수 있었던것이다. 감옥측도 그걸 눈치챘지라 영기의 방에 대해서는 밤낮으로 눈에 쌍심지를 켜붙이고 있다. 그때문에 영기는 조용한 밤이 아니라 부산스러운 새벽시간에 통방을 하는것이였다.

《이것마저 오늘로 절품이요.》

성민이 2알밖에 남지 않은 사탕을 보이자 영기도 시름찬 기색이였다.

《야단이구만. 사실 나도 그때문에—》라고 하던 영기는 시찰구쪽의 인기척에 청을 높였다. 《어쩐다. 대망이님한테 한번 청을 드려볼가.》

시찰구쪽에서 멀어져가는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영기는 피식 웃고는 늘 하던대로 권교장의 팔다리를 주무르며 입을 열었다.

《지금 다른 방 동지들도 이번 겨울을 이겨내지 못할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오. 기운이 있어야 운동도 하겠는데 배가죽이 달라붙었으니 한번 싸우다 죽던가 동장군한테 업혀 염라국에 가야 할 형편이라는거요.》

《면회와 차입문제는 어떻게 되였소?》

《반대론이 우세하니 여전하오. 영팔이 그 친구는 가족친척들을 만

나는것 자체가 변절이라는거요. 죽으면 죽었지 친척나부랭이들이 보내오는건 받지도 먹지도 말아야 한다는거지.》

성민은 한숨이 나갔다. 영팔이란 502부대에서 알게 되였던 쌍지팽이였다. 그는 지금에 와서도 성민이에 대해서는 무척 랭담했다. 하긴 성민이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곁을 주지 않았다. 떠도는 말에는 일가족을 적들에게 다 잃은데다가 미군 502부대에서 자살미수가 실패한 뒤부터 메마르고 의심많은 사람으로 변했다고 했다. 언젠가는 이모라고 찾아온 녀인을 면회조차 하지 않고 사정없이 쫓아버렸다.

《왜 받지 말아야 한다는거요?》

《말하지 않았소? 변절요소라는거요. 설사 그럴 생각이 없다 해도 마음이 약해질수 있다고… 원 무슨 사람인지—》

《앙이 그 말은 옳지라우. 맘이 약해져요.》

권교장이 뜻밖에 말참녜를 했다.

《하, 그럼 선생님도 마음이 약해지던가요.》

권교장은 성민의 평치금 덕분으로 오늘까지 산셈이다.

《그랜지라, 이젠 죽어야 되는데 자꾸만 죽지 않을 생각이 드니 약해진게 아닌지라.》

권교장의 말에 영기는 버럭 화를 내였다.

《선생님은 백두산이랑 한나산이랑 다시 가보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래 그것도 약한 생각이란 말이요.》

권교장은 왜정때 백두산에까지 가본 사람이였다. 영기의 이글거리는 눈빛을 본 권교장은 구원을 청하듯 성민을 보는데 반쯤 벌린 입이 울음울듯 실룩이였다.

《그럼 어떻게 락착을 보았소?》

성민은 아픈 마음을 누르며 영기를 보았다.

《락착은 무슨… 집단단식을 벌려 누덕솜옷이라도 얻어입던가 식사량이라도 조금 늘궈보자고 하지만… 한다 해도 담벽차기고 하루이상 넘기면 다들 쓰러질판이니 어디 될일이요.》

성민은 할말이 없었다. 한동안 권교장의 팔다리만 주물렀다. 신경이 마비되여버린 팔다리는 동지달 범고사리대와 마찬가지이다.

이제 며칠을?… 평치금 생각이 또다시 간절해졌다.

성민은 옥영이가 가지고 왔던 령치금 전부를 공용으로 풀었다. 그때도 교도소소장의 호출을 받았다. 모든 수인들에게 령치금을 돌려준 때문이였다.

왜? 왜? 끝없는 질문이 되풀이되였다. 모두가 골고루 먹고 잘산다는 《공산》때문이냐 아니면 인심회유냐.

사람이기때문이다. 사람! 성민이 역시 같은 말을 줄곧 곱씹었었다.

교도소소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뒤에는 령치금을 받게 된 당자들의 뒤소리들에까지 대답을 주어야 했다.

내 돈이다. 설사 그렇지 않다하자.

감옥에서의 투쟁은 원쑤들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혁명가의 육체를 지켜내는데도 있다.

오영기의 뒤받침과 아스피린 한알이 없어 폐염에 쓰러지던 형편이라 다들 인차 받아들였지만 영팔이만은 거절했다.

령치금이나 이러저러한 면회와 차입을 경원시하는데는 일리가 있었다.

대부분의 면회자들과 그들이 들고 오는 돈과 음식에는 낚시가 있었기때문이였다. 감옥당국과 경찰당국의 사촉밑에 전향을 꼬드기던가 고문시에도 지켜낸 비밀을 뽑아내려는 시도가 바로 그 낚시였다.

《여하튼》 성민은 어지러운 생각을 털어버리며 입을 열었다. 《반대가 있다 해도 돈과 음식은 받기로 해야겠소. 정신이 똑바르믄야 대감님 꿀떡이라도 관계있소?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이곳 진상을 사회에 알리고… 가족친척이라면 깨우쳐도 주고— 어떻습니까?》

성민은 권교장에게 물었다.

《반대없을지라. 성민동지 말한 김장군님말씀 생각나. 한사람이 열을 깨우치고 열이 백을 깨우치고… 늬사 말 옳게 했어.》

소지가 날라온 아침밥까지 먹여주고 일어설 때 권교장이 불쑥 물었다.

《오늘이 총집교회지다?》

《네.》

《데려다 주겐지라?》

성민은 구석쪽에 놓인 한번도 만져보지 않은 성경책에 눈을 주었다.

감옥당국이 억지다짐으로 공급한 성경책은 죄많은 수인들의 천국행을 위한것이라고 하지만 특별사동의 수인들에게는 의사교환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전지전능한》 하느님의 뜻을 설교받는 자리에서 채 나누지 못한 말들을 슬그머니 되바꾸는 성경책의 글귀들에서 보충하는것이다. 접어놓은 페지장마다에 꼭꼭 찔러놓은 바늘자리의 글들을 따라읽으면 통방때보다 못지 않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것이다.

그런데 권교장이 그리로 가겠다는것은 의사소통이 아니라 동지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였다. 시들어가는 그에게서 유일하게 남은 락이란 동지들의 얼굴을 보는것뿐이였다.

이날 전도설교가 끝났을 때 성민은 뜻밖에도 면회호출을 당했다.

누굴가. 다시 온다던 옥영이가 떠나간 뒤부터는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 더구나 엄정격리상태에서 면회라니. 검은 라크칠을 한 표지의 《접견기록장부》를 흔들어대는 면회담당의 얼굴빛을 봐서는 속임수는 아니였다.

면회담당은 실죽벌죽 웃으며 일반면회실이 아니라 교무과 상담실로 성민을 데리고 갔다. 마음이 무척 긴장되였다. 교무과 상담실은 주로 전향공작을 위한 면회실이자 상담소였던것이다.

방안에서는 껄껄, 허허 하는 웃음소리가 울려나왔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고급단화에 번들거리는 가죽외투를 입고 색안경을 쓴 혈색좋은 사나이가 상담실 당번의 어깨를 두드리다가 성민을 돌아보았다. 두 사람이 마주앉은 상우에는 즐비하게 음식들이 차려있고 상밑에는 술병까지 놓여있었다.

《아아, 교도관님도 계시지.》 되돌아나가려는 면회담당을 불러세우는 가죽외투의 말소리가 귀에 익었다.

《나야 뭘.》 담당이 주밋거리자 가죽외투는 《아하.》하고 혀를 차더니 《담배나 피시지.》하며 뭔가 그의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성민이한테 90도각으로 허리를 굽혔다.

《선생님, 늦게 찾아뵈여 죄송합니다.》

색안경까지 벗어내리는 그를 본 성민은 깜짝 놀랐다. 서대문감옥에서 알게 된 차호은이였다.

《아니, 자네가 어떻게?》

《허허, 세월이 무정하다고 사람까지 무정하겠습니까.》
차호은은 무슨 장차관쯤 된 자세로 호기를 떨었으나 가느스름한 눈에서는 진정으로의 기쁨이 넘쳐있었다.
《실은》 차호은은 면회담당이 나가는것을 보다가 자못 허심한 태도로 말했다. 《일찍부터 선생님을 찾아뵈려고 했지만 오늘에야 허가를 받았습니다.》
성민은 어떻게 대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암흑가의 왕초였다는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 업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것인데 모범수도 아닌 엄정격리에게 면회승인을 받을 정도면 주구로 전락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앉으십시오.》
호은은 상담실 담당쯤은 눈에 차지도 않는다는 태도였다. 하긴 그의 어깨까지 두드려대는 사이이니 그럴만도 할것이라고 보았다.
《지금 무얼하고있소?》
성민이 자리에 앉으며 묻자 호은은 되박같은 주먹을 책상우에 놓으며 싱글싱글 웃었다.
《그 말씀부터 할줄 알았습니다. 달리 생각마십시오. 지금은 급전환을 해서 대재벌님의 회사에 적을 두고있습니다.》
《잘됐구만.》
《그럼요. 거느리는 애들만도 4～50은 넘으니까요. 근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을 뵙자고 한것은 아이이름을 지어달라는 부탁때문입니다.》
갈수록 뻐꾸기같은 소리였다.
《그러니 결혼을 했구만.》
《했습지요. 선생님, 인간답게 살라는 말씀 명심하여 좋은 집 처녀를 맞았지요.》
《아들인가.》
《딸입니다.》
《맏딸은 복딸이라고 하지.》
《네, 인물, 품성 만점입지요.》
《지금 몇살인데－》
《생후 6개월입니다.》

차호은은 생후 6개월이라는 소리에 어처구니없어 웃고있는 교무과 당번에게 눈을 찔 흘기고는 계속했다.

《사실 선생님같은분한테는 국법에 위반될수 있지만 처가집에서 죽어라하고 믿는 불국사 스님께서 꼭 선생님같은분에게 이름을 짓는것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청을 드리게 된것입니다.

선생님이야 저와 인생지하에서 동생동고를 하였고 사상 하나만 빼놓으시면 성인중의 성인이 아닙니까.》

《난 그런 성인이 못되오.》

성민은 놀림가마리에 든 기분이였다.

호은이도 그것을 알아차렸는지 한결 순박한 표정으로 돌아가더니 《아차.》하고 이마를 튕기고는 먼눈 팔기로 서있는 당번에게 수작을 붙였다.

《포도대장님, 이거 따끈따끈한것 없을가요. 선생님 몹시 추워하시는데—》

《그건 안돼.》 순간에 포도대장으로 승격된 담당이 머리를 젓자 호은은 또다시 본래의 너스레로 돌아갔다.

《그럼 엎드려 절하리까. 딸애의 운수 팔자를 돌봐줄 선생님한테 도리야 지켜야 될것 아니요. 그래서 내 오늘 포도대장님한테도 두번째 수양아버님이 돼달라고 한거고—》

《이런 떼거지라구—》

교도관은 말은 이렇게 했으나 호은이와는 무슨 관계인지 별스럽게 불룩한 주머니의 덮개를 바로 잡더니 문밖으로 나갔다.

《차군! 정치와 관계된 말을 하면 이거야.》 목을 도려내는 시늉을 하고 문을 닫았다.

《선생님, 제가 만담군이 되니 역스럽지요.》

《뭐 여하튼 자네를 보니 반갑네. 그래 지금 무슨 일을 하지.》

《일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두드려패는노릇이지요.》

《아니, 그런짓 다신 안하겠다고 하잖았어.》

《어쩌겠습니까. 살자니 그노릇밖에. 그렇지만 지금은 뻐젓하게 법의 보호를 받으며 하지요.》

《보호를 받다니?》

《그렇게 됐습니다. 새 나라 기둥인 삼성을 지키는 일입지요. 기업

을 해치는 놈들을 두드려패는 일이랍니다.》
《그러니 자넨 왜정때의 노가다격이라는건가.》
《아, 그럴수가 있나요. 협잡군, 탐정, 사기군, 외간재벌의 졸개들과 싸우는거지요. 거 이런 말 하자면 끝없습니다. 모두가 서로 속이고 잡아먹는 세월에 크게 꺼릴것은 없는 일이지요.》
성민은 그가 삼성재벌의 고용깡패가 되였음을 알았으나 이런 사회에서는 어데나 있는 주먹패들이라 어쩔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이제 자네한테 더 말했대야 그저 그렇겠네만… 딸애를 봐서도 삼가할 일이라고 보네.》
《알고있습니다. 자기를 위하는것까지는 일없다, 그러되 자기를 위한다고 남들에게는 해를 주지 말라! 이겁지요. 선생님말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그쯤 하자고. 진짜 내가 보고싶어 왔나.》
《거야 여부가 있습니까. 주요하게는 선생님의 복수를 해드렸기때문이지요.》
《복수라니－》
《다 말하자면 100만원짜리 논픽숀감이지요. 저의 애들이 선생님 조카애라는 처녀애를 가르쳐주고있습니다.》
《아니, 그건 무슨 소린가.》
《허, 신문을 못 보시니 통 모를테지요. 사회말로는 유괴라고 하는데 우리 애들의 〈감화원〉에 모셨지요.》
성민은 속이 덜컥했다. 경자가 깡패들의 소굴에 끌려가다니.
《그건 어찌된건가.》
《어쩌구 뭐가 있어요. 제 동생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니… 한번 맛을 보라는거지요.》
《여보, 그게 도대체 무슨짓인가.》
《아하, 선생님두－ 그래 선생님은 분하지 않습니까. 내 알아보니 제 친척되는 아저씨까지 한지에 나앉게 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판사님이 돼서 죄를 다스린셈이지요.》
《지금 그 애는 무사한가.》
《무사하다마다요. 솜털 하나 다치지 않고 공주님처럼 모시고있지요. 그 애옆에는 해성이라구 아시지요. 그 한지에 나앉은 친척되는분

의 아들, 그 애가 돌봐주는데 공주님의 보초노릇을 하지요.》
《어-엉.》
《너무 놀라실것은 없습니다. 선생님도 몽떼그리스또를 보셨겠지요. 난 루이지 왐빠가 되자는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형 집에도 한장 날렸어요. 선생님을 석방시키게 하던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음식차입을 하라구요.》
《그 앨 당장 놓아주오.》
《네?!》
《놓아주라구.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나, 무슨 죄가. 에이, 사람두.》
《선생님, 그게 진정입니까?》
《그렇네.》
차호은은 시무룩해졌다.
《사실 전… 선생님이 저를 처음으로 인간답게 대해주시구 글도 배워주고 해서 은공을 갚자고… 그리구 선생님이 조국통일때문에 자기를 바치시는걸 보구 저두 사나이답게 의기를 떨쳐보려구 한건데-》
《호은이, 자네 마음은 고맙네만 그건 나까지 잘못되게 하는걸세. 사람이 사람으로서 제일 못할 일은 죄없는 사람한테 고통을 주는것이 아닌가. 그러니 부디 그런 일은 말라구.》
담당이 들어서는 바람에 이야기가 끊어졌다.
차호은에게 딸의 이름을 설화로 했으면 좋겠다는 대답을 주고 그와 헤여진 성민은 저녁녘에 다시 만난 영기에게(역시 권교장의 방에서였다.) 차호은과의 자초지종을 죄다 말했다.
호은으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령치금을 받았다는것을 알게 된 영기는 대바람에 환성을 올렸으나 그 돈의 출처와 유괴설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과 추측을 말하자 그역시 한동안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
강력범이건 절도범이건 사회는 인간쓰레기로 치부한다. 거기서는 호은이도 례외가 아니다. 그런 그가 한달동안의 인연을 내세우며 성민을 찾아왔고 그것도 막대한 돈을 가지고 왔다?!
놈들의 음흉한 계략에 따른것이 아닐가? 십분 그럴수 있는 일이였다. 이 감옥에서 봐도 불량스런 잡범들은 정치범 탄압과 회유의 수단으로 되고있다. 그럼 그 음모의 목적은 무엇인가. 거기에 성민의 복수를 돕는다는 유괴가 있다. 이건 성민이라는 북의 사절을 인간적으

로, 도덕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계책일수도 있지 않는가.

《봐라, 〈빨갱이〉란건 악의 종자여서 형의 딸에게까지 검은 손을 뻗쳤다.》 이런식 선전물이 나가며는 어떻게 되며 세상여론은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성민의 말을 곰곰히 들어보던 영기는 머리를 저었다.

《이건 다 지나친 로파심 같소. 다시 생각해보니 성민동무의 복이라고 봐지오. 사실 지동무는 잘 모를수 있지만 호은이 같은 인간들에게도 의협심이 정 없는것이 아니요. 더구나 한달동안 함께 있었다니 동무한테서 충분히 감화되였을것이고. 여기 감옥 청지기들도 동무한테는 다 굽어드는판이 아니요. 물론 동무의 빽이 간단치 않다는것도 있겠지만… 분명 그 호은이라는 청년도 동무한테 상당히 끌린것 같소. 유괴놀음이라는것도 그때문에 벌렸을것이고… 나도 왜정때 얼마간은 류랑아들과 밀려다닌적이 있소. 〈덮치개〉, 〈꽃잡이〉라고 하는 애들과 말이요. 그런데 사회는 그런 애들이라 하면 아예 도리를 젓는데 실상 그런 애들속에도 제딴의 의리와 인정은 살아있소. 호은이란 청년은 바로 그런식 의리와 인정에다가 동무한테서 받은 영향때문에 그런 협기를 떨쳐보인걸거요.》

이렇게 되여 쓰게 된 령치금은 쓰러져가던 사람들을 일궈세우는데서 크게 은을 내였다.

해토무렵인 3월에 경자와 정창호가 성민이를 찾아온것으로 유괴과정의 전반내용을 잘 알게 되였다.

이때도 성민은 교무과 상담실에서 그들을 만났다.

경자도 정창호도 까만 사지양복을 입고 왔는데 정창호는 예나 다름없이 반가운 태도를 보였으나 경자는 시종 랭랭한 태도였다. 오가는 말들에도 거의나 삐치지 않았다.

《저희들이 온것은 약혼식을 하게 된때문이지요.》

이렇게 운을 떼고난 정창호는 담당교도관이 나가자 먼저 그가 나간데 대한 의문부터 풀어주었다.

여기 온것은 성민이의 전향공작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는것과 그 공작을 위해 담당의 립회를 마다하게 했다는것이였다.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전 이 감옥당국을 쥐락펴락하는 큰 어른의 도움을 받은거지요. 참, 선생도 잘 아시는 그 려아라는 부인님의 남

편되시는분입지요. 알고보니 그분은 선생을 잘 아시는가 봅디다.》

《그와 가까운 사이요?》

《네, 하지만 이젠 련계가 없게 되였어요. 한데 그분의 일이 안됐어요. 부인과 영 헤여졌거던요.》

《건 왜?》

《그런 내적인 사연이야 제가 압니까. 그건 그렇고… 선생은 저의 이 경자씨가 유괴당했던걸 아십니까.》

《유괴라는건 어떤거요?》

성민은 모르쇠를 했다.

《하긴 그럴밖에. 한데 이상한 일이지요.》

정창호는 경자가 유괴된 뒤에 한장의 위협공갈편지가 날아들었다는 것과 그를 구원하기 위해 밤낮없이 뛰여다닌 과정을 일종의 무훈담인양 장황히 펼친 다음 또 한번 이상스럽다는 소리를 하며 말을 이었다.

《한데 경자씨가 돌아온지 며칠 안되여 또 한장의 편지가 날아들었어요. 글체는 신문활자를 따서 붙인것이라 알수 없는데 내용을 보니 불교쟁이의 냄새가 물씬물씬 풍겨요. 저도 좀 아는데 소승불경대목까지 몇군데 박아넣고는 불타님의 뜻이라고 하며 이 경자씨더러 선생님한테 집안의 잘못을 빌고 공양금을 바치라는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다간 경자씨도 집안도 크게 앙화를 입는다구… 고망년의 활빈당놀음같은건데 경자씨앞으로 온 편지라 지장군한테 의논을 청했어요. 관계형사들과 합동해서 대수사를 벌리자구. 한데 그전까지만도 수사에 애면글면하던 지장군께서 딱 잘라요. 살아있으면 됐지 그깐 잡놈들 잡는것이 무슨 대수냐고.》

이 말끝에 정창호는 회사사장을 하면서부터 지장군의 일이 더 바쁘다는것과 금융거래의 협잡으로 뭉치돈을 잃었다는것까지 루루이 말했다. 2년후에 다시 와보겠노라고 했다.

《당신도 군복을 벗었소?》

성민은 유괴범에 대한 수사를 막은 태민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다가 인사격으로 물었다. 정창호는 밝은 기색으로 대답했다.

《거야 지장군을 따른셈이지요. 저도 원래는 뭘 좀 크게 할 뜻이 있었지만… 제가 하자던 일이 그닥 아름답지 못하다고 봤지요. 지장군께서도 그렇게 편달해주셨고… 그래서 도미류학을 하려고 해요.》

《미국엘 간단 말이요? 호국은 어찌하고…》
《무슨 말씀을. 전 선생같은분들과 싸우기보다 이 나라의 법치를 튼튼히 하는데 몸바치자고 마음먹었어요. 후진국이고 리승만때의 부패가 지속되는지라 미국식 문명과 민주정치가 잘 먹어들지 않거던요.》
《경자도 가나?》
다 성숙한 처녀고 새풋한 기색으로 딴눈만 파는 경자여서 묻기가 거북했으나 억지스럽게 웃음을 보였다. 하지만 경자는 여전히 딴눈을 판채 입술만 깨물고있었다.
정창호가 대신했다.
《경자씨도 함께 가기로 했지요. 대학에서까지 선생님일을 알게 되니 이모저모 괴롭거던요. 리해하시리라 믿어요.》
정창호의 말에 경자의 눈굽이 불그레해졌다.
《경자, 나때문에 안됐구만.》
경자는 고개를 수그렸다.
《근데 미국에 가선 뭘 배우려고 하니.》 성민은 가슴이 아팠다.
《어떤걸 배우든 량심만은, 조선사람인것만은 잊지 말거라.》
《그만해요.》
경자는 입술을 깨물고 보다가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난 삼촌을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집에서 가라고 하니 왔지만 삼촌도 생각은 할테지요. 뭣때문에 여길 와서 우리까지 괴롭히는가 말이예요.
사실 아빠도 삼촌때문에 망쳤고 지금하는 사업도 삼촌때문에 난항을 겪어요. 빨갱이의 형한테 누가 융자를 하고 손을 잡자고 하겠어요. 해성이네 일도 그렇지요. 그 집에서 우리를 놓고 원쑤치부하는데 그것도 삼촌때문이 아닌가요.》
그의 말은 흐느낌으로 변했다.
《네 말이 옳다.》
성민은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삼촌!》
경자가 그의 손목을 꽉 움켜잡았다. 눈물진 눈에는 애원의 빛이 반짝였다. 《이제라도 잘못했다고 하세요. 네?! 그렇게 되면 방법이 있대요. 우리 집에서 살고… 통일이 되면 사촌애들과도 만날수 있고…

네? 그러지요?》

《경자.》 성민은 그의 볼을 감싸쥐였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네 바라는대로 한다면 우선 네가 말하는 사촌애들이 나를 저버릴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삼촌이기에 앞서 이 땅의 아들이다. 어느땐가는 너도 이 말을, 이 미운 삼촌을… 리해할 때가 오리라고 본다.》

《보기 싫어요.》

경자는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얘, 눈섭먹은 닦고 가거라.》

경자의 볼에 흘러내린 검스레한 눈섭먹이 가슴에 맺혔다.

정창호와 경자는 두번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류학을 마치고 온다던 2년후에도 그들은 물론 옥영이도 태민에게서도 기별 한장 없었다.

그런 때 사변이 터졌다.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는 소식이 온 감방을 뒤흔들어놓았다. 통방에서는 물론 교도관들의 입에서까지 통일소리가 나왔고 통일수들에 대한 (이때부터 조국통일운동에 나선 비전향장기수들에게 《통일수》라는 칭호가 덧붙여졌다.) 교도관들의 태도도 한결 곰살스러워졌다.

그러나 이것은 순간의 여우볕에 불과했다.

법무부에서 내려온 고관의 으르렁거림과 함께 통일과 전민족단결은 《국시위반》으로 범죄시되였고 삽삽한 웃음을 그려붙이고 알랑거리던 교도관들도 흉포한 승냥이로 되돌아갔다. 이와 함께 전향공작전담반이라는 어마어마한 두드려패기단이 조직되였다.

《전향하라!》 《전향하라!》 매일마다 전향테로에 희생된 사람들의 시체가 거적때기에 싸인채 공동묘지로 실려나갔다.

4

—력사는 인간을 언제나 두편으로 갈라놓는다. 카인과 아벨(구약성서의 악인과 선인), 강한자와 약한자, 통치를 하는자와 통치를 받는자, 물건을 파는자와 사는자, 부자와 가난뱅이, 벗과 원쑤, 뚱뚱보와

말라깽이…—
태민은 비단잠옷안의 흐벅진 배를 슬며시 만져보았다. 불룩하게 솟구친것이 임신 막달때의 옥영이와 흡사했다.
《제길.》
베개를 높이 고인 다음 몇줄 건너뛰며 읽었다.
—력사는 그 인간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하는 목적보다 무엇을 이룩했는가 하는 실체로 평가된다. 그런데 력사는 상반되는 세력과 견해의 싸움이니만치 그 어떤 위인이든 성인이든 모두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태민은 멀뚱히 천정을 쳐다보았다. 그럴듯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요즘 그의 일은 잘되여가고있었다. 회사초기에는 여러가지 협잡과 사기에 걸려 적잖게 랑패를 보았지만 업계의 요령을 터득한 다음부터는 얼음에 박 밀듯이 일이 잘 펴나갔다.
(모두의 지지를 받기는… 그래, 옳은 말이야.)
그동안 태민은 일이 잘되는 대신 중소기업인들과 회사산하의 사원들로부터는 여러모로의 지탄과 항의에 파업이요, 시위요 하는 싸개질에 언제 한번 마음 편한적이 없었다.
그때마다 태민은 한 인간의 힘으로써는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체념하려 했다. 그들모두의 요구를 만족시키자면 애당초 기업을 운영하지 말아야 하는것이다. 하지만 자기의 기업이 있어 수천명의 밥줄이 생긴것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자기를 위안하기도 했다.
방안은 끝없이 조용했다. 시계를 보니 10시가 넘었다.
《젠장.》
요즈음 옥영은 도박에 미쳐있다. 말로는 심심풀이오락이라고 하지만 돈을 놓고 하는 놀음이니 도박이라고 할밖에 없다. 그렇다해서 막을수는 없었다. 경자가 미국으로 간 다음부터는 집이 텅 빈 절간같아서 피아노만 두드려대기는 옥영의 성미로써 도저히 맞지 않는것이다. 더구나 맞다드는 대상들이 거의나 다 장차관 마님들이거나 재계의 사장이요, 뭐요 하는 사람들의 령부인님들인지라 옥영이의 체면에도 걸맞는것이고 태민에게도 도움이 컸다. 사교술에 능한 옥영은 그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업계의 신출내기인 태민을 재계의 거목들과 다리를 놓아주었고 마님들의 베개머리 속삭임에서 얻어진 정보로 태민의 눈을

더 밝게 해주었다. 군사에서도 정보가 우선시되는것처럼 기업활동에도 정보가 성패의 관건으로 되기때문이였다.
후— 탁상등을 끄려고 하는데 침대밑에 던져버린 신문장이 눈에 띄였다.
《아사히신붕》의 특간호였다. 뼈밖에 없는 앙상한 얼굴의 죄수복이 태민을 묵묵히 쏘아보고있었다. 재도조선인류학생간첩단사건으로 구속된 주인공의 사진이였다. 약삭바른 일본인기자가 무슨 수를 써서 만났는지 장시간의 인터뷰끝에 옹근 한면의 기사를 쓰고 사진까지 박아넣은것이다. 태민은 자재계약차로 일본으로 갔다가 그 신문을 얻어왔었다. 신문기사에는 성민이에 대해서까지 써있었기때문이였다.
《아사히신붕》은 한다하는 각료들과 업자들의 정기구독물로 되여있지만 《남한》비판과 적화요소의 기사가 실린 신문은 공보부의 뒤창고에서 썩게 되는것이다.
태민이 그 신문을 찢어버릴가 말가 망설일 때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전화를 들었던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드바삐 양복을 차려입고 아래층으로 달려내려간 그는 불빛이 빠끔히 새여나오는 서기실문을 기척도 없이 열어젖혔다. 《한국경제신문》의 주식란을 읽고있던 서기(이전 사단통신대의 소위로서 경제학석사였다.)에게 응접실을 정리하라고 소리치기 바쁘게 밖으로 나갔다. 거무칙칙한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다음에야 긴숨을 내쉬였다.
《이건 왜 아직도 안 와서.》
애매한 옥영을 윽벼르며 서성이는데 보통승용차 광도의 두배되는 전조등빛이 칼날처럼 어둠을 찢으며 들이닥쳤다. 현관문앞에까지 와서 칙— 하고 멈춰선 차에서는 까만 제낀양복의 박정희가 내렸다.
《왜 그렇게 우거지상인가?》
태민의 인사를 받은 박정희는 늘 드나들던 집인양 거침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응접실앞에서 기절초풍한 자세로 굳어져있는 서기를 보자 알릴듯말듯 미간을 찡그렸다.
《한데 왜 이 집 녀왕님은 보이지 않나?》
녀왕님이라는 소리에 태민은 한숨을 놓았다.

《저녁마실을 가서…》
《흠, 이팔청춘은 다 지나갔다는거지.》
박정희의 입에서는 약간한 술내가 풍겼다. 태민이 응접실로 안내하려 하자 머리를 저었다.
《자네방으로 가자구.》
태민은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였다. 박정희가 그의 집을 찾기는 해방직후를 제하면 사단장으로 임명되였을 때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오늘이 처음이였다.
무슨 용건으로?…
《음침한것이 야꾸자 두령방 한가지구만.》
방에 올라온 박정희는 허물없이 쏘파에 주저앉으며 《뭘 좀 마실것 없겠나?》라고 물었다.
《저… 식당방에 가시는것이 좋지 않습니까?》
태민은 구겨진 모포보다 침대발치에 펼쳐진 신문이 걱정되였다.
《난 여기가 좋아. 우리 한번 옛날로 돌아가보자구.》
박정희는 감개무량한 기색이였다. 부엌으로 나간 태민은 위스키와 마른 안주 몇점을 챙겨들여올 때 신문위치부터 살폈다. 제자리에 그냥 놓인것으로 마음을 놓았다. 그런데 옥영이가 없어 대접이 초라하다는 인사말을 하려는데 박정희는 먼저 신문소리부터 입에 올렸다.
《자네 그간 구독범위가 상당히 넓어졌구만.》
다름아닌 《아사히신붕》에 눈길을 박고있었다.
《네, 두루 그저.》
《대사업가가 되셨으니 많이 봐야겠지. 저건 봤나? 자네 동생이 영웅처럼 묘사됐더군.》
아하, 이때문이로구나. 림기응변의 대답을 했다.
《쓸개빠진 녀석들이지요.》
《왜? 그렇게 볼건 못돼. 사실 내가 오늘 온건 저러루한 일때문일세.》
《네?!》
《뭐, 그건 괜히 해보는 소리고… 오늘 밤 달빛이 좋지 않아.》
태민은 달이 떴는지 아닌지도 가늠할수 없었다.
《만감이 교잡이라 이런 밤이야.》

박정희는 익숙한 솜씨로 병마개를 따며 말했다.

《그래서 내 오늘 한강반을 따라 드라이브를 했어. 참, 자네도 〈한강반의 기적〉이라는 글 봤겠지. 어떤 녀석인지 기분 올릴줄 알거던. 한데 돌아보니 그럴듯한 소리더란 말이야.》

박정희는 태민이 부어주는 술을 조금 입에 대였다가 떼고는 계속했다.

《아직 청소할것들은 있지만 옛때는 벗겨졌거던. 이제 몇개의 호화빌딩만 서면 멋진 스타일을 보일수 있어. 경제활성의 외피는 도시미관에서부터 나타나는거 아닌가. 그러니 뭔가 좀 해놓았구나 하는 성취감에 가슴이 부풀 정도였어. 해서 자네를 생각한거야.》

《감사합니다.》

《한데 골아픈것도 많아.》

박정희는 쭉 소리가 나게 한잔을 딴후 침울한 얼굴로 돌아갔다.

《자네 집게에 물려본적이 있나.》

《건 무슨 말씀입니까?》

《집게야 집게지. 지금 내가 그놈의 쇠집게에 꽉 물린 처지란 말이야.》

태민은 어느정도 리해되였다. 《유신헌법》이 제정되고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자 온 나라가 좋다 나쁘다의 열기속에 팥죽끓듯 했다.

《큰일을 하시자면 어느 한편의 반대야 각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민은 방금전에 본 소책자의 글줄을 생각했다. 박정희는 손을 저었다.

《그런게 아니야. 이건 어느 한편이 아니라 량편 다 들이죄이거던. 유신을 놓고는 자유민주주의의 말살이라거니, 독재정치의 연장을 위해서라거니… 이건 따라지들만 아니라 한다 하는 국회의 어르신님들까지 왕왕 짖어대는거구… 리후락의 평양행을 놓고는 배신이라거니, 용공이라거니 하며 별의별 험구질로 다 죄껴댄단 말이야.》

《그거야 각하께서도 각오한것이 아닙니까. 제 알기엔 온 국민이 박수를 보내온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건 그래. 내 평생의 꿈 한가지는 꽉지를 뗀셈이고 참 말이 났으니 지금 후락이를 놓고 북의 **김일성**령수님한테 가서 절절 기였다고 구설들이 많지만 후락이 말 들어보면 공감이 간단 말이야.

한데 난 지금 이 일때문에 곱새가 될 판이야. 글쎄 후락이 평양행을 선선히 응해주던 큰 집 량반들도 오만상이거던. 백악관의 어떤 보살들은 나에 대한 불신임안까지 제출했다던가. 하지만 어쩌겠나. 시집살이정권이야 내가 만든것도 아니고… 또 당장 뛰쳐나가기도 어려운거구… 그래서 내가 새로운 국시를 내놓은거야.》

박정희의 새로운 《국시》란 《국민단합》과 《치안강화》 특히는 사소한 용공요소도 가차없이 엄단한다는 강경시책이였다.

《한데 이건 또 이것대로 뭐 네로(고대로마의 폭군)요, 히틀러요 하며 야단이거던. 그런데는…》 박정희는 신문장을 가리키며 계속했다. 《저러루한 소동 역시 난사야. 국제대사령이요, 인권협회요 하는데서까지 우리 감옥이 어쩌구저쩌구 들까부니 워싱톤의 펜대쟁이들까지 맞장구거던. 자넨 저걸 다 봤겠지.》

《네, 전… 다는 믿지 않습니다.》

신문의 인터뷰에는 비전향사상수들에 대한 테로행위가 단죄되여 있었다. 박정희는 태민의 말이 진심인가 하는듯 유심히 여겨보다가 말했다.

《그건 사실일세. 사실 나도 그렇게까지 할건 바라지 않았지만 저 신문을 읽고 알아보니 사실이더란 말이야. 이 땅에 한명의 비전향사상수도 없어야 한다고 했더니 그 말을 육체적인 소멸로 받아들인거지. 그래 이런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거야 제가 말씀드릴것이 못되지 않습니까.》

《오 지성민?!… 후에라도 그를 만나면 말해주라구. 내가 7.4를 성사케 한것은 바로 자네 동생이랑들의 극성때문이였다고… 말은 바른대로 통일을 외면해서야 안되지 않나. 한데 나의 애로를 리해 못하거던. 때리면 우는척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기발을 바꾸는 흉내도 내야 하는데 영 아다모끼란 말이야.

오늘 내가 요구해 올라온 자료를 보니 자네 동생이 진짜 영웅이더군. 비전향리더라던가… 그때문에 제거대상으로 돼있고. 참, 자넨 그동안에도 한번 찾아보지 못했나?》

《네.》

《음, 과시 지조가 굳군. 그래도 난 내딴의 일은 했어. 죽일것이 아니라 무조건 돌려세우라고. 무조건!… 근데 이 무조건이 문젤세. … 자

네같은 혈통의 고집으로는 이가 들지 않을건 뻔하고… 그렇게 되면 견딜상싶지 않거던. 이렇다 해서 살살 어루만지라고 할수도 없고. …》
《그에 대해선 너무 마음쓰지 말아주십시오. 그것도 운명인걸요.》
《운명?!… 그건 참 듣기 좋은 말이야. 운명에는 거역을 못한다, 요즘 나도 숙명론에 빠질 때가 많아. 이렇게도 저렇게도 마음대로 할수 없는… 모든것이 제한되여있거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이어 구두발자국소리가 울렸다.
《허, 녀왕님이 오시는것 같군.》
박정희는 이날 밤 자정이 넘어서야 돌아갔다.
다음날부터 태민은 심화병에 걸린 사람마냥 침울해졌다. 한마디로 고민이였다.
《요즘 나도 숙명론에 빠질 때가 많아. 이렇게도 저렇게도 마음대로 할수 없는…》
그랬다. 마음대로 할수 없는것에 숙명이 있고 고민이 있는것이 아닌가.
그동안 성민이를 잊으려 했다. 그러나 성민은 지워버릴수도, 잊을수도 없는 존재였다.
친혈육이라는 본능적애정때문이였는가. 물론 그것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성민이가 무슨 마약쟁이거나 강도같은 패륜아였다면 태민은 몸에 생긴 종양을 훌 떼여버리듯이 혈연의 본능적감정과 기억의 울밖으로 단호히 처버리고말았을것이였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인가?
지꿎게 파고드는 이 물음앞에서 태민은 컴컴한 나락을, 그 나락속에서 꿈틀거리는 더러운 벌레를 보았다. 량심도 뜻도 죄다 저버린 벌레를.
그런데 그 벌레는 비통스러운 울부짖음을 터뜨린다.
《세상살이란 그런것이야. 량심은 뭣이고 뜻이란 또 무엇인가? 나, 나 하나만을 위했다면 벌레라고 하자. 하지만 나는 처와 딸을 위해서… 수치도 뭣도 다 이겨낸단 말이다.》
그래, 그렇지.
이때면 그 벌레는 사라지고 자기 합리화의 위안속에 입술을 강다문다.

몸과 가정을 지켰으니 지겨운 이 세월에 그만하면 괜찮게 구실을 한셈이 아닌가.

뭘 그건 거짓이야.

이럴 때면 또다시 컴컴한 나락속의 벌레가 떠오르고 때로는 지겨운 악몽속에서 염라국에 가있는 자기를 보기도 했는데 깨여나면 온몸에 땀이 질펵히 내고였다.

이건 다 그녀석때문이야, 그녀석. 아니, 아니야.

정치?!… 그놈의 정치때문이야. 정치란 수놀음이 아닌가. 수란 간계와 거짓의 통칭인것이고 그때문에 이 땅의 인간들은 정치라는 수놀음앞에서 인간의 본색마저 잃게 되는것이다. 그러지 않고 고지식하게 량심대로 산다면 자기 역시 응석이나 성민이같은 신세를 면하지 못했을것이다.

비전향사상수들에 대한 전대미문의 전향테로가 국제사회와 언론계의 주목을 끌고 재야세력의 반정부공격자료로 되면서부터 성민이로 인한 고민은 태민에게만 아니라 옥영에게도 뗄수 없는 고민으로 되였다. 국민모두가 보라는 선전매체의 글보다도 쉬쉬 돌아가는 뒤구석여론과 출간금지의 소책자나 외국출판물의 토막글들을 상식자랑으로 읊조리는 마님들은 중세기 마녀감옥(종교의 이단자들을 벌하여 가혹한 폭행을 가한 감옥, 비전향사상수들의 감옥에 대한 별칭)의 재현을 놓고 갖은 기담들을 다 펼쳤는데 그 화제의 초점은 옥영에게 가 멎군했다.

《남편되는분의 동생이라는이도 거기에 있다죠?》 《소학교동창이였구요. 인물 잘나고 말 또한 웅변이라며?》 찰찰스런 물음과 기름바른 감탄뒤에는 《근데 어쩜 빨갱이가 되였을가. 맘고통 크시겠네.》 하는 위로에 《몇번 가봤나? 돌려세우지 못하나? 아무리 빨갱이라도 혈육인데.》하는 먼발치기의 비난도 있었다.

하여튼 그것이 동정이든 비난이든 옥영에게는 매정스러운 채찍질이였고 그런 자리에 앉을 때마다 불방석에 오른 심정이였으니 이로 하여 도박놀이회수도 줄게 되였다.

《이젠 당신도 한번 찾아가봐야 하지 않겠어요.》

어느날 옥영은 매섭게 태민에게 들이댔다.

《군에서도 나오고 합동참모의원직도 없어진지 고망년인데 뭘 주저

할것이 있어요. 남들 하는 말도 생각해보세요. 빨갱이라면 다들 치를 떤다면서도 십수년 넘게 담을 쌓고있으니 돌부처라고까지 해요. 해발딱한 년들은 당신이 겁쟁이라서 만날념을 못한다구요. …》

《겁쟁이라구—》

그때 태민은 너털웃음을 웃었으나 정통을 찔리웠다고 생각하였다. 박정희며 입바른자들의 뒤소리까지 겁낸건 사실인것이였다. 물론 여기에도 수가 작용했다. 서뿔리 만나면 자기에 대한 의존심과 기대로 더 고집을 부릴수 있다는것과 고생고생하느라면 돌아설 때가 있겠지 하는 자기로도 믿어지지 않는 타산이 있었다.

이로 하여 옥영의 감옥출입도 막아버렸고 령치금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 기업초기에는 돈이 딸린데도 원인이 있었다. 경자와 창호의 류학금보장만으로도 매달 수판알을 튕겨야 했던것이였다.

《좀더 생각해보자구.》

옥영의 긴 사설을 이렇게 밀막고난 그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단호한 결심을 내렸다.

(만나자. 억지로라도 굽혀내야 한다.)

한개의 군단작전을 설계할 때처럼 여러가지 방도와 방안을 생각했다.

그다음 청와대의 박정희를 찾아가 만났다.

박정희는 그전과 달리 뜻밖이라는 태도였다.

《굽혀낼 자신이 있나?》

《어쩌겠습니까. 그길밖에는 없는데… 각하를 만난데 대해서는 일체 비밀에 붙이겠습니다.》

《허허, 난 자네를 생각해서 그런거야. 일이 잘 안되면 자네의 체신이 깎일거거던.》

《저야 이젠 쓰다버린 기와장이 아닙니까.》

《자네 날 원망하는건가.》

박정희의 눈빛이 표독스러워졌다. 태민은 대번에 속이 써늘해졌다. 박정희가 이쯤 나올 때면 그 대상은 피해를 본다. 김형욱정보부장의 죽음이 떠올랐다.

《하여튼 잘해보겠습니다.》

박정희의 표리부동을 새삼스럽게 다시 느끼면서도 비굴하다는 생각

은 씹어삼켰다.
마음은 불안한 대신 각오는 더 굳세여졌다.
렴치도 도덕도 죄다 무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길로 옥영이와 함께 려아를 찾아갔다.
려아는 어머니와 고학을 하는 녀대학생 합해 셋이 살고있었다. 동양식도 아니고 서양식도 아닌 3칸짜리 양철지붕집은 꽃밭으로 둘러싸여있었다. 샤프란, 튜립, 백합, 봉선화, 나리꽃들이 무덕지게 핀 꽃밭은 화초원을 련상시켰다.
태민이가 옥영이와 함께 갔을 때 려아는 피아노교수중이였다. 하여 잠시동안 화초원 구경군노릇을 하는데 후원 담장밑에서 봉선화 손톱물들이기를 하는 처녀애와 만났다. 서너살밖에 안돼보이는 처녀애였다.
《넌 누구지?》
《학생이예요.》
《학생? 학생이면 이렇게 나와 놀면 안되지 않어.》
《전 아직 노랜 못 배워요.》
《그럼 뭘 배워?》
《선생님 몸가짐과 품성 배워요.》
《몸가짐?!…》 서너살밖에 안되는 소녀애의 어른스런 대답에 태민은 아연해졌다.
《몸가짐과 품성이란 뭐이지?》
《이쁜거야요. 걷는거, 말하는거 다 이쁘고… 불쌍한 사람 사랑 다 이뻐요.》
《불쌍한 사람 사랑한다는건 뭐냐?》
《거지애, 병신애 다 사랑하는거죠. 그리고… 아저씬 가막소 알아? 가막소 불쌍한 사람 돌보는거 다 이쁜거야.》
려아가 나타난통에 처녀애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끊어져버렸다. 차설화라고 부르는 이 처녀애의 이름을 성민이가 지어줬다는것은 꿈에도 알수 없었다. 려아는 옥영에게는 반가운 웃음을 보였으나 태민에게는 서먹한 태도였다.
(이거 안되겠는걸.)
새삼스럽게 여겨보게 된 려아의 젊음에 더욱 기가 질렸다. 무대복

차림과 비슷한 날씬한 허리와 풍만한 가슴의 곡선미를 선명히 드러내는 까만 달린옷은 려아로 하여금 20～30대의 녀성으로 착각하게 했다. 옥영은 턱과 몸에 군살까지 생겼지만 진주목걸이가 드리운 려아의 희디흰 가슴팍과 목에는 한오리의 주름살도 없이 매끈했다.

려아의 방에 들어가서야 어느정도 자신감을 갖게 되였다.

검은 휘장을 드리운 방안에서 색다른 기물이란 록음기 한개뿐이였고 침대옆탁에 소녀시절에 찍은 려아의 독사진 한장이 댕그랗게 놓여있었다.

이리로 올 때 옥영이와 나눈 말들이 떠올랐다.

《려안 아직도 수녀생활인가?》

《수녀까지야. 하긴 고독이 즐겁다니 그 비슷하지요 뭐.》

《기둥서방은 없대?》

《당신은 그저… 녀자들은 남자들과 달라요.》

자리를 잡고 앉자 려아는 깍듯한 태도로 《이거 방이 어지러워 죄송합니다.》하며 고개를 수그려보였다. 하지만 다시 머리를 쳐들 때의 눈빛에는 죄송스러워하는감도 수집어하는 빛도 없었고 오히려 뭣때문에 왔느냐 하는 비난과 오만스러운 빛이 풍겼다.

태민은 거북스러운중에 봉천조병창(심양병기공장)의 뒤마당을 그려보았다.

희푸름한 쪼각달, 눈물을 쏟던 려아, 그때의 려아는 수집음과 고마움에 찬 눈길로 태민을 보았었다.

힘이 생겼다.

5

교도소 소강당의 세면 벽에는 교도관들과 떡봉이들이 늘어서있고 하느님의 섭리를 가르치던 신부들의 자리에는 전향테로의 명수로 소문난 교무과장 변철형이 근엄하게 앉아있었다. 이름자에 철자가 붙어서인지 목소리에도 쇠소리가 울렸고 《빨갱이》들을 보는 눈에서는 부시불같은 불꽃이 번쩍였다.

《좋다, 좋아, 전향을 하는가 마는가는 당신들의 자유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심중히 생각해보는것이 좋을것이다. 자유란 다같이 공평히 누리는것만큼 우리 역시 자유가 있는것이고 그 자유의 폭과 한계는 무한임을 강조해둔다. 그럼 전향을 하지 않을자들은 손을 들어보라.》

장내에는 왕파리들의 날개질소리만 들렸을뿐 어마어마한 침묵이 깃들었다. 침묵으로써의 반항이였다.

《왜, 겁나는가? 다들 전향을 안한다고 뻗치더니 이처럼 시치미를 딸 내긴가?》

성민은 코등에 달라붙은 쉬파리를 날려쫓았다. 그 순간 《하나!》 하는 소리가 울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변철형은 자기를 보고있었다.

《어쩔수 없군.》 성민은 영기와 눈길을 마주하고 손을 들었다. 그러자 하나, 둘 손이 쳐들리는가싶더니 삽시에 수풀을 이루었다.

《음, 장하군, 장해.》

변철형은 고개를 주억거리며 손들을 헤다가 권교장한테서 눈길을 멈추었다.

《어, 사람다운 사람 있군. 누군가?》

《뭐란지라?》 권교장이 불안스럽게 성민을 보았다.

《아바이가 손을 못 드니 전향하는것으로 알고 좋아하는군요.》

《피, 방구나 먹으래. 난 안한다, 안해. 북망산에 간 다음에도 안한다, 안해.》

《야! 저자가 뭐라고 지껄여.》

변철형의 한마디 소리에 야구방망이를 든 두 떡봉이들이 춤추듯이 달려들었다.

《교무과장!》

성민은 그들을 막아서며 변철형을 쏘아보았다. 변철형의 박쥐눈이 올롱해졌다. 전향테로의 명수로 소문난 변철형은 수많은 비전향수들을 살해하고 또 전향자를 만들어낸것으로 이 교도소로 승진되여온자다. 아닐세라 이자는 첫 거조부터 전임들과는 판 달랐다.

《넌 뭐야?》

《내 한가지 할 말이 있다.

이분으로 말하면 당신들이 전신불수로 만든 사람이다. 때문에 손을

들려고 해도 들수 없다. 방금 이분이 나에게 한 말도 바로 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죽어도 전향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였다.》
《말대답질이 그게 뭐야. 야! 자! 교무과장님도 모르는가.》
《난 공평한 자유를 행사했을따름이다.》
《뭐 뭐라구?》
변철형이 입에 게거품을 물 때 그의 옆에 앉았던 교도관이 뭐라 쑹얼거리자 변철형의 낯색이 대번에 활딱 밝아졌다. 먹이를 본 맹수의 희열빛이랄가.
《아, 당신이였군. 괜찮아, 아주 훌륭해.》
웃는듯싶던 눈이 가느스름해지는가 동시에 조개턱을 한번 쳐들자 곁에 섰던 떡봉이들의 손에서 두개의 야구방망이가 성민에게 날아들었다. 눈앞에 불꽃이 번쩍이며 잔등뼈가 박살나는것 같았다.
우!─ 그때까지 잠자코있던 수인들이 저마끔 노성을 터뜨리며 일떠섰다. 그러자 벽가에 섰던 교도관들과 떡봉이들이 살 때를 만난듯이 뛰여들려 했다.
《동지들!》
성민은 만신의 힘을 다해 소리쳤다.
《이러지들 맙시다. 저자들은 바로 이걸 바라고있소.》
영기며 여러 동지들도 그와 같은 말을 하여 피비린 격투의 위험은 가셔졌다.
변철형은 이를 갈았다.
《됐다, 오늘은 이만하자.》
성민이 감방으로 돌아왔을 때 남원대망이가 근심가득해 나타났다.
《선생님, 오늘 조심하셔요. 찾거들랑 유하게 말씀하시구요.》
그는 이 말을 남기고 불안스런 얼굴로 물러갔다.
변철형이 오면서부터 교도관들 거의 전부가 교체되였다. 비전향장기수들과의 오랜 접촉과정에 《적화》되였거나 온건한 품성의 소유자들로 지목된 사람들에 한해서 그렇게 되였는데 남원대망이만은 여전히 붙어있었다. 그로 해서 그는 배가로 기세를 살구는 편이지만 성민이한테만은 그닥 심하지 않게 놀았다.
점심녘부터 복도가 떠들썩해지며 이방저방 문따는 소리가 울렸다.

이런 때마다 있게 되는 인사말들이 울렸다.
《11방 떠납니다.》
《9방도 떠납니다.》
성민은 고무신짝에 받아놓은 국물과 파리들이 새까맣게 달라붙은 점심밥을 보면서 (여느때면 한입에 다 없애버렸겠건만.) 이제나저제나 기다렸으나 그만은 불러가지 않았다.
초조했다. 변철형의 태도나 남원대망이의 귀띔으로 봐서는 자기가 제일먼저 걸려들것으로 생각했던것이다.
불려갔던 사람들은 어슬녘에야 돌아왔다. 떠나갈 때는 다들 인사를 하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는 신음소리조차 제대로 못냈다. 놈들이 하는 거동을 봐서는 다 때려죽일 잡도리같았다.
(집단단식?! 그래 지금은 이 길밖에 없다.)
성민은 저녁밥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때 《단식이다!》하고 소리치면 결방 동지들도 받아 소리칠것이요, 그렇게 되면 집단단식으로 싸우게 될것이다. 바깥창구쪽을 보니 저녁밥때가 된것 같았다.
(점심밥은 먹어둬야 하는걸.)
이런 생각을 하는데 권교장방 열쇠를 따는 소리가 울렸다.
머리끝이 섬찍했다.
권교장을?!…
《지동지—》
실낱같은 웨침에 벌떡 일어났을 때 그의 방문이 절컥 열렸다. 남원대망이가 뒤주춤 선 앞에 두명의 교도관이 뛰여들어왔다.
《가자.》
성민은 그러지 않아도 나가고싶던차라 군말없이 문밖을 나섰다. 2명의 교도관한테 포대자루처럼 질질 끌려가는 권교장을 보자 제잡답 소리쳤다.
《권동지를 끌어간다.》
단통 주먹이 날아들었다. 피를 꿀꺽 삼키며 또 한번 웨쳤다.
《동지들! 권동지를 고문하려고 하오.》
입에 자갈이 물렸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바줄로 입아귀를 동인것이다. 방들마다에서 문짝을 차고 두드려대는 소리와 목갈린 웨침들이 터져나왔으나 놈들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여기 서있어.》
성민이를 끌고간자들은 권교장이 들어간 방문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자갈끈을 풀어주지 않은채 씩씩 가쁜 숨을 쉬는중에도 무엇이 좋은지 시죽벌죽 웃었다. 남원대망이도 제법 눈에 독기를 띠우고 위엄을 보였으나 허둥한 기색은 감추지 못했다.
《으윽—》
권교장이 들어간 방에서 숨 넘어가는 소리에 이어 퍽퍽! 매질하는 소리가 울렸다.
성민은 눈앞이 휙 돌아갔다. 《이놈들아!》 무서운 힘으로 문짝을 걷어찼다. 무릎관절을 짓조기는 몽둥이의 타격에 쓰러지자 주먹으로 문짝을 두드려쳤다. 문이 삐써 열렸다.
《웬일인가.》
검정색안경을 낀 변철형이 와이샤쯔소매를 바로잡으며 나와섰다.
《탈출을 꾀했는가?》
성민이는 보지조차 않고 교도관들에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반항에 탈출이라?! 들어와.》
평상우에 놓인 권교장은 숨기조차 없어보였다. 장신의 체구가 펼쳐놓은 빨래처럼 보이였다. 상끝모서리에 닿은 입술에서는 연자색피가 흘러내려 거밋한 실줄기를 이루고있었다.
성민은 또한번 태질을 쳤으나 꽉 죄인 손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이 령감태긴 값을 치르고있어.》
변철형은 이마전에 흘러내린 머리칼을 쓸어올리며 차겁게 웃었다.
《대답은 내가 하지 않았는가.》
《그건 알아. 그러니 덤빌건 없어. 그 값도 받아낼테니까. 한데 넌 왜 그따위 대답으로 불쌍한 로인을 죽게 하는가.》
《…》
《이제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이 령감태기를 봐줄수 있다.》
《…》
《왜?… 싫은가. 그래, 그렇지. 너는 말로는 인간성이요, 동지애요 하지만 사람목숨은 쥐벼룩보다 못하게 여기지.》
성민은 가슴이 터져나갈듯 했다. 아픈 눈길로 권교장을 일별하며 변

철형을 향해 씹어뱉듯 말했다.
《사실 너같은 악당에게 말을 한다는것은 어리석다만… 들어둬라. 너희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에는 하늘땅차이가 있다.》
《허, 인간의 삶에도 서로 다른것이 있다?! 돌지 않언?》
《그래, 넌 100년 가야 알수 없어. 버러지니까.》
《뭐—야?》
《그럼 더 말해두자. 권동지는 버러지로 살지 않고 인간으로 살기 위해 반대한거다.》
《그럴듯해. 령감!》
변철형은 권교장의 어깨팍을 흔들었다. 권교장의 입에서 푸— 소리가 나오자 머리를 돌려놓았다.
《령감, 이 사람 하는 소리 들었나?》
《들은지라.》
권교장이 뜻밖에 하는 말에 변철형도 성민이도 깜짝 놀랐다. 권교장의 입가엔 벌깃한 피방울이 비누거품알처럼 풀럭거렸다.
《지동지 말 고마운지라. 난 정말 전향 안해… 내 심장…》
《에익—》
변철형의 손짓 한번에 소가죽채찍이 권교장의 어깨를 파고들었다. 성민은 앞뒤를 잴 여유가 없었다. 수정찬 손을 높이 쳐들며 변철형에게 달려들었다. 뒤골이 부서져나가는듯 했다. 그다음 꺽지센 손들이 어깨를 옥죄였다. 성민은 좌절과 비통속에 몸부림쳤다.
《변철형, 너》 우들우들 떨며 말했다. 《이제 한번이라도 더 손을 대면 네 살멱을 물어뜯을테다.》
《어— 무서운걸. 좋아, 저 령감을 내가라.》
변철형은 와이샤쯔소매를 천천히 걷어올리며 철학가도 무색할 엄숙한 빛을 지었다.
잠시후 평상에 눕혀진 성민은 하나, 둘 내리치는 매채를 스물세개까지 세고나서 정신을 잃었다.
이날부터 비전향수들의 특별사동은 지옥의 아수라장이 되였다. 련 3일동안 계속된 고문에 두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그에 대한 항의로 집단단식에 들어갔다. 대답은 강제급식이였다. 물고문과 같은 형태의 강제급식에서 또 희생자가 생겼다.

비가 내리는 날이였다. 강제급식을 당해 실신해있는 성민에게 변철형이 찾아들었다. 안됐다고, 이젠 타살적인 고문은 중지할테니 집단단식을 그만둬달라고 했다. 성민은 단마디로 거절했다.
《모든 비전향수들앞에서 사죄를 하고 그다음 말해봅시다.》
변철형은 악에 받쳐 이를 갈았다.
《좋아, 그렇게 하자. 하되 너만은 별도다.》
《별도라는건…》
《없애치운다는거다. 아니… 널 전향자로 선포할테다.》
그 말의 의미를 미처 해득하기도 전에 또다시 고문실에 끌려가 매타작을 당하고 병감에 옮겨졌다. 알심있는 치료와 흰쌀밥이 들어오는것으로 변철형이 무엇을 노렸는가를 알았다. 병감이 떠나갈듯 소리치자 입에 자갈을 물리였다.
그날도 변철형이 왔다갔다.
《맛이 어때, 응? 니덕에 다들 고문세례를 면했다만 넌 배신자로 되였으니 꼴 좋게 됐지. 다들 침을 밷더라구, 침을.》
그의 말은 사실로 증명되였다. 《과장님!》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2명의 교도관에게 포박된 영팔이가 나타났다. 불덩이같은 그의 눈길이 성민이쪽을 겨눠보자 변철형은 보란듯이 성민의 어깨를 감싸안았다.
《지선생, 이제 2～3일후이면 나갈수 있을겁니다. 먼저 명승지참관부터 하자구요.》
《흥, 그렇댔구나.》
영팔의 입에서 검찍한 피가래가 날아들었다.
영팔의 행동은 《이 짜식!》하는 따귀붙입으로 끝나고 그를 끌어내감과 동시에 《절컥.》하고 문이 닫겼다.
변철형은 기고만장해 웃었다.
《어때, 이제라도 마음을 돌리는것이 좋잖을가. 그렇게 되면 전향딱지만은 벗겨주지. 중립으로 조용히 살겠다는것으로 하고.》
성민은 단매에 그자를 거꾸러뜨렸다. 그러나 성민이 역시 반주검이 되여 땅바닥에 뒹굴게 되였다. 실컷 그를 차고 때린 변철형은 입귀에 묻은 피를 닦으며 악이 나 씨벌였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넌 영원히 먹감방이다.》

저녁녘에 나타난 의무관으로부터 고문이 중지되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내렸다.
다음날 아침 성민은 교도소소장에게 불려갔다. 무척 친절한 태도였다.
《이젠 당신과 헤여지게 되는가 보오. 잘됐지. 암, 잘되구말구. 그간 일들을 다 량해하라구.》
요령부득이한 말들을 잔뜩 늘어놓고난 그는 밖으로 나가자고 하더니 까만 승용차에 오르라고 하였다.
《어델 간다는거요?》
《가보면 아오.》
2명의 교도관에게 끌려 차에 오를 때 변철형과 몇명의 청지기들이 나오더니 뒤이어 특별사동안의 동지들까지 거의 다 끌려나왔다. 의아쩍은 기색의 그들을 휘돌아본 변철형은 활짝 웃음을 지으며 성민이 탄 차를 향해 손을 저었고 다른 청지기들 역시 살갑게 손들을 휘저었다.
성민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자기를 진짜 변절자로 만드는것이 아닌가.
묵묵히 서있는 수인들중의 대부분은 고개를 비틀고 외면한 상태였고 쌍지팽이를 짚고선 진영팔은 침을 찍 내뱉고는 절뚝거리며 되돌아들어갔다.
성민이 간 곳은 고급호텔이였다.
3명의 사복쟁이가 안내하는 방으로 가니 한명의 장년이 커피를 마시고있었는데 성민이 들어서기 바쁘게 탄성을 질렀다.
《지선생, 이게 얼마만입니까.》
한인수였다.
사복쟁이들과 보안관들을 내보내고난 한인수는 성민의 손목까지 덥석 잡으며 반가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여전히 헌병사령부에서 근무한다고 했다.
《한데 지금 하는 이 놀음은 뭐요? 지금도 그때 사업의 계속인가.》
《원, 무슨 말씀을. 그러니 선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셨군요. 형님께서 지선생을 만나기로 하셨습니다.》
《그가?!…》
《네, 전 그저 사전준비차로 온것이구요. 헌데 지금 그분의 건강이 좋지 않으셔요. 고혈압으로 신고하고있거던요. 그러니… 잘 료량하시

면서 우선 목욕도 하고 좀 가꾸셔야 하겠습니다.》
성민은 목욕실에 들어가 처음으로 자기 용모를 찬찬히 볼수 있었다.
몸을 깨끗이 씻었다. 감옥동지들한테 미안스러웠으나 이것이야말로 마지막전투를 앞둔 준비라고 생각했다.
《원, 오라질 놈들, 이처럼 만신창을 만들다니.》
성민의 몸의 상처자리를 볼 때마다 혀를 차던 한인수는 샤와실에서 나온 뒤에도 분을 금치 못해하였다.
《당신은 그동안 다른 나라에 가있었소?》
듣다못해 한마디하자 한인수는 놀랍다는 기색이였다.
《글쎄 저도 정 모르는건 아니지만 선생같은분에게야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나야 〈빨갱이〉가 아니요?》
《거야 그렇지만 선생이야… 그저 마음속 지조와 량심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형님이 나를 만나자는건 뭣때문인것 같소?》
《거야 선생을 살리기 위해서지요. 구체적인 내속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사령관님의 말씀을 봐서는 그대로 놓여나갈것 같습니다.》
《사령관?!… 그는 누구요?》
택규가 아닐가 하여 묻는 성민의 말에 한인수는 다 알겠노라는듯이 싱긋이 웃었다.
《선생은 전혀 모를분이지요. 그지간 우리 헌병사령관만 해도 네번씩이나 갱질되였으니까요. 선생이 처음 만나셨던 택규부사령관님은 중앙정보부에 가셨구요. 지금 사령관을 하시는분은 지장군하고 별로 특별한 교우관계는 없지만 그분도 선생에 대해 알아보시고 적잖게 마음을 쓰셨습니다. 국가공로자되시는 지장군에게 징역군동생이 있어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며…》
이때부터 성민은 더이상 묻지 않았다.
샤와실에서 나와 30분쯤 쉬고났을 때 《지장군이 오셨습니다.》라고 하며 굽신 절을 하는 사람도 알고보니 옥영이네 집에서 처음 보았던 그 집지기상사였다.
그들의 안내밑에 두툼한 창가림이 드리운 2층소연회실로 들어서니 커다란 식탁앞에 두사람이 나란히 앉아있었다.

태민은 은회색등산복차림이였다. 그 은회색때문인지 태민의 얼굴이 무척 검스럽게 보였다. 길가에서 만났다면 전혀 몰라볼 얼굴이였다. 실팍진 배와 처져내린 볼살, 눈은 반쯤 잠긴듯 했다.

《게 앉거라.》

한인수와 집지기사병이 조용히 문밖으로 나가자 성민에게 맞은켠 의자를 가리켜보였다. 그때 태민의 옆에 앉아있던 녀인이 다소곳이 일어나 머리를 숙여보였다. 성민은 그 녀자가 다름아닌 려아인것을 알아보았다.

태민은 한동안 묵묵히 성민을 보다가 몸을 뒤젖히며 헌헌한 웃음을 지었다.

《그간 안됐다. 날 많이 욕했을테지.》

《그렇습니다.》

성민은 솔직히 말했다.

그러자 태민은 면구스런 기색으로 려아를 얼핏 돌아보고는 입술을 씨루었다.

《우선 먹자.》

태민은 닁큼 술병을 들더니 먼저 성민의 잔에 술을 쏟아부었다. 코르크마개쪼각이 뜬 병안에서 쿨럭쿨럭 소리를 내며 쏟아지던 포도주는 식탁우에까지 흘러번졌다.

《저야 술을 못한다는걸 알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그래. 여기서도 비전향이라 그거구나. 뭐 타낼건 없지. 임자도 들라구.》 려아에게까지 술을 부어주고난 태민은 지나가는 소리처럼 한마디 덧붙였다.

《이 사람은 지금 혼자야.》

성민은 분탕에 저를 대였다. 잘 집혀지지 않았다.

《그래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다지.》

《네.》

《그럼 그쪽 소식부터 좀 듣자. 옥영이한테서도 대강 듣긴 했다만.》

태민은 먹는 시늉만 하다가 성민의 입이 열리자 연신 질문을 퍼부었다. 선산은? 고향집은 그냥 있고? 나의 동무들은?… 이런 식의 물음에까지 대답을 하다나니 퍼그나 시간이 흘렀다. 성민이 입을 다물자 태민은 소주 한잔을 단숨에 들이키고 말을 뗐다.

《그럼 이제부턴 내 얘기를 하자. 네가 찾아온 목적이 이 형님때문

이라니까.》
태민은 대활스럽게 말했으나 눈에는 짙은 비애와 향수가 실려있었다.
《너두 좀 들었을테지만 내 지난 일이란 몇마디면 족하다. 50년도 가을에 중위로 입대했다. 그땐 돌격전에도 여러번 뛰여들었댔는데 그때문에 여러군데 부상을 입었다. 그 공로루 대대장, 련대장이 되구 정전후엔 관구 부사령관에, 참모장에, 사령관으루 있다가 군복을 벗었다. 군복을 벗은건 네 덕이라고도 할수 있어. 어때, 만족하냐.》태민은 빙그레 웃으며 려아를 돌아보았다. 《이 사람 혼자 사는것도 네 덕이라고 해야지.》
려아의 얼굴이 단번에 빨개졌다.
《참, 형수랑 경자랑 잘있습니까?》
성민은 화제를 돌렸다.
《그래, 잘있지. 경자는 지금 미국에서 살고있다.》
《그러니 거기에 영 주저앉았습니까?》
《그렇게 됐다. 남편되는 사람이 거기 눌러앉는통에… 너도 알것이다, 내 부관하던 사람. 그는 지금 법률상담소를 꾸려놓고있다. 재미교포들을 위한 상담소라고 하더라.》
《응석아주바이랑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 형님은 나이도 있는데다가 두루 앓고있다.》
《그럼 그 집 살림고생이 말이 아니겠군요.》
《해성이한테 처와 아들인가 하나 생겼다더라. 지금 그 앤 어느 식당에서 주먹군으로 있다는데 그 애도 널 닮아서인지 류치장출입도 꽤나 자주 했다. 그런 얘긴 더 하지 말자.》
태민은 침통한 안색으로 담배를 꺼내물었다.
《너도 피우련?》
《전 안 피웁니다.》
《넌 그저 아버지 그대로구나.》
태민은 탁가운데 음식그릇들을 성민이앞에 밀어주었다.
《보고만 있지 말고 먹어라. 넌 어릴 때 방어국을 좋아했지.》
태민은 부초를 잘게 탕쳐 입힌 방어토막을 끌어다주며 싱그레 웃었다.
《이건 내가 특별히 주문해 만든건데 중국식으로 만들었구나.》
성민은 먹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드니 태민은 먹지 않고 성민이만

보고있었다. 눈에는 물기가 핑 고여있었다. 성민이와 눈길이 마주치자 태민은 어색하게 웃었다.

《이젠 환갑나이가 돼오니 로시현상인지 뭔지 담배를 피울 때마다 쩍하면 눈물이 내배는구나.》

《그건 눈물구멍이 막힐 때 생긴다더군요. 지금 시력은 어떻습니까?》

《거저 그러루하다만 글을 볼 땐 돋보기를 쓴다.》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돋보기는 쓰지 않으셨는데…》

《그건 집안래력이다. 할아버지도 돋보기를 쓰지 않지 않았니. 한데 나만은 별나거던.》

《거야… 풍토가 바뀌여지면 잡병이 생긴다는 말이 있더군요.》

《허허, 네가 지금껏 벼르던 말이겠구나.》

《그렇습니다. 책을 보려니 사람들의 건강은 제가 태여난 고장에서 사는것이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나때문에 연구를 많이 했구나.》

태민이 쓰겁게 하는 말에 성민은 가슴이 아팠다.

《아까 채 하지 못한 얘긴데 아버진 돌아가실 때까지 늘 형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해라.》

담배를 비벼끄는 태민의 손이 떨렸다.

《물론 나도 고향엘 가고싶다.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가서 술도 붓고 옛날 소꿉동무들과도 만나고… 그러나 우리 대엔 틀린것 아니냐.》

《하긴 그렇군요. 다른 사람 아닌 형님마저 통일을 외면하시니—》

《허허— 나때문이란 말이지.》

태민은 술기운에 붉어진 뿌잇한 눈길로 성민을 보다가 불시에 등산복을 벗어제꼈다. 목언저리와 왼쪽어깨, 바른쪽죽지우에 상처자국들이 드러났다.

《이게 뭔지 알겠냐?》

《그런건 나도 있습니다.》

성민은 단추를 와락 벗기고 가슴자락을 내보였다. 육박전투때 총창에 찔린 쇄골부위와 파편상을 당한 자리를 가리켰다.

《으음—》 태민은 만족한듯 웃었다. 등산복을 다시 입고는 등받이에 몸을 젖혔다. 웃음이 걷혀졌다.

《그래, 이런건 우리만이 아닐게다. 한데 우리처럼 이런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을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잡아야지요. 물론 기억에서까지 잊혀진다는것은 어려울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문에 서로가 옥신각신하고 절치부심한다면 우리의 후대들까지 원쑤지간이 될것이고 결국 분렬의 비극은 계속 남아있게 될것이 아닙니까.》

《전쟁때 네가 나와 맞부딪쳤다면 어떻게 했겠니?》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성민은 속이 울끈해졌다.

《쏜다는거겠지.》

《그렇지요.》

성민은 태민의 낯이 지지벌겋게 달아오르는것을 보며 가빠지는 숨결을 누잦혔다.

《물론… 정황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을겁니다. 모름지기 〈형님, 여기로 오십시오.〉하고 소리칠수도 있구요.》

《나를 의거시킨다?!… 한데 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거다.》

《그렇다면 저한텐 형님이 없는것으로 되지요.》

《허허, 누가 없어졌겠는가는 장담하기 이르다. 내 사격술은 너보다 훨씬 나을테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니?》

태민은 어릴적에 씨름을 하자고 하던 때처럼 두눈을 지릅떠보이며 당장 일어날듯 한 자세로 상모서리를 눌러짚었다.

성민은 일희일비의 서글픔을 느끼며 화제를 돌렸다.

《형님, 언젠가 집에서 따라스 불리바를 놓고 론쟁을 하던 일이 생각납니까?》

《따라스 불리바?!… 고골리의 아따만 말이냐?》

《그렇습니다. 아들을 쏴죽인 주인공을 놓고 밤새 론쟁을 벌렸댔지요.》

《생각난다. 그 주인공령감태기는 전쟁때도 그렇고 지금도 내 우상이고 모범이라구 할수 있다.》

태민은 싱그레 웃었다. 그의 말은 사실이였다.

주인공인 따라스 불리바를 놓고 그가 어떻게나 격찬했던지 아버지도 그 책을 읽었고 성민이도 읽었다.

론쟁은 제 동족인 까쟈크들을 배반하고 뽈스까군영으로 넘어간 아

들을 주인공인 아버지가 쏴눕힌걸 놓고 옳으냐 그르냐고 할 때 태민은 무작정 주인공이 옳다고 했고 아버지는 지나치다는것으로 아퀴를 짓지 못했다.

《그러니 넌 그… 뽈스까 귀족딸한테 반해 뽈스까군에 넘어간 안드리가 나 비슷하다는 소리겠구나.》

태민의 말에 성민은 씩— 웃었다.

《절반은 옳고 절반은 틀립니다.》

《건 무슨 소리냐?》

《기질상 형님은 경박한 안드리보다 과묵하고 굳센 오스따프를 닮았다고 해야지요. 그런데 결과는 반대로 되였거던요.》

성민은 그가 오스따프가 아니라 안드리처럼 미국의 총대잡이가 되였다는것까지 말하고싶었으나 그렇겐 할수 없었다.

《네 말뜻을 알겠다. 그런즉 네가 경자 엄마한테 옴쟁이소리를 한것두 바로 이때문이겠구나.》

《거슬렸다면 용서해주십시오.》

《아니, 재미있게 들었다. 한데 옴쟁이라면 쏴버려야 하지 않느냐.》

《…》

《왜 말 못하니. 난 지금도 그따위 녀석이 있으면 당장 쏴갈길거다.》

태민의 눈이 불덩이처럼 이글거렸다.

성민은 그의 분기와 노염이 반가왔다.

《형님, 제가 그에 대해 말한것은 그 인간의 출발점도 출발점이지만 인간으로 돌아갈수 있는 기회를 차버린 용렬성때문이였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출발점도 달랐거니와 일단… 벗어났다 해도 그 수정에선 단호한 용기와 대담성을 발휘할수 있는분이 아니겠습니까.》

《음, 넌 지금 여기서도 선전이구나.

그러니 넌 내가 옛날처럼 너를 따라가야 한다는거니?》

《아니, 형님으로선 그럴수도 없거니와 설사 그러자 해도 그럴 형편이 못되지 않습니까. 제가 바라는것은 형님이 본래의 형님이 되였으면 하는것이고 더 있다면… 적으나마 통일을 위해 마음을 써달라는 그뿐입니다.》

태민의 량뺨에 돌같은 근육이 살아올랐다. 담배를 집는다는것이 술잔을 엎질렀다.

《이젠 그런 말은 그만하자,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담배를 몇모금 빨고난 그는 우악스럽게 담배불을 부벼끄고는 재털이를 밀어놓았다.

《내 말하자는건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다는거다. 넌 나를 찾아왔다가 지금까지 옥고를 치르고있는데 잘못이 누구에게 더 있느냐는 말하지 않겠다. 문제는 현실이고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거다. 이렇게 볼때 네가 여기 와있는 이상 네가 나를 따라 살아야지 내가 너를 따라 갈수야 없지 않니. 그러니 복잡하게 생각할건 없다. 전향이구 뭐구 그것두 필요없다. 그저 나를 따라가 살면 되는거다.》

성민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전향을 하지 않고?!…

《이에 대해선 대통령한테도 허락을 받았다. 참, 너도 박정희를 알지. 그러니 더 왈가왈부할것이 없다. 조용히 살면 그만이지.

일감도 있다. 네가 력사공부를 했으니 어느 력사박물관엘 갈수도 있구 내 사업도 도울수 있는거지. 그것이 싫다면 집안에서 놀건 구학연구를 하건 건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것도 정 싫으면 때를 봐 3국에 나가 살수도 있고, 어떠냐?》

성민은 숨이 가빠올랐다. 너무나도 큰 유혹이였다.

자유?! 일정한 기간 조용히 살다가 통일역군으로 활동할수 있지 않는가. 감옥동지들을 위해서도 뭔가 할수 있고… 활동이야말로 놓칠수 없는 유혹이고 정당성이였다. 더구나 3국에로의 길!… 그것은 곧 조국으로 갈수 있는 길이 아닌가.

태민은 넌지시 그를 보다가 려아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도 너만 반대없다면 함께 살자는거다. 너야 이 사람과 어릴적부터 가까운 사이가 아니였니. 물론 너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울수 있다. 그런데선 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너와 이 사람이 갈라진거야 세월때문인거구 또 세월이 이렇게 마주앉게 했으니 연분이 아니겠니.

네가 쓴 글을 봐도 이 사람에 대해선 남다른것 같더구나.》

려아는 탁우의 빵부스레기를 쓸어모으고있었다. 청보석반지가 번쩍거리는 매끈한 손은 진지하게 로동을 하고있었고 하얀 목언저리의 피

줄은 심장의 박동을 보여준다는듯 분주스레 팔라닥거렸다.
타락도 정도가 있는것이 아닌가.
성민은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를 비통과 허무감속에서 그만 일어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할말은 해야 했다.
《전 형님이 이렇게까지 변하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 계시여 형님말을 들으셨다면 어떻게 생각할것 같습니까.》
태민의 눈섭이 이그러졌다.
《야, 내가 사람도리를 몰라서 하는 말이냐. 넌 글에도 썼고 또 이 사람을 만났을 때도 후회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렇다면 사는것이지 무슨 군말이냐.》
태민이 벽력같이 내지르는 소리에 성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려아씨에 대하여 말한다면 가까왔던것만은 사실입니다.
순결하고 착하고… 어린시절의 려아에 대한 표상은 지금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때문에 제가 아는 녀동무들중에선 려아가 제일 가까운 벗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사이로 말하면 그이상 전진이 있을수 없었습니다. 거기엔 우리 둘 서로의 지향과 감정에서 합치될수 없는 계선이 있은때문입니다. 려아씨에겐 예수의 세계가 첫자리에 있었다면 저에겐 해방된 조국과 혁명이라는 신성한 세계가 우선시되였습니다.》
《그렇다면 후회고 뭐고 했다는 소린 뭐냐?》
태민의 얼굴은 밤빛처럼 흐려졌다.
《형님도 글을 보셨다면 알겠지만 천성으로 순결하고 아릿답던 녀인이… 여기까지 오게 된데는 저의 책임도 크다고 보았기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가까운 친지들과 벗들에 대해서도 관심하는것이 응당한것이 아니겠습니까.》
《허허, 그러니 넌 나한테도 그때문에 찾아온셈이란거구나.》
태민은 쓰겁게 웃고는 머리를 저었다.
《그건 그렇고 네 지론대로 이 사람이 잘되기를 바란다면 그걸 위해서도 함께 사는것이 바람직한것이 아니겠느냐.》
《형님!》
성민은 이발이 떡떡 마주 쪼였다.

《형님은 지금 인간의 초보적륜리와 도덕도, 저라는 인간의 인격과 감정마저 죄다 짓밟고있는데 이젠 알겠습니다. 형님이 어떻게 되여 이 땅에 와서 높은 벼슬길에 올랐는지ㅡ》

《뭐라구ㅡ》

탕! 소리와 함께 탁우에 있던 유리잔이 쟁강 하고 굴러떨어졌다.

태민의 얼굴은 붉다못해 거멓게 질렸고 이마전에는 바줄같은 피줄이 펄떡거렸다.

(아서라.)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를 죽인자들에 대해서, 그자들에 대해 복수를 하지 못할망정 그자들이 던져주는 빵부스레기에 매달려 조국과 민족을 등지며 살아온데 대한 매춘을 규탄하려 했으나 참아야 했다.

애써 자신을 다잡으며 말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는 안해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안해로 말하면 저의 한생에서 처음으로 알게 된 귀중한 첫사랑이자 죽어서도 함께 살아야 할 이 세상 제일 아름답고 훌륭한 녀성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녀성을 본다면… 건 제가 백치로 되거나 추물로 되였을 때겠지요.》

《허허ㅡ》

태민은 속빈 웃음을 터뜨리고는 고개까지 끄덕였다.

《그래, 네 말도 일리는 있다. 말뜻대로 보면 옳은것이구. 하지만 너두 방금 말하지 않았느냐, 통일은 어렵다고. 그래서 너의 집사람한텐 안됐다만… 생각을 돌리라구 한거다.》

《형님은 저의 말을 잘못 들으셨군요.

통일이 어렵다는것과 안된다는것간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렵다?!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 통일을 믿고있으며 또 그날을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래 넌 징역살이로 통일을 한다는거냐.》

《어쩌겠습니까. 죽어서라도 성취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형님도 한때 조국을 찾아야 한다고 했고 분렬된 조국을 놓고 괴롭다고 했지요. 안 그렇습니까.》

《…》

《물론 그때의 처지와 립장과는 다르다는걸 압니다. 하지만 형님은 그릇된 사심과 그릇된 세파에 흔들리는 시정배… 약자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넌 나하고도 살지 않겠다는거냐?》
태민은 모든것을 체념한듯 한 표정이였다.
《살고싶습니다.》
성민은 가슴이 찢어질듯 했다. 눈물이 나왔다.
《하지만 저에 대해선… 강요하지 말아주십시오. 전… 나라와 민족앞에 부끄럽지 않고 벗과 친지들, 가족들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지금 저만 아니라 수많은 동지들이 사랑하는 부모처자들과 헤여져 장장 수십년의 옥고를 치르고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제가 제 한몸 살리자고 그들을 저버릴수 있겠습니까.》
삐그덕— 걸상 밀어제끼는 소리가 울렸다. 고개를 드니 태민은 벌써 문쪽으로 나가고있었다.
쾅! 문이 닫겼다.
파랗게 질린 얼굴… 입술을 꼭 깨물고있는 려아의 눈에는 물기가 고여있었다.
《안됐소. …》
성민은 돌아서려다 말고 그를 다시 보았다.
《려아, 부탁컨대 부디 인간됨을 지켜주오.》
《작별인사치고는 너무하군요.》
놀랍게도 려아는 싸늘하게 웃으며 성민을 날카롭게 흘겨보았다.
성민은 마음이 한결 헐그러워졌다.
《고맙구만. 내 말이 지나쳤다면 나로선 기쁜 일이요.》
《그래요. 좋았어요, 아주 훌륭했어요. 옳은 말이니까요.》
려아는 뭔가 더 말을 할듯 하다가 얼굴을 싸쥔채 뛰쳐나갔다.
이 일이 있은 뒤부터 태민과 려아는 10년 넘도록 문안도 소식도 없었다. 그대신 새로운 벗들이 생겨났다. 그중에는 이 세상과 하직하는 순간에 뜨겁게 손을 내민 사람도 있었다.
《지동지, 오해했던 나를 용서해주오.》
진영팔이였다. 그는 병감에서 성민의 손을 잡은채 숨을 거두었다.
성민이 새롭게 사귀게 된 벗들속에는 차호은의 딸 설화도 있었다.

제 6 장

1

편지들은 하나같이 보풀져있었다. 마음이 울적하거나 그늘이 질 때마다 밝음과 따스함을 찾아 펼쳐보는 편지다.

존경하는 지성민선생님께

진종일 기뻐 웃는데 응주라는 학생이 왜 좋아하나 묻길래 30여년 감옥살이하시는 할아버지한테서 편지를 받았어 했지요. 순간 《30년이나?》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왜 감옥에 갔느냐고 묻겠지요. 간단하게 말해주긴 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분단을 설명하는것도 어려울뿐더러 전향을 하지 않은것이 죄가 되고 전향을 하지 않은 사상이 뭔가는 저로서도 다 설명하기 어려웠거던요. 그러니 계속 묻지요, 감옥엔 나쁜 사람만이 가게 된것이 아닌가 하며. 막 안타까왔어요. 철없는 아동이고 제한된 환경에서 자라온 풋초록 망울이지만 짭짤히 눈물을 쏟게 했어요. 《애들 욕하면 안돼.》하고 선생님 나무람하실줄 알면서도 성을 냈어요. …

그럼 제가 왜 장애자학교 교사가 되였는가 하는 선생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어요.

여기엔 우선 선생님의 감화로 갱생을 얻으신 아버님의 유지가 크게 작용했어요. 《나 인생 잘못 살았어. 세상탓이야, 이렇게 말할수도 있다만 꼭 그런것만 아니야. 그러니 너락도 참삶을 살아. 나 속죄가 너 순결로 도움되게.》

재벌의 파수군이라 아버님 고민 컸어요. 깡패들과의 싸움에서 감옥살이몸이 되고 그 여독으로 떠나가실 때에야 참삶의 깨달음을 얻은 아버님이시지만 선생님께서 선하게 추억해주시리라 믿어요.

다음으로 꼭 찍어 밝힌다면 선생님 크고크신 사랑마음 받아들인것이랍니다. 분단조국의 고통을 안고 몸부림치는 선생님, 하나된 민족을 위해 희생의 제단에 한생을 아낌없이 던지는 선생님 그 마음을 해발로 자그마한 가슴 크게 넓히려 한것이예요. 불쌍한 애들 위해 사랑등불 되자고.

저의 장애자학교는 선천성불구가 태반이지만 아빠엄마 잘못 만나(아빠엄마 탓만이겠는지) 불구로 된 애들도 적잖아요. 응주라는 애도 그런 애예요. 아빠엄마싸움이 애한테까지 뻗쳐 우울증과 마귀환각증이 생겼거던요.

일은 고되여요. 잠재우기, 투정받기… 저의 교수란 옛말얘기가 기본이예요. 콩쥐팥쥐이야기부터 백두산이야기, 선생님이야기… 이런 옛말을 들려줄 때면 지각장애아동들도 눈이 올롱해 재미난다고 해요.

지금은 밤 12시 반, 선생님을 그려보며 졸음을 이겨내요. 이제부턴 애들 기저귀를 빠는 시간이예요. 사진을 동봉해 올립니다.

1996년 12월 10일
설화 올림

보고싶은 선생님께

선생님 생신날에 맞춰 손수건 2개와 봄내의, 편지를 함께 보냈는데 손수건과 봄내의는 반입품목이 아니라는 금지훈시와 함께 편지까지 되돌려보냈더군요. 그전에도 언젠가 사탕이 되돌아왔을 때 편지만은 가닿았던데 이번에는 편지마저 되돌려보내니 《문민정부》의 허구성에 개탄을 금할수 없습니다. …

1997년 3월 30일
설화 올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아침저녁으로 숨통이 트이지만 지난 주까지만 해도 말그대로 찜통같은 더위였어요.

어떻게 견뎌냈는가구요. 선생님을 그리며 이겨냈어요. 0.75평, 선생님 건강이 걱정되여요. 하지만 이것도 부질없는 소리겠지요.

얼마전 시인 고은선생의 작품을 올리는 대학가 써클공연때였어요. 여기서 제가 누구를 만난지 알아요. 저의 어릴적 음악교사였던 려아선생님을 만났어요.

통일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구요. 그런데 어릴적 저한테 들려주던 통일수가 선생님이시였다는것 오늘에야 밝히겠지요. 년전에도 쓴것 같은데 제가 애들한테 옛말을 자주 한다고 했지요. 그 옛말이란 바로 려아선생님한테서 배운것이랍니다. 음악은 심혼의 호흡, 슬픔의 하모니라고 하며 철가락없는 우리들에게 선생님에 대한 옛말도 들려주군 했답니다. 그중에도 《멀고먼 옛날에—》하며 한 소년과 소녀의 우정을 말할제면 눈에 핑그르 눈물까지 고이군 하셨습니다. …

전 려아선생님을 자주 만나군 해요. 길거리에서도 만나고 집에 가서도 만나고, 지난 기간에는 넌 왜 음악을 안했냐, 하필이면 장애자교사를? 하는 질문을 당할 때면 적당한 얼버무리기로 굼때군 하였는데 이번에는 존경하는 성민선생님을 따라배우련다고 했더니 부럽다고 하는것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가 저에게 남기고 간것은 쓸쓸한 웃음뿐이였어요.

선생님, 려아선생님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그 슬픔은 무엇일가요?

1998년 8월 30일
설화 올림

오늘 저의 학교의 세 아동, 바로 제가 글을 배워준 애꾸러기들이 그곳 선생님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한테는 위정 쓰지 않게 했습니다. 왜냐구요, 그건 제가 그 애들한테 선생님을 빼앗길가봐 두려워서였지요. 호호, 욕심아줌마 됐지요.

요즘은 선생님께서 념려해주신대로 하루 세끼 밥도 잘 먹고 잠도 뒤척이는것 없이 달게 잡니다. 이렇다해 선생님 주신 과제(숙제?) 다 푼건 아니예요.

사회와 인생, 민족과 나… 자리길은 명백했어요.

선생님모습 기발이니까. 하지만 언제면 그 심층에까지 가닿을가, 남은 숙제는 이것이예요.

끝으로 선생님한테 노래 한곡 배워드리겠어요. 이즈음 대학가의 선풍이랍니다. 제딴으로는 《선생님마음》이라 제목을 붙여봅니다.

그대가 한그루 나무라며는
이 몸은 아지에 피는 잎사귀
찬바람 불어와 떨어진대도
흙이 되여 뿌리 덮어주리라

건강 또 건강!

1998년 10월 30일
설화 올림

성민에게는 차설화의 이 편지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온 편지들이 있었다.

대부분 남조선운동권단체성원들이 보내온 편지고 멀리 해외에서 보내온 편지도 있었다. 그중에 제일 많은것이 해성이와 설화의 편지였다.

정창호도 두번인가 편지를 보내왔다. 그 편지에는 경자도 인사를 보낸다는것으로 써있으나 그닥 믿을것이 못되였다.

설화는 면회도 여러차례 왔다.

암흑가의 왕초라고 하던 호은에게 어쩌면 이런 딸이 생겨났을가 할 정도로 순결하고 발랄한 처녀였다.

차호은의 최후를 생각하면 눈물을 머금기도 했다. 서울대학생들의 반미시위때 경찰들이 애어린 학생들을 두드려패는것을 목격하게 된 차호은은 그 란투속에 뛰여들어 힘장사의 용력을 과시했다. 그통에 호은은 재판정에 올랐고 검사의 기소에서는 반미《죄》에 재벌깡패로서의 죄목들까지 겹쳐 10년형을 먹게 되였다. 돈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그의 상전재벌이 조금만 힘을 써도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겠건만 그 재벌이란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재판때 뇌졸중을 일으켜 반신불수로 된 호은은 교도소감방에서 한많은 세상을 마쳤다. 다행스러운것은 성민의 지기들— 비전향장

기수들이 마지막까지 그를 돌봐준것이다. 호은은 정신이 맑을 때도 그랬지만 죽는 날에도 성민에 대해 많은 말을 했다고 한다.

성민은 이야말로 이 땅의 얼이요, 이 나라 사람들의 량심이라고 생각했다. 더구나 리화녀대를 졸업한 설화는 처음부터 올곧은 길을 걸었다. 전대협(후날의 한총련)일군으로 첫 걸음을 뗀 그는 오늘날 불구로 된 아이들을 위해 자기를 바치고있다.

얼마나 이쁘고 참된 마음들인가.

해성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심정이였다. 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며(올해 86살인 지응석은 통일이 될 때까지 절대 죽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 모질게 삶을 지켜가는 형편에서도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성업을 위해 헌신하고있었다. 차호은과 함께 류치장생활을 하였으나 그것으로 하여 재벌과는 완전히 손을 끊고 식당업을 하고있고 틈만 있으면 성민이를 찾아오군 했다. …

성민은 옥영이가 차입품을 가지고 왔을 때 남긴 보자기에 편지들을 정히 싸넣었다. 보자기안에는 편지와 함께 30년나마 그의 몸을 감싸준 내의 두벌과 양말 한컬레가 있었다. 너무 깁고기워 원바탕보다 기운 실줄이 더 많은것이였다. 그 내의와 양말을 기울 때 쓴 바늘은 내의 목깃에 감춰두었다. 검방에서 걸리면 자살용구나 가해흉기로 인정되여 되게 경을 치게 되는 바늘이였다.

성민은 해그림자가 짧아진것을 보며 신문을 집어들었다. 감옥살이에서 제일 즐거운 시간이 이때였다. 짚검불속에서 낟알을 찾아내듯 꼼꼼히 읽어가느라면 국제국내정세로부터 조국소식도 반쪽낟알만큼 찾아볼수 있기때문이였다.

신문 1면 부제목으로부터 5면, 6면, 7면을 훑던 그는 《전통의술 경주 김 의원씨와 만나—》하는 대목을 읽다가 깜짝 놀랐다.

—…이전의 국군공로자이신 지태민씨를 낫게 해드렸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입지요. 그분께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시다가 저한테 오셨는데 약뜸 몇장과 침으로 완쾌를 보셨지요. —

—뇌졸중치고는 매우 중하다고 하셨던데—

—암, 심했지요. 자칫하면 이 세상을 하직할 중환이였습니다만 고쳐드렸지요. —

—예후는 어떨가요?—

—섭생과 운동치료를 잘하셔야지요. 그건 제가 다 알으켜드렸으니 90살까지는 장담합니다. 요즘에 또 그분 비슷한 중환에 누워계시는 국회의원 한분을 치료하는중인데요. …—

성민은 어둠이 짙어지고 흐릿한 별빛이 퇴창가를 쓸 때까지 그냥 한자리에 앉아 태민을 생각했다.

별빛이 비쳐드는 퇴창쪽을 보느라니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하며 놀던 어릴적부터 마지막으로 태민을 본 일까지 삼삼히 떠올랐다.

성민에게서 태민은 이미전에 단념한 죽어가는 존재였다. 태민도 마찬가지일것이였다. 서로의 자기마당속에 끌어들이려던것이 실패한데서 서로를 죽은 존재로 치부하게 되는것이고 이로부터 마음과 기억속에서도 서로의 봉분을 쌓게 되는것이다.

하지만 단념속에서도 존재는 존재인것이다. 실제의 존재일뿐만아니라 마음속에서도.

1979년 박정희가 측근의 심복에게 살해되였을 때 성민은 기억의 무덤속에서 태민을 다시 끄집어냈다. 온 세계를 들었다놓은 《나의 뒤에는 미국이 있다.》는 시해자의 말에서 태민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수 있지 않을가 하는 희망이 반짝였기때문이였다.

태민의 출발점은 항일무장부대에서였다.

박정희도 한때는 태민이 비슷하게 《적색이면 어떻고 백색이면 어떤가. … 민중의 편을 따르면 그만이야.》라고 했다.

돌이켜보면 이야말로 소가 웃다 꾸레미 터질 탁월한 연기였다.

그리고 죽었다. 무엇때문에? 거짓된 량심과 서뿌른 망상, 그 무엇보다 히틀러나 니체의 초인을 꿈꿨을것이다. 만사람우에 올라서는자아! 그 나의 유아독존과 나의 광휘를 위해 그러면서도 《정의》와 진리로 자기를 채색하려 했다. 7.4남북공동성명에 응한것도 그 실례라고 해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라는 조종사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벗어나지 못했을뿐만아니라 죽음을 당했다.

우연인가. 박정희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것이다. 때문에 반통일악법과 대미추종으로 희세의 폭군이 되지 않았던가.

만약 그가 진정으로 민중을 생각하고 통일된 조국을 생각했다면 그

의 죽음이야말로 비극일것이다.

하지만 력사는 그의 표방이나 속심에는 무관계하다. 남겨놓은것, 해놓은것만을 평가하는것이 력사다. 그렇다면 그가 무엇을 해놓았고 무엇을 남겼는가. 그의 분묘를 형상한다면 한쪽에는 피에 젖은 손을, 다른 한쪽에는 감옥을 그려넣는것이 적당할것이였다. 만약 박정희가 다시 살아 만날수 있다면 46년도때처럼 민중이요, 대세요 하며 자기를 합리화하려 할수 있을것이다. 목적은 이러이러했는데 어쩔수 없어 이러저러 했노라고.

력대의 제왕들과 통치자들이 늘 그랬다. 《휘황한 목적》과 《복지》에 대한 약속속에 무자비한 탄압과 가죽벗기기를 거침없이 자행했다. 하여 그 목적을 위한 횡포속에 한 세대, 두 세대의 인간들이 원한과 아픔속에 죽어가고 시들어갔다.

그렇다면 형님은?…

같은 배를 탄데서는 마찬가지였으나 뭔가 부족되거나 더한것이 있었다. 박정희에게는 《초인적의지》가 있었다면 태민에게는 그것이 부족한것이였고 박정희가 인간성과 량심을 파묻어버렸다면 태민은 그 인간성과 량심사이에서 몸부림을 쳤다고 해야 할것이다.

인간성과 량심, 성민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던 태민의 모습에서 고뇌와 방황을 보았다.

불행한 태민, 무엇때문에 거기서 초월하지 못했는가.

성민은 태민으로부터 받아보았던 편지까지 되생각해보았다.

1991년 쏘련이 해체된지 며칠 지난 어느날 십수년 넘게 담을 쌓고 있던 태민이 편지를 보내왔다. 단 석줄로 된 편지에는 《너의 사회주의를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 쏘련과 동유럽이 붕괴되였다. 너를 기다리는 형님으로부터. 대답을 기다린다.》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년후인 1994년 7월에 또다시 그의 편지가 왔다.

그때 성민은 생명중태의 위험에 빠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데서 오는 정신적타격과 슬픔이 그를 꺼꾸러뜨렸던것이다.

편지는 리인모의 조국귀환이 실현되면서부터 비전향장기수후원회역군으로 된 카톨릭교회의 문신부가 가지고 왔었다.

흰 모조지에 검은 마지크로 쓴것이였다.
《네 소식을 들었다. 난 네가 죽지 않기를 바란다.》
문신부가 그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였다. 성민이때문에 태민을 만났고 성민에 대한 그의 걱정이 크다는것, 가장 중요한 말은 그뒤에 있었다.
《그분도 **김일성**주석님의 서거에 커다란 애환을 안고있소, 마음속으로 심심히 조의를 표시했고…》
그때 성민은 죽은 별에서 새로운 빛이 반짝임을 보는듯 했다.
날이 희붐히 밝고 넘어가지 않는 아침식사를 하고났을 때 범이 제소리하면 온다고 문신부가 찾아들었다. 교도소측에서 비전향통일수들의 《세뇌교육》을 위해 끌어들이는 신부들중에서 문신부는 통일수들의 처우개선에 왼심을 쓰면서 바깥소식을 전해주는 고마운 소식통이기도 했다.
60대의 나이에도 몸차림에 무척 주의를 돌려 언제나 반듯하게 빗어넘긴 장발과 눈부신 와이샤쯔차림에 넥타이까지 받쳐맨 문신부는 성민이 내미는 담요가 아니라 구접스런 방바닥에 그대로 눌러앉으며 빙그레— 웃음부터 지었다.
《오늘 선생은 나한테 먼저 절부터 해야겠어요.》
《절이라니요.》
성민이가 94년 여름에 살아난것은 이 문신부의 덕이 컸지만 언제한번 그 수고를 비친적이 없었다.
문신부는 또 한번 비주룩이 웃으며 말했다.
《내 오늘 아침 베벨부인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베벨?!—》
《그렇습니다. 그 부인은 선생한테 문안을 하면서… 선생의 부인을 만났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처를?!—》
성민은 숨이 꺽 막혀들었다.
《그래요. 폴랜드(뽈스까)에 교회일로 갔다가 조선대표단을 만났는데 거기서 선생 부인을 알게 되였다는겁니다.
김순정이라고, 맞습니까? 지금 그는 공화국의 교육성부문 간부로 일한다고 하는데 굉장한 미인이라고 하며 30, 40대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문신부는 말하다말고 주머니에서 교갑알약 두알을 꺼내주었다.
《먼저 이걸 자시십시오. 진정제입니다.》
《일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비전향장기수들속에서 가끔 심한 정신적충격을 받을 때 심장마비를 일으켜 숨을 거두는 경우가 있는것이다.
성민이 까딱않고있는것을 보자 문신부는 실눈이 되여 입을 열었다.
《그럼 그의 말을 그대로 옮기지요. 선생의 부인은 두 아들 다 대학에 다닌다는것을 말하며 〈나는 행복하다. 생활도 그렇고 이 세상 가장 훌륭한 사람, 영웅을 남편으로 삼았기에 더욱 그렇다. 나는 그와 헤여져있지만 매일, 매시 그와 함께 산다. 추억과 래일속에 그는 언제나 아름답고 장하다. 조국 역시 그를 믿고 사랑하기에 더욱 그렇다.〉 베벨은 그때 자기 역시 행복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로마에서 사는가요?》
《그렇습니다. 로마 교황과는 오래전부터 가까운 사이였으니 거기에 안주한셈이지요.》
베벨이란 다름아닌 나쟈였다.
문신부가 떠나간 다음 성민은 순정의 소식으로 인한 충격과 흥분을 누잦히려 겨울철일과로 되였던 제자리뛰기를 500번 한 다음 순정이며 나쟈의 일을 두루 생각했다.

1994년 7월 위대한 수령님의 추모제를 위한 집단단식끝에 성민이와 여러 동지들이 생명위험의 중태에 빠져들어 쓰러졌었다. 그때 감옥에는 전도설교와 비전향장기수들의 《처우상태》를 알아보러 국내외의 여러 교단과 교회의 성직자들이 찾아들었는데 그속에 나쟈가 있었다.
로마교황청에 입적한 나쟈는 베벨이라는 세례명을 가지고 성민의 침상을 밤낮없이 지켜있었다.
그가 가끔 《정신이 드셨는가요?》라고 조선말로 물을 때도 나쟈인줄은 전혀 몰랐다. 외국인성직자들속에 조선말을 아는 사람들이 드문

한것으로 그러루한 계통의 신자라고 생각했다.

그만큼 나쟈의 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졌던것이다. 세월이 찍어놓은 늙음을 피할수 없겠지만 빛 꺼진 눈과 성직자의 위엄때문인지 아무러한 감정변화도 느낄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현세를 떠난 인간의 침울한 고독과 애수만을 엿볼수 있었다.

그런 어느날 밤 나쟈는 처음으로 웃음 비슷한것을 보이며 자기를 밝혔다.

《날 정말 몰라보겠어요?》

머리칼을 쓸어올릴 때 어딘가 그 동작이 예전의 나쟈를 상기시켜주었다. 솔직히 말했다. 그리스챤(그리스도교인)이 될줄은 전혀 몰랐노라고 변명삼아 덧붙였다.

《그럴테지요. 이전의 나쟈는 없으니까요.》

그 말을 할 때 나쟈의 눈에는 한점의 물방울이 맺혔다. 그리고 그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급급히 고개를 돌리며 모리아민점적관을 바로 잡는척 했다.

성민은 가슴이 찢어지는듯 했다.

《동문 체까였지요?》

마음속 아픔을 이런 물음으로 눌러버렸다.

나쟈는 놀랍게 그를 보다가 본래의 자세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정확히 말하면 대외정보국 상좌, 동무와 비슷한 일을 했다고 봐야겠지요.》 생긋 웃기까지 했다.

《난 동무가 생각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탐은 아니였다 그 말이겠지요. 나도 그건 알아요.》

《지금도 그 사업을 계속합니까.》

성민의 물음에 나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내가 누구를, 무엇을 위하여 그 일을 그냥 한다는거예요?》

성민은 실언했음을 알았다. 쏘련의 붕괴, 그 소식이 전해왔을 때 교도소당국자들은 미쳐날 정도로 좋아했다, 사회주의가 망했다고. 나쟈의 모습이 그 반증처럼 보였다.

나쟈는 성민의 측은해하는 눈길과 마주치자 화제를 돌렸다.

《동문 내가 왜 조선에 나왔댔는가 하던 말을 잊지 않고있겠지요?》

《잊지 않고있습니다. 나때문이라고 했지요.》

성민이 웃어보이자 나쟈 역시 웃었다.
《그때가 그립지 않아요?》
《글쎄… 하긴 난 동무가 준 뿌슈낀시집에서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의 시구를 읽었습니다.》
《고맙군요. 지나간 날은 그리우니라!… 난 정말 그때가 몹시 그리워요.》
나쟈는 한결 밝아진 기색으로 말을 이었다.
《그때 난 진짜 동무한테 반했던것 같애요. 조선에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도 동무로 하여 기뻤고… 한데 동문 인사도 없이 도망쳤지요.》
《허허, 인사없이 떠난데 대해선 용서를 빕니다.》
《하긴 잘한것이지요. 이루어질수 없는 유희였으니까.》
《지금 남편되는분은 뭘하고있습니까?》
《남편?!…》 나쟈는 나직이 뇌이며 창문쪽을 내다보았다.
《지금 그는 이국땅에 묻혀있어요. 그를 파견했던 사람들이 팔아먹은것이지요. 어쩌겠나요. 혁명의 신성을 떠들던 크레믈리가 배신하니 다들 그럴수밖에 ―》
《그도 동무와 같은 일을 하였습니까?》
《그랬어요.》
나쟈는 손수건을 꺼내여 눈물을 닦았다.
성민은 가슴이 울컥해졌다.
《동문 그때문에 성직자가 되였습니까? 물론 사업상필요때문일수도 있지만.》
《둘 다 맞아요. 처음엔 사업때문이였구 오늘에 와선 내가 다달은 마지막항구지요. 다 허물어진 세상에서 그래도 뭔가 의지하고 기대할것이 있어야 하지 않아요. 그러니 없는 하느님이라도 믿을수밖에 ―》
《왜 다 허물어졌다고만 생각합니까.》
《희망?!… 희망을 가지라는것이겠지요.》 나쟈는 서글피 되받고는 머리를 저었다.
《물론 우리에게도 레닌의 기치가 있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가니 거기에도 퇴색이 오고 풍화가 왔지요. 빠벨 꼴챠낀, 조야, 청년근위대,

그 모든 아름다움도 세월의 이끼속에 묻혀버렸구요. 그러니 저희들 가슴속에 남은것이 뭐겠나요.

배신당한 혁명, 그 혁명을 위해서 저의 친척들은 백파로 처형되기도 했고 또 다른 친척들은 백파들과 파쑈도이췰란드와의 싸움에서 희생되였어요. 혁명을 반대해 죽고 혁명을 따르다가 죽고—》

《나쟈, 난 혁명에서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하던 동무의 말을 잊지 않고있습니다.》

《아름다운 철부지시절이였지요.》

《희생이란 의미에선 나 역시 희생입니다. 하지만 이 희생이야말로 값지고 훌륭한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동무네들의 희생엔 승리가 있고 위대함이 있어요. 인간성의 불변과 사상의 불변, 얼마나 숭엄하고 훌륭한가요. 그리고 당신들이야말로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지요, 위대한 령도자가 아껴주고 위해주고.

이번에 바티칸교회에서까지 우릴 여기로 보낸것은 당신네 정부의 성명들과 호소문작용이 컸어요. 물론 제가 온것은 비전향장기수명단속에서 동무를 알아보았기에 그런거지만.》

《나쟈! 고맙소.》 성민은 저도 모르게 그의 손목을 꽉 틀어잡았다.

(그렇다. 지켜주고 아껴주는 품, 그 사랑, 그 믿음이 없었더라면 나 역시 견뎌내기 어려웠을것이다.

사람이란 그가 제아무리 훌륭한 사상을 지녔다 해도 그 사상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빛발과 열의 광원이 있어야 한다, 인간사랑의 태양의 빛발!)

성민은 나쟈에게 무슨 말부터 했으면 좋을지 알수 없었다.

조선에서 떠난 다음 여러 나라들을 전전하던 나쟈는 로씨야정교회에 입적하여(그 역시 사업상임무로) 뽈스까에서 있었다고 한다. 거기서 로마교황으로 된 사람과 가깝게 되였고 쏘련의 붕괴로 《까게베》(체까의 후신)가 해체되면서 로마교황을 따라 바티칸교회에 입적한것이다.

《나쟈, 난 동무가 성직자로 되였지만 그전때의 나쟈 그대로라고 믿고싶습니다.》

《아니예요. 고맙긴 하지만… 저에게서 지난날은 한갖 아름다운 추억일뿐이고 잠시동안의 꿈과 같은거예요.
한데 꿈에서 깨여나면 허무하지요. 그 꿈속에도 비참한것이 많고…
하여 진짜로 하느님의 세계, 하느님의 래세에 몸을 던진거예요. 하지만 이 역시 거짓된 추구지요. 자기 기만, 거짓위안.
하긴 동무네를, 동무네 조국을 생각하면 한결 위안이 돼요.》
뾜스까에서 살 때부터 베벨로 이름을 바꾸었다는 나쟈는 이러한 슬픔으로 성민에게 아픔을 남기고 떠나갔다.
그런데 오늘 문신부에게 한 전화에서 자기 역시 행복감을 느꼈다고 한 나쟈의 말은 생에 대한 시각에서 적으나마 변화가 왔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닐가.
다음날부터 성민은 몸단련에 더욱 열중했다.
달리기시간을 더욱 늘였고 밥씹는 회수를 더 늘였다. 이따금 들어오는 염물고기토막은 가시뼈들이 물로 될 때까지 씹었다.
그런 어느날 교도소소장이 그를 불렀다.
4.19세대로 불리워지는 40대의 교도소소장은 그전의 폭력배들과는 달리 비전향통일수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온화한 태도였고 성민이를 만날 때면 력사학이나 인간학문제로 곧잘 토론을 벌리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 성민이를 찾은 교도소소장의 신색은 좋지 않았다.
왜 불렀느냐 하는 물음에 억지웃음을 지으며 먼저 축하한다고 말했다.
《축하라니요?》
《선생은 래일안으로 출소하게 되였습니다.》
성민은 깜짝 놀랐다.
기한을 앞당기는 출소란 주로 전향을 했거나 병약한 사람들중에서 크게 문제시될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에게만 차례지는 특혜였던것이다.
성민의 얼굴을 묵묵히 지켜보던 소장이 또다시 억지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뭐 특별히 생각할것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새로 취한 사면석방이 있지 않습니까.》

《사면이라구요?!》

사면석방이란 《대통령》의 《은사》로 나가게 된다는 말이였다.

《에, 그러니 거취장소문젠데 선생님의향은 어떠신지?―》

성민은 너무나도 뜻밖의 일에 인차 대답을 못했다.

하긴 그 지간 동지들이 하나, 둘 나갈 때마다 무척 신경을 써본 일이였으나 정작 닥치고보니 선뜻 짚어댈수가 없었다.

한참만에야 대답했다.

《제 5촌숙부인 지응석씨의 댁에 가서 살겠습니다.》

《거긴… 우리도 알아봤는데 곤난할것 같습니다. 5촌숙부되시는분은 누워계시고 그 아들되는 사람은 보안관찰대상이니 허락이 안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로원밖에 없군요.》

그 지간 출소한 동지들이 자취를 하는 집들을 생각해보았으나 자기까지 가서 얹혀산다는것이 무리라고 생각했다.

교도소소장은 묵묵히 생각에 잠긴 성민이를 보고는 다시 말을 떼였다.

《저… 형님되시는분의 집엘 가면 안되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그분들도 마다하지 않을것 같은데요.》

《아니, 거긴 안됩니다.》

94년후부터 형의 집과는 완전히 두절상태였다.

언젠가 옥영이 마지막으로 왔을 때 반백이 된 성민을 보며 《에그, 동생은 무슨 고집에…》하며 눈굽을 훔치던 일을 생각하니 얼마간 흔들리긴 했으나 마음을 모질게 먹었다.

《그 집엔 후날 찾아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안됩니다. 가능한껏 저의 5촌숙되는분의 집에 가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제가 좀 노력해보겠습니다만 아직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희색이 만면해진 교도소소장이 성민의 뜻대로 되였다고 하며 짐을 싸라고 하였다.

성민은 이때 문신부가 주고간 진정제를 먹었다. 너무나도 가슴이 후두둑거렸기때문이였다.

2

밖을 나선 성민은 옷섶으로 스며드는 쌀쌀한 여우바람에 몸을 움츠려뜨렸다.

그를 인수받은 형사는 《요시찰사상범》을 단독으로 호송하게 된때문인지 아니면 택시 하나 붙잡지 못할 빈털터리에 대한 락심때문인지 배추잎처럼 퍼래진 얼굴로 주위를 두릿거렸다.

성민이 나와선 곳은 감옥정문이 아니라 후문뒤마당이였다.

그간 출소식때마다 언론계와 운동권단체성원들이 마중오는것을 잘 아는 성민으로서는 마른 락엽만이 딩구는 텅 빈 마당에 나서고보니 마음이 지겹게 쓸쓸해졌다.

뿌잇한 하늘로 몇마리의 새가 날아가는것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그 새들이 앉았던 메마른 백양나무의 가지 하나가 꺾어져 드리운것을 보니 허망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 나무아지를 지팽이삼아 꺾어들고 부지런히 걸어가면 그립고 그리운 순정이며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갈수 있을것이 아닌가.

형사가 투덜거렸다.

《이거 너무하군요. 지장군의 동생이라니 택시라도 불러댈줄 알았는데—》

락엽들이 딩구는 길로 얼마간 걸었을 때 쥐색승용차 한대가 쏜살같이 달려왔다.

《선생님!—》

차에서는 까만 조선치마저고리차림의 설화가 나는듯이 달려왔다. 쓸쓸한 황야에서의 첫 기쁨, 차에서는 또 한사람 어깨팍이 쩍 버그러진 장정이 내렸다. 해성이였다.

자기는 큰어른이니 어린 처녀에게만 기쁨을 죄다 맡긴다는 식으로 싱글싱글 웃으며 내려서는 《웃자요!》하며 성민을 들어안은채 두세바퀴 휘둘렀다.

《얘얘, 어지럽다. 그만 놓거라.》

솟구치는 눈물을 금할수 없었다.

설화도 눈굽을 찍었다. 텅 빈 마당쪽을 둘러보고는 귀엽게 중단발을 쓸어올리며 웃어보였다.

《선생님, 미안하네요. 선생님 나오실 땐 굉장한 환영식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알게 되니 저만 왔군요.》

해성이가 바빠맞은듯 입을 열었다.

《저두 오늘 새벽에야 통지를 받고… 너무 덤벼치다나니 설화양에게만… 형님, 안됐어요.》

《얘, 난 너희들만으로도 기쁘다, 기뻐.》

연신 시계를 보던 형사가 볼부은 소리를 하였다.

《이거 안됐습니다만 서울까지 가자면 서둘러야겠는데요. 해떨어지기 전 들지 못하면 수속을 못하고 한데서 밤을 새야 하지 않아요. 회포는 차츰 나누시기로 하고—》

기차로 갈 예정이였던듯싶은 형사는 승용차가 나타난 뒤부터 어지간히 반색한 꼴이였으나 제법 틀잡힌 지시조였다.

설화의 맵짠 눈이 그에게 휘돌아가는것을 본 성민이 《얘, 법에 걸릴라.》하며 잔등을 떠밀었다.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설화의 옆에 앉아 그가 잡아주는 손길과 체온을 느끼게 되니 《법에 걸린다.》라고 한 말이 자기로도 우습기도 하고 바깥세상을 그리워한 심정이 돌이켜지며 또다시 눈물이 났다.

고속도로로 들어서면서부터 차는 바람처럼 내달렸으나 서울에 이르렀을 때는 해떨어지기는커녕 늦저녁이였다.

시계를 보던 형사가 오늘은 틀렸으니 어데서 쉰다? 하는 식의 말을 꺼내자 해성이가 그의 주머니에 뭔가 찔러넣었다.

《아 아, 공무집행중에 이러시면 안돼요.》 형사는 이러면서도 《밤참이나 하시라는겁니다.》하는 해성의 말에는 건숭 고개를 끄덕였고 《형사님 수단이면 날치기통과 문제없잖어요.》하는 설화의 말에는 입귀가 헤벌쭉해졌고 그래줬으면 하는 성민의 애절은 눈길을 보자 《에라— 퇴근녘이지만 한번 개땅쇠 굴레바퀴놀음을 해봐.》하며 차를 어디어디로 몰라고 사또님고개짓을 했다.

해성이가 찔러준 돈이 약차한것 같았다.

개땅쇠 굴레바퀴라더니 형사는 맞다드는 기관들마다에 부리나케 뛰여들었다가는 뛰여나오고 그렇게 하기를 두세번 하고나더니 몇개의 도장이 찍혀진 종이장을 성민에게 주었다.

래일 아침 어디어디 몇군데 가 인사말씀 잘 올리면 사회인이 될터이니 아무쪼록 재범(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뜻.)말고 잘 지내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뻘겋고 노란 장식등들이 껌벅이는 술집앞에서 내렸다.

그 술집간판에는 —꿈, 추억, 눈물도 반끽(만족을 기한다는 뜻.), 문배, 청주, 코냑, 리카도… 동서의 명주 다 있습니다.— 하는 글이 우리 말과 영어로 써있었다.

해성이네가 식당으로 꾸렸다는 자그마한 2층집앞에 이르니 그 식당 간판에도 안내광고글이 씌여있었다.

—보신, 보양, 보음을 원하신다면… 칼치, 도미, 명태, 오징어, 상어, 동해의 푸른 물에 씻기우고 대양의 풍랑속에 키워진 그 힘을 얻게 됩니다.—

성민은 《동해의 푸른 물…》이라는 글을 보며 웃음을 머금었다. 모름지기 거기에는 고향 바다가를 그리는 지응석의 훈수가 작용했을것이다.

차가 식당뒤로 돌아들어서자 청간처럼 지은 살림집문이 삐그덕 열리였다. 허리가 굽은 파파 늙은 할머니가 기웃하고 내다보다가 소스라치는 소리를 내며 뛰여나왔다.

그뒤 방안에서 《어— 어—》하는 소리가 울려나왔다.

《에그, 기차라.》

차에서 내리는 성민을 본 할머니는 두손을 맞잡은채 이빠진 입을 항 벌렸다. 5촌숙모였다.

성민은 맨땅에 무너지듯 꿇어앉으며 그에게 절을 올렸다.

《에그—》 또 한번 고향사투리그대로의 다기찬 한숨을 내뿜는 5촌숙모의 어깨를 잡아쥐니 그동안 세월의 변화가 새삼스럽게 안겨왔다.

《성민인… 여전하네그려.》

눈물이 글썽해 성민의 아래우를 오르내리 훑어보던 숙모는 방안에서 《어— 어!》하고 재차 울리는 소리에 어서 들어가자고 하며 성민을 이끌었다.

두칸짜리 웃방에 지응석이 누워있었다.

향수내가 방안을 꽉 채우고있었다. 오래동안 자리에 누워있는 늙은이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일것이였다.

《성민아—》

이불을 높이 고여 상체가 엇비스듬히 들린 지응석은 성민을 맞으려 갈아입은듯 한 하얀 조선바지저고리차림으로 바지랭대같은 팔을 힘없이 내뻗쳤다.

성민은 눈물이 꽉 뻗쳐 얼른 그 팔을 집으며 꿇어앉았다.

《아주바이!—》

성민이 그의 어깨를 그러안자 응석은 메마른 손으로 성민의 얼굴을 쓸어만졌다.

《넌두… 령감이 됐구나. … 에그… 그 몹쓸… 형네 집에 가지 않길 잘했다.》

《아버님, 그런 말씀 안하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해성이 두덜거렸다.

지응석이 뜻밖일 정도로 큰소리를 쳤다.

《왜 안한단 말이냐, 왜? 그게 인피를 썼지 사람이냐.》

《아주바이, 고정하십시오.》

성민의 말에 응석은 또다시 손을 쳐들려다말고 맥없이 내리웠다.

《성민아… 내 지금껏… 너를… 보자구… 살았다. 이젠 됐어. 늬 아버님이랑 자꾸… 찾으니… 가도 되겠다.》

《아주바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젠 저두 있으니… 고향에 가야지 않습니까.》

《그래, 가야지… 가구말구—》

지응석은 입귀를 실룩이다가 《어, 밥을 차렸나?》하며 누구에게라없이 소리치고는 《됐수다.》하는 소리에 스르르 눈을 감았다. 인차 잠드는듯싶었다. 가르릉거리는 숨결에 이어 이따금 호흡이 막히는지 흡뜨는 소리를 했다. 쪼그라들고 마른 얼굴엔 흉터자리도 없고 다치면 종이장처럼 버석거릴듯싶은 살가죽이 푸릿하게 보였다.

《오늘은 그만하면 정정하신셈입니다.》

해성이가 아버지를 측은히 보다말고 식사를 하자며 아래방으로 이끌었다. 5촌숙모는 굽은 허리인데도 부지런히 부엌을 들락거리며

상차림을 했다.

《게 소에(송이버섯)를 놓았느냐?》

수저소리에 그동안 잠든줄 알았던 지응석이 큰소리를 내질렀다.

그다음은 감감 소리가 없었다.

성민이 송이버섯이라는 소리에 해성을 보자 해성은 울적한 얼굴이였다.

《아버지는 제가 떠날 때부터 저 소리였는데… 형님이 가지고 왔던 송이버섯을 상에 놓으라는거지요.》

《아니, 그게 아직도 있나.》

성민은 40여년이 지났는데도 그 송이버섯이 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때 태민형에게 주려고 가지고 왔던중에 얼마간을 덜어놓았던것이다.

해성은 쓸쓸히 웃으며 말했다.

《형님이 잡혀간 다음 집뒤짐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감추고 내놓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풀려나온 다음 같이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변하다못해 아예 먼지가 되고말았습니다. 한데 오늘 새벽 그걸 꺼내서 볶으라구… 허참.》

성민은 목이 메여 밥술이 올라가지 않았다.

밤새워 그간 일들을 이야기하는중에 날이 희푸릇 밝아졌다. 그때부터 아침상에 마주앉을 때까지는 잠에서 깨인 지응석이한테서 또 그간 겪은 일을 되풀이했다.

기력은 쇠진했으나 기억력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지응석은 이야기대목마다에서 한탄도 하고 분기를 떨치는데 그 분기란 대부분 태민에 대한 지탄과 노염이였다.

첫아침에 해성이와 함께 형사가 찾아가라고 한 기관들을 몇군데 다니며 수속을 하고 《가르침》도 받았다. 그 《가르침》이란 《보안관찰대상》이니만치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하며 누구를 만나거나 래왕이 있을 때면 법기관의 승인》밑에 움직여야 한다는 주의사항이였다.

《보안관찰대상》이란 《반국가적》위험행위를 했거나 할수 있는 대상에 대한 엄중감시와 통제를 의미한것이다. 결국 감옥밖에 나왔지만 절반은 옥살이를 하는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2～3일씩 걸린다던 수속이 반나절도 채 걸리

지 않아 끝났다. 《가르침》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체되였을뿐이다.
집에 돌아오니 해떨어질녘부터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설화의 동무들과 그동안 성민에게 신세를 입힌 운동권대표들과 먼저 나온 감옥동지들이였다.
그런 사람들과의 재회로 며칠을 보낸 뒤 성민은 살아갈 방도를 의논한 끝에 고서적점을 내오기로 했다. 책점은 해성의 호의로 식당안에 차리기로 했다. 이틀사이에 카운더 비슷한 매대를 차리고 설화와 그의 동무들이 가져온 책들을 쌓은 다음 수지유리판에 《옛고서들을 널리 사드립니다.》라는 자기로도 약간 얼굴이 붉어지는 안내광고 비슷한 글을 써놓고 책상우에 척 올려놓았다.
며칠사이에 책점이 흥성거렸다. 설화와 그 동무들의 선전과 선심도 있었겠지만 대학가의 청년들을 비롯한 각계층의 사람들이 줄지어 찾아들었다. 대부분은 책을 공짜로 넘겨주었고 그대신 사려는 책은 비싸게 사갔다.
이것은 성민에게도 그렇지만 고서적수매는 잘되지 않을것이라고 기웃거리던 설화도 뜻밖일 정도라고 감탄했다. 사학계통의 학자님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호화족속과 명문가의 돈부자들속에서도 골동과 옛책에 환장이 되여 조상들의 누런 한지에 먹글로 찍혀진 책이라면 거금을 휘뿌려 거두어들이기때문이였다.
성민은 그만치 감동이 컸다. 비전향수에 대한 따뜻한 정과 존경을 느꼈기때문이였다. 어느날인가는 시골차림의 청년이 이등박문을 격살한 안중근을 변호하려다 실패한 안병찬의 《소암집》까지 무상으로 성민에게 넘겨주었다.
리조때의 문집들까지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책들은 되넘겨주었다. 그것은 귀한 책이여서 허술히 팔아버릴것이 못된다는데도 있었지만 바라는 목적이 달랐기때문이였다.
성민은 감옥에 있을 때부터 조선현대사의 보충으로 될수 있는 글을 써볼 결심을 했던것이다. 그 시기는 할아버지때의 《한일합방》으로부터 70년대까지로 항일혁명투쟁력사와 비전향장기수들이 겪은 체험과 투쟁을 담아보자는것이였고 이를 하자니 여러모로 력사자료가 필요했던것이다.
성민이 책점을 차리는통에 식당업도 흥성이였다. 그러나 언어지는

총수입은 해성이 혼자 할 때보다 늘어난것이 없었다. 귀한 고서들인 경우 성민은 가능한껏의 높은 액수로 값을 지불했고 공짜로 주는 책들에 대해서는 정 값을 받지 않는 경우 커피라도 한잔 대접해야 했기때문이였다.

책점으로 찾아드는 사람들속에는 반갑지 않은 담당경찰관이며 수상쩍은 요원들도 있었으나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비전향장기수 조국귀환실현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 그들대신 성민이의 귀향길을 축하하는 환송객들이 늘어났다.

그런 어느날 책점안에 있는 성민의 앞에 여름철류행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검은 제낀양복차림에 변색안경을 낀 요원비슷한 장발의 사나이가 나타났다.

미국에 가있던 정창호였다.

3

《참, 미국에 갈 때 엔트로우인가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는데 그가 지금도 살아있소?》

《살아있구말구요. 한데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있습니까?》

정창호는 자못 놀랍다는 기색이였다. 성민은 웃었다.

《잊을 사람이 따로 있지. 그와의 회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셈이니까.》

《역시 선생님다운 소리군요. 하긴 그 사람도 선생님에 대해서 가끔 얘길 하군 했지요. 대체로 좋게 말하더군요. 카터씨가 평양으로 갈땐 자기 공로도 없지 않다고 하면서 선생님한테 인사받을 소리까지 했구요.》

《그가 뭘하길래?》

《무슨 카터재단의 연구소인가 하는데서 조선문제전문가로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영국에 가서 산다는가봅디다.》

《거긴 왜?―》

《제 말로는 조상들의 땅에서 눈을 감겠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두

루 사람들의 눈밖에 났는가봐요. 그의 주장이 너무 친공적이라던지—》

정창호는 희갈색쎄단차가 앞질러 선회하자 《에익—》하며 가속변을 밟다가 시무룩이 웃으며 다시 속력을 늦추었다.

《선생님을 봐서 참겠습니다.》

선생님이라기보다 지나친 과음때문일것이다.

그동안 미국생활에서 창호가 달라진것이 있다면 술고래가 된것이다.

창호는 성민이 잡아끌어앉힌 식탁에서 소주 세병을 말끔히 비워버렸다. 그러고도 얼굴색 하나 달라진것이 없고 차를 모는데서도 여유작작하다.

성민은 오늘 이 정창호로 하여 하나의 대용단을 내렸다. 태민형을 만나기로 한것이다.

그간 해성이네를 봐서도 태민형을 꼭 만나야 하겠다고 별렀으나 못갔다. 결별한 형님이였고 찾지도 않는 사람이니 굳이 가볼수 없지 않느냐 하는 자기로도 옹졸한 생각이 발을 묶었던것이다. 그런걸 오늘 창호가 풀어준셈이였다.

보름전에 미국에서 돌아왔다는 창호는 그동안의 인사도 인사지만 장인님의 분부때문에 왔다고 하며 성민을 일으켜세웠던것이다.

창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가보면 알게 되는것이고 성민이로서는 해성이네와 태민이네의 절치부심만은 꼭 깨뜨려야 했으니 이런 기회를 마련해준 창호가 무척 고마왔다.

잠시후 차는 쇠울짱을 빙 둘러친 2층집앞에 이르렀다.

창호는 짤막히 경적을 울리고 부석부석한 얼굴을 쓸어만졌다. 연하늘색라크칠이 번쩍이는 대문이 소리없이 열리고 집지기인듯 한 허우대 큰 로인이 꺼꺼부정한 자세로 서있다가 고개를 숙여보였다.

집은 교외에 위치한때문인지 유럽식의 별장처럼 이렇다할 장식은 없고 현관루대의 돌화분과 벽에 붙인 대리석판들이 이채로왔다.

《…로동자들 피땀을 짜먹는 똥장군과 무슨 화해고 뭐고 있단 말이냐.》

언젠가 하던 지응석의 말이 불쑥 떠올랐다.

현관정문에는 옥영이가 나와 서있었다. 실내복인듯 한 노란 달린옷차림에 까만 숄을 어깨에 두르고 서있던 옥영은 차가 멎기 바쁘게 두

손을 찰싹 맞부딪치고는 굴듯이 계단을 뛰여내려왔다.
《글쎄 난 점심을 챙겨놓고 눈이 까매 기다렸는데 이제 오믄 어떻게 해.》
먼저 창호에게 눈을 빨고는 그는 그간 아무런 일도 없었고 자기와는 여전히 무랍없는 사이임을 강조하듯 어릴적 말투로 생긋 웃으며 성민의 잔등을 밀쳤다.
《어서 들어가요.》
《허허, 이거 포로취급이구만.》
성민이 역시 그동안의 일은 가뭇 잊은듯 허심하게 웃으며 옥영의 뒤를 따라섰다.
전실구석쪽 쏘파에 앉아있던 사람이 엉거주춤 일어서다말고 다시 앉았다.
《음, 오긴 오는구나.》
웅글진 목소리로 그가 태민임을 알아보았다.
차잔을 놓고 앉은 그는 한여름철인데도 회색털세타를 입고있었다.
분명 일어설듯 한 자세였으나 몸만 조금 움씰했을뿐 다시 등받이에 몸을 젖힌채 랭담할사 한 눈길로 성민을 뜯어보았다.
검버섯이 잔뜩 돋힌 얼굴은 차거워보였다.
《점심은 먹었니?》
《네.》
《참— 무슨 형제가 이렇담. 게 앉든가… 아니, 집구경부터 해요.》
《집구경은 무슨 집구경, 사느라면 죄 볼텐데.》
태민이 이렇게 불퉁그러진 소리를 했으나 다행이라는 투였다. 성민이 역시 서먹하고 어색스러운 역에서 잠시나마 피하고싶었다. 2층계단을 올랐을 때 옥영이가 숨찬 소리로 소근거렸다.
《이봐요, 너무 뻣뻣해서 그러지 말고 좀 사근사근하라요. 글쎄 그간 우리 잘못두 없지 않지만 어쩌겠어요. 저이야 고혈압이 아닌가요.》
고혈압! 성민은 속이 뜨끔했다. 그간 성민이가 태민이를 찾아오지 않은데는 이 고혈압때문이기도 했다. 경주 김씨의원이라는 사람이 뇌졸중완치는 장담했지만 시골 돌팔이의사의 치료를 어느 정도 믿겠는가. 태민이와 맞다들면 거짓연기는 할수 없으니 예전보다 더한 충돌

이 있을수 있는것이고 그렇게 되는 경우 뇌졸중재발이 일어날수 있다고 보았기때문이였다.

옥영이가 집구경을 시킨다는것도 이때문일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다.

태민의 침실에 들어서니 첫눈에 띄는것이 액틀사진들이였다.

그중의 한 사진은 태민의 결혼식사진으로서 성민이네 가족전체가 찍혀진것이였다. 성민이 그 악몽같은 날 밤에 찢어버리다 남긴 사진과 같은것이였으나 3배로 확대한것이라 먼발치에서도 얼굴들을 잘 알아볼수 있었다.

불시에 눈굽이 젖어들며 가슴이 쩽해들었다.

옥영이앞에서 지나친 감상을 드러내는듯싶어 고개를 돌리니 침대 맞은편에는 한폭의 커다란 유화가 걸려있었다.

《9번째 파도》! 산악같이 치솟는 험한 파도, 길길이 날뛰는 그 파도마루를 쏴보며 노대를 억세게 틀어잡고있는 주인공, 검게 드리운 구름속에서는 몇줄기의 해빛이 꿰비쳐나오며 구원을, 승리를 암시하고있었다.

아이바좁쓰끼의 이 그림은 성민이 젊을적부터 무척 사랑하던 그림이였다.

감옥에서도 이 그림을 자주 떠올려보군 했다. 어찌 보면 그 그림의 주인공은 자기같기도 하고 자기의 지향과 결심그대로를 재현시킨듯 했기때문이였다.

그리고 그 그림을 상기할 때마다 고향바다의 풍랑과 그 풍랑속을 헤쳐오던 사공들의 모습을 그려보게 되였다.

그렇다면 형님은?… 형님에게는 무슨 파도가 있었을가. 하긴 없었다고는 할수 없었다. 모름지기 그에게 덮쳐든 파도중에는 자기라는 존재도 있지 않을가.

방들을 돌아보고 내려가니 태민은 담배를 피우고있었다.

《아이유, 이게 뭐예요. 그만큼 담배를 끊으라고들 하는데―》 옥영이 깜짝 놀라는 소리를 하며 그의 손에 들린 려송연과 재털이를 빼앗아들고 나갔다.

《허허, 저 사람은 여전히 암쾡이(고양이)다. 게 앉아라.》

태민은 한결 풀린 기색으로 그의 옆 쏘파를 가리키며 차잔을 옮겨

주었다.
《그래, 감상이 어떠냐?》
《괜찮군요.》
《괜찮다?!… 골고루 잘살아야 한다는 네 뜻에는 거슬릴테지.》
《그런 말은 하지 맙시다.》
《하긴 그렇지. 그래, 응석아주바이랑 어떠냐? 앓고있다던데.》
《심합니다. 지금은 음식도 못들고… 하는 말씀이란 거의나 고향소리뿐이구요. 오래 앉아있을것 같지 못합니다.》
《음―》
태민은 상두대밑에서 또 하나의 려송연을 꺼내들며 눈을 찌글서 떴다.
《넌… 그때문에 날 더… 원망할테지.》
《그렇습니다.》
《그럴수 있지.》
태민은 려송연을 매만지다가 성민을 곧추 보았다.
《그건 네 말마따나 내 잘못이 크다. 한데… 해성이 류치장살이를 한걸 아니?…》
《압니다.》
《그 애가 감옥살이까지 하지 않은건… 내가 좀 힘을 썼다. … 경자가 유괴인지 뭔지 절간에 끌려갔을 때 해성이가 거기서 보초를 섰다는것두 들었을테지.》
《네. 절간에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가끔 들군 하는 암자에 그 앨 넣고… 해성이가 지켜있었다더군요.》
《경자도 문틈으로 해성인걸 알아보았다. 뭐 내 자랑으론 듣지 말어라. 그 일루 경찰에서 더 알아보자는것두 내가 막았다. 그런데 넌… 우리 집에 와서 살면 안되겠느냐.》
성민은 태민의 눈시울이 가늘게 떠는것을 보며 뜨거운것을 삼켰다.
《왜 살고싶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예 오렴.》
《거야 제가 형님의 뜻을 어기는것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허허, 그동안 널 외면했다 그때문이겠구나.》
《아니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로서 형님뜻을 따른건 이 하나뿐이구… 또 이것만은 꼭 지켜야겠다 생각했지요.》

《건 옥생각이다.》
《그렇다면 형님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성민은 옥영의 부탁을 생각했으나 어쩔수없이 이 말을 했다.
다행히도 태민은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한가닥 실웃음을 지어보였다.
《건 네 말도 옳다. 하지만 동생이 양보를 해야지 형이 먼저 〈제발 와주십사.〉 빌어야 옳겠느냐. 난두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것 같다.》
그 말에 성민은 속이 좋지 않았다.
태민의 축 늘어진 볼과 검버섯들을 다시 보니 짜장 그럴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태민이 탄식조로 계속했다.
《하긴 너도 70고개에 올랐으니 옛날로 하면 인간귀유 70사라고 저세상사람인셈이지. 여하튼 안됐다, 좋은 세월 다 아깝게 보냈으니—》
《형님, 못난 세월 살았다 해야지요.》
성민이 빙그레 웃어보이자 태민이도 따라웃었다.
《허허, 아버님말씀이로구나. 못난 세월에도 살줄 알구 못난 세월에도 이겨야 한다! 그런즉 너는 못난 세월과 싸워이겼구 난 그렇지 못하다는 소린데 내 말하자는건 네가 좋은 시절을… 다 감옥에서 보냈으니… 하는 말이다.》
태민의 눈굽이 질척해졌다.
《형님!》 성민은 속이 쓰려들었으나 여전히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전 그에 대해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때문에 너무 속을 쓰지 마십시오.》
《허허, 인생무상이라구 난두 거기서 초월하려고 하지만 어디 그렇게 되니, 후회도 많구… 너 보기두 부끄럽구… 한데 너두 집에 갈 신청수속을 한다는데 그냥… 갈셈이였니?》
려송연에 불을 붙이는 태민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떠나기 전에 찾아뵈려구 했습니다.
제가 좀 옹졸하다나니—》
성민은 진정으로 미안스러웠다.

《그래, 꼭 가야겠니?》
《거야 더 말할것 있습니까.》
《하긴 나두 그렇게 생각했다.》
태민은 길게 한숨을 내뿜고는 당장 리별을 앞둔 사람처럼 성민을 뚫어지게 보다가 불쑥 물었다.
《처는 어떤 녀자냐? 순정이라면 그전에 내가 목단강집에 갔을 때 본 그 처녀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생기긴 괜찮더구나.》
《마음도 그렇습니다, 반일독립투사의 딸이고.》
《그건… 그때두 알았다. … 자식은 둘이라고 했던가?》
《네, 둘 다 아들입니다.》
《허, 욕심을 부렸구나. 한데 그들 소식은 모르겠지?》
《…》
성민은 안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오는것을 간신히 참았다. 이 어디 도청기라도 있지 않을가 하는 경계심때문이였다.
태민이 불현듯 싱그레 웃었다.
《게 가면… 날 무척 욕할테지. … 한데 그들한테만은 내 부실한 소리들을 옮기지 말거라. 시형이라는게 인륜도 도덕도 모르는 사람이 되였으니 무슨 망신이냐.》
옥영이가 들어와 정담들은 그만하고 음식을 들면서 속풀이를 하라는 말에 태민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식사는 하고 왔는데요.》
《뭐 이른저녁 겸 함께 들면서 이야기를 하자꾸나.》
태민을 따라 전실 옆방에 들어선 성민은 고향집 할아버지방에 들어선듯 한 착각이 일었다.
왕골로 짠 돗자리우에 놓인 장탁형의 앉은뱅이밥상도 고향집것과 비슷한것이였고 비단방석의 색갈도 그때의것 그대로였다. 흰 바람벽에 붙은 액자의 글들도 죄다 한문으로 쓴것으로서 그때의 방을 련상시켰다.
《사람이 늙으면 어릴적 시절을 그리게 되는거다.》
성민이 놀라와하는 상을 띄여본 태민이 벙글서 웃으며 어서 앉으라

고 했다.
상차림은 요란했다. 그전날 할아버지도 손님들이 오거나 명절때면 자기 방의 장탁형밥상에 음식들을 가득 넘치도록 차려놓는것을 좋아했다.
《창호는 안 오우?》
태민이 술병을 안고 들어서는 옥영을 보며 물었다.
《경호 아범은 적은이 점심대접에 배가 불렀다면서—》
《거 잘됐군, 당신도 게 앉소.》
태민은 그의 손에서 술병을 받아들고는 성민에게 의미있는 눈길을 주었다.
《이게 어떤 술인지 알겠니?》
성민이 새삼스럽게 살펴보니 목이 긴 술병에는 《평양소주》라는 상표가 붙어있었다.
《아니, 이 술이 어떻게 집에 있습니까?》
《허, 이런 술이 들어오는지가 언젠데. 해성이네 식당엔 없던?》
《이런 술이 들어온다는건 알았지만…》
《이게 세월의 흐름이란거다.》
태민이 술을 잔에 부으려 하는것을 보고 성민이 닁큼 병을 받아쥐였다.
《제가 부어야지요.》
《그래라.》
태민은 못내 흡족한 기색이였다.
성민은 이름할수 없는 감회와 아픔을 안고 조심스레 그의 잔에 술을 부었다.
태민의 결혼식때 말고는 이번이 처음인것이다.
《인줘요.》
옥영이 술병을 받아들고 성민의 잔에 부을 때 커다란 접시우의 송이버섯이 눈에 띄였다. 산판에 있던 모양 그대로 옹기종기 세워놓은 것들이였다.
《너도 이젠 술을 배웠겠지?》
태민이 물었다.
《조금은 합니다.》

《그래, 할 때는 좀 해야지.》
태민은 성민의 눈길이 멎어있는 송이버섯접시를 보다가 빙그레 웃었다.
《너… 버섯구이가 생각나니?》
《네.》
《저게 그거다. 송이갓밑에 소금을 넣고 해별에 쬐이던… 이런 말은 안하자고 했다만 네가 집에서 올 때 송이버섯을 가지고 왔던것두 알고있다. 그땐 어머니가 보내신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자, 이런 말은 그만하고 어머님과 아버님의 명복을 비는 제술로 알고 들자.》
마셨다.
《난 말이다, 너한테도 그렇지만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더욱 죄스럽다.》
《형님, 그런 말씀 더 하지 말자구 하잖았어요.》
성민은 솟구치는 눈물을 참을수 없었다.
송이버섯 한개를 집어들었다. 갓을 떼니 희읍스름한 속대살우에 채 녹지 않은 소금 몇알이 다문다문 박혀있었다.
《어떠냐, 옛날때 그대로이지. 내가 직접 한거다. 바위돌이 아니라 지짐판우에 놓아두었다만…》
태민은 웃어보이려는듯 했으나 입술만 일그러뜨렸다.
《그런데 경자는 왜 안 온다는겁니까?》
《경자?!…》
《네, 창호의 말로는 집사정때문에 못 왔다고 하던데요.》
《집사정은 무슨 집사정… 그 애들은 갈라진셈이다.》
《갈라지다니요?》
태민의 고혈압을 념려해 화제를 돌린다는것이 반대로 되였다. 다행히 태민은 그닥 대수롭지 않다는 기색이였다.
《건 먼저 경자한테 따질 일이다만 시작은 창호때문이다.》
《창호가?!》
《그렇다. 사위라는 녀석도 자칫하면 너처럼 옥살이를 할번 했다. 그것도 미국감옥에서 말이다.》
《아니, 건 무슨 일인데요?》

《허—어, 그걸 다 말하자면 옛날말루 활극같은거다.
그 녀석이 옛날 유럽식기사도흉내를 낸셈인데— 허, 무슨 나이트클럽인지 뭔지 하는데서 경자한테 지분거리는 녀석을 때려눕혔다는거다.》
《죽였는가요?》
《죽이기까지야, 창호말로는 태권을 해서 꺼꾸러뜨렸다는데 법기관들에서는 살인죄보다 더 큰걸로 소동을 부렸다는구나.》
《아니, 미국에서야 그러루한 일은 재미난 일화거리로나 되지 범죄로는 안되는것이 아닙니까?》
《그렇긴 하다만…》
《조선사람인때문이겠지요.》
《글쎄 창호도 그렇다고 우둘거리긴 하더라만 방법이 있니? 우리 외무부에선 그 애 문제가 국가관계로까지 번져졌다고 울상이였구. 그런대로 외무부사람들이 손을 써 5년징역을 살게 된 그를 여기로 빼돌렸다.》
《그런데 경자는 왜 갈라진다는것입니까?》
《망신을 당했다는거다.》
《그러니 영 갈라질 잡도립니까?》
《뭐 딱히 그런 소리는 안하더라만 모르겠다.》
《야단이군요.》
《그렇다. 나처럼 다 늙어빠진 다음에야 셈이 들겠는지… 하긴 그 애가 외로 빠진건 내탓도 있지. 옥영이더러는 그 애 응석을 너무 받아들였다고 책망하였지만… 한데 옥영은 그 애 외고집이 너를 닮은탓이라는구나.》
《허허, 나를요?》
《그건 그렇구, 이제부턴 매사에 조심하거라.》
《건 어떤 뜻에서요?》
《듣자하니 너를 재구속대상이라구 하더라. 네가 반국가선전과 북쪽사상선전에 열심한다고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잡아넣겠다는거지. 그러니 운동권단체들과도 너무 섭쓸리지 말구. 요 며칠전 택규도 와서 그런 소릴 하더라.》
《택규도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지. 그도 다된 늙은이다만.》
《그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이나 갈지. 한데 너에 대해서만은… 좀 안됐다고 하면서 북송에는 찬성이더라.》
《허허, 상전벽해라더니 정말 놀랍군요.》
《크게 놀랄건 없다. 나도 지금처럼 말한다 해서 그전과 달라진건 별로 없다.》
《아니, 그건?…》
성민의 실망어린 말에 태민은 씩 웃었다.
《거야 당연한거 아니냐. 너도 그렇지, 지금은 네가 얼마간 마음이 풀렸다만 여하튼 너도 그렇고 순정이랑 다 날 원쑤맞잡이로 볼거구… 나 또한 반생넘게 지금같은 길을 걸었으니 이제 다 끝난 육신으로 되돌이잡이를 못할것 아니냐.》
《형님, 과거는 과거고 오늘과 래일이 중요한것이 아닙니까.》
《허허, 네 말하는 뜻을 모르는게 아니다. 아마 넌 최덕신이나 최홍희를 비출수 있을게다. 나도 그들이 방향전환을 했구 그때문에 김주석님께서 그들을 따뜻이 품어주시고 내세워주신것도 안다. 하지만 그건 특정인에 한한것이구… 나같은 사람이야 어림있니. 나로 말하면 너한테도 그렇지만 이북 모든 사람들한테 피맺힌 원쑤가 아니냐.》
《형님, 난 그것이 형님의 본의는 아니였다고 봅니다. 비극은 미국놈들때문이지요.》
《그만해라. 네가 어머님소리까지 또 할것 같은데… 나라구 왜 그런걸 전혀 모르겠니.
너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지금 심장두 뇌두 다 좋질 않다. 거기에 경자일까지 겹쳐서… 사람 사는것 같지 않다.
그동안 반나절은 회사일에 조금 삐치구 그다음은 진종일 두루 생각인데… 고향생각이 많다. 죽으면 거기에 뼈를 묻을수 없을가 하는 부질없는 망상두 있고… 에이, 이런 얘긴 그만하자.
그래 넌 이제부터 어떻게 할셈이냐?》
《저… 떠날 준비로 그지간 알게 되였던 사람들도 만나보고 감옥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묘소에 가서 인사를 하자고 합니다.》

《그－래.》
《그다음엔 형님네 집에 와서 신세를 졌으면 합니다.》
《우리 집에.》 태민의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고맙다.》
《그런데 형님, 응석아주바이한테 가봐야지 않아요?》
《가봐야지. 암, 가보구말구.》 태민은 더없이 기뻐하는 기색이였다.
《근데 네가 가본다는 곳은 어데냐?》
《가능하면 제주도까지 가보려구 합니다.》
《려비는 있냐?》
《네, 그건 장만할수 있습니다.》
《여보!》
《아니, 귀청 떨어지겠구려.》
그의 곁에 앉았던 옥영이 일어날 자세로 벙글거렸다.
태민은 여전히 호령조로 말했다.
《이 사람한테 줄거 있지?》
《네, 준비됐사와요.》
굽석 절까지 하고 방을 나선 옥영은 두툼한 돈봉투를 가져왔다.
《그건 뭡니까?》
성민이 귀뿌리가 달아올라 하는 말에 태민은 엄엄한 태도였다.
《두루 다니느라면 돈쓸 일이 많겠는데 보탬하라는거다.》
《아니, 저한테도 있다고 하잖았습니까.》
《써라, 내 돈이여서 싫다면 어머님이 주시는것으로 알고 받거라.》
《허 참, 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럴 일이 있다.
너도 아버지도 모를거다만 그전에 내가 집을 떠날 때 어머니한테만은 대충 알렸다. 그때 어머니는… 인차 오라고 하며 시집올 때 가지고왔던 패물과 노리개 전부를 나에게 주었다. 법도가 그렇다고 하면서 옥영이가 쓰게 하라구…》
태민은 목이 꺽 막혀 더 말을 못했다.
성민이도 무슨 말을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한참 지나서야 태민이 다시 입을 열었다.

《래일 너의 집에 가도 되겠니? 응석아주바이한테 말이다.》
《그럼 더 좋지요.》
《그렇게 하자. 한데 돌아보는 일로 너무 지체하지 말아라. 돌아가는 말로는 가을전으로 떠날것 같은데—》
《네, 인차 오겠습니다. 그다음부터는 형님과 함께 있지요.》
《암, 그래야지. 우리 서로 함께 자구 함께 먹으며… 혹시… 모른다. 나도 너와 함께 따라갈지.》
성민이 정창호가 모는 차에 올랐을 때 태민이와 옥영은 대문가에까지 따라나와 바래주었다.

4

묵직한 밤색창가림이 드리운 방에서는 태민이와 성민이가 나눈 대화가 하나의 잡음도 없이 재현되여 울리였다.
《아니, 미국에서야 그러루한 일은 재미난 일화거리로나 되지 범죄로는 안되는것이 아닙니까?》
《그렇긴 하다만…》
《조선사람인때문이겠지요.》
《글쎄 창호도 그렇다고 우둘거리긴 하더라만 방법이 있니?…》
(저건 뽑아버려야 했는데—)
구석진 쏘파에 앉아 록음기만 지켜보던 창호는 흠칫하며 명례를 돌아보았다.
제낀 등받이의자에 반쯤 눕다십이 한 명례는 다행히도 싱그레 웃기만 할뿐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창호의 나이트클럽추태를 상상해보는듯싶었다.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였다. 아니, 분한 일이였다. 그때문에 또다시 명례의 손탁에 휘감긴것이 아닌가.
(문제는 비끄러매든가 억지다짐으로라두 그놈의 나이트클럽엔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걸.)
경자는 50이 다된 나이인데도 차림은 여전히 처녀처럼 하고 뻔

질나게 무도장을 찾아다녔다. 하여 창호도 옛날솜씨를 발휘할겸 둘러리격으로 따라다녔다. 처음에는 경자가 나타나면 꾹뒤에 피도 마르지 않은 녀석들까지 그한테 엉겨붙어 돌아가는것을 대범하게 스쳐보았다. 오히려 처의 미모와 젊음에 대한 자부로 긍지까지 가지게 되였다. 그런데 웬걸, 록크인지 뭔지 하는 춤에 미쳐난 경자는 웬간한 미국인들도 얼굴을 찌프리는 레스링춤까지 거침없이 춰댔다.

집에 오면 그때문에 다툼질이였으나 경자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젖가슴을 좀 쥐우고… 그런 부위를 맞부빈다 해서 정조까지 더럽힐줄 아느냐고 야단을 쳤다.

기사도흉내라고 한 그날도 참자고 했다.

한데 오래전부터 경자만 보면 《오, 나의 사랑.》하며 감겨돌던 기생오래비같이 매끈한자가 (그 역시 꾹뒤에 피도 마르지 않은 녀석이였다.) 대바람에 경자의 볼이며 가슴에까지 마구 입을 맞추고 구석진 기둥쪽으로 사라지는것을 보자 젖먹던 밸까지 꿈틀거렸다. 그래도 참았다.

미친듯 한 록크의 울부짖음이 끝나고 느린 왈쯔곡 비슷한 선률속에 하나둘 조명등이 꺼지고… 다시 그 조명불들이 켜질 때 창호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기생오래비는 경자의 아래부분과 완전히 맞닿아 지랄이였고 그 피도 마르지 않은 녀석의 걸탐스런 입술에 반쯤 드러난 가슴을 맡긴 경자는 나른한 눈길로 창호도 아니요, 그 녀석도 아닌 어딘가 허공을 보면서 꿈속에서인양 몸을 뒤틀고있었다.

창호는 더 참을수 없었다.

어떻게 달려갔는지 모른다. 경자의 뺨을 호되게 후려붙이고 그 기생오래비의 팔목을 나꿔챘다. 그다음 《노.》하는 소리와 함께 얻어맞았고. 눈앞에 불꽃이 번쩍임과 함께 창호는 태권도의 솜씨를 보였다.

두—세번 더 찼던가.

우— 하는 울부짖음, 그자는 담가에 실려나갔고 창호는 수갑을 찬채 끌려갔다.

무슨 새로운 종의 원숭이나 나타난듯 싱글거리던 얼굴들… 경찰관들이며 검사라는 작자들앞에서 갖은 구변을 다 발휘해 무죄를 증명했으나 쓸데없었다. 그동안 경자는 한번인가 갈아입을 내의를 던져버리고는 두번 다시 오지 않았고 《한국대사관》의 참사라는자 역시 랭담

한 얼굴로 나타나서는 다 알만하신분이 무슨 폭행이였는가고 나무람하며 5년형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 5년형의 선고를 기다리며 이를 북북 갈고있을 때 뜻밖에도 대사관참사가 나타나 감옥살이는 면하게 했으니 이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했다. 감옥행이 추방으로 바뀐셈이였다.

하루를 기약하고 집으로 가니 경자는 한바탕 눈물만 짰을뿐 함께 가자는 소리도 없었고 이렇다할 사죄도 없었다.

더우기 분통한것은 수학려행으로 유럽에 간 아들 역시 전화 한통 하지 않는것이였다. 처와 아들까지 다 잃었다는 자포자기의 절망과 비분속에 미국을 떠나 서울비행장에 내리니 장인장모에게만은 그의 불운을 알려 누구든 마중나왔으려니 했는데 맞아주는것은 명례 하나뿐이였다.

그 역시 랭담했고 하는 말이란 거의나 욕설뿐이였다. 주먹질 몇개가 한미간의 국제관계로까지 번져져 구속류치가 기다리고있다고 하던 끝에 자기가 애써 그것을 막았고 미국에서의 빼돌리기공작도 자기가 했노라고 하며 창호를 울먹지게 만들었다.

그다음 준 과업이 좀스러운 끄나불들이나 할 도청놀음이였다.

앞으로 비전향장기수들 대부분이 북으로 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태민이의 심리적변화를 잘 살펴보며 성민을 북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있는 힘껏 재량을 발휘하라고 했다. 리유인즉은 《국군공로자》이시고 한다 하는 퇴역장성인 태민의 동생이 북으로 간다면 태민은 태민이고 우리 한국의 위엄과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느냐 하면서.

그런데 그뒤에 하는 말에 수그러들게 되였다.

—군은 법률상담소인지 한다는데서 친북동향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며 이북찬양발언도 자주 했다지. 그러니 자넨 그것만으로도 끝장인셈이야. 그러니 이번 일만 잘하면 내가 잘 도웁세.—

명례야말로 정말 끈질긴자였다. 필요하다면 무덤에까지 찾아들어서라도 정보와 요구를 들이댈 검정귀신이였다. …

《이게 전분가?》

등받이에서 몸을 떼는 명례의 눈빛은 예전과 같이 날카로왔다.

《네.》

정창호는 간이 콩알만 해지는 속에서도 시틋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모르겠어.》 명례가 머리를 젓자 기름을 짝 발라 빗어넘긴 머리칼이 춤추듯 흔들거렸다.
《내가 지금까지 세번이나 들어봤는데 지운것이 많은것 같애.》
《지우다니요.》
정창호는 끔뻑 놀라는 태도로 그를 쏴보았다.
《그렇지 않으면 좋고… 내가 왜 임잘 찾은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뻑 따고 거짓말을 했다. 명례는 그에 대해서는 모르는척 하며 말했다.
《요즘 자네 장인에 대해서 험담들이 많아. 성민이 북송문제로 적십자회에까지 찾아갔다며.》
《네, 그거야 정부적인 조치이니 잘못된것이야 아니지 않습니까.》
《흠, 자네 그동안 부인님때문에 머리가 돈게 아니여. 국군공로자랍시는분이 북으로 가게 될 빨갱이동생편이 되면 그것이 어찌되나. 또 자네한테는 어떻고. 이에 대해서는 내가 오늘 처음하는 말은 아니잖어.》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로서야 장인도 그렇지만 자네자신을 위해서라도 바로 도와줘야지. 혹시 자네도 그놈의 북송에 바람들린게 아니야?》
《그거야 정부적조치이니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음, 자넨 애당초 미국감옥에 그냥 있어야 할걸 그랬어.》
《모욕하지 마십시오.》
《모욕?!》
명례는 억이 막힌다는듯 입을 쩍 벌리고있다가 웃었다.
《난 자넬 모욕할 생각은 꼬물만큼도 없어. 생각해보라구. 자네의 불행이 어떻게 생겨났나. 따지고보면 그 성민이라는 고집쟁이때문이 아닌가. 자네 처가 미국에 간것도 그때문인거구. 거기서 안 오는것도 빨갱이친척소리가 싫어서 그런것 아닌가. 또 거기서 그놈의 춤판에 빠진것도 구경엔 그 성민이로 인한 고민때문이 아니겠나?》
《그건… 지나친 삼단론입니다.》
《삼단론?!… 그렇다 하자구. 하지만 장인도 그렇고 자네도 그렇고

그때문에 사회에서 떳떳이 머리를 쳐들수 없지 않나.》
《그럼 어쩌라는겁니까.》
《허, 자넨 오늘따라 왜 그렇게 신경질이 심해졌나.》
《어쩌겠습니까. 저로서는 더 다른 방도가 없고… 설사 있다해도 가야 할 사람은 가는것이니 굳이 붙잡을수야 없지 않습니까.》
《게 문제야. 자네로선 붙잡진 못해도 그런 표신이야 보여야잖나. 지금처럼 자네가 이도저도 다 좋다는 식으로 나오면 무슨 꼴이 되겠나.
그저 가시집의 식객이 되는것이고 그렇게 되면 처한테서도 그냥 소박당할것 아닌가. 이러지 않고 자네가 두드러지게 뭔가 한다면 출세는 문제없을것이구 그때면 오만방자한 부인님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네 품에 안길것이 아닌가.》
《그건 저의 사생활문제이니 더 말하지 맙시다.》
창호는 명례와 려아의 관계를 생각하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지간 명례와 려아의 관계를 자상히 알게 된 창호였다.
명례는 그걸 느껴서인지 얼굴빛이 험악스럽게 이지러졌다. 아닐세라 재차 하는 말이 창호의 속심을 헤쳐보는 소리였다.
《자넨 지금 내 전처를 생각하지. 뭐 잘못된건 아니야. 이런데선 나도 그 성민이가 괘씸스럽단 말이야. 그자가 나타나니 그 예수쟁이년이 탈바꿈을 했거던.
물론 내가 그를 못 가게 하자는것은 그따위 감정때문은 아니야.
말은 바른대로 사내는 뜻을 따라 사는것이구 뜻을 지키는데 참삶이 있는것인즉 나라를 생각하구 옳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못 가게 해야 한다는거야.
내 다시 말하네만 호국의 뜻에서 생각해보라구.
여느 비전향장기수들이 가는건 그렇다 하지만 자네의 장인이라는 어른은 국군공로자로서 력사에까지 남을분인데 그 동생이라는 녀석이 형도 뭣도 다 차버리구 간다면 남북대결의 선상에서 우리의 체면은 어떻게 되나.》
《그렇다 해서 무슨 수가 없잖습니까.》
《왜 없어.》
명례의 눈이 칼날처럼 번쩍이는가싶더니 미묘한 웃음이 스쳐지났다.

《자네들이 정 못한다면 내가 하지.
요즘 장인의 기분상태는 어떻나?》
《울적해하는 기분입니다.》
《동생과 헤여진다는때문인가?》
《네, 그런것 같기도 하고…》
《됐네, 내가 며칠안으로 자네 장인을 만나겠어.》
《그건… 잘 료량해서 하십시오. 그의 건강이 좋지 않아요. 혈압파동이 심하거던요.》
《이봐, 그런 자그마한데까지 신경을 쓰면 큰일은 못해.》
명례는 싸늘한 눈길로 훑어보고는 탁밑의 초인종을 눌렀다.
짧은 바지차림의 애젊은 처녀가 나타났다.
《이 어른을 싸우나(한증)에 데려가.》
창호는 화닥닥 놀랐다.
《전 그만 가겠습니다.》
《뭐 좀 땀을 빼고 가는것 좋잖아, 식사도 함께 하고.》
《일없습니다.》
창호는 쫓기듯 밖을 나왔다.
《허, 자네는 여전하군.》
명례의 낄낄거리는 웃음이 걸음을 더욱 재촉했다.

5

련 나흘째 폭풍치는 바다는 급한 배길도 막아버리고있다.
쉬임없이 몰아치는 비바람과 파도의 광란, 크지 않은 배들은 죄다 뭍으로 올라왔고 도크쪽의 큰 배들도 가랑잎처럼 흔들거린다.
《형님, 그만 들어갑시다.》
비물에 후줄근히 젖은 해성이가 을씨년한 얼굴로 돌아서는 바람에 성민이도 맥없이 돌아섰다.
제주도에 온지도 엿새가 넘었다.
성민이와 해성이 물에 함뿍 젖은 몸으로 항만려관에 들어서니 홀가

운데 탁에서 신문을 보고있던 담당형사가 황급히 마주왔다. 북송될 비전향통일수라지만 의연히 보안관찰대상이니 끝까지 돌봐주려 따라온 형사였다.

《감기들지 않겠어요. 너무 걱정되여 방금 나가보려던 참이였는데.》

퍼렇게 얼어든 해성이와 성민을 본 그는 이렇게 인사성을 보이고는 《서울에서—》하며 말을 계속했다.

《선생님 찾는 전화가 왔는데요. 두분을 찾다가 나오지 않으니 걱정이 크시더라구요. 바다물녘에 나가 물세가 잦기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성민은 해성을 피끗 보았다. 그 눈길에 해성은 우비안쪽의 휴대용전화기를 꺼내고는 눈섭을 찌프렸다. 통화차단장치에 불이 꺼진것을 봐서 모름지기 비바람과 파도소리때문에 못 들었을것이다.

《그래 무슨 전화입니까?》

《정창호라는분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경호 어머니가 뉴욕—서울항로루 방금 도착했답니다.》

《그밖에 다른 말이 없었습니까?》

《저… 형님되시는분의 장례는 국장으로 하기때문에 래일 아침에 시신을 내간다고 하면서… 그걸 알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지장군의 장례식엔 꼭 조문하려고 하였는데…》

《고맙소.》

성민은 계단을 오를 때도 다리가 휘청거려 해성의 부축을 받았다. 비물을 대충 닦고 호실의자에 앉으니 온몸이 천길나락속으로 잦아드는듯 했다.

여느때면 경자가 왔다는 소리에 기쁨이 컸겠으나 그 일도 별반 힘이 되지 않았다. 뭔가 육신도 정신도 병이 든듯싶었다.

《해성아, 내 좀 눕겠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런닝그바람의 해성의 둥싯한 어깨와 탐탁한 가슴팍을 보며 침대에 누웠다.

잠시나마 모든것을 잊고 잠이라도 들어볼가 했으나 중중첩첩 아픈 생각만이 겹쳐들었다.

정말 모를 일이였다.

사흘전에 걸려온 정창호의 전화에서 태민형이 사망되였다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였다.

물론 태민의 나이에서 있을수 있는 일이지만 성민으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였다. 그간 심근경색같은 소리는 전혀 없었고 지응석아주바이와 화해를 한 뒤부터는 기분상태도 무척 좋았다. 성민이 떠나오기 전까지 뻔질나게 해성이네 집을 찾아와서는 쩍하면 롱담이였고 고향시절이야기로 웃음판을 펴놓기도 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가 속옷주머니에 태민이 려비로 쓰라고 억지다짐으로 준 돈봉투가 만져지자 속이 더 쑤셔들었다.

《혹시… 모른다. 나도 너와 함께 따라갈지…》

태민의 말이 귀전을 쟁쟁히 울렸다.

(《혹시 모른다》?!)

형의 이 말은 결국 자기의 최후를 예시한 말이 아니겠는가.

깜풋 잠들었다가 깨여보니 설화가 저녁식사를 하자고 그를 일궈세웠다.

설화도 통일애국투사들의 령전에 인사도 올리고 성민의 취재사업을 돕겠다고 하며 여기까지 따라왔다.

식탁에 마주앉은 설화는 오늘 권교장에 대한 자료정리까지 끝냈다고 하며 깜찍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전 오늘 글을 쓰면서요 뭘 생각했나 하면 멋진 소설을 구상했어요. 제목은 〈산 얼과 죽은 넋〉, 〈죽은 넋〉이라면 로씨야의 작가 고골리의 제목같아 좀 안스럽지만 참삶의 빛남에 대한 이메지가 함뿍 비쳐지지 않아요. 주인공은 물론 선생님이시구요.》

《허허, 그래 써봐라.》

설화는 글재간도 대단했다. 성민이 몇줄 쓴 자료를 옹근 몇장의 원고로 만들었고 제가 알고있는 자료들까지 보충하면서 제나름의 멋진 분석도 가했다.

하여 설화를 볼 때면 늘 가슴이 후더워지군 한다. 려아의 일로 하여 더욱 그랬다.

여기로 오기 전에 있은 비전향장기수들의 조국귀환을 축하하는 대학가 써클공연때의 일이였다.

사회자들이 뒤바뀌는 속에 전대협출신자격으로 설화가 무대석에 나

왔을 때 그의 뒤로는 웬 조선치마저고리차림의 녀인이 수집은 미소를 보이며 따라섰다. 대학생들의 무대에 중년을 훨씬 넘은 녀인이 나타난것이 자못 의아스러워 고개를 뽑아들 때 마이크를 들고 섰던 설화가 생글웃음을 지으며 소개말을 하였다.

《존경하는 비전향장기수선생님들과 여러 선배님들, 열혈의 후배들에게 한시절 유명한 쏘프라노가수였으며 저의 음악교사였던 려아선생님을 인사시켜드립니다.

고향은 북관 라진, 북으로 가시는 선생님들 축하하고 애향담은 마음을 전하고저 무척 힘써 아껴 준비한 노래 한마당! 귀밝혀 들어주세요.》

려아는 한시절 솜씨여서인지 별다른 쑥스러움이 없이 나부시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는 손마이크를 높이 쳐들었다.

《존경하여 마지않는 북송선생님들! 고향길을 축하합니다.》

일시에 우렁찬 박수가 일었다. 그러자 려아는 약간 당황해하는 기색이였다. 하는 말도 떨렸다.

《저는 설화양이 소개말씀에서 하신것처럼 이북이 고향입니다. 하여 먼저 〈눈물젖은 두만강〉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릴적에 저도… 눈물속에 건너봤던 두만강!… 이젠 늙어 목소리 이쁘지 못해도 너그러운 맘 가지시고 들어주세요.》

눈물젖은… 성민은 가슴이 울컥해졌다. 목단강으로 갈 때 철다리밑으로 흘러가던 두만강의 검푸른 물결이 떠올랐고 려아와 만나고 헤여지던 일까지 굽이쳐 떠오르며 목이 꽉 메여올랐다.

애잔하게 떨리며 울리는 흐느낌같은 노래가 요란한 박수속에 끝나자 려아는 손에 든 마이크를 휘저으며 단우에 설치된 고정마이크대앞으로 한걸음 다가섰다.

《선생님들, 저는 참삶을 살려는 마음을 전하고저 이 무대에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마음따라 선생님들 마음담긴 노래로 마감하렵니다.》

려아는 잠시 숨을 톺는듯 객석을 보다가 은근하면서도 정감어린 목소리로 운을 뗴였다.

성민은 놀랐다. 언젠가 설화의 편지에 씌여졌던 《선생님마음》, 조선예술영화의 한 주제가였다.

그대가 한그루 나무라며는
이 몸은 아지에 피는 잎사귀
찬바람 불어와 떨어진대도
흙이 되여 뿌리 덮어주리라
아 나의 조국아
흙이 되여 뿌리 덮어주리라

마지막소절까지 다 부르고난 려아는 《아 나의 조국아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이라는 후렴이 끝나자 두손을 높이 쳐들며 웨쳤다.

《선생님들 마음따라 저는 통일조국의 흙이 되고 피가 되고 순간을 산대도 값있게 살겠습니다.》

온 객석이 환호를 보냈다. 구석구석 서있던 경찰들도 입이 헤벌려져있었다. 모릅지기 이북불온가요로 추궁을 받게 되면 《저희야 그걸 압니까.》라는 식으로 모르쇠를 할것이다.

성민은 공연이 끝나기 바쁘게 무대뒤로 달려갔다. 그러나 려아는 만나지 못했다.

설화를 통해 려아가 자기에 대한 좋은 추억만이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급히 숨어버렸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

저녁밥을 조금 든 다음 다시 자리에 누웠어도 성민은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한동안은 설화와 려아에 대한 생각으로 그닥 속뒤짐은 크지 않았으나 태민형의 죽음과 조상집의 어수선할 광경을 그려보게 되니 가슴이 비틀려지는듯 했다.

여느때면 그동안 쓴 글과 자료들을 놓고 씨름질을 하느라면 웬만한 고통쯤은 잊겠건만 지금은 그럴 기력도 없다.

더구나 경자와 창호의 일까지 겹쳐드니 앞으로 평양에 가서도 이것이 짐으로 될것은 분명한 일이여서 시름이 컸다. 그지간 후회될 일들이 있을가봐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인사도 다했고 책점을 하면서 얻은 푼돈으로 설화의 학교에도 얼마간의 기부까지 했다.

그런데 채 못한 일이 바로 경자와 창호의 일이였다.

《삼촌은 미워.》

경자는 언젠가 그때처럼 얼굴이 새파래서 달려들수 있다.

《감옥에서 시들다빠진 삼촌이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해요.》
이러저러한 생각으로 새벽에야 잠이 들었던 성민은 《배가 뜨게 되였다.》고 하며 뛰여드는 해성의 목소리에 벌떡 깨며 일어났다.

바다물은 폭풍뒤에 흔히 그러듯 검스레하게 흐려있고 뿌리채 뽑혀진 해초들과 판자부스레기며 비닐쪼각들이 너저분히 떠있었다.
말큰한 손이 성민의 두눈을 가리웠다. 청신한 샴프냄새가 코를 간지럽힌다.
《설화냐?》
《맞혔군요.》
설화는 빙그레 웃으며 성민을 뺑 돌려놓고는 밉지 않게 눈을 흘겼다.
《바다물을 자꾸 내려다보면 어지러워진다고 하잖았어요?》
《그래, 그렇지.》
성민은 이 섬으로 오는 배에 올랐을 때 설화에게 멀리 앞을 봐야 멀미도 덜하고 기분도 좋아진다고 말했었다. 설화가 지금 그 말을 상기시키는것은 태민형의 일때문에 자기가 너무 상심하는것이 걱정스럽기때문일것이다.
성민은 선수란간에 가 선 설화가 해성이와 뭔가 소곤거리는 모습을 보자 엉뚱한 욕심이 치받쳐 싱글서 웃었다.
그들 둘이 짝을 무었으면 하는 욕심때문이였다. 오늘 처음 느껴보는것이 아니였다.
해성이의 그전 처는 해성이가 류치장살이를 하게 된 다음날로 리혼을 선포하고 집을 뛰쳐나갔고 설화 역시 홀몸이였다.
그의 애인이였던 청년은 어느 한 시위때 총과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경찰들과의 싸움끝에 잘못되였다.
성민이 지금까지 이 짝을 무었으면 하는 욕심을 비추지 못하는것은 바로 그 청년의 최후에 대한 애석함과 존중때문이였고 그를 잊지 못하는 설화에게 모욕으로 될수 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젊음은 사랑을 바라는것이니 어느때건 마음의 화합만 이루어지면 불길은 일어날것이 아닌가.
봄의 꽃씨와 같이 조용히 싹이 트고 순이 솟고 줄기가 자라서 봉오리가 맺히고 열릴제면 애모쁘고 숫된 마음이 자오록이 넘쳐 타오르며

향기로, 색갈로 되여 밤이고 낮이고 님을 그려 사랑의 분출에 림한다.
거기서는 녀성이건 남성이건 매한가지다. 자연과 다르다면 간절한 욕구와 소망을 자기식으로 위장도 하고 숨기기도 하며 조심스레 살짝 비추는가 하면 때로는 포효하는 사자와 같이 리성도 뭣도 다 잊고 광열의 절정에서 몸부림치고 울부짖는다.
이럴 때면 짝사랑이란 없다. 진정한 사랑, 거세찬 사랑의 불길이란 자기 하나의 마음속 짝사랑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기때문인것이다.
그렇게 볼 때 짝사랑이란 순간의 불꽃이고 저홀로 타다가 마는 불길일뿐이다.
그것은 불길이 일자면 연소제가 필요하고 산소가 있어야 하듯 대방의 눈빛과 호흡에서 그 연소제의 불꽃과 산소의 전달이 없다면 타드는 심장은 괴롭게 꿈틀거릴뿐 서서히 식어드는 쇠덩이로 되는것이다.
그렇게 한쪽만의 사모만이 있고 끌려옴이 없을 때 애꿎게 가슴을 태우며 손짓하는것은 지꿎은 욕망이 빚어내는 어리석음이고 남의 령지에 수레를 모는것과 같은 무례라고 해야 할것이다.
하지만 세상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외면과 랭대를 극복하고 점령하는것을 남성의 장끼로, 진지한 사랑의 모범으로 떠들기도 한다.
(우린… 그러지 않았어.)
성민은 안개자욱한 바다를 보며 순정을 애틋이 그려보았다.
1957년 봄 모란봉 청류벽쪽의 버드나무에 기대섰던 순정은 흘러가는 강물을 즐기듯 보다가 성민에게 돌아섰다.
《동문 왜 장가를 안 가지요?》
장난기어린 그의 눈에는 비웃음이 어린듯싶고 말투는 쌀쌀했으나 성민은 대뜸 몸이 건공중에 뜨는듯 했다. 머리속에 온갖 대답이 떠올랐으나 말을 뗄수가 없었다. 순정의 재차 하는 말은 놀림조였다.
《듣자하니 한다 하는 기자여서 다들 우러러 본다고 하는데… 동무의 그 중절모만 나타나면 처녀들이 줄지어 따른다더군요.》
《허허, 난 아직 그런걸 한번도 못 봤소.》
가슴은 화당탕 뛰고 언제부터 품고있던 공상이 마구잡이 날개바람을 일으켰다.
351고지전투시, 대학생출신들을 다시 대학으로 보낼데 대한 명

령서를 받고도 그냥 전선에 남아있을 때 성민에게 써보내온 순정의 편지가 공상의 첫 날개를 달아주었다.

—동문 왜 대학으로 오지 않았는가요. … 총정치국에까지 찾아가서 다시 알아보니 본인의 강경한 요구에 따라 제외되였다고 하더군요. 잘못되였는가 했는데… 제가 얼마나 가슴죄였는지 알아요. 살아있다고 하니 이젠 일없어요. 하지만 동물 보지 못하니… 섭섭하군요—

그때 성민은 전쟁승리후에 꼭 가겠다고 하며 가지가지 사연을 담아긴 편지를 써보냈으나 왜 가지 않으려 했는가에 대해서만은 쓰지 않았다. 그저 자기에 대한 순정의 정에 가슴들먹였을뿐이였다. …

《그러니 총각으로 늙겠다는거예요?》

순정이 재차 쏴붙이는 말에 성민은 동무는 왜 시집을 안가느냐 하는 말이 혀끝까지 올라왔으나 그에 대한 대답이 두려워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뭔가 조롱하는듯 한 눈빛과 마주치자 사내다운 반발심이 치밀었다.

《그럼 어디 한명 소개해주구려.》

《대상소개를요?》

《그렇소.》

성민의 우울해하는 대답을 듣자 순정은 누군가를 찾는듯 사위를 두릿거리다가 성민에게 눈길을 멈추었다.

《찾았어요.》

《누구요?》

성민이 얼어드는 혀로 간신히 이 말을 했을 때 순정은 나무잎사귀를 재빨리 훑어 성민의 가슴팍에 던졌다.

《바로 그거예요.》

순정의 얼굴은 숯불처럼 타오르고 이제껏 여무지게 반짝이던 눈길은 허둥이였다. 성민은 심장이 멎는듯 한 속에 공상의 날개깃을 묶고있던 생각을 말했다.

《다시 생각해보십시오. 난 동무와… 다릅니다… 내가 전선에 그냥 남은것도 그렇고… 못난인데다가… 계급적환경을 봐도… 동무와는… 어림없소.》

《에이— 바보!》
또다시 나무이파리가 날아들었다.
장미처럼 타는 얼굴, 별같은 눈!
성민은 더는 자신을 억제할수 없었다.
성민의 거센 팔에 안긴 순정은 숨찬 소리로 말했다.
《전… 동무가… 이렇게 바보기때문에… 더 좋아해요. 그 마음을, 인간으로 참답게 살려는 그 마음을 말이예요. 그리고… 미남자이고—》
…
성민은 그때처럼 넘치는 환희와 애정의 회오리바람속에 순정의 따스한 체온을 느꼈고 마디마디 울려오는 목소리에 마파람속의 산불처럼 거세차게 타오르는 광열의 태동을 느끼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이제 얼마후면…)
다시 만날 순간을 그려보니 심장이 튀여나올듯 뻐근했다.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지.)
심장마비를 경계해야 했다.
붕— 하는 배고동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뭍이 보였다. 그러자 형의 묘소에 찾아갈 일과 비록 순간이지만 안해에 대한 생각에 파묻혀있은것으로 사람의 리기주의란 이런가 하며 한숨을 지었다.
성민이와 일행이 서울에 이른것은 다음날 아침이였다.
역에서 한동안 말다툼이 벌어졌다. 동행한 형사가 성민이들의 도착정형을 먼저 해당 경찰서에 보고한 다음 움직여야 한다는때문이였다.
보안관찰대상은 떠날 때도 그렇지만 돌아온 다음에도 그 즉시 과정사를 보고하게 되는것이 법인것이다.
성민은 근친상가의 조문례절과 도덕을 가지고 형사를 몰아치는 해성이와 설화를 만류하고 형사님 요구대로 하자고 했다.
택시에 올라 경찰서에 이르니 형사가 한발 앞치기로 나섰다.
왜서인지 당황한 기색으로 맞는 담당경찰관에게 그간 아무 일도 없었으니 성민을 당장 형님묘소에 보내야 한다 하며 한급 높은 형사로의 위세까지 보였다.
그런데 다른 때라면 형사의 이같은 담보에 《예.》하고 나갑시다라는 고개짓을 할 담당경찰관은 을씨년한 얼굴로 좀 기다리라는것이였다.

《그건 뭣때문이요?》

성민이 말을 떼기 바쁘게 형사 역시 자기의 위신마저 납죽하게 짓뭉개는 경찰관을 아니꼽게 노려보자 경찰관은 잠간 있으면 알 일이라고 하며 전화통을 들었다. 누군가를 찾더니 《왔습니다.》하는 말을 하고는 《예, 예.》한 끝에 해성이와 설화는 그만 나가보라고 하였다.

《도대체 무슨 일때문입니까?》

《뭐 잠간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우린 무엇때문에 나가라는거요?》

해성이가 울퉁그러진 소리로 묻자 담당경찰관은 성민이를 슬쩍 훔쳐보고는 나가지 않겠으면 그냥 있어도 된다고 했다.

설화에게는 미안했다는 기색으로 웃어보이고 형사에게는 눈을 한번 끔쩍하는것으로 우리야 다 통하는 사이가 아닌가 하는 빛을 보이고는 문밖으로 나갔다.

다들 서름해 얼굴만 마주보는데 경찰관은 다반에 차잔들과 과자쪼박들을 담고 들어왔다.

《좀 입놀림들을 하시죠.》

매정스럽게 발길을 얽어매는 경찰관이라지만 호의적인 인사를 뿌리칠수 없어 씁쓸한 차물을 줄금줄금 마시는데 다급한 발걸음소리에 이어 문이 열리더니 머리를 매끈하게 빗어넘긴 사복쟁이가 들어섰다.

《아, 이거 기다리게 해서 안됐습니다.》

례절맞게 깍듯이 인사말부터 하는 그는 성민이 송환수속을 할 때 만났던 적십자사 역원이였다. 자그마한 가방을 책상우에 놓다가 해성이와 설화에게 눈길을 멈추었다.

《이분들은 누구시죠?》

《내 친척들이요.》

《그러심 계셔두 되겠습니다.》

역원은 가방의 번호쇠를 열고는 뭔가 꺼낼듯말듯 하다가 송구스런 눈길로 성민을 보았다.

《저… 건강은 어떠신지요?》

《뭐, 늙은게 건강자랑이야 못할거지만… 이렇다 할 탈은 없습니다.》

《네, 그렇겠습지요. 선생님들이야… 특별한분들 아니십니까.》

역원은 어금이쪽의 금이까지 드러내보이며 활짝 웃고는 못내 딱하다는 기색으로 형사며 해성이들까지 빙 둘러보고는 성민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떼였다.

《참 이거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 선생님의 북송은… 기각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저… 해당 기관에서 제기된것인데… 선생님은 에… 저희들도 노력을 기울였지만… 전향을 하신것으로 되여서… 갈수 없게 되였습니다.》

《…》

성민은 방안이 빙— 휘돌아가는것을 느꼈다. 해성이와 설화의 입에서 뭔가 울부짖음 비슷한 소리가 나오는것도 무슨 말인지 알수 없었다.

《그건… 무슨 착각이나 오해가 생긴것 같은데요.》

성민은 혀가 굳어지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지난 기간 가짜 전향서를 만드는 위조행위가 있다는것을 알고있었지만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다는것만을 생각했다.

역원은 차마 마주보기 어렵다는듯 눈길을 내리깔고있다가 뭔가 결심한듯 가방안에서 종이 한장을 꺼내들었다.

《안됐습니다만… 여기에 그 증거가… 선생님 쓰시고 날인하신 문건이… 이겁니다.》

그가 내미는 종이장을 해성이가 나꿔채듯 받아들었다.

《우리 형님은 이런걸 쓸수 없소.》

해성의 거치른 소리에 이어 《아.》하는 설화의 신음비슷한 소리에 성민이도 그 종이장에 시선을 주었다.

방안이 또 한번 빙—휘돌아가는것 같았다.

글밑에 찍힌 지문은 누구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전향한다고 쓴 글씨만은 성민의 글체였던것이다.

온몸의 피가 밑으로 싹 빠져내리는듯 한 속에 가까스로 말을 떼였다.

《난… 이런걸 쓴 일도 없고 나올 때도 지금도… 전향자는 아니였소. 관에서도 그렇게… 인정받고—》

순간 번개치듯 떠오르는 생각이 뇌리를 쳤다. 사면석방이라고 하면

서도 어딘가 당혹해하던 교도소소장, 이곳에서의 거취수속이 한나절새 끝나던 일…
마지막힘을 짜내며 말했다.
《이건 분명… 위조입니다. … 이런걸… 만드는것이 당신네들—》
말은 하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여 재차 말을 떼려는데 심장 한구석에서 뭔가 툭— 소리가 나는것 같았다.
《그래서 난… 이걸… 무효라고—》
성민은 자기 몸이 기울어진다는것을 알았다. 누군가의 《악.》하는 소리와 함께 거무스레한 형체가 움직이는가싶더니 보이지 않았다.
그다음 의식을 잃었다. …
성민의 트렁크에서는 쓰다만 편지들과 수신인주소를 몰라 보내지 못한듯 한 편지 몇통이 나왔다. 거기에는 경자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었다.
태민이의 3년제를 치른 다음날 옥영이네 집에서는 이 편지로 하여 약간한 소란이 있었다. 창호가 집을 뛰쳐나갔던것이다. 량심선언인지 뭔지 한다고 하며 가막소(감옥)밥을 먹겠다고 하는 그를 옥영은 물론 경자도 해성이도 돌려세우지 못했다.

6

낮과 밤의 구분이 없었다.
늘 희읍스름한 천정과 거뭇한 형체들이 얼른거리다가는 사라지고…
때로는 순정이며 아버지도 보군 하였는데 대체로 시뿟한 얼굴들이였다.
입원 첫날부터 성민이의 곁에 붙어있다싶이 하고있는 해성이와 설화에 대해서도 그닥 반가움을 느끼지 못했고 때없이 찾아드는 위문객들에 대해서는 어서 가주기만을 바랐다. 옥영이가 찾아왔을 때 태민이의 비명횡사를 놓고 가슴 쩌릿한 아픔을 느꼈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였다.
사색도 감정도 죄다 마비된듯 한 속에 작별인사로 찾아든 감옥동지들의 모습도 먼 다른 행성의 사람들처럼 보게 되였고 전향에 대해서

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고, 조국에 가서도 꼭 그렇게 보고드리겠다고 하던 말들도 무심히 스쳐들었다.

그들이 다시 만나자고, 꼭 다시 만날것이라고 하며 떠날 때 순정에게만은 뭔가 인사말이라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성민은 이것이 죽음을 앞둔 사람의 체념이고 허탈이라는것을 모르진 않았지만 부디 거기서 벗어날 의욕도 기력도 없었다.

죽은 사람은 이 세상 모든것에 대해 정을 뗀다고 했다. 하여 가까운 친지나 벗들에 대해서까지 랭담하게 되는 경우가 일쑤라고도 한다. 그런데 죽은 시신들의 눈가에 물기가 맺히는것은 무엇때문일가.

여하튼 성민은 지금의 자기가 바로 그런 심경속에, 현실의 모든것을 체념하고 아득한 심연의 다른 세계를 그려보고있음을 애절한 비탄속에 느끼고있었다.

그런데도 미음이건 과일이건 주는대로 먹었고 점적관의 약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수자를 헤이며 언제면 일어날수 있을가 하는 자기로도 서글픈 생각을 하며 삶의 본능이란것이 이처럼 지독한가 하고 쓴웃음을 머금기도 했다.

그런 어느날 성민이 처음으로 이불을 고이고 반쯤 몸을 일으켜 누워있을 때 해성이와 창호가 나타났다.

그동안 창호 역시 몇번인가 본듯싶어 반갑다는 눈인사를 보내는데 《아니, 형님이 일어나셨군요.》하며 해성이 떠들썩하는 바람에 성민이도 처음으로 올스러운 인사말을 했다.

《다들 잘있냐?》

해성이 하는 대답이 걸작이였다.

《아버진 지금 매일 아침저녁으로 형님소리만을 하는데 형님이 안나타나니까 목소리두 더 높아지구… 기다리는 근력때문인지 건강도 더 좋아지는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된걸 아느냐?》

《그건… 알리지 않았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형님, 의사선생들 말로는 살랑살랑하는 기분좋은 얘기는 일없다는데 깜짝 놀랄 소리를 해도 꽤 견디겠습니까?》

《허허, 깜짝 놀랄 소리란 뭐냐?》
《경자가 형님한테 와서 통곡을 하겠답니다.》
해성은 창호를 얼핏 보는데 창호의 얼굴은 교수대에 오르는 사형수 같았다.
《경자가 언제 미국에서… 왔다는거냐?》
《아니 형님두, 그거야 제주도에 있을 때 안것 아닙니까.》
《음… 한데 그 앤 어데 있냐?》
《여기 와있습니다.》
《여기?!…》
성민은 일어나려 했으나 기력이 딸렸다.
해성이 황급히 그를 눌러앉히며 창호에게 눈짓했다.
창호는 주저하는 기색으로 성민을 보다가 돌아섰다.
《저들은… 어떻게 됐니?》
《딱 붙었습니다.》
해성이 히죽이 웃을 때 경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달라진 중년녀성이 머밋머밋 들어섰다.
겁먹은듯 한 눈길로 성민을 보던 그는 가슴팍에 안고있던 가방을 의자에 놓고는 소리없이 조용히 꿇어앉았다. 그리고는 두손을 모아붙이며 조선절을 하였다.
《일어나거라.》
성민이 손을 내밀자 경자는 입술을 옥문채 두손으로 마주잡고는 눈길을 어데 둘지 몰라하였다.
《형님, 이건 신파극장면이니 웃어야 돼요.》
해성이 억지스러운 롱담을 해댔다.
《내가 너한테 편지를 썼댔다.》
《형님, 배달부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성민은 경자의 낯빛이 파릿한것에 주의가 미쳤다.
해성이 통곡이 안 나와서인지 또 한마디 비추자 경자는 그때야 《고맙습니다.》하고 인사말을 했다.
구석쪽에 우두커니 서있던 창호가 경자를 찔 흘겨보며 궁색스럽게 말했다.
《그 편지는… 제가 실례되는줄 알면서도 선생님의 편지라서 먼저

봤습니다. 참으로… 생각도 많고 배운바도 컸습니다.》
《허, 그렇게까지야. 한데 이젠 선생님이 아니라 처삼촌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가.》
《네, 그렇구말구요. … 명심하겠습니다.》
창호의 눈굽이 벌겋해졌다.
《형님, 제가 더 놀랄 소리를 하랍니까?》
해성이 호기스럽게 물었다.
《하거라, 이젠 경자까지 있으니 끄떡없다.》
《그럼 말하지요.》
해성은 창호를 언뜻 보고는 의자를 침대 바투 당겨앉았다. 먼저 성민의 손부터 꽉 틀어잡고는 이제까지와는 판다른 침중한 얼굴로 조용히 말했다.
《저… 다른건 아니구 형님의 그것이 가짜였다는것이 밝혀졌어요.》
《그것이란건 뭔데—》
《전향이란거 있잖아요. … 명례라는 그 말뼉다귀같은 놈이 날, 날조했답니다.》
《그럴상싶다.》
《그럴상싶다니요. 이건 창호형이 안거구 이미 세상에 공개한거예요.》
해성은 안타깝다는듯 청을 높이며 피끗 창호를 돌아보았다.
창호의 얼굴색이 검붉게 변했다.
《선생님, 그건 사실입니다. 그놈으로 말하면 선생님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구체적인것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호형, 죄송이구 뭐구 말씀드려야지요.
형님, 이 창호형이 그 명례란 놈의 작간을 죄다 폭로했습니다. 태민형님을 죽게 한것까지… 그래서 지금 명례란 놈은 자기의 죄상이 공개되자 피거품을 물고 날친답니다. 이 창호형한텐 무기명전화에 무기명편지로 협박을 하고—》
《협박이라니?—》
《죽이겠다는거지요.》
《죽인다?!》
성민은 움찔하며 일어나앉았다.

자기로도 놀라운 일이였다. 온몸의 피가 와글와글 끓는것을 느끼며 해성에게 말했다.
《입원비가 얼마나 되니?》
《그건 무슨 소립니까.》
《당장 퇴원해야겠다.》
《퇴원이라니요?!》
《저 사람때문이야.》
그가 창호를 보자 두눈이 휘둥그래있던 창호는 당장 까무라칠듯 한 상이 되였다.
《뭐 달리 생각말라구. 입잘 지켜주자는걸세. 내 이래뵈두 한두놈쯤은 문제없어.》
성민이 정맥만이 앙상한 주먹을 쳐들어보일 때 간호부가 뛰여들어와 도대체 웬일이냐고 하며 야단법석을 했다. 성민에게 혈압계까지 들이대보고는 다소 안심하는 기색이였으나 해성을 보고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나무람을 하며 다들 물러가라고 했다. 약속이란 이러루한 면회시의 주의사항일것이다.
해성이네가 나간 다음 쓰러지듯 자리에 누웠다.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내렸다.
(이제 와서 밝혀졌대야 무슨 소용인가.)
자기의 전향이 명례같은자들의 조작극이라는것은 처음부터 짐작한것이였다.
그러나… 당국은 송환희망자들의 신청때도 수많은 가짜전향이 제기되였지만 아닌보살이였다. 그러니 다들 떠나간 지금에 와서 잘못했수다 하고 재차 보내줄리는 만무한것이 아닌가.
싸늘한 재바람이 가슴굽을 훑었다.
경자와 창호의 일이 풀린것으로 위안을 얻으려 했다.
창호는 문턱을 넘어설 때 눈물까지 글썽해 다시 오겠노라고 했다.
경자 역시 입술은 꼭 앙다문 상태였으나 곱게 절을 했다.
(그것이면 만족이지.)
온몸을 휩쓰는 피곤에 눈을 감은채 경자에게 썼던 편지들을 더듬어보았다.
—경자, 나는 이제 얼마후면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가면 언제 다

시 만날지 기약할수 없는 길이다. 그래서 이곳의 가까운 사람들과는 거의다 작별인사를 나누었고 할말도 다 했다. 그런데 가장 가깝게, 가장 따뜻이 품어보고 손도 잡아봐야 할 너와는 아득한 바다가 가로막고있구나. 어쩌면 바다보다 더 먼 마음속 간격이라고 해야겠는지. 너한테서 삼촌은 슬프게도 여전히 미운 삼촌일테니까.

긴말을 하지 않으련다.

우선 경호 아버지와 풀거라.

사람이 사람으로 제일 고통스러운것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헤여져 사는 일이다. 리유는 잘 모르겠다만 너희들은 무엇때문에 갈라져 산다는거냐.

물론 좋던 사이라도 상대가 나쁠 땐 헤여질수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그럴만 한 리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니. 내가 언젠가 말했다만 그 옴쟁이같은 추물이라면 백번 갈라지는것이 옳을것이다.

그러나 창호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질 않으냐. 그때문에 너도 그를 사랑했고 그 사람도 역시 너에 대한 정은 지금도 변함없는것 같다.

사랑! 사랑앞에서는 각자가 경건해야 하고 진중해야 하며 그 사랑을 고이 지킬줄 아는것이 참사랑의 륜리고 아름다움이 아니겠느냐.

난 네가 그 무슨 미국청년과 어울렸다는 말을 들었다만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고정한 사람도 때로 술취한 사람들속에 들어서면 그 비슷한 흉내를 내야 축에 드는것으로 되니 너도 그 비슷한 연기를 했다고 생각할뿐이다. 하지만 그런 날라리속에 계속 끼이고 연기에 익숙되면 그 고정함과 깨끗함에도 병이 들고 결국에는 타락과 자기 신세를 망치는길로 끝날뿐이다.

이것은 자기 일신사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앞에서 또 세월앞에서 지녀야 할 인간적본도와 사명과도 관계되는것이다.

너무 뾰로통해하진 말거라.

너의 할아버님은 일찌기 못난 세월에도 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군 했는데 이건 주위생활의 어지러움과도 싸워야 한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어지러운 사회환경과도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왜정때의 그 험한 세월에 나라찾을 일념으로 싸운 애

국자들을 돌이켜봐야 할것이 아니겠느냐. (그중에는 나의 외삼촌도 있다.)

그분들은 목숨까지 바쳐 인간으로서의 참삶을 빛내이려 했는데 가문의 《똑똑이》라구 본 네가 방랑아들속에 섞여 녀성으로서 더구나 조선녀성으로서의 아름다움마저 속되게 했으니 삼촌으로서는 정말 가슴이 아프다.

그때문에 너와 다투고 예까지 쫓겨와서 고독스레 있는 창호를 보면 더욱 그렇구.

아서라. 이제 네가 남편과 헤여져 그냥 산다면… 그리고 후날 그에 대한 후회로 인생의 석양을 슬픔속에 본다면 (꼭 그렇게 된다. 명심해라.) 너를 아끼고 잘되기를 바라던 부모님과 나에게도 같은 슬픔으로 될것이다.

그리고 아들애를 생각해라. 나는 지금까지 싸우고 헤여지는 부모들 자식이 잘되는것은 아직 한번도 못 봤다. 네 아들도 너와 같은 식(식이라고 해서 안됐다.)으로 살면… 후날 그도 너를 버릴수 있다. 그건 각자의 《자유》와 자기만을 추구하는 그곳 사회악이 낳은 병페이니 네가 잘 시범을 보이구 편달을 한다 해도 어렵겠는데 지금처럼 살면 그가 앞으로 무엇이 되겠니.

간절히 부탁한다만 창호와 다시 손을 잡거라. 아버님도 어머님도 너희들 일때문에 밤잠을 못 잘 때가 많다고 한다.

이 말은 부부간의 헤여짐이 무엇이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40여년세월 매일매시 맛본 나로서 하는 말이니 부디 명심하길 바란다. …

제주도에서.

놀랍게도 매 글줄들의 단어까지 생생히 떠오르는통에 기뻤다. 자기병이 심근경색이라고 하지만 사색과 기억에는 조금도 손상이 없는것이다.

(그래, 헛된것은 아니였다. 할수 있는껏 했고… 비렬한 날조도 밝혀졌다.)

설사 세상사람들 다가 나를 오해한다 해도 이겨내야 하며 지금처럼 쓰러져서는 안될것이다.

칭찬을 바라고 사는 삶인가.
하지만 가슴속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다.
《순정이!》
입속으로 나직이 뇌이며 희읍스름한 천정을 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다.
쩝절한 눈물도 마르지 않았고.
…복도에서 병원답지 않게 와당탕거리는 소리에 번쩍 눈을 떴다. 처음에는 환각이려니 했는데 해성의 굵진 목소리가 울렸다.
《당신은 뭣때문에 들어가겠다는겁니까?》
《아… 이건… 당국에서 제정한것이라서—》
대답하는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문이 열리며 해성이와 설화가 뛰여들어오고 그뒤로 제주도에까지 따라갔던 형사가 어색한 웃음을 흘리며 머밋머밋 들어섰다. 성민의 치뜬 눈을 보고는 허리가 90도 되도록 절을 했다.
《아버님!》
설화가 울음질린 소리를 내며 성민의 앞에 물앉았다.
《설화!》
해성이 엄하게 말하며 뒤따라 들어온 간호부를 눈짓했다. 간호부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있었다.
《무슨 일인지?》
성민이 영문을 몰라 이 사람, 저 사람 보자 설화는 눈물고인 눈에 방글방글 웃음을 실으며 서있었고 해성은 입술을 꽉 앙다문채 시계만을 흘끔흘끔 내려다보았다.
간호부가 성민의 팔에 주사침을 꽂고 약물이 들어가서야 해성은 입을 열었다.
《형님! 이제 15분가량 있다가 전화를 받으셔야 해요. 받을만 해요?》
《무슨 전환데—》
《허, 오후 종일 찾았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데도 집엘 찾았다나요.》
《아마 그 사람들 몰라서 당신을 찾은거지. 계속 찾았지만 받질 않더래요.》
형사의 말에 해성은 언짢게 쏴붙였다.
《병원에서야 정숙이 기본이니 전화호출차단을 한것 아닌가.》
눈에 피발이 선 해성은 휴대용전화기를 꺼내들고 성민의 침대머리

맡에 앉았다.
여전히 엄엄한 낯빛이였다.
《형님, 이제 탐지기고문을 받던 때처럼 마음을 잘 가다듬으시라요. 저… 다름아니라 전화가 오는데 평양에 계시는 형수님한테서 오는 전화예요.》
《건… 무슨… 소리냐?》
《형수님이 말이예요. 지금 베이징에 와있는데 도착하자바람으로 계속 전화를 걸었대요. 젠장, 그 어른들이 조금만 성의가 있어도 낮에 받는걸.》
《낮에? 지금… 몇시냐?》
《8시 20분입니다. 8시 30분에 전화를 걸게 했으니 이제 인차 올거예요.》
《전화가?!…》
성민이 어떤 반응을 보였던지 해성이와 설화가 《왜 그래요?》하며 놀란 소리를 쳤다.
《음… 일없다, 일없어. …》
천정이 빙 돌아가는가싶더니 제자리에 멈춰졌다.
(믿었을가 아니면… 여하튼 마음속에는 재가 앉았을거야.)
입안의 소리로 천천히 수자를 헤였다.
마음속 고통을 이겨내기 어려울 때마다 하던 습관이였다.
삑— 하는 해성이의 휴대용전화기에서 호출신호가 울릴 때도 그쪽을 보지 않았다.
2～3번인가 다른데서 오는 호출신호를 차단시키는가싶던 해성이가 《네, 네.》소리를 연방 하고는 손바닥 절반크기의 전화기를 성민의 귀에 바투 붙였다.
《나왔어요.》
성민은 그의 손에서 전화기를 받아쥐였다.
《나요, 지성민이 받습니다.》
《지성민?!…》
《그렇습니다.》
《한데… 왜… 이럴가. 목소리가… 정말 당신 맞아요?》
성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북받치는 오열과 감정의 분출을 막기에는 상당한 인내력이 필요했다.
《순정이, 난 당신의 목소리를 알아듣고있소. … 하여튼… 미안하오.》
《그건 무슨 소리예요?》
《내… 말하자는건—》
《그래 어떤 말씀하시자는거예요. 저랑 애들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순정이다운 뾰족한 반발, 앵돌아지며 쏴보는 두눈이 보이는듯싶었다.
《그래… 다들… 애들이랑 잘 있소?》
《잘 있구말구요. 큰애는 인민군 대좌고 둘째는 외무성 지도원이예요.》
《그동안 수고가… 난… 맘고생만 시키구 끝내는… 당신과 애들한테 면목이 없게 됐으니… 용서하오.》
《여보, 건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동무가… 나의… 그전 동무가 옳아요?》
쨍— 하고 귀전을 치는 그 소리에 성민은 눈물을 삼켰다.
《거긴… 베이징이요?》
《네…》
순정이 역시 마음을 가다듬는듯 나직이 말했다.
《전 지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말씀이 계셔 여길 온거예요.》
《뭐?— 국방위원장님께서?!—》
《그래요. 장군님께서는 절 보내시면서… 동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 여보, 들어요?》
《듣소!…》
《장군님께서는… 지금… 동무가 이처럼 못난이가 된것도 다 알고계셔요. 고민이 클거라구, 얼마나 괴롭겠느냐 하시며 아니다! 동무같은 사람은 절대로 신념을 굽히지 않는다, 해방전에 잘사는 집안형편에서도 우리 수령님을 따랐고 전시에도 전후에도 당을 따라 산 사람이 어찌 변할수 있겠느냐 하시며 자신께서는 그 누가 뭐라고 하든 당신을… 지성민동무를 믿는다고… 그러시면서 지금 당신은 고향과 처자들 생각때문에 더욱 괴로울것이라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비행기까지 태워 여길 보내주신거예요. 저의 목소리를 들려주구 그간 이야기도 나누고… 동무가 쓰러질가봐… 어떤 일이 있든지 조금도 락심하지 말고… 저와 아이들과 다시 만날 때까지 앓지도 말고 굳세게 살라고 하셨어요. 여보, 들으세요?…》
《듣소, 듣소.》

성민은 목이 꽉 막혀 더 말을 못했다.
《여보세요.》
《응.》
눈물을 닦았다.
《이제 말이예요. … 당신 무척 못쓰게 됐겠지요. …》
《응. 아니 쬐꼼…》
《쬐꼼?! 쬐꼼이라도 안돼요. 이제 당신과 만날 때 허리가 굽구 지푸라기처럼 메말랐다가는 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른 총각한테 시집가고말터예요.》
《허허, 그렇게 하자구. 나도 당신의 새별눈이 흐려지구 호물때기 할망구가 되면 다른 체네한테 장가가구말겠소.》
《아이, 장해라!》
기뻐 뛸듯 하는 말에 이어 흐느낌이 터져 울렸다.
《여보… 순정이!—》
성민이 숨넘어가는 소리를 하자 본래의 맑은 목소리가 울렸다.
《안됐어요. 너무 좋아서… 한데 조금 앓으신다던데… 정말 몸은 일없어요?》
《일없소. 내 앓는다는건 거짓말인거구. 내가 언제 앓는걸 본적이 있소. …》
《하긴 그렇지요. 여기 오신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철같다구, 의지 강하구… 미장부이구… 또 뭐라든지…》
《못난이, 바보지.》
《호호, 당신은 여전하군요.》
《고맙소. 한데… 우리 그… 중매비나무가 그대로 있소?》
《중매비나무?!… 아이, 신통한 말 생각했군요.
그대로예요. 애들과도 가끔 가보는데 더 끼끗하고 멋있구…》
《흰수염도 있을거구.》
《아이, 겨울에 그렇지 지금이야—》
《한데 난 백발이요.》
《그럼 나도 백발이지요.… 여보, 그런 소리 말고 정말 애들을 봐서두 몸조릴 잘하세요.》
《걱정마오. 난 이제부터 조금도 앓지도, 늙지도 않겠소. 그전에 내

가 하던 말 있지. 세월앞에서—》
《못난 세월 말이지요.》
《그거요. 못난 세월에도 지지 말아야 되구 싸워 이겨야 하는데 난 이제부터 가는 세월과 싸우겠소. 당신한테, 별님한테 채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말이요.》
성민은 으스러지게 전화기를 틀어잡고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집으로 가면 꽃다발 두묶음을 가지고… 어버이수령님과 김정숙녀사님을 가뵙고… 내 몫까지 인사를 올려주오. 경애하는 장군님께는 내가 편지를 쓰겠소. 이 세상 나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 대를 이어 위인들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건… 순정의 사랑이 후광으로 비쳐진때문이요. 여보, 듣소?》
《들어요. 그리고… 나 역시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것도 잊지 마세요.》
…
다음날 성민은 병원문을 나섰다.
담당의사는 그가 나가겠다는 소리에 무척 놀랐으나 심전도검사를 마친 뒤에는 어리둥절한 기색이였다.
《선생님은 30대 젊은이의 심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건… 우리 장군님의 지시구… 나의 처가 요구한거요.》
그날 저녁 성민은 정창호가 언론계에 공개한 록음테프를 들었다. 성민이 제주도로 갔을 때 명례와 태민형이 주고받은 말을 수록한 테프였다.
태민형의 죽음은 바로 명례가 찾아온 그날 밤에 있었다.

7

북한산장의 계곡과 릉선들에는 여러개의 등산길과 탐승도로가 있다.
아침저녁 달리기선수들이 그 길을 오르는가 하면 몸단련을 위해 오르는 늙은이들과 부녀들도 많다. 쌍쌍의 련인들도 있고 일요일이면 젊은이들과 가족, 친척들이 저마끔의 자리쟁탈전을 벌리기도 한다.

그런데 한자리만은 어떤 산보객이건 들놀이군이건 넘보지 못하는 곳이 있다. 그것은 운동복차림의 풍신좋은 백발로인, 언제나 두세명의 보호자나 여러명의 남녀청년들속에 섞여오는 성민이에 대한 존경때문이다.

성민은 오늘도 말끔히 씻고 닦이운 바위우에 앉아서 휘연히 트인 북쪽하늘을 바라보며 꿈꾸듯 조을고있다. 조는것이 아니라 추억이고 명상이라고 해야 옳을것이다.

그의 옆에는 자명종시계가 붙은 굵직한 지팽이가 놓여있다. 이제 그 지팽이의 자명종이 울리면 성민은 끙— 하고 일어설것이며 그 종소리에 맞춰 일떠서는 보호자들과 함께 이리저리 휘돌아뻗은 도로를 따라 하나둘 걸음발을 세며 숫기좋게 걸을것이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단풍맞이 가을을 즐기는 놀이패들과 지루한 업무에서 풀려난 사람들로 도처에서 뚱땅거림이고 웃음들이다.

하지만 성민이네 일행만은 례없이 단출하고 조용하다. 꼭 와야 할 사람들중에서 설화만은 보이지 않는다. 성민이 집을 떠나온지 43돐이 되는 날이여서 설화는 며칠전부터 이날을 별렀건만 아직껏 나타나지 않고있다.

경자는 미국에 갔다.

그사이 경자도 퍼그나 달라졌다. 《미운 삼촌》소리는 두번다시 없었고 혹간 만나거나 전화를 걸 때면 예쁜 소녀시절의 그대로 깔깔거리기도 하고 재롱스러운 롱말을 건네기도 한다. 그러나 속깊은 이야기는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있은 일에 대해서는 얼렁뚱땅 넘겨버리기가 일쑤고 태민형이나 남북관계문제가 화제에 오를라치면 아예 자리를 피하든가 입을 봉하는 상태다.

경자가 이번에 미국으로 간것은 로스안젤스에 있는 집과 가산을 처리하고 아들애인 경호까지 데려오기 위한것이다.

어찌된 일인지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자를 따서 경호라고 이름지었다는 아들녀석은 태민형의 장례때도 수학려행이요 뭐요 하며 안온데다가 환국수속을 해야겠다는 옥영이와 경자의 전화에는 왜 미국에서 떠나겠느냐고 볼부은 소리까지 했다는것이다.

성민은 경자가 미국으로 갈 때 창호가 수록한 록음테프를 아들애한테 꼭 가져다 들려주라고 했다.

그때 경자는 얼마간 당혹한 빛이였으나 《네…》하고 순순히 받아들였다.

명례에 대한 경자의 원한은 5～6월의 서리발같다. 법정에까지 상소하여 재판에 걸겠다는것을 성민이와 창호가 말렸다.

이 사회가 그런것이니 사회악의 근원과 싸워야지 그런 추물들과 무슨 이러구저러구가 있단 말인가.

성민으로서는 창호의 체면도 생각했다. 량심선언발표만으로도 곤혹스러웠을터인데 명례를 변호할 수많은 입들앞에서 구질스러운 도청과 끄나불행위가 론단되면 가냘프게 키워지고 지켜지는 그의 깨끗함에 또다른 상처가 생겨날것이 아닌가.

(다 잘되겠지.)

성민은 또다시 눈을 반쯤 감은채 하던 생각을 이어갔다.

수십수백번 되씹어본 생각이고 그려본 추억이지만 이날은 왜서인지 하많은 사연들이 엇돌며 심장을 쿡쿡 쑤셔댄다.

퇴원할 때 의사는 30대의 심장이라고 했지만 나이는 못 속이는것같다.

몸의 기력이 빠지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면 하는 습관대로 두주먹에 힘을 주며 태민이와 명례의 마지막대결을 돌이켜보았다.

록음기테프에서 울려나오던 거치른 숨소리와 악에 받친 웨침들…

—그래, 사장님은 언제 빨갱이편이 되셨소?—

—야, 너 뉘앞이라구—

—누구시긴 누구겠소. 빨갱이동생편에 섰으니 용공에 친공이지요—

—더 말해봐라—

—말하지요. 당신은 나에게 어떤 수단을 부리든 석방을 시키라고 하고는 다 죽은 목숨을 옥밖에 내놨으면 감사할 일이지 이제 와서 전향이 뭔가고 을러메는건 뭐요—

—야, 내가 전향자로 만들라고 했느냐—

—어떤 수단이든지 쓰라고 했으니 그것이 승인으로 된거지 반대로 됐다는겁니까—

—용타, 대단하다—

—말이 났으니 더 합시다. 그래 성민일 끝까지 북으로 보내자는건

무슨 속심이시오?—

—그러니 당국에서 허락된것도 《친공》으로 된다는거냐—

—말은 바른대로 그렇지요—

—예끼, 빌어먹을 녀석! 썩 사라져라—

—나갑지요—

록음테프의 마지막부분은 이것으로 끝났다.

세월! 풍랑은 세차고 길은 여전히 험하다.

명례는 재판은 면했으나 사회적으로 추물로 락인되였다. 그를 두둔하던 수구세력들도 찍소리를 못했다.

성민이가 마지막일격을 가했다. 법무부와 《매스콤》에 내돌린 성민이의 항변기사는 명례와 그 패거리들을 단죄하는 단호한 선고로 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경자는 여전히 간격을 두고있는가. 적의?! 그건 아니다. 그렇다면 부끄러움?… 그것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거기엔 세월의 이끼속에 부식되며 자라온 편벽과 타성이 작용할것이다.

그속에는 아녀자의 비좁은 옥감정도 있을것이고… 사람은 때로 사상과 뜻에서라기보다 사소한 오해와 옥감정으로 삐뚜렁길을 걷는것이 아닌가.

한데 경자는 그렇다쳐도 경호는?…

심장은 여전히 아프게 쑤신다. 고개는 수그러지고…

지난날의 일들이 번개같이 떠오르다가는 번개처럼 사라진다.

목단강, 려순… 황포강의 먼지바람, 패잔병의 무리들, 마적떼의 말발굽소리, 중국남해의 거센 물결, 배전에 엉켜붙던 성에덩이, 림당수의 드센 파도…

자명종소리가 울렸건만 성민은 여전히 눈을 감고 어제를 그려보고 있다.

《이보게, 그냥 기도를 드릴셈인가.》

소나무밑에 앉아있던 옥영이가 시까스르듯 한마디 붙였다.

하지만 성민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상념은 여전히 꿈의 세계에서 줄달음치고있다. 맥주기운에 밝아진 옥영의 목소리가 조금 방향을 바꾸게 했을뿐이다.

순정의 쪽으로, 순정의 목소리로.

(《못난이… 미남자이고…》)
성민은 빙그레 웃음을 머금었다. 손은 저절로 앞으로 나가고.
활짝 핀 장미, 별같은 눈…
《순정이! 당신한테 가는중이요.》
조용히 뇌이며 지팽이를 잡았다. 그리고 움씰하며 일어섰다.
《자, 이젠 다들 가보자.》
그가 지팽이를 휘두르며 일어서자 잔디밭우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해성이가 《그건 왜 안 와.》하며 게두덜거렸다. 《그건》이란 며칠후에 그와 혼사를 치르게 될 설화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해성은 설화앞에서는 옴짝 못하면서도 남들앞에서는 자못 조를 빼는 투다.
그때 굽이진 포장도로로 달려오던 한대의 승용차가 삑— 하고 멈춰서더니 거기서는 범이 제 말하면 온다고 설화가 냉큼 뛰여내렸다.
《아니, 저 애가?》
그릇들을 챙기고 일어서던 옥영이가 깜짝 놀란 소리를 하며 안경을 추슬러올렸다.
설화의 뒤로는 한 녀인이, 다름아닌 려아가 내려서는것이였다.
긴 치마자락을 감쳐든 려아는 설화의 손에 팔을 맡긴채 둔덕을 오르는데 해성이 설화에게 《왜 이제야 오우.》하는 볼부은 소리에 누구에게라없이 미안스러운 웃음을 지어보이며 고개를 숙였다.
《형님, 이제 기쁜 일이 있습니다.》
해성이 진한 소주냄새를 풍기며 성민이한테 눈을 끔쩍여보였다.
무슨 영문인지 알수 없었다.
미리 짜고든 일인것만은 분명했으나 려아의 출현이야말로 너무나 뜻밖이였기때문이였다.
그간 옥영이네 집에 갔을 때도 두세번인가 려아가 와있는것을 알았고 한번은 창문쪽에서 려아의 뒤모습을 보긴 했으나 그도 만날념을 하지 않았고 성민이 역시 찾지 않았다.
려아에 대한 존중감때문이였다고 할가. 만나면 서로가 어색할수 있고 혹시 좋은 추억에 실금이 가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저씨!—》
설화가 한걸음 앞서 달려왔다. 그는 성급히 손가방을 뒤지더니 한권의 얄팍한 책을 내들었다.

《뭔지 맞춰보세요.》

려아를 할끔 돌아보며 책을 뒤전에 감추었다가 다시 내밀었다.

하얀 애기꽃 한송이가 그려진 우에 《고운 님 고운 얼》이라는 표제가 내리글로 써있었다. 꽃송이는 신통히도 감탄부호를 련상시켰다.

성민은 언젠가 《산 얼과 죽은 넋》의 소설을 쓰겠다고 하던 설화의 말을 상기하며 빙그레 웃었다.

《제목이 바뀌웠구나.》

《안예요. 그땐 잘못 생각한것이지요.》

설화는 뾰로통한 기색으로 책에 덤벼드는 창호와 해성이를 스쳐보고는 옥영이와 뭔가 소곤거리는 려아에게 눈길을 멈추었다.

《보세요. 여긴 다들 고운 맘, 고운 사람들만 있는것 아니예요. 그리고 이 책은 소설이 아니라 선생님에 대한 저의 분석글이거던요.》

《그런가!》

성민은 눈굽이 저릿해졌다.

《그리고 말이예요. 이 책은 아저씨에게 드리는 려아선생님의 인사랍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려줘.》

해성이가 한마디 비쳤다. 하지만 설화는 그 말은 들은둣마는둣 려아만 보았다. 그때야 려아는 성민을 보며 수집게 인사를 했다.

《반갑소.》

성민은 성큼 발을 떼여 그앞에 다가갔다.

려아의 머리에 얹힌 흰서리를 보며 헌헌한 태도로 손을 내밀었다.

《그 책은 려아선생님의 돈으로 출판한거예요.》

설화가 깜찍스럽게 돌아보며 말하자 려아는 《애두-》하며 다행이라는듯 성민이한테서 손을 뽑고는 약간 게면쩍어하는 태도로 말했다.

《안됐어요. 사실 오전안으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책 만드는이들이 방금전에야 끝냈어요. 미안해요.》

《아이, 몽땅 말씀드려야지요. 아저씨 쓰신 책도 려아선생님이 출판해드리겠다고 하잖았어요.》

설화가 또 한번 간질거리는 소리로 말하자 려아는 쑥스럽게 얼굴을 붉혔다.

《고맙소. 난 이미전에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했소. 정말 반갑소.》

성민이 어색스러운 태도를 보이자 설화가 앙증스러운 소리를 했다.

《아이, 난 배고파 죽겠는데 왜 다들 이러고있어요.》

《아니, 식사전이냐?》

《그렇구말구요. 려아선생님은 배가 홀딱 달라붙었어요.》

《그럼 다시 합시다.》

해성이가 기다렸다는듯 창호가 들고있던 가방을 풀어헤쳤다.

그들이 소나무밑에 둘러앉았을 때 성민은 자기의 고정좌석인 너럭바위우에 올랐다.

비닐도판의 표지를 보다가 책의 앞머리와 뒤부분을 들췄다. 앞머리와 맨 뒤부분에 《백발》이라는 단어가 두세번 반복되여있는것을 보고 강한 주정이 담긴 그 마지막대목들을 읽었다. 설화의 담찬 기백과 절절한 심정이 뜨겁게 미쳐왔다.

—《모진 세월에도 살줄 알고 그 세월과 싸워이겨야 한다!》

모진 세월은 그만큼 집요한것이요 끝없는 고배와 좌절을 강요했다. 하여 체념과 허무도 있었다.

하지만 나의 님은 이겼다.

고운 맘, 고운 얼이 의지요 목표였기에.

그런데 세월은 그의 머리우에 월계관이 아니라 서글프게 얽힌 백발만을 얹어놓았으니 슬프게도 6.15의 열기는 음달의 차디찬 랭기에 부딪쳐 좌절과 방황의 악순환에 시달리고있고 《통일!》이라는 느낌표는 《언제일가?》하는 물음표로만 남아있다.

북송되지 못한 통일수, 그는 우리에게 있어서 력사가 아파하는 통일의 과제이고 미래이며 통일의 믿음이기도 하다.

하여 그는 무성한 봄의 훈향이 떨치기를 바래 더더욱 젊어지시겠단다. 아, 이러한 통일수가 어찌 그이 하나뿐이며 분렬의 년륜속에 태질하는이들이 어찌 8.15세대뿐이겠는가.

사람들이여, 모진 세월의 횡포속에 분렬의 고통을 떠메온 그들의 백발이 울음으로 되지 않게 하라.

사랑하는 우리의 주인공이 자랑스럽게 백발을 날리며 모란봉의 그 중매버드나무앞에서 사랑하는 안해와 뜨겁게, 뜨겁게 포옹하게!—

이번에는 에돌음길이 아니라 곧추 질러 산을 내렸다.

해는 서켠으로 얌전스레 내려앉으며 붉은 채운으로 산장을 휘감는다. 그뒤에는 부드러운 어둠속에서 잠시 숨을 돌릴것이고 또 다음날엔 더 밝고 따뜻한 빛을 뿌리며 조락의 산발을 황금색으로 빛내일것이다.

《아버님, 조심해요.》

《아니, 너희들이나 조심해라.》

성민은 이렇듯 큰소리는 쳤으나 설화의 손만은 꼭 잡았다. 어릴적 경자의 손같기도 하고 순정의 따뜻하고 여무진 손같은…

세월의 풍우를 이겨온 꿋꿋한 로송들과 애어린 잔솔들이 주—욱 벌려서며 그를 반기는듯 하고 따르는것 같기도 하다.

구새먹은 나무에서 산새 한마리가 《갸, 가.》소리를 내며 하늘높이 날아올랐다.

우뚝 걸음을 멈춘 성민은 까만 점으로 변하는 그 새가 장미빛구름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지켜서있다가 다시 발길을 뗐다.

입가에 한줄기 애틋한 웃음을 머금으며.

장편소설 **세월에 지지 말아**(증보판)

저 자	**안 동 춘**
편 집	**김 원 선**
표지, 삽화	**김 광 석**
편 성	**리 설 희**
교 정	**김 경 희**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 2
인 쇄 주체100(2011)년 4월 1일
발 행 주체100(2011)년 4월 5일

ㄱ-16018 값190원

D P R Korea
ISBN 978-9946-22-386-5